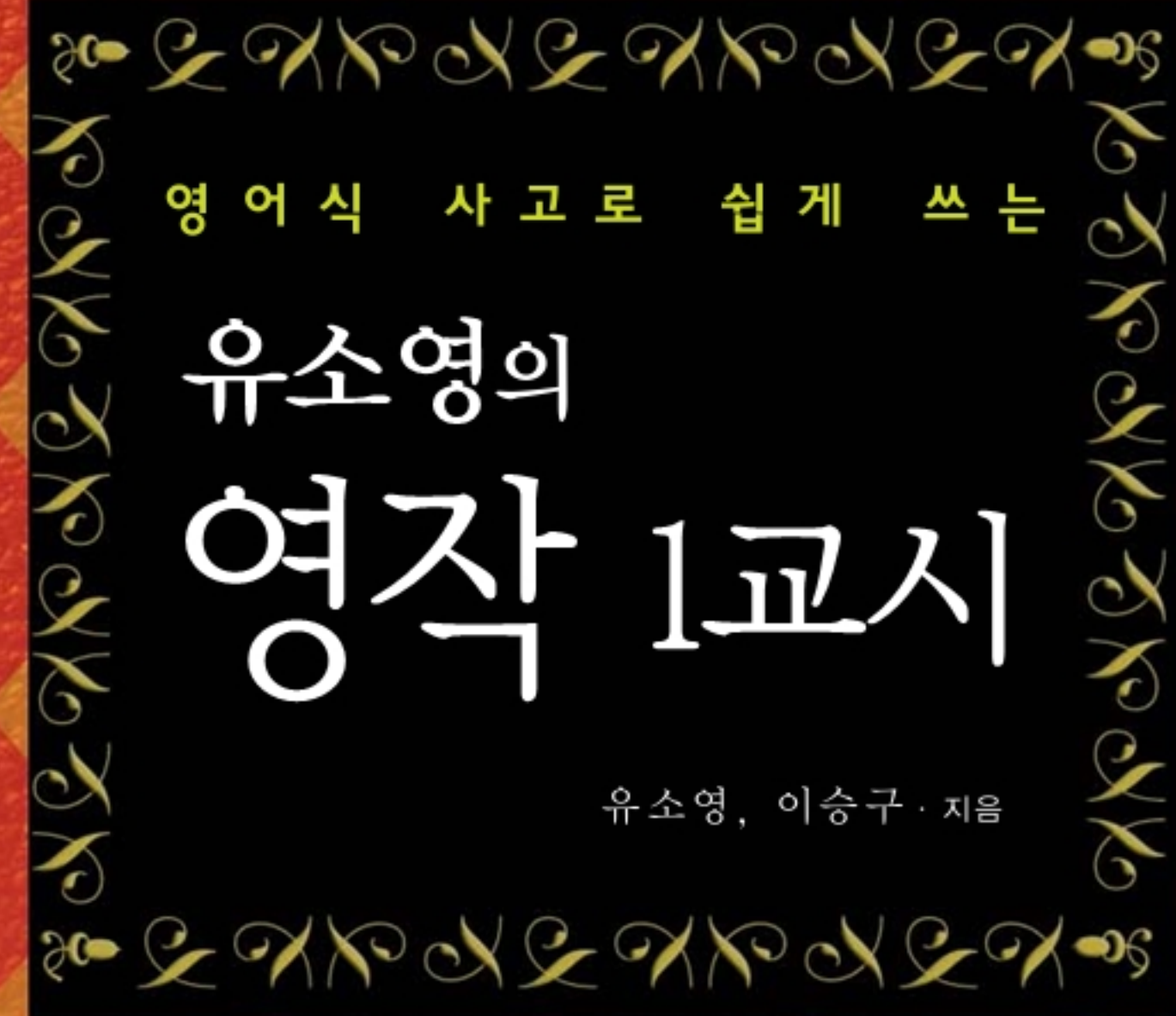


The English Writing Bible





영어식 사고로 쉽게 쓰는

유소영의

영작 1교시



영어식 사고로 쉽게 쓰는

## 유소영의 영작 1교시

초판 1쇄 찍음 2006년 1월 20일

초판 1쇄 펴냄 2006년 1월 25일

지은이 유소영, 이승구

펴낸곳 도서출판 이비컴

펴낸이 강기원

기획 이병일

편집 NOUS

마케팅 김동중, 이은미

주소 130-811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97-1 302호

대표전화 (02) 2254-0658

팩스 (02) 2254-0634

전자우편 help@bookbee.co.kr

등록번호 제 6-0596호

등록일자 2002.4.9

ISBN 89-89484-62-6 13740

웹사이트 <http://www.bookbee.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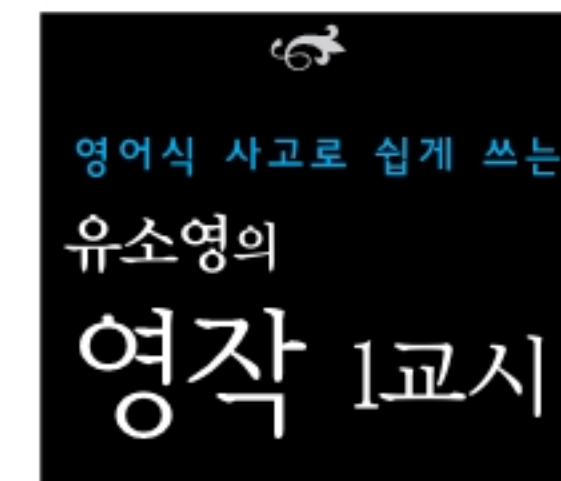
© 유소영, 이승구 2006

값 12,000원

파본이나 잘못 인쇄된 책은 구입하신 서점에서 교환해 드립니다.

저자와의 협의하에 인지는 생략합니다.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은 e-CIP홈페이지(<http://www.nl.go.kr/cip.phd>)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IP제어번호: CIP2005002832)



유소영, 이승구 · 지음



# 이 책으로 공부하는 분들께

이렇게 책을 통해 독자분들을 뵙게 되니 정말 반갑습니다. 본 책은 Daum 카페 '유소영의 영작기술'에서 출간하는 두 번째 책으로서, 영작을 주제로 회원들과 공유해 온 다양한 이야기들을 요약한 것입니다. 여기에 카페 내에서 진행중인 온라인 강의 수강생들의 많은 의견과 그들의 실수를 정리하여 '유소영의 영작 1교시'라는 제목으로 활자화하게 되었습니다.

책을 쓰면서 가장 염두에 두었던 것은 어떻게 하면 영작이라는 것을 쉽게 이해시킬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사실 영작은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영작을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기도 합니다. 어학연수를 가면 최상위 Level 학습은 거의 essay(영작)과 presentation(발표)입니다. 기초적인 문법, 회화 과정을 마스터 한 학생들에게 마지막 단계로 교육하는 것이 바로 Essay인데 기초가 튼튼하지 않고서 그것을 쉽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초보도 영작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이메일을 써야 하고 영작숙제도 해야 합니다. 다급히 영작을 해야 하는데, 문법책을 다시 보고 표현과 단어를 뒤적이는 것은 당장 큰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그러게, 평소에 영어공부 좀 하지~'라는 주변의 충고가 원망스럽게 되지요.

그러나 아무리 영어 기초가 없다 하더라도 중·고등학교를 거치며 수년간 영어를 공부해 왔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초보에게도 내공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작은 내공을 가지고도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어에는 100점도 없지만 빵점도 없습니다. 영어의 내공이 작아도 어느 정도는 누구나 영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F o r e w o r d



'어느 정도의 영작'은 영작 테크닉을 깨달을수록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 책에서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초보들에게 영작의 테크닉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공 기르기에 있습니다. 밑천이 있어야 영작을 하기 때문에 영문법과 표현은 틈틈이 공부를 해두어야 합니다. 특히 문법은 영작의 중요한 뼈대 역할을 합니다.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정리된 문법을 꾸준히 익혀야 합니다. 적어도 2년에 한번 씩은 문법 책 한 권을 죽 훑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영어 내공을 채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책에서는 가급적 영작의 관점에서 문법을 다루도록 하였습니다. 영작의 관점에서 문법을 봐야 글이 제대로 써지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 책의 난이도는 토익점수가 600~800점대인 분들에게 적합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책의 모든 내용이 고르게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며, 책 구성의 처음부터 차례대로 보셔야 후반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로 갈수록 예문과 숙제의 난이도가 올라가는데 그렇다고 하여 초반부보다 후반부가 더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끝으로 이 책이 출간 될 수 있도록 애써 준 이비톡 분들, 저희를 카페 내에서 발굴해내 멋지게 등단시켜주신 이병일 실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영작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모인 다음카페 '유소영의 영작기술' 회원님들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이 책을 새 생명 이서현에게 바칩니다.

유소영, 이승구

2005년 12월 30일



# 이 책의 구성과 학습법

## 책으로 공부 할 때

이 책은 5개 Part와 20개의 Unit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력에 따라 한 Unit씩 공부하거나 초보는 이를 정도에 한 Unit을 정복해 나가는 것이 적당합니다.



- 1 배워야 할 Unit의 제목입니다.
- 2 베타테스터 한마디 : 먼저 익혀본 베타테스터의 소감입니다.
- 3 Real Q&A : Daum 카페 '유소영의 영작기술' 에서 강의 중에 회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4 Key Point : Unit별로 배운 내용을 총정리한 핵심 요약입니다.
- 5 참고하세요 : 내용 보충 설명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추가설명입니다.



- 6 영작연습 : Unit별로 마치고 혼자 풀어보는 연습문제입니다.
- 7 괜찮은 답, 어색한 답 : 원어민 선생님이 첨삭지도 해준 <괜찮은 답>과 <어색한 답>의 해설 내용입니다.

## Daum 카페 '유소영의 영작기술' 에서 온라인으로 첨삭지도를 받을 때

Daum 카페(<http://cafe.daum.net/bostonediting>)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20일 프로젝트 네이티브 첨삭지도>를 신청하세요. 그리고 자신의 작성한 실전영작 문제를 올립니다. 네이티브 선생님이 첨삭해준 내용을 보고 자신이 직접 해본 영작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합니다.

Daum 카페 '유소영의 영작기술' 은 '영작 완전 정복' 을 목표로 2003년 8월에 출발하였습니다. '영어' 와 관련한 카페들은 많이 있지만 정작 '영작' 을 깊이 다루고자 하는 공간은 쉽게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유소영의 영작기술' 은 초보들도 쉽게 영작에 도전할 수 있도록 자세하고 재미있는 '영작 콘텐츠' 를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카페를 통해 제공한 강의록은 회원들의 성원에 힘입어 2005년 3월 '유소영의 영작기술' 이라는 영작 입문서로 출판되었으며 보다 알찬 카페 내 콘텐츠가 책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영작 콘텐츠 개발과 관련정보의 활발한 교류, 커뮤니티 구축 등을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Daum 카페(<http://cafe.daum.net/bostonediting>)

## 원어민 첨삭 영작지도 서비스 안내

카페에서는 미국의 보스턴에디팅(Boston Editing)과 함께 '원어민 첨삭 영작 지도 서비스' (유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페 회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원어민 첨삭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할인 혜택을 드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원어민 첨삭교실의 자세한 내용은 <http://cafe.daum.net/bostonediting> 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독자 애프터서비스 안내

카페에 접속하시면 본 '유소영의 영작 1교시' 의 독자 참여 코너가 있습니다. 책으로 공부하시면서 궁금했던 것, 물어보고 싶은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글을 남겨 주세요. 성심성의껏 답해 드리겠습니다.

## 서비스 원고 안내

책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이야기는 서비스 원고를 통해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카페 내에 서비스 원고 코너를 자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 차례

이 책으로 공부하는 분들께 004

이 책의 구성과 학습법 006

## Part 1 문장 시작하기

### Unit 01 명사에서 헤매지 않으면 영작에 자신이 생긴다 016

– 명사에서 실수하면 읽는 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 명사에서 틀리지 않는 방법을 소개한다.

1. 명사, 오직 셀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 016
2. 명사를 셀 수 없을 때 017
3. 셀 수 없는 명사도 특별할 때에는 센다 020

● 영작연습 024

### Unit 02 한정사와 명사 짝짓기 028

– 문법책에서 늘 헷갈리게만 배웠던 한정사. 영작에서는 이것만 주의하면 된다.

1. 한정사 이야기 029
2. 한정사 제대로 보기 029
3. 관사 a와 the 제대로 쓰기 032
4. 복수형의 명사 037

● 영작연습 039

### Unit 03 복잡한 영작을 쉽게 풀어주는 관계사 044

– 관계사를 영작에 적용하면 간결한 문장이 된다.

1. [주어+술어]로 수식하는 것은 절, 그렇지 않은 것은 구 045
2. 간단한 수식, 복잡한 수식 045
3. 관계사 who/which/that 046
4. [관계대명사+be동사]를 생략하면 형용사처럼 쓸 수도 있다 048
5. 관계사를 변형하면 전치사구처럼 쓸 수도 있다 049

6. 관계대명사 소유격은 그냥 whose를 쓰자 050

7. What 연구하기 051

8. 관계부사 when/where/why/how 053

● 영작연습 056

### Unit 04 수식해? 아니면 서술해? 062

– 수식과 서술의 차이를 알면 형용사 처리 잘 할 수 있다.

1. 분사구문도 사실 관계사 용법이다 062
2. 분사가 형용사로 쓰이는 예 064
3. 놀라운 사람들과 놀란 사람들 065
4. 명사 수식의 달인, 형용사 065
5. 복잡한 우리말 형용사로 간단히 영작하기 066
6. 수식과 서술의 차이 067

● 영작연습 072

### Unit 05 영어는 명사어구가 발달되어 있다 078

– 우리말은 동사중심의 언어이지만 영어는 명사중심의 언어이다.

1. 영어는 명사어구가 잘 발달되어 있다 078
2. 명사어구 영어식으로 생각하기 079
3. 사람을 영작할 때도 명사 중심으로! 081
4. 명사 중심의 표현은 곧 한정적인 표현이다 083

● 영작연습 086

### Unit 06 네이티브는 대명사를 이렇게 활용한다 090

– 주어 없는 문장, 우리말과 쓰임이 다른 대명사(it, another, the other, thing 등) 활용하기

1. 영어의 대명사(I, we, you, he, she, they 등)는 포괄적으로 사용될 때가 많다 090
2. 거시기 it과 문장 속의 특정한 뜻을 받는 it 093
3. it과 one 비교하기 096
4. another과 the other 096
5. 또다른 거시기 thing 098
6. no one, nothing 적용해서 영작하기 099

● 영작연습 102



## Part 2 문장 풀어내기

## Unit 07 영작 고수는 기본동사를 잘 쓴다 1 - Get 110

- 소유와 상태변화, 두 가지 핵심개념만 알면 초보 탈출

1. get 동사의 기본 감각 기르기 111
  2. [ A ] GET : 손에 넣는 것 111
  3. [ B ] GET : 상태변화 113
  4. [A] 손에 넣는 것, [B] 상태변화, 어떤 것을 사용해서 영작할까? 115
- 영작연습 117

## Unit 08 영작 고수는 기본동사를 잘 쓴다 2 - Make 122

- 결과물을 연상할 수 있는 것은 make로 표현한다.

1. make동사의 기본 감각 기르기 122
  2. 뭘든지 만들어 내는 make 123
  3. 목적어의 상태를 만들어내는 make 124
  4. 목적어를 움직이게 만드는 make 126
- 영작연습 191

## Unit 09 영작 고수는 기본동사를 잘 쓴다 3 - Have 134

- 소유중심의 영어, Have로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다.

1. have는 소유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134
  2. have와 친해지자 135
  3. 영어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도 소유를 한다 137
  4. have에는 시키다의 뜻이 있다 138
- 영작연습 140

## Unit 10 영작 고수는 기본동사를 잘 쓴다 4 - Give, Take 144

- Give는 '누구'와 '무엇'을 잘 따져 표현해야 한다.

1. GIVE 동사의 기본 감각 기르기 144
  2. TAKE 동사의 기본 감각 기르기 146
- 영작연습 150

## Unit 11 기본동사와 명사어구 짝짓기 156

- 서술어가 잘 발달된 우리말, 네이티브가 좋아하는 '명사중심' 표현으로 바꾸기

1. 영어는 명사구가 잘 발달되어 있다 156
  2. 서술적 표현보다는 한정적 표현이 잘 어울리는 영어 157
  3. 명사어구와 기본동사의 다양한 활용의 예 158
  4. [명사어구 + 기본동사] 영작의 장점 159
  5. 네이티브 흉내 내기 161
- 영작연습 164

## Part 3 문장 매끄럽게 하기

## Unit 12 논리력 없이 영작 절대 못한다 172

- 문장의 5형식 필요 없다. 논리력만 있으면 영작이 가능하다.

1. 문장 구조 법칙 1 전체 주어와 전체 서술어 찾기 172
  2. 문장구조 법칙 2 영어답게 배열하기 173
- 영작연습 177

## Unit 13 우리말 동사 그대로 영작하지 마라 180

- 영어와 동사의 쓰임이 다른 우리말, 영어식으로 변형하기

1. 주동사와 보조동사를 찾아라. 그리고 보조동사를 변형해보라! 180
  2. to부정사와 동명사 중 어떤 것을 선택할까? 181
  3. to부정사로 보조동사 만들기 182
  4. 동명사로 보조동사 만들기 188
  5. 보조동사로 영작에 자신 없을 때 보조동사 대신 명사로 영작하는 법 190
  6. to부정사와 동명사를 가리지 않는 동사 191
- 영작연습 194

## Unit 14 시제 이야기 200

- 법칙도 많고 예외도 많은 헷갈리는 시제 제대로 배우기

1. 현재형과 현재진행형의 차이 200

2. 현재형으로 미래를 말할 수 있다 1 201
3. 현재형으로 미래를 말할 수 있다 2 202
4. 진행형이 미래를 말하는 경우(확실한 사실) 203
5. 시제는 상대적이다. 203
- 영작연습 206

### Unit 15 가정법에서 헤매는 초보에게 210

– 가정문과 조건문의 차이와 시제가 바뀌는 가정법 영작 쉽게 배우기

1. 가정문과 조건문은 다르다 210
2. 가정법은 시제를 하나씩 앞당겨 쓴다 212
3. 가정법 응용하기 214
- 영작연습 219

### Unit 16 전치사 개념 바로 알기 226

– 영어의 나침반, 전치사를 이용하여 영작하기

1. for 226
2. at 227
3. by 228
4. on 229
5. of 231
6. in 232
- 영작연습 235

### Unit 17 전치사, 영작에 활용하기 238

– 길게 풀어 쓸 문장 전치사 하나로 해결하기

1. 우리말 서술 표현을 짚은 전치사 하나로! 238
2. 전치사 with는 특별한 무엇이 있다 243
3. 전치사가 동사를 대체하는 경우 245
- 영작연습 247

### Unit 18 사물 주어를 잘 써야 영작이 잘 된다 252

– 우리말보다 훨씬 관대하게 격을 부여하는 영어 사물 중심의 영어식 문장에 익숙해지기

1. 사물이 목적어를 갖는다 253
2. 이러한 영작은 어떻게 할까?(사물을 주어로!) 253
3. 사물의 의인화 257
- 영작연습 259

## Part 4 실전 영작의 노하우

### Unit 19 영작은 문법보다 어법이 중요하다 266

– 숨어있는 주어와 목적어 찾기, 문맥의 앞뒤 사정 따져보기

1. 주어를 잘 챙기는 것이 영작의 시작이다 266
2. 목적어도 잘 숨는다 267
3. 앞뒤 사정을 명확히 밝히자 269
- 영작연습 272

### Unit 20 우리말을 잘 따져보면 영작의 실마리가 보인다 274

– 쉬운 영작 표현을 위한 우리말 원문 변형하기

1. 절대로 우리말 그대로 영어로 옮기지 마라! 274
2. 원문을 쉽게 풀어 놓고 영작하라 275
- 영작연습 279

## 부록 영작 1교시 비밀과외

- 부록 1 문장에 생동감을 주는 고급영작 286
- 부록 2 구글(Google.com)로 나만의 검색 지도 선생님 만들기 290
- 부록 3 네이티브가 콕 찝어준 영작 오류 25 293



영어식 사고로 쉽게 쓰는  
유소영의 영작 1교시



**Unit 01** 명사에서 헤매지 않으면 영작에 자신이 생긴다

**Unit 02** 한정사와 명사 짝짓기

**Unit 03** 복잡한 영작을 쉽게 풀어주는 관계사

**Unit 04** 수식해? 아니면 서술해?

**Unit 05** 영어는 명사어구가 발달되어 있다

**Unit 06** 네이티브는 대명사를 이렇게 활용한다

## 문장 시작하기

어느 나라 말이든 글에는 모두 주어부분과 술어부분이 있습니다.  
주어+술어의 형태는 작문의 기본이 되는 것으로 이는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파트인 문장 시작하기에서는 주어부분을 다룹니다.  
대부분의 글이 주어로 시작하기 때문에 주어부분  
영작에 자신이 있으면 글쓰기를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문장의 처음에 나오는 명사, 대명사, 관사, 한정사, 형용사 등의 쓰임에  
자신감이 있어야 영작의 실마리를 풀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어부분을 쉽게 만들어 낼 수 있다면 영작은 이미 절반을 해결한 것과 같습니다.

# 명사에서 헤매지 않으면 영작에 자신이 생긴다



이 책을 먼저 공부한 베타테스터 한마디

내용이 전혀 딱딱하지 않고 대화형식으로 쉽게 설명이 되어있다. Unit1에서는 다른 책에서 볼 수 없었던 '명사의 섹'에 대한 것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평소에 토익공부를 하다보면 부정관사의 쓰임 유무에 상당히 골치가 아팠지만 이 단원에서 많은 예문을 통하여 명사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어 좋았다.

**명사 없는 문장은 없다.** 가정법에 자신이 없는 초보는 가정법을 쓰지 않고 영작을 할 수 있지만 명사에 자신이 없다고 해서 명사 없이 영작 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피해 갈 수 없는 명사! 피할 생각 하지 말고 조금만 신경 쓰세요. 명사 용법만 잘 알아도 영작하는데 자신감이 생깁니다.

## 1. 명사, 오직 셀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

명사를 영작할 때 가장 잘 틀리는 부분은 복수형으로 써야 하는지 단수형으로 써야 하는지, 관사가 붙는지 아닌지입니다. 명사 없는 문장은 없기 때문에 명사에 자신이 없으면 써 놓고도 맞는지 틀리는지 매 문장마다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문법책에서 명사를 보통, 추상, 물질, 집합, 고유 등 5가지로 분류하여 굉장히 중요한 구분인양 말하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분류는 셀 수 있는 명사인가 아닌가를 밝혀주기 위함이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셀 수 있는 명사라면 a를 붙여서 한 개임을 밝혀주고, s를 붙여 여러 개임을 알려줘야 합니다. 반면 셀 수 없다면 a나 s를 붙이지 않습니다.

'Knowledge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상명사다. 따라서 셀수 없다' 영어는 이런 식으로 수학공식처럼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She has a deep knowledge of history' 처럼 추상명사라고 알고 있던 knowledge가 보통명사처럼 관사 a가 붙는 예외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명사는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쓰일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평소에 꾸준히 공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꾸준히 공부하세요' 라고 말해 놓으니 죄송한 생각도 듭니다. 되도록 일반화 해서 안내를 해드려야 공부하기 편할텐데 말이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명사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명사는 평소에 꾸준히 공부해야지, 몇 가지 분류를 외워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이제부터 배울 명사는 어디까지나 영어를 쓰는 사람의 머리 속의 명사입니다. 우리는 '소식이 하나 있다' 이런식으로 말하지만 네이티브는 소식은 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어를 배우는 이상 최대한 네이티브의 시각에서 명사 보는 법을 흉내 내야 합니다.

## 2. 명사를 셀 수 없을 때

명사를 셀 수 없다는 것이 영작 할 때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먼저 생각해 봅시다. 셀 수 없으니까 복수형을 쓰면 안되고, 습관처럼 붙이기 쉬운 a도 같이 쓰면 안됩니다. 복수형을 쓰는 실수는 별로 하지 않지만 생각 없이 a를 붙이는 분들이 무척 많습니다. 어떤 초보분은 명사에 a나 the를 붙여야 그럴 듯 해 보인다고 하는데, a는 '하나' 라고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셀 수 없는 명사는 '하나' 라고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떤 명사들을 셀 수 있을까요?

### 2-1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세지 않는다

experience(경험), success(성공), education(교육), kindness(친절), youth(젊음), knowledge(지식), beauty(미), advice(충고), happiness(행복), luck(행운) 등등

이러한 단어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형태를 머리 속에 떠올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 옛날 언어가 처음 발달될 무렵, 원시인 또는 초기 문명인들은 우리보다 사고가 훨씬 간단했을 것입니다. 그들 입장에선 뭔가 보여야 세지, 보이지 않는 것은 세기가 힘들었겠죠.

그녀는 미모와 재능으로 할리우드를 유혹했다.

She enticed Hollywood with her beauty and talent.

너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지 뭐.

Your success means my success.



교육의 기능은 정신을 계발하는 것이다.

The function of **education** is to develop the mind.

내 법률 지식은 보잘 것 없다.

My **knowledge** of law is very limited.

### 2-2 세는 것 자체가 불가능 한 것들이 있다

oil(기름, 원유), water(물), silk(비단), glass(유리), iron(쇠), paper(종이), stone(석재)

glass, iron, paper 등이 공장에서 만들어 질 때를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자르기 전에는 하나의 큰 덩어리 입니다. 유리덩어리, 쇳물덩어리, 엄청 넓은 종이 이런식으로 형태가 무한한 물질이지요. 이러한 것들은 세지 못합니다. 유리는 아무리 깨도 유리이고 종이는 아무리 찢어도 종이인데 어찌 셀 수 있겠습니까? 단지 우리가 셀 수 있도록 단위화 해서 부를 뿐이지요. '장' 이란 단위를 붙여 유리 2장이라고 하지 유리 2개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stone 석재(石材)도 마찬가지 입니다. 자동차만한 석재를 깨서 주먹만 하게 만들어도 석재는 석재입니다. 우리말에선 자동차 만한 석재는 바위라고 하고 주먹만한 석재는 돌맹이라고 해서 셀 수 있다고 여기는데, 네이티브의 생각은 다릅니다.

일본은 730만 배럴의 원유를 방출할 것이다.

Japan will release about 7.3 million barrels of **oil**.

이 카드는 재활용 용지에 인쇄했습니다.

This card is printed on recycled **paper**.

이 인조직물은 비단의 질감이 있습니다.

This artificial **fabric** has the texture of **silk**.

### 2-3 Collective 명사는 셀 수 없다

Collective Noun은 집합명사라고 하는데, 우리말에는 없는 개념이라서 참 헷갈립니다. collective를 집합이라고 하는 것 보단 **총괄**이라고 해석 하는 편이 이해가 빠릅니다. 우리말에선 가구를 세조? 방에 의자, 책상, 탁자가 놓여 있으면, '가구가 달랑 3개네' 라고 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는 그렇지 않아요. 의자, 책상, 탁자가 각각의 가구가 아니라고 합니다. 네이티

브는 의자, 책상, 탁자를 한꺼번에 **총괄**하는 것이 **가구**라고 생각합니다. 즉, 영어의 furniture는 우리에게 주거의 편의를 주고 있는 목재 item들을 총괄해서 부르는 말입니다.

가구를 혼자서 가까스로 옮겨 놓았다

I had a hard time arranging the **furniture** alone. (furnitures가 아닙니다)

이번 화재에 건진 가구가 별로 없다.

Very little of the **furniture** was saved in the recent fire.

:: furniture를 셀 수 없기 때문에 few를 쓸 수 없고 little을 씁니다.

furniture의 총괄개념을 이해 했으면 clothing(옷가지), product(생산물), garbage(쓰레기), luggage(영국식 수화물), baggage(미국식 수화물), machinery(기계류), mail(우편물) 등도 이해 할 수 있습니다. collective noun에서 collective와 같은 어원으로 collection이 있는데, 디자이너가 컬렉션을 열었다란 말 들어 보셨죠? 디자이너들은 자신이 만든 옷들을 전시도 하고 패션쇼도 하면서 컬렉션을 엽니다. 단 한벌의 옷으로 컬렉션을 열 수는 없습니다. 이렇듯 우리 몸에 걸치는 것들을 총괄한 개념이 clothing입니다.

적십자에서 피난민들에게 음식과 옷가지를 제공했다.

The Red Cross offered **food** and **clothing** to the refugees.

:: 적십자에서 옷을 한벌 만 준 것이 아닐텐데 clothings라고 하지 않고 clothing이라고 합니다. food도 셀 수 없네요.

중국인 남자 한 명이 수로에서 쓰레기를 퍼내고 있다.

A Chinese man shovels **garbage** from a water canal.



Q '난' 대구에 산다' I live in a Daegu city. 맞나요?

A 대구에 사시네요... 그런데 대구가 여럿인가요? 경상북도의 대구는 한 곳뿐이라서 셀 수 없습니다. 셀 수 없으므로 a를 붙이면 안됩니다.



### 3. 셀 수 없는 명사도 특별할 때에는 센다

지금부터 초보들이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 번 읽어서 감을 잡아야 합니다. 셀 수 없다고 배웠던 명사를 네이티브가 셀 때도 있는데, 셀 수 없는 걸 세니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알면 우리도 네이티브를 흉내 내서 글을 쓸 수 있습니다.

#### 3-1 셀 수 없는 명사가 수식을 받아 특정한 것이 되면 셀 수 있다

He has **many odd experiences**.

그는 이상한 경험들을 많이 했다.

:: experience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셀 수 없습니다. 하지만 odd가 붙어서 '이상한 경험' 이라고 수식시키면 셀 수 있습니다.

Your play was **a great success**.

당신의 연극은 대성공이었다

:: 그냥 성공이라면 success이지만 대성공이라고 수식이 하나 더 붙지요? 그래서 a great success입니다.

Scott received **a very strict education**.

스캇은 매우 엄한 교육을 받았다.

:: 그냥 교육이 아니라죠?

**A heavy snow** prevented me from coming back home.

폭설 때문에 나는 집에 돌아오지 못했다.

:: snow를 수식을 해서 특별함을 부여해 heavy snow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를 붙이는 대우를 해주었네요.

It's **a long rain**. 긴 비다.

This is **a delicious butter**. 이 버터는 맛있다.

#### 3-2 특정한 용도로 쓰였을 때 셀 수 있다

우리는 앞에서 세는 것 자체가 불가능 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리를 가공해서 특정한 용도로 만들면 셀 수 있습니다. 바로 물컵이 그 예가 되겠네요. iron도 irons라고 하면 특정한 용도인 다리미를 의미합니다.

He has **a glass** in his hand. 그는 손에 유리잔을 가지고 있다.

There was **a fire** last night. 지난밤에 화재가 있었다.

May I trouble you for **a light**? 담뭇불 좀 빌릴까요?

#### 3-3 특정한 상황에 쓰였을 때 셀 수 있다

He threw **stones** at the dog. 그는 개에게 돌을 던졌다.

stone도 유리와 같은 부류입니다. 우리는 그냥 돌맹이 하나, 돌맹이 둘 이렇게 세지만 네이티브의 머리 속에 있는 stone은 oil, paper처럼 뭉뚱그려져 셀 수 없는 석재(石材)를 뜻합니다. 집채 만한 stone도 있고 모래 알갱이 만한 stone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석재도 개한테 던지기 위해 집어 들면 셀 수 있다고 봅니다. 개한테 던질 만한 돌은 머리 속에 쉽게 그려지는 돌입니다. 별로 크지 않겠죠? 적당히 잡히는 그런 돌입니다. 이렇게 특정한 상황에 쓰이면 돌도 셀 수 있습니다.

How **many tea** do you want?

차 몇 잔 원하세요?

웨이터가 tea 앞에 many를 붙여서 말하네요. tea는 셀 수 없는 명사잖아요. (액체를 어떻게 셉니까) 그런데 커피숍에서 tea를 말할 때는 누구나 그 tea는 주문용 tea라는 것을 압니다. 따라서 셀 수 있는 것이지요. '설탕 몇 스푼 할래요?' 처럼 셀 수 없는 설탕은 스푼을 써서 세어야 하지만 '설탕 몇 개 할래요?' 라고 말해도 다들 이해합니다. 언어는 사람이 하는 것이므로, 인지상정 뜻만 통하면 굳이 따지진 않습니다.

I tasted **several chocolates**.

나는 몇 개의 초콜릿을 먹었다.

:: 세는 것을 보니 초콜릿 제품이겠네요.

이상의 이유뿐 아니라 셀 수 없는 명사를 세는 경우는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당연히 일일이 외울 수 없기 때문에 그 문맥과 상황을 보고 판단해 감을 잡아야 합니다.

한가지 더, 명사에 대한 감각이 물씬 오르면, 반대의 상황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셀 수 없는 명사를 세고 있다면 그 명사는 특별한 명사입니다. 수식을 받고 있거나, 특정한 용도로 쓰이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죠. 이는 독해할 때도 유용한 방법입니다.





**Q** 셀 수 없는 명사는 동사의 기본형을 쓰면 되나요?

**A** 앗~ 아닙니다. 셀 수 없는 명사는 3인칭 단수로 취급을 해요.

This olive oil has~ (o), This olive oil have~ (x)

의외로 많은 분들이 셀 수 없는 명사에 기본형 동사를 쓰는 실수를 합니다. 명심하세요. 셀 수 없는 명사는 3인칭 단수로 취급합니다~!

## 결론,

문법학자들이 명사의 종류를 물질명사, 고유명사, 보통명사, 추상명사, 집합명사 등으로 나눈 이유는 뭘까요? 학자적 기질에 충실해 명사를 성격에 따라 분류한 것이 아닙니다. 각각의 명사가 셀 수 있느냐 없느냐, 즉 a나 -s를 붙일 수 있느냐 없느냐를 알려주기 위해 분류해 놓은 것입니다. 반대로 해석하면 a나 -s를 붙일 수 있느냐 없느냐 구분 할 줄만 알면 물질인지, 집합인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러한 그 배경을 깨닫지 못하고 명사의 종류만 외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명사에는 셀 수 있다란 말은 영작을 배우는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셀 수 있네 없네를 집요하게 따지는 이유는 명사와 어울리는 갖가지 수식들이 까탈스럽기 때문입니다. 명사와 어울리는 관사, 형용사 등은 명사의 수와 매우 연관이 많습니다. 많다는 many와 much를 봅시다. 셀 수 있는 명사에는 many가 따라다니지만 셀 수 없는 것엔 much가 따라다닙니다. 이러한 예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these happiness 같은 경우는 정말 말이 안되는거죠. 셀 수 없는 명사 happiness에 this의 복수형을 쓰다니요. 제가 운영하는 '유소영의 영작기술' 카페에서 침묵 지도를 봐주시는 네이티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작의 초보건 고수건간에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합니다. 명사, 셀 수있느냐 없느냐 충분히 따질만 합니다.



## KEY POINT

- 1 셀 수 없는 명사에는 a, -s를 붙이지 않는다.
- 2 셀 수 없는 명사가 수식을 받아 특정한 것이 되면 셀 수 있다.  
He has had many odd experiences.
- 3 특정한 용도로 쓰였을 때 셀 수 있다.  
He has a glass in his hand.
- 4 특정한 상황에 쓰이면 셀 수 있다.  
I tasted several chocolates.

## 참 고 하 세 요

### R | 셀 수 없는 명사는 어떻게 세나 |

문법책에서 명사편을 보면 꼭 나오는 것이 물질명사를 세는 단위명사입니다. 토익 등의 시험에서도 자주 나오죠. 물 2개는 nonsense이기 때문에 물 두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회화나 영작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물질명사가 상대방이 문맥 속에서 뻔히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명사처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어일기나 이메일을 쓸 때 특히 그렇습니다.

### 단위명사

Could you bring me two glasses of water? (물 두 잔)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a bottle of wine (술 한 병)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a loaf of bread (빵 한 덩어리)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a sheet of paper (종이 한 장)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a piece of chalk (분필 한 개)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two spoonfuls of sugar (설탕 두 스푼)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three pounds of beef (쇠고기 세 파운드)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a piece of furniture (가구 한 점)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two pieces of equipment (두 개의 장비)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a cup of coffee (커피 한 잔)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a cup of tea (차 한 잔)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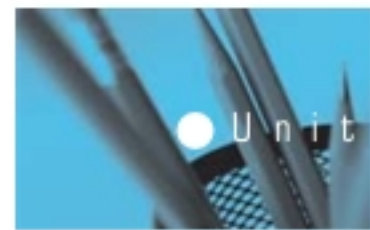
a glass of wine (와인 한 잔)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a glass of milk (우유 한 잔)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a glass of water (물 한 잔)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cup은 불투명한 용기, glass는 투명한 용기를 말합니다.





## Unit 01 영작연습

오늘은 간단히 자기소개를 영작해 보세요. 아직 영작에 대해 배운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소개를 한번 써보면 내가 어느 부분이 약한지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내가 왜 영작을 머리아프게 공부해야 하는지 이유도 알려줍니다.

아래는 카페 회원들이 올린 자기소개를 네이티브선생님께서 첨삭 지도 해주신 내용입니다. 어떠한 부분을 네이티브가 어색하다고 생각하는지 자세히 보세요. 비록 다른 분들의 첨삭 내용이지만 초보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오류이므로 참고할 만한 자료입니다. 참고로 색으로 체크된 부분이 교정된 부분입니다.

### Self introduction 1 중3년

Hello! I'm live in pohang. It is quite small.

→ Hello! I live in Pohang. It is quite small town.

I'm middle school student. And I'm 9th grader.(which is 3rd grader in Korea.)

→ I'm a middle school student (who is) in 9th grade.

I'm 17 years old, while my friends are 16 years old. It's little bit weird.

→ I'm 17 years old, while my friends are 16 years old. I find this a little bit weird.

Well, I'm not popular in school. Actually I'm normal kid. But I'm good at playing basketball.

→ Anyway, I'm not really popular in school. I'm just a normal kid. But I'm good at playing basketball.

It's good to be stick with my friends. It is everything that I want to introduce about myself.

→ It's good to be with friends of mine. This is everything that I want to introduce about myself.

중3 학생의 글 치고는 전반적으로 문법의 오류가 거의 없습니다. 다만 몇몇 표현이 콩글리쉬인데, 영어를 많이 접하면 이러한 문제점은 개선됩니다. 그리고 글의 전개가 단순하여 별 특징이 없어 보이는 단점이 있습니다.

### Self introduction 2 대학 3년

Hello Everyone. My name is OOO. I'm 27 years old in Korean way. and I'm junior and majoring in computer science.

→ Hello everyone! My name is OOO. I'm 27 years old in Korean age. I'm a junior who is majoring in computer science.

As you know, Korean men have to join the military. but some people, like me, could select another way that they work for the company.

→ As you know, Korean men have to join the military. But some people, like me, could select another way like working for certain companies.

Of cause, this kind of people had special licenses required the company.

→ Of course, these kinds of people have special licenses required by the company.

I got two licenses about IT, and had worked at game company for 4 years.

→ I got two licenses in IT, and I have worked at a game company for 4 years.

This season felt me I'm not good at company's work. And many people around me recommend study abroad.

→ This season, I felt I'm not good with my work for the company. Also, many people around me recommend studying abroad.

So I'm planning to go abroad after graduating from university.

→ This is why I'm planning to go abroad after graduating from the university.

To do this, I have to study english very hard. but I'm very poor in english.

→ To do this, I have to study English very hard, but I'm very poor in English.

Although I'm not good at english now, I believe I'm a fluent in english through this course. Thanks for you attention.

→ Although I'm not good at English now, I believe I can be fluent in English through this course.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대학 3학년 학생의 글입니다. 하고자 하는 말을 논리 정연하게 잘 풀어 내었습니다. 관사, 전치사 등에서 오류가 종종 있지만 네이티브들은 이 글을 통해 글쓰기가 될 전달하려고 하는지 알아 듣습니다.



## Self introduction 3

Hello~ I'm 26 years old(korean age) My family is 4 pepoles.(I Mom Daddy and yonger brother)

➔ Hello~ I'm 26 years old in Korean age. My family is **composed of 4 people: my mom, dad, my younger brother and I.**

Every sunday, We are go to the catholic church. And my position at the church is teach the child.

➔ Every **Sunday**, **we** go to a Catholic church. My position **in** the church is **teaching children.**

Fistime had teached, It's so happy for me. Because I can send to the messasy of The Load to child.

➔ **It was the first time I had taught, and I had felt so happy,** because I can send **the message of the Lord to children.**

But now, I became the student. In Every sunday class, I learned pure of child's mind.

➔ **In a way**, I **also** became the student, **because** in **every** Sunday class, I learn **of the purity** of a child's mind.

Now I have wrote shortly, But Someday I could wrote logger. Can u help me?

➔ Now, **I can only write a little, but** someday I **hope I could write a longer story.** Can u help me?

Sure. I hope we could help you improve your English...^^\*

● 신원미상의 글입니다. 전반적인 문법과 표현에 있어 잘못된 점이 꽤 있네요. 사실 이 글의 우리말 원문은 상당히 심플합니다. 간단할 지라도 웬만한 영어로 옮기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요.

## Self introduction 4

Hello?

➔ **Hello.**

My name is Hong gil dong. I'm 29 years old. My purpose of learning English is to move a better job.

➔ My name is **Gil-dong Hong.** I'm 29 years old. My purpose **for** learning English is **to** move to a better job.

Specially, I want to do well in the composition. so please help me.

➔ I **specially** want to do well in **writing**, so please help me.

It is my hobby that climb a mountain and have PC games. I like the sea more than a mountain.

➔ **My hobbies are to climb** a mountain and **play** PC games. I like the sea more than **the mountain.**

I have to go a mountain because the sea is faraway. My hope is to ride a bike in a frest. It's very exciting!

➔ I have to go **the** mountain because the sea is far away. My **dream** is to ride a bike in a frest. It's very exciting!

I live in Guri city that is in the east of Seoul. Guri city is very small but air is very refreshing.

➔ I live in Guri city, **which** is in the east of Seoul. Guri city is very small but **the** air is very refreshing.

Because it's close near Seoul, many people live in it. I like the City.

➔ Because it's close **to** Seoul, many people live in it. I like the City.

I'm always up and coming, and a social man. I want to keep good company. I don't live in cotton wool. Easy come, Easy go!

➔ I'm always up and coming, and a social man. I want to keep good company. I don't live in **a cocoon.** Easy come, Easy go!

I think of being the happy life that can obtain half the effort.

➔ I think of having **a** happy life that I can obtain **with** half the effort.

Have a nice day~

➔ Have a nice day~

● 30대 초반 직장인의 글입니다. 단어와 표현의 선택이 좋습니다. 전치사와 관사의 오류가 좀 있는데, 영어의 전치사, 관사는 한국인에게 가장 취약한 부분입니다. 관사는 다음 Unit에서 한번 더 다룰 예정이고 전치사는 Unit 17, 18에서 자세히 배웁니다.

# 한정사와 명사 짝짓기



이 책을 먼저 공부한 베타테스터 한마디

'He is my friend.' 라는 문장이 틀린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의 당황스러움이란! 이처럼 한정사는 이론적으로 알고 있다 해도, 실제 문장에서는 맞았는지 틀렸는지 알아내기가 매우 힘들다. 하지만 예문을 통한 자세한 설명으로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다.

**셀 수 있는 명사나 아니냐**를 자세하게 공부한 것은 이미 말했듯이 명사 없는 문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명사를 쓸 때마다 a/the, 단수/복수를 고민하면 정말 골치가 아프죠. 관사 역시 외운다고 모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대략의 개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앞서 명사편에서 셀 수 없는 명사들과 셀 수 없는 명사가 어떻게 셀 수 있게 되는지 공부했습니다. 관사를 공부할 때는 셀 수 있는 명사와 관사가 어떻게 짝지어 지는지를 관심 있게 기억해두어야 합니다.

저기 길 건너에 차가 있다고 칩시다. 우리말로는 '저기 차가 있네' 라고 '차' 만 달랑 말합니다. '우주엔 공기가 없어' 에서도 '공기' 만 달랑 말하죠. 즉 셀 수 있는 명사(차)와 없는 명사(공기)의 쓰임은 같습니다. 그런데 영어에서는 car만 달랑 말할 수 없습니다. car를 말할 땐 꼭 그 차가 한 대(a car)인지 여러 대(cars)인지 아니면 특정한 차(the car)인지 말해주어야 합니다. 영어에서는 명사를 말할 때 그까이꺼 대충이 통하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말을 해주어야 합니다. 즉, a car 인지인지 cars인지를 꼭 구분해야 하며 그냥 car라고만 한다면 틀린 말입니다.

지금 설명하는 부분은 쉬운 것 같지만 막상 영작을 할 때 흔히 범하는 실수들입니다. 영어는 반드시 영어식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셀 수 있는 명사는 세고(차가 단 한 대라 하더라도 '한 대' 라고 말합니다) 셀 수 없는 명사는 a를 붙여도 안되고, -s를 붙여도 안됩니다. 셀 수 없는 데 어떻게 하나나 여럿을 나타내는 a, -s를 같이 쓰겠습니까.

너 컴퓨터 있나?

Do you have **a** computer?

너 약속 있니?

Do you have **an** appointment?

:: 약속은 보이지 않는 개념이라서 셀 수 없을 것 같지만 네이티브들의 머리 속에서는 셀 수 있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영어가 어렵죠.

좋은 소식이 있어.

I have **a** good news.

:: 여기서 뉴스는 복수형이 아니라 한 단어입니다.

## 1. 한정사 이야기

사실 관사보다 더 먼저 공부해야 할 것이 한정사입니다. 한정사는 명사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들인데, many, much, few, little, my, her, some, any, this, that 등등 다들 한번씩 공부했을 단어들이입니다. 관사도 한정사에 속하며, **셀 수 있는 명사는 무조건 한정사와 같이 써야 합니다.** 한정사와 같이 쓰지 않으면 cars처럼 복수의 뜻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반면 셀 수 없는 명사는 한정사와 같이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관사도 생략이 가능합니다.

올리브유는 몸에 좋다.

Olive oil is good for your health.

:: 올리브유는 셀 수 없는 명사라서 한정사 없이 쓰였습니다. 만약 셀 수 있는 명사라면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자, 그럼 한정사를 한번 제대로 잡고 넘어갑시다.

## 2. 한정사 제대로 보기

한정사(限定詞)는 말 그대로 한정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my book' 은 글쓴이가 my를 씀으로써 여타 무수히 많은 책 중에서 '나의' 책이라고 의미를 한정해 주고 있습니다. 한정사는 관사와 몇몇 형용사들인데 모두 명사 앞에 위치해 명사를 꾸며 줍니다. 그런데 명사 앞에서 명사를 꾸며 주는 것은 엄청 많은데 왜 이들만 따로 모아서 한정사라는 이름을 붙였는지 궁금하지 않



나요? 일반 형용사도 명사를 한정해 줍니다. 일반 형용사 yellow가 yellow submarine으로 쓰여서 그냥 잠수함이 아니라 노란잠수함이라고 한정하지 않습니까? 한정사라고 이름을 따로 붙여 관리하는 이유는 여타 다른 형용사와 달리 특수하게 쓰이기 때문입니다. 특수하게 쓰인다는 것은 **한정사는 나열해서 쓰면 안된다**인데, 이것 때문에 초보들이 자주 실수를 범하기도 하고 머리가 아픕니다.

한정사의 종류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 한정사는 연달아서 쓸 수 없습니다.

관사: a, an, the

소유격: my, your, our, her, his ...

지시형용사: this, that, those ...

부정형용사: any, some, every ...

수량형용사: many, much, little, few ...

## 2-1 한정사 법칙: 한정사는 나열해서 쓰면 안된다

여러 번 강조한 바대로 한정사는 나열해서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쓰다 보면 한정사를 나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네이티브들은 아래처럼 변형을 해서 한정사 법칙을 준수합니다.

그는 나의 친구이다.

He is a my friend. (x) → He is a friend of mine. (o)

여긴 내 아들이야.

This is a my son. (x) → This is a son of mine. (o)

난 저기 네 차가 좋아.

I like that your car. (x) → I like your car over there. (o)

이건 나의 그림이다.

This is a my picture. (x) → This is a picture of mine. (o)

내 책 세 권

three my books. (x) → Three books of mine. (o)

첫 번째 예문을 볼까요? 한정사는 나열해서 쓰면 안되기 때문에 'He is a my friend' 는 틀린 표현입니다. a와 my가 friend를 나란히 같이 한정하고 있는데 이게 안 된다는 말입니다. 친구는 셀 수 있는 명사라서 a와 같이 써야 하고, 여기에 내 친구이니까 my를 쓰고 싶은데 a와 my를 같이 쓰면 안 된다니 답답하죠? 한정사는 나열해서 쓰면 안되기 때문에 네이티브는 소유대명사를 이용한 형태로 씁니다. 즉, 'He is a friend of mine' 이런 식으로 전치사 of와 소유대명사를 활용합니다. 이를 이중소유격이라고 문법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He is my friend' 이라고 해서 a를 빼면 어떨까요? 한정사를 나열할 수 없다면 a를 빼면 되지 않을까요? 'This is my wife' 는 됩니다. 그런데 'He is my friend' 는 안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인 명사에는 a를 붙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딱 하나 있는 고유한 것엔 a를 붙이지 않습니다.

This is an apple. (o)

이것은 사과입니다.

이 세상에 사과가 엄청 많은데 이것은 그 중 하나란 소립니다.

I live in a Korea. (X)

난 한국에 산다.

틀린 예문입니다. 한국은 유일한 명사입니다. 한국은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으므로 세지 않습니다. 앞의 사과는 이 세상에 많이 존재하니 셀 수 있는 것이고 그 중 하나가 an apple입니다. 한국과 같은 고유명사는 셀 수 없는게 아니라 세지 않는 것입니다. 단 하나밖에 없음을 모두 알고 있는데 뭐하러 썬니까?

wife 역시 세지 않습니다. Korea의 논리를 가지고 보면 wife는 내게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셀 필요가 없습니다. 'This is a my wife' 은 'This is one of my wife' 란 말이기 때문에 큰일 날 소리가 되죠. 따라서 my wife 앞에 a를 붙이면 안됩니다.

그런데 wife와 달리 친구는 여럿입니다. 친구가 딱 한 명은 아니기 때문에 'He is a friend of mine' 또는 'He is one of my friends' 라고 합니다. 즉, friend는 세상에서 단 하나인 고유의 명사가 아니라 일반적인 명사이기 때문에 a의 개념을 빼먹고 'He is my friend' 라고 하면 안됩니다. 그럼 'This is my car' 이건 어떨까요? 내 차가 한 대라면 말이 됩니다. 고유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차를 여러 대 가지고 있으면 'This is one of my cars' 또는 'This is a car of mine' 라고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중소유격과 관련해서 영작 할 때 가장 많이 틀리는 것은 위의 예처럼 관사와 소유격을 나열해서 쓰는 것과 유일한 대상인지 아닌지 구분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특히 연습을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 Daum 카페 '유소영의영작기술' Real Q & A?

- Q** 취미에 관련하여 영어일기를 쓰는데 '난 야구 경기를 좋아해'가 I love baseball. 인가요?  
I love a baseball. 인가요?
- A** 야구는 사람이 만들어낸 경기입니다. 규칙을 만들어 이렇게 하자고 약속한 것이지요. 가상의 느낌이 들지 않나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즐길 수 있지만 game이란 가상의 것입니다. 그래서 야구, 축구 등의 경기는 추상명사로 취급합니다. 추상명사는 셀 수 없으므로 a를 붙이면 안되죠.
- Q** 그럼 '난 기타 치는 것이 취미이다'는 My hobby is playing guitar 인가요?
- A** 그렇지 않습니다. 기타는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실체가 뚜렷한 것입니다. 피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My hobby is playing a guitar' 라고 해야 합니다.

## 3. 관사 a와 the 제대로 쓰기

a와 the를 헷갈리는 초보가 많은데, a와 the의 선택은 문법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맥 속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문맥 속에서 결정한다니 감이 잘 안오죠? 문맥과 관련되다보니 문법문제로 만들 수가 없어서 학교시험에는 잘 다루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험 영어에만 익숙한 초보들은 a와 the가 어렵습니다.

car처럼 셀 수 있는 명사는 a를 붙여 '저기 차가 있다' → '저기 차 한 대가 있다' 이런 식으로 영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a는 일반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a를 언제 붙이는지 공부하는 것보단 the를 써야 하는 경우를 공부하는 것이 관사의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the를 공략해 보겠습니다.

### 3-1 the를 쓰는 경우

앞서 한정사를 공부했었는데 the는 a보다 의미가 강한 한정사입니다. I like this shoes에서 this는 여타 다른 신발이 아닌 바로 이 신발이라고 하고 있는데 the는 this와 비슷한 한정의 기

능이 있습니다. 한정이라고 하니까 어렵게 들리는데 특정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편합니다.

### ● [A] 문맥 속에서 한정(특정)되는 경우

명사가 글의 문맥 속에서 한정되는 경우에 the를 씁니다. 좀 더 간단히 말하면, **글쓴이와 읽는이 모두 알고 있는 대상일 때** 입니다.

결프전 반대 데모가 한창일 때 'I hate the war'란 피켓을 들고 시위한다면 '난 결프전에 반대한다'는 말일겁니다. 결프전이 한창일 때의 the war는 말하는 이나 듣는 이 모두 결프전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종교지도자가 'I don't like a war'라고 한다면 여기서 a war는 특정한 전쟁이 아니라 일반적인 전쟁입니다.

너 차 샀니?

Did you buy a car?

:: 일반적인 차 입니다.

네가 갖고 싶었던 그 차 샀냐?

Did you buy the car which you wanted to have?

:: 글쓴이와 읽는이가 모두 알고 있는 차입니다.

우린 새 에어컨이 필요해.

We need a new air-conditioner.

:: 일반적인 에어컨이죠.

작년에 괜히 오래된 에어컨 버렸네.

I regret to throw away the old air-conditioner.

:: 글쓴이와 읽는이가 모두 알고 있는 에어컨입니다.

지금 설명한 the에 대한 개념은 영작 할 때 정말 중요합니다. 영작은 한 두 문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제를 놓고 길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명시한 대상은 the를 쓰지 않지만 두 번째부터는 the를 써주어야 합니다. 이미 한번 말했기 때문에 상대방도 알고 있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의 e-mail을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존, 나 오늘 차 샀어.

Hey John, I bought a **car**.

형한테서 샀지.

I bought the **car** from my brother.

차 값으로 1,000달러 줬단다.

I gave him \$1,000 for the **car**.

두 번째 문장에서 나오는 **car**는 첫 번째 문장의 **car**에 의해 상대방도 알게 된 **car**입니다. 따라서 the를 붙였습니다.

근데 넌 차 있냐?

By the way, do you have a **car**?

없으면, 꼭 한국차로 사.

If not, please buy a Korean **car**.

바로 위 2개의 문장에 나오는 car는 특정한 car가 아니라 일반적인 car이죠? 앞서 설명했던 car와는 다른 car입니다.

보다 확실한 방법은 영작할 때 차 앞에 '그'를 붙일 수 있는지 문맥상에서 파악하는 것입니다.

나 오늘 (차/그 차) 샀어?

형한테서 (그 차/차)를 샀지.

(그 차/차) 값으로 1,000달러 줬단다.

근데 넌 (차/그 차) 있냐?

없으면 꼭 (한국차/그 한국차)로 사.

a와 the를 어떻게 구분해서 쓰는지 좀 감이 잡히세요? 나도 알고, 상대방도 알고...

## ● [B] 수식어구에 의해 한정(특정)되는 경우

명사가 수식어구에 의해 한정될 때가 있습니다.

서울은 한국의 수도이다.

Seoul is the capital **of Korea**.

:: of Korea에 의해 수식을 받아 한정되었습니다. 전세계에는 많은 capital이 있는데 한국의 (of Korea) capital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the를 씁니다.

그녀는 그의 외동딸이야.

She is the **only** daughter of him.

:: only에 의해 한정되었습니다. 딸이 2명 이상 있으면, She is one of his daughter.

이 경기는 이번 시즌의 첫 번째 경기입니다.

This is the **first** game of this season.

:: first, second, third 같은 서수에 의해 한정 되었죠? 첫 번째, 두 번째와 같은 서수는 항상 the를 붙여야 합니다. 몇 번째라고 말할 수 있는 대상은 고유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차네!

It's the **same** car!

:: 그냥 일반적인 car가 아니라 same 이란 형용사의 수식을 받아 한정된 car가 되었습니다.

It's a **car**. (일반적인 차)

It's the **car**. (상대방도 알고 나도 아는 차)

It's the **same car**. (same에 의해 한정된 차)

그런데 수식을 받는다고 해서 모두 the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했다.

He told me **an** interesting story.

story는 interesting에 의해 수식되지만 an을 씁니다. 일반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동생이 엄마에게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고 아빠한테는 하지 않았다고 합시다. 아빠가 졸라서 동생에게서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 story는 엄마에게 해준 story와 같은 것이지요.

내 동생이 아빠에게 그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다  
My brother told him **the** interesting story.

수식이 있다고 무조건 the가 아니라 수식으로 인해 상황이 좀 더 한정되므로 the를 쓰는 것입니다. only, same, first 등 이러한 형용사는 뒤따라 오는 명사의 상황을 특수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대부분 the와 같이 씁니다.

#### 참 고 하 세 요

**R** interesting은 흥미로운이란 뜻입니다. 머리에서 재미있다고 느끼는 것이지요. 몸이 재미있다고 느낄 때는 fun을 씁니다. Phone & Fun이라는 카페가 있죠? 음악도 듣고 동영상도 보니 몸이 즐거운 것입니다. 케러비안베이에 놀러 가면 fun, 쿠바음악 연주회에 가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다면 interesting.

### 3-2 I'm going to **bed**? I'm going to **a bed**? I'm going to **the bed**?



철수가 네이티브와 채팅을 하다가 시간이 늦어 이제 잠자리에 들려고 합니다. 아래 셋 중 어떤 것을 써야 할까요?

- a) I'm going to bed.
- b) I'm going to a bed.
- c) I'm going to the bed.

침대 bed는 일반적인 명사라서 셀 수 있습니다. 셀 수 있으므로 침대 한 개가 있으면 '하나'라고 제대로 셈을 해줘서 a bed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철수가 '나 침대로 간다'라고 말했을 때 글쓴이나 읽는이 모두 bed가 철수의 개인 침대라는 것을 문맥상 알 수 있습니다.

밤이 늦어서 침대로 간다는데 네이티브는 당연히 철수가 자기 침대에 간다고 생각하지 다른 침대에 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I'm going to a bed가 아니라 I'm going to the bed가 맞습니다. 헛갈린다구요?

A: 너 어디 있었니? → Where were you?

B: 부엌에요. → I was in the kitchen.

집에 있는 부엌은 모두가 아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집에 부엌이 몇 개씩 있지 않는 한 'I was in a kitchen'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c) I'm going to the bed는 '나 침대로 간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a) I'm going to bed도 맞습니다. 오히려 c) 보다 a)를 많이 씁니다. a)는 '나 지금 자리 간다'라는 뜻인데, bed 앞에 관사가 없죠? 잘못 쓰인 것이 아닐까요? 관사를 빼버렸으니 더 이상 일반적인 침대로 해석하지 말라는 의도입니다. 관사를 뺀 bed는 관사 없는 명사, 즉 '추상명사'의 뜻으로 쓰입니다. '잠자리'가 바로 그 추상명사가 됩니다.

I'm going to church. → 예배 드리러 간다.

관사가 필요한 church에 관사를 빼니 일반적인 명사 '교회'의 뜻이 아니라 추상의 뜻 '예배'가 됩니다.

I'm going to school. → 수업 받으러 간다.

학교의 뜻이 아니라 수업이라는 추상명사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 4. 복수형의 명사



너 영화 좋아하니? 라고 누가 물어 봤다고 칩시다. 아래 대답 중 가장 적합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 Do you like movies?
- a) Yes, I like movie.
  - b) Yes, I like a movie.
  - c) Yes, I like the movie.
  - d) Yes, I like movies.

문법책에서는 관사를 공부할 때 a dog, the dog, dogs는 모두 똑같이 dog를 대표하는 대표 명사라고 배웁니다.

개는 믿음직한 동물이다.

A dog is a faithful animal.

The dog is a faithful animal.

Dogs are faithful animals.



이러한 대표명사 표현은 문법문제에나 나오지 실제 상황에선 별로 많이 쓰이지 않습니다.

대표명사를 배운 초보들은 a movie나 the movie, movies가 똑같이 영화를 말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옳지 않습니다.

우선 the movie는 상대방도 나도 알고 있는 특정한 영화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Do you like Matrix? → Yes, I like the movie. 이런 식으로 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영화 좋아하냐고 묻는 답엔, 'I like a movie' 나 'I like movies' 둘 중 하나가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a dog처럼 대표명사의 예를 생각하고 'I like a movie' 라고 말할 때 상대방이 대표명사로의 a movie라고 받아 들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 사람은 영화 한 편 밖에 좋아하는 것이 없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I like a movie' 가 문법적으로는 맞을 지라도 영 이상한 답이 되버리는 것입니다. 위의 상황에서 'I like a movie(나는 영화 한편 좋아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은 어색합니다. 그래서 답은 d) Yes, I like movies.입니다. 우리말로 직역해서 '저는 영화들을 좋아합니다' 인데 여기서 movies는 영화들이 아니라 영화의 총칭입니다.

나는 사과를 좋아해요. I like apples. - 사과의 총칭

난 과자가 좋아. I like cookies. - 과자의 총칭

난 과자 싫은데. I hate cookies.

셀 수 없는 명사는 그냥 단수형을 써서 총칭합니다. 셀 수 없으므로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너 애플파이 좋아하니?(Do you like apple pie? - apple pie를 셀 수 없는 물질명사라고 봤습니다.) apple pie엔 apple의 형태가 별로 없죠? 크기도 제 각각이고 그래서 물질명사라고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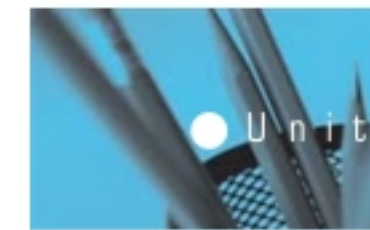
난 피자가 좋아. I like pizza.

:: pizza 역시 물질명사로 보고 세지 않습니다.



#### KEY POINT

- 1 셀 수 있는 명사는 꼭 셈을 해줘야 합니다. 하나 있을 땐 a, 복수일 땐 -s.
- 2 한정사는 나열해서 쓰면 안됩니다.
- 3 나도 알고 너도 아는 대상이면 the를 씁니다.
- 4 명사에 수식어가 있으면 the를 씁니다.
- 5 나는 사과를 좋아해요. I like apples. : 사과의 총칭



## 02 영작연습

아래의 글을 영작해 보세요.

1. 공시디 하나 주세요. (공시디 : blank CD) 카페 회원 정답율 80%

2. 저번에 내가 산 공시디 줘. (저번에 내가 사준 : which I bought before) 카페 회원 정답율 80%

3. 이것이 내가 찾던 책이야. (내가 찾던 : That I was looking for) 카페 회원 정답율 80%

4. 난 긴 생머리 여자가 좋아. (긴 생머리 : with long straight hair) 카페 회원 정답율 60%

5. 난 저기 빨간 드레스를 입은 여자를 사랑한다. (빨간 드레스를 입은 : with red dress / 저기 : over there)

카페 회원 정답율 70%

6. 내게 아이디어 하나 있어. (have를 이용해서 영작해 보세요) 카페 회원 정답율 80%

7. 난 그 아이디어에 동의할 수 없어. (동의하다를 agree with를 써보세요. agree with는 사람과 일 모두 쓸 수 있고, agree to는 사람에게 쓰지 못합니다. I agree to you(x)) 카페 회원 정답율 70%

8. 난 꽃을 좋아해. 📊 카페 회원 정답율 70%

---

9. 핸드폰 있니? (핸드폰 : cell phone) 📊 카페 회원 정답율 70%

---

10. 그가 내 책 두 권을 가져갔다. (가져갔다 : took을 이용하세요) 📊 카페 회원 정답율 70%

---

11. 난 당신의 이 노래가 좋아요. 📊 카페 회원 정답율 50%

---

12. 어떤 남자가 전화했었어. 📊 카페 회원 정답율 50%

---

13. 이게 그의 유일한 사진이야. 📊 카페 회원 정답율 60%

---

14. 우리도 같은 장소에 갔었어! 📊 카페 회원 정답율 60%

---

15. 다섯 번째 노래 한번만 다시 듣자. (한번만 : one more time) 📊 카페 회원 정답율 70%

---

16. 난 피아노 치는 것이 취미이다. 📊 카페 회원 정답율 70%

---



괜찮은 답



어색한 답?



영작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하고자 하는 말을 문법과 어법에 맞게 쓰면 답이 됩니다. 앞의 영작 연습을 영작한 후 아래 '괜찮은 답, 어색한 답' 과 비교해 보세요. 아래 답변은 실제 카페 내에서 회원들이 영작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어색한 답은 네이티브 선생님이 지정한 것 입니다.

1. 😊 Please give me a blank CD.

😞 Please give me a Blank CD.

▶ 축약어의 경우 대문자를 사용하여 CD라고 할 수 있으나 Blank의 경우엔 의미 없이 대문자를 썼습니다. 대문자는 문장의 처음, 이름 등의 고유명사, 축약어, 1인칭에 사용합니다.

😞 Give me to a blank CD.

▶ 잘못된 전치사 사용

2. 😊 Please give me the blank CD which I bought before.

3. 😊 This is the book that I was looking for.

4. 😊 I like a girl with long straight hair.

😞 I like with long straight hair woman.

▶ 전치사 수식어구는 woman 다음에 와야 합니다.

😞 I like the girl with long straight hair.

▶ a와 the 오류네요. the를 붙이면 '긴 생머리를 한 그 여자를 좋아해' 란 뜻입니다.

😞 I like a girl with a long straight hair.

▶ a long straight hair는 긴 생머리 한 가닥 입니다.

5. 😊 I love the girl with a red dress over there.

😞 I love woman with a red dress over there.

▶ 전치사 없이 woman만 단독으로 쓸 수 없습니다.

6. 😊 I have an idea.

😞 I have an idea of mine.

▶ 모음 앞은 an 입니다. mine 사용이 부적절합니다.

7. 😊 I don't agree with the idea.



☞ I'm not agree with the idea.

▶ 일반동사의 부정은 don't 입니다.

8. ☞ I like flowers.

▶ 직역하면 '나는 꽃들을 좋아합니다' 이지만 말하는 이는 꽃을 총칭해서 좋아한다는 뜻이므로 flowers를 써야 합니다.

☞ I like a flower.

▶ 듣는이는 '난 꽃을 좋아합니다' 가 아니라 '난 꽃 한송이를 좋아합니다' 라고 받아들입니다.

☞ I like the flower.

▶ the가 와서 flower의 의미를 제한하고 한정해 줍니다. 여타 꽃이 아닌 바로 그 꽃을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9. ☞ Do you have a cell phone?

10. ☞ He took two books of mine.

11. ☞ I like this song of yours.

☞ I like your this song.

▶ 한정사는 연달아 쓸 수 없습니다.

12. ☞ A man called.

☞ Some man phoned.

▶ 어떤 사람이라고 해서 some을 썼는데, a man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전화하다' 는 call입니다.

☞ I received a call from a men.

▶ man과 men을 헷갈렸네요. men은 man의 복수형입니다.

☞ A man has called.

▶ 과거의 한 사건을 말할 때는 과거시제를 씁니다. 과거에 사건이 현재와도 연결될 때만 완료시제를 씁니다.

13. ☞ This is the only picture of him.

☞ This is the unique picture of him.

▶ 단어 사용 오류입니다. unique는 '독특한' 의 뜻입니다.

☞ This is only his picture.

▶ only는 the와 같이 와야 합니다. 그의 사진은 picture of him입니다 - Unit 16 전치사 강의 참고

☞ This is the only picture of his.

▶ 전치사 다음엔 목적격을 씁니다.

14. ☞ We went to the same place!

☞ We went same the place.

▶ went to입니다.

☞ We went to same place.

▶ same은 항상 앞에 the와 같이 씁니다.

☞ We went to the same location, too.

▶ 장소는 place를 많이 씁니다. location은 위치입니다. same에 같은 장소라는 뜻이 있으므로 too는 없어도 됩니다.

☞ We abided to the same place.

▶ '머물다, 체류하다' 의 뜻을 가진 abide를 '~에 가다' 의 뜻으로 썼습니다. 비슷한 개념을 가진 단어라도 영어는 단어마다 쓰임을 확실히 구분합니다. 어떤 단어를 써야 할지 자신이 없는 경우엔 되도록 쉽고 기본적인 단어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15. ☞ Let's listen to the fifth song one more time.

☞ Let's listen the fifth song one more time.

▶ Listen은 전치사 to와 같이 씁니다. 어떠한 대상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서 방향의 뉘앙스가 있는 전치사 to와 어울립니다.

16. ☞ My hobby is playing the piano.

English Clinic

우리는 어제 회의를 했어.

We did a meeting yesterday. (×)

→ We had a meeting yesterday. (○)

A : Why didn't you come for the meeting yesterday?

어제 왜 모임에 오지 않았니?

B : We had a meeting yesterday. 우리는 어제 회의를 했어.



'~을 하다' 라는 우리말 표현에 반드시 'do동사' 가 어울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말에서와 같이 명사와 동사가 궁합을 맞춰 짝을 이루는 것은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의' 는 영어로는 'meeting' 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do동사에는 '을 하다, ~을 진행하다' 의 의미가 있지만, do a meeting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회의를 하다' 는 'have a meeting, 또는 hold a meeting' 으로 표현합니다. '행사를 하다(열다)' 에도 'have a ceremony, 또는 hold a ceremony' 와 같은 형태로 표현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프레젠테이션이나 파티, 또는 시험 등을 할 때(또는 열 때)에는, give a presentation, give an examination, give a party와 같이 give동사를 사용한다는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복잡한 영작을 쉽게 풀어주는 관계사



이 책을 먼저 공부한 베타테스터 한마디

관계사에 대한 설명이 쉽게 잘 되어있다. 관계사는 기본적인 내용과 쉬운 예문만 제대로 익히면 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보들도 이 단원만 잘 숙지하면 영작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관계사+be]의 생략을 강조했는데 실제로 많이 유용하다.

**지금부터 명사를 꾸며주는** 수식어들을 공부하려 합니다. 관계사나 형용사 등 이미 알고 있는 문법을 설명하겠지만 문법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문법을 아는 것과 이를 이용해 영작을 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 책에서는 명사를 꾸며 주고 싶을 때 관계사나 형용사를 떠올려 적용하는 연습을 중점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수식어[修飾語, modifier]를 사전에서 찾아 보면 ‘말이나 글을 보다 또렷하고 아름답게, 또는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쓰는 꾸밈이나 한정어’이라고 나옵니다. 수식어는 꾸미고 한정하는 말이기 때문에 생략해도 말은 통합니다. ‘I have a **yellow** cap’에서 수식어인 yellow를 빼고 ‘I have a cap’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요. 이렇게 빼도 무방하기 때문에 독해를 공부할 때는 수식어들을 제거하고 기본 뜻을 찾아 보는 연습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생선 살 발라내고 뼈대를 파악하는 공부는 독해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영어의 구조를 단순화 하는 것에 익숙한 초보들은 독해와 반대로 살을 붙이는 영작을 잘 하지 못합니다. 생선 살에 해당되는 것이 수식어인데, 초보의 약점 중 하나는 수식하고픈 이야기를 수식어처럼 만들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수식하고자 하는 단어를 대강 나열하기 때문에 읽는 사람이 무엇이 수식어고 무엇이 핵심어인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수식어는 확실하게 수식어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영작연습이 필수적입니다. 영작에서는 수식어를 대충 취급하면 안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명사를 수식하는 것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 1. [주어+술어]로 수식하는 것은 절, 그렇지 않은 것은 구

절, 구는 문법책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입니다. 이 책에서도 언급을 할 예정인데, 이 개념은 매우 중요합니다. 간단히 정의하자면 절은 [주어+동사]로 이루어진 긴 글입니다. 구는 긴 글이긴 하지만 [주어+술어]의 형태가 아닌 것 입니다.

절 : Please let me know **when you can finish the project**. : 니가 언제 그 프로젝트를 마칠 수 있는지 알려줘. (밑줄 친 부분은 주어+술어의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구 : I will do my best **to make it come true**. :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거야. (밑줄친 부분에 주어+술어가 없습니다.)

전치사와 연결되는 부분은 주어와 술어가 갖춰진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치사구란 말은 있어도 전치사절이란 말은 없습니다. 반면, 접속사는 항상 주어와 술어를 데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접속사절이라고 합니다.

## 2. 간단한 수식, 복잡한 수식

어떤 수식어는 간단한 한마디 밖에 없지만 절로 이루어진 수식어는 [주어와 술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절로 이루어진 수식어가 좀 어렵습니다.

a) 재미있는 이야기 → an interesting story

b) 내가 어제 너한테 준 차 → the car which I gave you yesterday

주어

술어

굵은 글씨의 명사가 수식을 받고 있습니다. a)는 ‘재미있는’ 이라는 한 단어가 이야기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한 단어로 명사를 수식할 땐 간단히 명사 앞에 놓으면 쉽게 해결됩니다.

b)는 밑줄 친 부분이 차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주어와 술어가 있지요? 절로 꾸며주는 경우입니다. ‘내가 어제 너한테 준 차’는 ‘내가’라는 주어와 ‘주었다’라는 술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말은 수식어가 길어도 명사 앞에 위치 하죠? 그런데 영어는 좀 길다 싶으면 뒤로 갑니다. 따라서 이 문장도 네이티브는 뒤에서 풀어 주는데 ‘차 — 내가 어제 너한테 준’ 이렇게 됩니다. 우선



‘차’라고 써 놓고 그 차가 무슨 차인지 설명하고 있는데, ‘—’을 사용해서 단어와 문장을 연결했습니다. 여기서 ‘—’이 관계사입니다.

결국 관계사가 나오고 말았네요. 초보들은 관계사를 보면 두려움에 떨지만, 저는 영작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로 관계사를 꼽습니다. 관계사는 복잡하고 문장을 길게 늘리기 때문에 헛갈린다고요?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연관된 짧은 문장을 계속 나열하면 오히려 더 헛갈립니다. 관계사절을 쓰면 두 개의 연관된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간결한 영작을 할 수 있습니다. 관계사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를 해보죠.

### 3. 관계사 who/which/that

관계사의 종류는 who/which/that 3가지입니다. 학교나 학원에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장황한 설명은 빼겠습니다. 대신 영작할 때 어떻게 적용하면 쉬운지 만큼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 3-1 관계사 영작에 적용하기

사실, 관계사의 종류 따위를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관계사와 관련하여 초보가 법칙으로 뇌리에 새겨 둘 것은 바로 이것! ‘명사를 수식할 때 그 수식이 [주어+술어의 형태이면 관계사로 영작한다’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책

책은 책인데 내가 좋아하는 책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이라는 표현을 살펴보니 ‘내가(주어)+좋아하는(술어)’가 다 들어가는 절이군요. 절의 형태이므로 뒤에서 수식하도록 뒤로 빼고 **관계사**를 이용해 연결해야 합니다.

**영어식 변형)** 책 — 내가 좋아하는

→ The book **that** I like.

내가 사랑하는 사람

**영어식 변형)** 사람 — 내가 사랑하는

→ The man **who(m)** I love.

내가 사고 싶었던 차

**영어식 변형)** 차 — 내가 사고 싶었던

→ The car **which** I wanted to buy.

수식 받는 대상이 사람일 때는 who를 써주면 됩니다. 물론 사물일 때는 which와 that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문장으로 된 예문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함께한 직원들은 첫 번째로 승진될 것이다.

**영어식 변형)** 직원들은 — 이 프로젝트를 함께한 첫 번째로 승진될 것이다.

→ The employees **who** join in this project will be promoted first.

너한테 맨날 전화 하는 남자에 대해 말해봐.

**영어식 변형)** 말해봐 남자에 대해 — 너한테 맨날 전화하는

→ Tell me about him **who** calls you everyday.

그들은 내가 그린 그림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영어식 변형)** 그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그림을 — 내가 그린

→ They don't like the pictures **which** I painted.

어젯밤에 본 야구경기는 지루했다.

얼핏 보면 ‘어젯밤에 본’은 [주어+술어]의 형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장을 잘 살펴보세요. ‘본’의 주어가 생략되어 나타내어 있지 않지만 ‘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숨어 있는 주어 찾기가 이 문장의 핵심입니다.

**영어식 변형)** 야구경기는 — 내가 어젯밤에 본 지루했다.

→ The baseball game **which** I saw last night was boring.

‘이 프로젝트를 함께 한’, ‘너한테 맨날 전화하는 남자’, ‘내가 그린 그림’, ‘내가 어젯밤에 본’ 모두 주어와 동사가 있는 절입니다. 이러한 절이 명사를 수식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수식부분을 명사 뒤로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짝대기 ‘—’를 갖는 것이지요. 짝대기가 사람을 나타내면 who, 사물이면 which나 that입니다.



Q 선생님~ 관계사구란 것은 없나요?

A 수식어가 [주어+동사]로 이루어진 절만 관계사가 꾸밈을 받는 명사에 연결해 줍니다. [주어+동사]의 형식이 아닌 구는 관계사 필요 없이 곧바로 명사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관계사구란 것은 없는 것이지요.

#### 4. [관계대명사+be동사]를 생략하면 형용사처럼 쓸 수도 있다

[관계대명사+be동사]는 생략이 가능하다고 이미 여러 문법책에서 배웠을 겁니다. 관계대명사의 부수적인 용법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영작에서는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실제로 네이티브 중에서 'The girl who is playing the piano is my sister' 처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들 'The girl playing the piano is my sister' 이라고 합니다.

신문을 보고 있는 여자를 봐봐.

영어식 변형) 봐봐 여자를 — 신문을 보고 있는

→ Look at the girl (who is) reading a newspaper.

→ Look at the girl reading a newspaper.

reading은 원래 관계사절의 동사인데 'who is'가 생략되므로 girl을 수식하는 형용사로 쓰였습니다. 왜 형용사냐구요? 명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형용사입니다. 대개 형용사는 명사 앞에서 수식하며, 'reading a newspaper'는 여러 단어로 이루어진 긴 수식어라서 명사 뒤에 위치합니다.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는 여자는 내 동생이야.

영어식 변형) 여자는 —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는 내 동생이야.

→ The girl (who is) playing the piano is my sister.

이건 우리 형이 그린 그림이야.

영어식 변형) 이건 그림이야 — 나의 형에 의해 그려진

→ This is the picture (which is) painted by my brother.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밖에 없다.

그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관계사를 적용할 수 있도록 살짝 변형했습니다)

영어식 변형) 그는 유일한 사람이다 — 이 일을 할 수 있는

→ He is the only one (who is) able to make it happen.

이렇게 [관계대명사+be동사]가 생략되어 형용사처럼 쓰인 문장들은 더 이상 절이 아니라 구입니다. 주어부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형용사구입니다.

#### 5. 관계사를 변형하면 전치사구처럼 쓸 수도 있다

앞에서 [관계대명사+be동사]가 생략되어 형용사구로 바뀌는 것을 봤습니다. 전치사랑 연결된 [관계대명사+be동사]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책상 위에 있는 책 좀 갖다 줄래?

:: '갖다 줄래'의 주어가 숨어 있습니다. You를 찾아서 보여줍니다.

영어식 변형) 갖다 줄래? 책 — 책상 위에 있는

→ Would you bring the book (which is) on the table?

→ Would you bring the book on the table?

차 밑에 있는 돌맹이 좀 치워줘.

:: 이 문장에서도 주어가 숨어 있습니다. 이번엔 주어 없이 please를 사용한 명령법으로 영작해봅시다. (주어가 없이 동사원형으로 시작하는 문장형태가 명령법입니다.)

영어식 변형) 치워줘 돌맹이 — 차 밑에 있는

→ Please remove the stone (which is) under the car.

→ Please remove the stone under the car.

난 저기 빨간 원피스를 입은 여자를 좋아해.

영어식 변형) 난 좋아해 여자 — 저기 빨간 원피스를 입은

→ I like the lady (who is) in a red dress over there.

→ I like the lady in a red dress over there.

이렇게 [관계대명사+be동사]를 생략해 버리면 전치사 부분만 남아 명사를 꾸며줍니다. 이를 전치사구라고 합니다.



## 6. 관계대명사 소유격은 그냥 whose를 쓰자

관계대명사로 소유를 나타낼 때도 있습니다. 문법책에서는 of which와 whose가 나오는데, 영작하기엔 whose가 좀 더 쉽습니다. 평상시 영어에 노출될 때 of which보다는 whose를 더 많이 접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머리 속엔 whose가 훨씬 더 익숙합니다. 익숙한 단어는 영작 할 때도 잘 떠오르는 법입니다.

아래 두 문장을 연결하면,

There is a house. + The roof of the house is red.

→ There is a house of which roof is red. (= There is a house whose roof is red.)

This is the word. + I don't know the usage of it.

→ This is the word of which the usage I don't know. (= This is the word whose usage I don't know.)

사실, of which나 whose는 격식을 차린 표현이라서 official(공식적인) 문서에 주로 쓰며 일상생활에서는 별로 쓰지 않습니다. 친구들에게 이메일 쓸 때는 좀 더 평범하고 편한 문체로 써야지 이런 formal(격식을 차린) 한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관계대명사 소유격을 대신해서 전치사 with를 쓰면 informal(격 없는) 표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There is a house whose roof is red.

→ There is a house with a red roof.

:: with의 자세한 영작법은 Unit17를 참고하세요.

또는 관계사를 사용하지 않는 구조로 변경하면 됩니다.

This is the word whose usage I don't know.

→ I don't know the usage of this word.

영작이란 정말 하기 나름입니다.^^

## 7. What 연구하기

아~ 초보가 힘들어하는 관계사, 그 중에서도 초보 킬러인 what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어렵지만 정말 많이 쓰이는 표현이라서 자세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차근차근 설명하므로 꼼꼼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what의 기본 개념에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 7-1 what 개념 파악하기

This is the car. I sold the car to Chris.

이것은 그 차다. 나는 그 차를 크리스에게 팔았다.

두 문장은 공통적으로 car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두 문장을 하나로 합치려는데 car가 두번 나와 겹치므로 한번만 써주려는 취지가 바로 일반 관계대명사입니다.

1단계) This is the car — which I sold to Chris.

2단계) This is the car which I sold to Chris.

이것은 그 차다 내가 크리스에게 판.

which를 쓰면 두번 써야 할 car를 한번에 해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car를 아예 쓰지 말자는 것이 what 용법입니다. 우선 car를 관계대명사 which가 자기 부하로 만들어 관계대명사의 영역으로 편입해 버립니다.

3단계) This is what I sold to Chris.

이것은 내가 크리스에게 판 것이다.

car를 흡수한 which는 what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나니 car의 흔적은 사라지고 없네요. 더 이상 이 문장에서 car를 논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크리스에게 뭔가를 판 것은 사실인데, 그것이 차인지, 자전거인지, 오토바이인지 알 길이 없게 됐습니다. 처음 문장과 비교해 보면,

a) This is the car. + b) I sold the car to Chris.

This is what I sold to Chris.

a)

b)

what은 a)문장의 car 역할을 하고, b)문장의 car 역할을 합니다. 달리 말해 what은 a)문장의 **보어** 역할을 하고, b)문장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a)와 b)를 연결해주는 **접속사**의 역할

도 합니다. 이렇게 3가지 역할을 하는 셈인데, what은 언제나 1인 3역을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I can't find the present what she gave me yesterday. (x)

a)

b)

이 문장의 a)부분을 보세요. find의 목적어로 present를 써 놓고서 또 what을 썼네요. 제대로 된 문장은 'I can't find what she gave me yesterday' 입니다.

### 7-2 관계대명사 what으로 문장 만들기

초보들은 관계대명사 what으로 문장을 만드는 것에 약합니다. '7-1 what 개념 파악하기'에서 배운 바 대로 하나하나 따져가며 영작을 하다 보니 더 헛갈려 합니다. 보다 손쉬운 영작기법은 관계대명사 what을 '~하는 것' 이라고 취급하여 통째로 쓰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영화다.

→ What I like are movies.

그녀가 숨기는 것은 내게로의 사랑이다.

→ What she hides is her love to me.

그녀가 내게 말한 것은 사실이다

→ What she told me is true.

오늘 해야 하는 것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 Don't put off till tomorrow what should be done today.

하고 싶은 대로 하렴(하고 싶은 것 하렴)

You may do what you'd like to do.

## 8. 관계부사 when/where/why/how

시간/장소/이유와 관련하여 문장이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도 관계사를 통해 쉽게 영작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예문으로 어떻게 관계사를 연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시험에 합격한 그 순간을 잊지 못한다.

영어식 변형) 나는 잊지 못한다 그 순간 — 내가 시험에 합격한

→ I can't forget the moment when I passed the exam.

어때요? When으로 수식어로 만드는 방법은 관계사 who를 쓸 때와 똑같죠?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 필요해서 when을 썼습니다. when은 밑줄 친 문장의 부사입니다. 그래서 when/where/why 등의 관계사를 관계부사라고 합니다. 이대로도 참 멋진 영작입니다. 그런데 한번 더 살펴보면 the moment와 when이 같은 것을 말하고 있죠? 즉 the moment가 곧 when인데, the moment를 생략하면 더 간결한 영작이 됩니다.

→ I can't forget when I passed the exam.

:: 관계대명사 what의 용법과 비슷합니다.

어디다가 열쇠를 뒀는지 모르겠다.

:: 주어가 숨어 있습니다. 모르겠다의 주어는 I

영어식 변형) 나는 모른다 그 장소를 — 내가 열쇠를 뒀던

→ I don't know the place where I put the key.

→ I don't know where I put the key.

왜 내가 상을 받을 수 없었는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다.

아무도 내가 왜 상을 받을 수 없었는지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다.

:: '이유' 를 넣으니까 문장의 뜻이 좀 더 명확해 집니다. 복잡한 문장일수록 뜻이 명확한 문장으로 변형 해서 영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어식 변형) 아무도 말해 주지 않았다 이유를 — 내가 상을 받을 수 없었던

Nobody told me the reason why I couldn't get the prize.

Nobody told me why I couldn't get the prize.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제품을 판매할 방법입니다.

This is the way how we sell products.

This is how we sell products.





Q 선생님, [관계 부사+be 동사] 생략은 없나요?

A 관계대명사(who/which/that) 다음에는 be동사가 오는 것이 당연하지만 부사(when/where/why/how)는 be 동사를 수반하지 않습니다. where is my car? / which is yours? 등은 의문사이지만 관계부사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초보들은 관계사에 대해 학교에서 배운 기초적인 문법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언제 관계사를 쓰는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절이 명사를 꾸며 줄 때는 명사 뒤에서 관계사를 이용하여 연결하고 설명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관계사+be동사] 생략에 대해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하겠습니다.

#### 참 고 하 세 요

R | 셀 수 없는 명사는 어떻게 세나 |

1인칭, 2인칭은 관계대명사로 잘 쓰지 않습니다.

이번 일을 책임지고 있는 나는 새로운 직원을 뽑을 것이다.

I, who is in charge of this task, will hire new staff by myself.

문법적으로는 맞을지라도 참 어색한 문장입니다. 1인칭(I, we), 2인칭(you)는 관계대명사로 쓰지 않고 그냥 풀어 줍니다.

→ I'm in charge of this task so I will hire new staff by myself.

→ As I'm in charge of this task, I will hire new staff by myself.



#### KEY POINT

- 1 절은 [주어+동사]로 이루어진 글이며 주는 [주어+동사]의 형태가 아닌 것입니다.
- 2 명사를 수식할 때 그 수식이 [주어+술어]의 형태이면 관계사로 영작합니다.  
The car which I wanted to buy.
- 3 [관계대명사+be동사]를 생략하면 형용사처럼 쓸 수 있다.  
The girl (who is) playing the piano is my sister.  
→ The girl playing the piano is my sister.
- 4 전치사와 연결된 [관계대명사+be동사]를 생략하여 전치사구처럼 쓸 수 있습니다.  
Would you bring the book(which is) on the table?  
→ Would you bring the book on the table?
- 5 관계대명사 what은 문장의 보어와 목적어, 그리고 접속사의 역할도 합니다.
- 6 절이 명사를 꾸밀 때는 명사 뒤에서 관계사를 이용하여 연결하고 설명합니다.  
This is the way how we sell products.  
→ This is how we sell products.



## Unit 03 영작연습

최대한 [관계대명사+be동사]를 생략해서 영작하세요.

1. 어제 들은 뉴스 때문에 놀랐다. ('어제 들은 뉴스가 날 놀라게 했다' 라고 하세요 / 놀라게 : shock)

카페 회원 정답율 60%

2. 어제 니가 잃어 버린 열쇠를 찾았다. 카페 회원 정답율 70%

3. 이것이 니가 말하던 차냐? 카페 회원 정답율 50%

4. 난 의자에 앉아 있는 저 여자를 사랑해. 카페 회원 정답율 60%

5. 야구를 하는 저 사람이 나의 best friend야. 카페 회원 정답율 70%

6. 난 우리가 즐거웠던 그때를 기억합니다. (즐거웠던 : have a good time) 카페 회원 정답율 50%

7. 왜 우리가 이것을 해야 하는 지 말해봐. 카페 회원 정답율 50%

8. 여기가 니가 태어난 곳이야. 카페 회원 정답율 50%

9. 이게 우리의 마지막 기회야. (기회:chance) 카페 회원 정답율 50%

10. 그는 문이 고장 난 차를 팔았다. 카페 회원 정답율 40%

11. 방안에 있는 아기를 깨우지마. 카페 회원 정답율 60%

12. 엄마가 주방에 있던 내 돈을 집어 갔다. 카페 회원 정답율 50%

13. 예전에 소크라테스라는 이름을 가진 현명한 사람이 있었다.

(예 전에 있었다 : there once was / 소크라테스 : Socrates) 카페 회원 정답율 50%

14. 어제 우리가 인터뷰했던 남자가 우리팀에 합류했다. (인터뷰하다 : interview) 카페 회원 정답율 60%

15. 난 부산에서 태어난 친구가 있다. 카페 회원 정답율 70%



16. 영어 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Is there anyone 을 사용하세요) 카페 회원 정답율 80%

---

17. 이것이 그녀가 내게 한 말이야. 카페 회원 정답율 40%

---

18. 난 내가 그녀에게 준 것을 돌려달라고 말한 적이 없다. (돌려주다 : return) 카페 회원 정답율 50%

---

19. 날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그것이야. 카페 회원 정답율 40%

---

20. 난 내가 왜 시험에 떨어졌는지 모르겠다. (시험에 떨어지다를 fail을 이용해 영작하세요)

카페 회원 정답율 50%

---

21. 그를 처음 만난 순간을 잊을 수 없어. 카페 회원 정답율 50%

---



괜찮은 답



어색한 답?



1. The news which I heard yesterday shocked me.

I was shocked by the news that I heard yesterday.

I was shocked by news heard yesterday.

▶ the news / 관계사절에 주어가 없습니다.

The news heard yesterday make me shock.

▶ 관계사가 빠졌네요, shocked입니다.

2. I found the key which you lost yesterday.

I was looking for your key lost yesterday.

▶ '찾았다' 는 found이고, was looking for은 '찾고 있었다' 입니다.

I found the key which was lost by you yesterday.

▶ 수동태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3. Is this the car you mentioned before?

Is this the car you told me about?

Is this the car you mentioned ago?

▶ ago는 숫자로 나타내는 구체적인 시간과 같이 씁니다. 3 hours ago 이렇게요, before는 단독으로 쓰일 수 있으면 '예전에' 라는 뜻입니다.

Is this the car which you said?

Is this the car you've spoken?

Is this a car which you have spoken?

▶ 관사 오류



헷갈리기 쉬운 say, tell, speak

셋다 '말하다' 라는 의미를 갖지만 say는 소리를 내다(utter), 말로 표현하다(express in words)의 의미가 있습니다. 반면 tell은 어떤 것을 알려주거나(inform) 가르치거나(instruct) 의사를 전달할 때(communicate) 씁니다.

그는 내게 이것이 나의 마지막 기회라고 말해줬다.

He said to me that it was my last chance.(x)

→ He told me that it was my last chance.

그가 내게 '안녕' 이라고 말했다.

He told me, 'Hi'. (x)

→ He said to me 'Hi'.

그리고 speak는 주제에 대해 논리 정연하게 이야기 할 때 씁니다. 따라서 공식적이고 무게있는 분위기를 전달합니다. 연설 등을 말할 때 speak를 씁니다.

4. I love the girl sitting in the chair over there.

I love the girl **seating** in the chair.

▶ Sit는 '앉다' 이고, seat는 '앉히다' 입니다.

I love the **female** sitting a chair.

▶ female은 조심해서 써야 하는 단어입니다. 계집애, 암컷이란 뜻으로서 사람에 대해서 쓸 때는 과학 · 통계 상 용어로 성별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는 외에는 경멸 · 익살의 뜻을 가지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woman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5. The man who plays baseball is my best friend.

6. I remember when we had a good time.

I remember when we **have** a good time.

▶ remember는 과거의 일을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에 remember의 대상은 과거형을 써야 합니다.

7. Tell me why we should do this.

**You speak** why we must do it.

▶ 명령법은 동사원형으로 시작합니다.

8. This is where you were born.

**Here is** where you were born.

▶ Here is는 '여기에 ~가 있다' 란 뜻입니다.

9. It's the last chance we have.

10. He sold the car whose door is broken.

He sold the car with a broken door.

He sold the car broken the door.

▶ 소유격관계사나 전치사가 필요합니다.

He sold the car whose door **get out of order**.

▶ out of order는 기계나 장치 등이 고장 나서 작동을 하지 않을 때 씁니다. 단순한 고장은 broken을 씁니다.

11. Don't wake the baby in the room.

Don't wake **a** baby in the room.

▶ in the room에 의해 수식 받는 baby는 the를 붙여야 합니다.

Don't **raise the baby out of seep** in the room.

▶ raise는 '올리다, 세우다' 의 뜻입니다.

12. Mon picked my money in the kitchen.

13. There once was a very wise man whose name was Socrates.

There once was a **wisdom** man **who was named** Socrates.

▶ wisdom은 '현명' 이라는 명사입니다. man을 수식하려면 형용사형인 wise가 와야 합니다. 수동태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14. The man, who we interviewed yesterday, joined our team.

The man, who we interviewed yesterday, **joined in** our team.

The man, who we interviewed yesterday, **joined with** our team.

▶ join in은 '가입하다' 입니다. join with는 '같이하다' 입니다.

The man **interviewed by us** joined our team.

▶ 한국인들은 수동태 형을 남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 문장이 문법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지만 'The man we interviewed yesterday joined our team' 으로 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15. I have a friend born in Busan.

I have a friend born in **busan**.

▶ 지명을 나타내는 고유명사는 대문자로 시작합니다.

16. Is there anyone who can speak English?

Is there **someone** who can speak English?

▶ 의문문에서는 someone이 아니라 anyone을 써야 맞습니다.

17. This is what she told me.

18. I never asked her to return what I gave her.

I never **questioned** her to return what I gave her.

▶ 물어보는 것은 ask이며, question은 심문하는 것입니다.

19. That is what makes me happy.

20. I don't know why I fail the exam.

21. I can't forget when I met him first.



# 04 수식해? 아니면 서술해?



이 책을 먼저 공부한 베타테스터 한마디

형용사의 나열은 영작할 때 굉장히 헷갈리기 일쑤이다. 이 단원에서는 헷갈리기 쉬운 표현법을 정리한 부분이 좋았다. 수식과 서술의 차이에 대해 명쾌히 알게 되었고 서술을 활용한 보영 영작법이 유용했다.

Unit 03에서 **관계사**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관계사로 두 문장을 어떻게 간결하게 영작을 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실제로 유용하게 쓰이는 것이 [관계사+be동사]의 생략이라고 했는데 이 개념의 응용을 위해 분사와 분사가 형용사로 쓰인 경우, 그리고 수식과 서술의 차이 등을 배워보겠습니다.

## 1. 분사구문도 사실 관계사 용법이다

명사를 예쁘게 치장하기 위해 흔히 형용사를 씁니다. 형용사는 사물의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 주는 말이며, 동작을 나타내 주지는 않습니다.

A pretty girl sat over there.

**예쁜** 소녀가 저기 앉아 있다네요. **예쁜**은 형용사로서 상태를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동작이 아니죠. 그런데 영작을 하다 보면 동작을 표현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 ● [A] ~ing 형

사진을 **찍고 있는** 소녀.

‘찍고 있다’라는 동작을 표현하는 글이기 때문에 형용사를 써서 영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동작의 의미는 동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사를 변형한 동사 친척들이 표현해줘야 합니다. 이들 동사 친척은 진행형에서 유래한 [~ing 분사]와 수동태에서 유래한 [~ed 분사]가 있습니다. 사진을 찍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진행형에서 유래한 [~ing 분사]를 써줘야 뜻이 통하겠네요. 영어에서는 수식하는 말이 길면 뒤로 뺀다고 했습니다.

**영어식 변형)** 소녀 — 사진을 찍고 있는

→ A girl **who is taking** a picture.

‘사진을 찍고 있는’이라는 표현이 길기 때문에 뒤로 빼고 관계사를 이용해 연결해 줬죠? [관계사+be동사]는 생략해도 무방하므로 생략해서 간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 A girl **taking** a picture.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영작을 해보면 영작원리를 깨우칠 수 있습니다. 이 원리를 응용하여 이메일을 쓰고 있는 남자를 바로 영작해 볼까요?

이메일을 쓰고 있는 남자.

→ A man **who is writing** an e-mail.

→ A man **writing** an e-mail.

### ● [B] 과거분사(p.p)형

[A]에서는 이러한 진행의 뜻을 가진 동작을 영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하게 된’의 표현을 살펴 보겠습니다.

이 결정으로 놀란 사람들이 많다.

‘이 결정으로 놀란 사람들’은 놀란 상태겠네요. 결정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사람들은 결정에 의해 놀라진 상태입니다. (헷갈려도 꼭 잘 따져 보세요! 중요합니다.) ‘~해진’ 상태이므로 수동태에서 파생된 과거분사(p.p)형을 써서 영작합니다.

**영어식 변형)** 많이 있다 사람들이 — 이 결정에 놀란

→ There were a lot of people **who were surprised** by this decision.

‘이 결정에 놀란’이 ‘사람들’을 수식해주고 있는데 수식해주는 글이므로 뒤로 빼서 ‘사람들 — 이 결정에 놀란’으로 변형되었습니다. 만약 ‘이 결정에 놀란’이 아니라 간단히 ‘놀란’이 사람들을 수식한다면 뒤로 뺄 필요가 없습니다. 한 단어로 된 짧은 수식은 그냥 명사 앞에 두기 때문에 ‘**surprised** people’이라고 하면 됩니다.

There were a lot of **surprised** people.

결국 분사(~ing/p.p)가 명사를 꾸밀 때 앞에서 꾸밀지 뒤에서 꾸밀지는 분사에 딸린 식구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 2. 분사가 형용사로 쓰이는 예

분사는 딸린 식구들이 없으면 한 단어로 명사를 꾸며 줍니다. 이 경우는 관계사 용법이 아니라 일반 형용사 용법입니다.

그녀는 잘 알려진 가수이다.

→ She is a well-known singer.

:: Well과 known이 하이픈으로 연결된 well-know은 한 단어로서 형용사 역할을 합니다.

그녀는 10대 들에게 잘 알려진 가수이다.

→ She is a singer well-known to teenage.

:: well-known to teenage는 2단어 이상이라서 singer 뒤에서 수식합니다.

그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다.

→ He is a strong-minded person.

취소된 경기

→ a canceled game

맥 빠지는 뉴스

→ a discouraging news

건강해 보이는 소녀

→ a healthy-looking girl

시간 잡아 먹는 일

→ a time consuming job

:: 명사 두 개가 나열되어 한 단어처럼 쓰일 때는 앞에서 수식합니다.

시간을 절약해주는 발명

→ a time saving invention

## 3. 놀라운 사람들과 놀란 사람들

신문이나 TV를 보면 우리를 놀라게 하는 놀라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간혹 나옵니다. 어린 나이에 하버드를 합격했다는 등... 이렇게 놀라운 사람들을 소개할 땐 어떻게 영작을 하면 될까요? 평범한 줄 알았던 크리스가 15살에 하버드에 합격했다. 그는 친구들을 놀라게 했고 친구들은 깜짝 놀랄 수 밖에 없었다. 이런 스토리가 있다고 칩시다. 상황을 파악해보니, Chris made friends surprised. → Friends are surprised. → Chris is a surprising person. 이렇게 표현됩니다. 즉 크리스는 친구들을 놀라게 만들었고, 친구들은 놀랐고, 크리스는 놀라운 사람입니다. 아래 예문을 보면 이러한 관계가 훨씬 더 명쾌해 질 겁니다.

어제 영화를 봤는데, 재미 없어 죽는 줄 알았어. 너무 따분하더라고... 날 그렇게 따분한 상태로 만든 영화는 참 오랜만이었어. **날 따분한 상태로 만든 따분한 영화.**

The movie made me bored > I'm bored > The movie is boring.

그 영화가 날 따분하게 만들었고, 난 따분한 상태가 되었고, 그 영화는 따분해.

구조가 파악 되었나요? 따분한 영화를 보고 극장 밖에 나서면서 I'm boring 하면 안되겠죠. I'm boring은 I make others bored 즉, 사람들을 따분하게 만드는 따분한 사람이라는 소립니다.

## 4. 명사 수식의 달인, 형용사

형용사 영작은 그다지 어렵지 않아서 여기서는 헛갈리기 쉬운 표현법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중복해서 쓸 수 없는 한정사와는 달리 형용사는 연달아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용사를 나열할 땐 아래와 같은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 관사를 맨 앞에 둔다. (단, such는 예외)

the seven little girls

I can't do such a bad thing.



● 한정사를 형용사 앞에 둔다.

A few good men. (영화제목이죠?)

Every other day (격일)

I want something cold to drink.

● 몇몇 형용사는 명사 뒤에 위치한다.

긴 수식이 아닌 것들은 명사 앞에서 수식 한다고 몇 번 이야기 했죠? 그런데 몇몇 형용사는 뒤에 서 수식합니다. 주로 a로 시작하는 형용사들입니다.

Staying Alive (살아남기 - 비지스의 유명한 히트곡입니다.)

The students are afraid to speak out boldly. (학생들은 두려워서 대담하게 의견을 말하지 못한다.)

You are not alone. (넌 혼자가 아니야 - 마이클잭슨의 히트곡)

Their opinions are very alike. (그들의 의견은 아주 비슷하다.)

Keep awake! (깨어 있어!)

Baby is asleep. (아기가 자고 있어.)

## 5. 복잡한 우리말 형용사로 간단히 영작하기

복잡한 우리말을 영작할 때 형용사를 이용하면 잘 해결 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글쓴이가 뭘 의도하는지 포인트를 잡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 별로 알려지지 않은 제품들을 판매해야 했다.

**영어식 변형)** 나는 안 유명한 제품들을 판매해야 했다.

→ I had to sell unpopular products.

이런 것을 보면 그는 흔하지 않은 성격이야.

**영어식 변형)** 이것은 그가 흔치 않은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알려준다.

→ This indicates that he has uncommon characteristics.

믿을 수 없는 사건들이 계속이다.

**영어식 변형)** 믿지 못할 사건들이 계속 일어난다.

→ Unbelievable accidents keep happening.

주의를 별로 기울이지 않고 글을 쓰는 사람들은 스펠링을 종종 틀린다.

**영어식 변형)** 부주의한 글쓴이는 종종 스펠링을 틀린다.

→ Careless writers often make spelling errors.

:: ~하는 사람들을 Those people who 라고 하기 쉬운데 형용사와 명사를 적절히 활용하여 간단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 6. 수식과 서술의 차이

영작할 때 주어와 동사를 하나씩 딸랑 써서는 의미가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I am' 인데 '나는 이다' 라고 해서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전달되지 않죠? 'I am busy' 라고 해야 제대로 뜻이 만들어집니다. 첨가된 busy는 주어 'I' 에 대한 설명이 되는데 이 형용사 busy가 바로 보어입니다. 그간 배운 수식이 의미를 한정하는 것이라면, 서술은 설명해주는 것입니다.



**Q** 선생님 명사를 한 단어로 꾸며 줄 땐 명사 앞에 놓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I made the door unlocked 에서 unlock은 한 단어 이지만 door 뒤에서 수식을 합니다. 왜 그러죠?

**A** door 뒤에 쓰인 unlock은 수식이 아니라 서술입니다. 'I saw an unlocked door.' 처럼 unlocked이 명사 앞에 오면 수식으로서 열린문이라는 뜻입니다. 'I made the door unlocked.' 는 '난 방을 열린 상태로 만들었다' 란 뜻으로서 unlocked이 door 뒤에 쓰여 door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 단어라도 명사 뒤에서 그 명사를 서술할 수 있습니다. 목적어 다음에 나오는 형용사는 대부분 서술입니다.

a) I have a red car. 나는 빨간 차를 가지고 있다.

b) My car is red. 나의 차는 빨간색이다.

a)의 red는 car의 앞에서 car를 수식해 주고 있고(빨간 차), b)의 red는 is 다음에 놓여서 car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빨간색이다)

c) I saw an unlocked door. 나는 열린 문을 봤다.

d) I made the door unlocked. 나는 문을 만들었다. 열려있도록.

이 문장들은 어떤가요? c)는 수식입니다. 그리고 d)는 이해하기가 좀 애매한데, door의 상태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b)는 주어의 상태를 설명했는데 d)는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합니다. b)와 d)에서 상태를 설명한 형용사를 보어라고 합니다. 주어를 설명하는 b)의 보어를 주격보어, 목적어를 설명하는 d)의 보어를 목적격보어라고 합니다.

많은 초보들이 보어 영작법을 어려워하는데, 좀 더 자세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 6-1 보어로 주어 설명하기 (주격보어)

She looks young.

그녀가 어때 보인다고요? 주어 'she' 를 설명해 주는 보어로 형용사 young이 왔군요.

그녀의 드레스는 아름답다.

→ Her dress is beautiful. (형용사)

그는 잠든 것 같다.

→ He seems to be asleep. (형용사)

너 행복해 보인다.

→ You look happy. (형용사)

명사도 보어가 될 수 있습니다. 주어를 설명해주는 역할에 충실하다면 보어가 될 자격이 있지요.

그녀는 배우이다.

→ She is a actress. (명사)

그는 의사가 되었다.

→ He became a doctor. (명사)

내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는 독서이다.(명사형태)

→ My favorite hobby is reading books.

나의 꿈은 가수가 되는 것이다.

→ My dream is to become a singer. (명사형태)

문제는 그 위험한 일을 누가 맡을 것인가이다.

→ The question is who will take up the dangerous task. (명사형태)

형용사로 보어를 만들 것인가, 명사로 보어를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은 쓸데 없는 일입니다. 편하게 생각하세요. 주어와 동사가 나왔는데 뜻이 완성되지 않는다면 명사나 형용사를 덧붙여 보충을 해주세요. 보어는 보충어란 뜻입니다.

#### 6-2 보어로 목적어 설명하기 (목적격보어)

보어는 주어만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목적어도 설명해 줍니다.

그는 케이트가 의자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He found Kate sitting on a chair. (형용사형태 - 분사이지만 형용사로 봐도 됩니다.)

일단 목적어까지 끊어보죠. He found Kate가 되겠죠? 그리고 케이트가 '뭘하고 있는지' 를 설명해 주고 싶어서 sitting을 '목적격보어' 를 썼습니다.

나는 그가 유죄라고 생각합니다.

→ 나는 생각합니다 그를. 어떻게? guilty가 설명해 줍니다.

→ I think him guilty. (형용사)

나는 어둠 속에서 뭔가가 재빠르게 지나가는 걸 보았다.

→ I saw something moved quickly in the dark. (형용사형태)

목적격보어로 만들면 문장이 복잡해 진다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목적어까지 만들었을 때 설명이 더 필요하면 보충해주세요. 그게 목적격보어입니다.

잭이 차 못 몰게 해라.

잭에게 허락하지 마. 뭘?(설명이 더 필요합니다.) 차 운전하는 것을(보충 설명해 줍니다.)



→ Don't allow Jack to drive a car.

불 좀 켜 주세요.

Light를 turn해주세요. 어떻게? on한 상태로.

→ Please turn the light on.

:: 전치사 on이 목적어의 상태를 보충 설명해 줍니다.

난 소영이라고 해.

→ 날 불러줘. 어떻게? 소영이라고

→ Please call me SoYoung.

:: 제 영문이름은 우리말과 같이 Yoo So Young입니다. 외국인 친구들이 You so young? I'm also young! 이라고 놀린답니다..

오해하지마.

→ 잡지마 날. 어떻게? 잘못해서

→ Don't get me wrong.

그가 날 이렇게 대하는 것 더 이상 봐주지 않을 거야.

→ 난 그를 더 이상 봐주지 않을 거야. 어떻길래? 날 이렇게 대하는

→ I will no longer tolerate him treating me like this.

작은 소녀만이 그가 나가는 것을 봤다.

→ 아무도 못봤다 그를. 그가 뭐하는 걸? 밖으로 나가는 걸.

→ Nobody saw him go away except the little girl.



#### KEY POINT

- 명사를 동작이 수식할 땐 ~ing / -ed  
A girl taking a picture  
There were a lot of surprised people.
- 형용사는 명사 앞에 놓이지만 a로 시작하는 몇몇 형용사는 뒤에 꾸며 줍니다.  
You are not alone.
- 서술과 수식의 차이  
I saw an unlocked door : 나는 열린 문을 봤다. (수식)  
I made the door unlocked : 나는 문을 만들었다. 열려있도록 (서술)

#### Daum 카페 '유소영의 영작기술' Real Q & A?

**Q** 수를 세는 형용사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A** 아래에 종류별로 특징을 나열해 봤어요.

(1) a lot of : 셀 수 있는 명사, 없는 명사 모두 쓰입니다.

A lot of dogs are running. 많은 개들이 뛰어가고 있다.

I drink a lot of milk. 나는 우유를 많이 마신다.

(2) a few와 a little : a few는 수를 나타내고, a little은 양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a few는 '몇 몇의 ~' 라는 뜻으로 셀 수 있는 명사 앞에, a little은 '약간의 ~' 라는 뜻으로 셀 수 없는 명사 앞에 쓰입니다. 모두 긍정의 뜻입니다.

He has a few friends. 그에게는 친구들이 좀 있다.

There is a little hope. 희망이 좀 있다.

(3) a 없이 few, little 단독으로 쓰이면 부정의 뜻입니다. '거의 없다' 라는 의미지요.

He has few friends. 그에게는 친구가 거의 없다.

There is little hope. 희망이 별로 없다.

(4) not a few나 quite a few는 수가 꽤 많이 있을 때 씁니다. 직역하면 좀 있는 정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많이 있다는 것의 역설입니다.

Not a few students went home. 적지 않은 학생들이 집으로 가버렸다.

그리고 not a little이나 quite a little는 양이 꽤 많이 있을 때 씁니다. 좀 있는 정도가 아니지요.

Not a little honey has been used. 적지 않은 꿀이 사용되었다.

## Unit 04 영작연습

1. 벤치에 앉아 계신 분이 우리 할아버지야. 📊 카페 회원 정답율 80%

2. 자식의 낙방에 실망한 부모님은 자리를 일찍 비웠다. (수식이 길면 뒤에 놓는 다는 것을 유의하세요! 자식의 낙방 : their son's failure of the exam) 📊 카페 회원 정답율 50%

3. 충격적인 사건이 우리마을에 일어났다.(충격적인 : shocking) 📊 카페 회원 정답율 70%

4. 그 연설은 지루했어. 📊 카페 회원 정답율 80%

5. 그의 갑작스런 방문이 날 놀라게 했다. (갑작스런 방문 : sudden visit) 📊 카페 회원 정답율 70%

6. 난 그의 불의의 질문을 당해서 당황했다. (불의의 : abrupt) 📊 카페 회원 정답율 60%

7. 놀라운 소식이 있어. 📊 카페 회원 정답율 70%

8. 혼란스러운 명령이 계속 온다. (혼란스러운 : confuse를 활용하세요) 📊 카페 회원 정답율 50%

9. 만족한 고객은 그 가게를 다시 찾는다. 📊 카페 회원 정답율 60%

10. 다른 의견 없습니까? (형용사 순서 문제입니다. other와 any를 활용하세요) 📊 카페 회원 정답율 80%

11. 문제는 우리가 돈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 카페 회원 정답율 60%

12. 난 그가 옳았다고 생각하지 않다. 📊 카페 회원 정답율 40%

13. 날 화나게 하지마. 📊 카페 회원 정답율 70%

14. 난 Chris가 어떤 여자와 함께 걷고 있는 걸 봤다. 📊 카페 회원 정답율 80%

15. 이 규칙은 예외가 거의 없다. (예외 : exceptions) 📊 카페 회원 정답율 60%

16. 우리에게는 정보가 거의 없다. 📊 카페 회원 정답율 70%

17. 우리는 애로점이 좀 있다. 📊 카페 회원 정답율 70%



18. 이 일은 손이 많이 간다. (일손, 보살핌 : care) 📊 카페 회원 정답율 70%

19. 적지 않은 관중이 첫경기를 보러왔다. (첫경기 : the first game of the season) 📊 카페 회원 정답율 60%

😊 괜찮은 답

😞 어색한 답?

1. 😞 The man sitting on the bench is my grandfather.

😊 The man **seating** on the bench is my grandfather.

▶ sit은 '앉다'의 뜻으로 자동사이고, seat은 '착석시키다, 앉히다'의 뜻으로 목적어와 같이 쓰는 타동사입니다. 초보들이 참 많이 헷갈려 합니다.

2. 😞 His parents, disappointed by their son's failure of the exam, left early.

😊 Parents made an early start to be disappointed with son's fallen exam.

▶ 전반적인 구조와 표현이 엉터리입니다. 번역 프로그램으로 영작한 것 같네요. 코멘트 불가능!

3. 😞 A shocking accident happened in my town.

😊 A shocking event **rose** in my town.

▶ rose는 rise의 과거형으로 stand up, get up 등 '일어나다'의 뜻입니다. 사건의 발생에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 A **shocked** accident happened in my town.

▶ 이 문장은 논리구조를 파악해야 합니다. 한 사건이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사건에 의해 놀란 것이고(shocked) 그 사건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shocking)한 사건입니다.

😊 A **shock** accident happened in my town.

▶ shock은 '사건'이란 뜻으로 명사입니다. 형용사형인 shocking으로 해야 또 다른 명사인 accident를 수식할 수 있습니다.

accident와 incident의 차이

accident는 우연히 의도하지 않게 일어난 사고입니다. 자동차 사고 등이 좋은 예입니다. 반면 incident는 은행 강도 등 의도한 사건입니다.

4. 😞 The speech bored me.

😊 The speech made me bored.

😊 The speech was boring.

5. 😞 His sudden visit surprised me.

😊 His **abrupt** visit surprised to me.

▶ sudden은 예측되고 있었다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고 abrupt 아무런 사전 예측 없는 급작스런 변화를 의미합니다. abrupt의 결과는 불쾌·불리·경악 등 부정적인 것이 많습니다. 참고로 unexpected는 예상 못했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되었다는 뜻입니다.

6. 😞 I was embarrassed at his abrupt question.

😊 I was **embarrassed** his abrupt question.

▶ be embarrassed at의 형태로 쓰입니다.

7. 😞 I have an amazing news.

😊 **There is** a surprising news.

▶ '뉴스가 있다'라고 존재를 표현해 주는 것보다 '나에게 뉴스가 있어'처럼 소유로 표현해 주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 Unit 09 참고

8. 😞 Confusing commands come endlessly.

😊 Confusing command is **ordered** continuously.

▶ '명령이 온다'라고 하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9. 😞 A satisfied customer visits the shop again.

😊 A satisfied **guest** visits the shop again.

▶ 우리말의 손님은 고객과 방문객을 구분하지 않지만 영어에서는 물건 등을 구입하는 고객을 'customer'라 하고, 장소 등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guest'라고 합니다. 쇼 프로그램에서 손님을 초대할 경우 'customer 모셨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guest 모셨습니다'라고 하지요?

10. 😞 Is there any other opinion?

11. 😞 The problem is that we don't have enough money.

12. 😞 I don't think that he was right.

😊 I don't think he was right.

▶ 'I don't think.'라고 말버릇처럼 쓰는 초보가 있는데, I don't think that~ 이라고 해야합니다.

It is possible to get htere within today? 오늘 안에 도착할 수 있겠니?

→ I don't think that we can get there within today.

오늘 안에 도착할 수 있을 거라 생각안합니다.

▶ that 이하를 짧게 so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I don't think so. 그럴 것 같지 않은데요.

▶ 만약 I don't think 만 쓰면 '나는 생각을 안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13. ☹️ Don't make me angry.

14. ☹️ I saw Chris walking with a woman.

15. ☹️ This rule has few exceptions.

☹️ There are few exceptions in this rule.

→ There are few exceptions to this rule.

▶ 전치사 to를 써서 '이 규칙에는' 으로 씁니다.

☹️ This rule has few **exception**.

▶ a few / few 모두 셀 수 있는 명사와 같이 쓰기 때문에 exceptions라고 해야 맞습니다.

16. ☹️ We have very little information.

☹️ We have very **few informations**.

▶ information은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s를 붙이거나 few와 같이 쓰면 안됩니다.

17. ☹️ We're having a few difficulties.

☹️ We're having **a little trouble**.

▶ difficulty가 곤란, 어려움의 뜻일 때는 셀 수 없지만 '어려운 일'의 뜻일 때는 셀 수 있습니다. trouble은 셀 수 없습니다. 그리고 difficulty가 trouble보다는 덜 부정적입니다.

18. ☹️ This job takes a lot of care.

☹️ This **work** takes a lot of a care.

▶ 구어체에서 일반적으로 job을 많이 씁니다. a lot of는 '많다'라는 뜻입니다. a lot of a care는 말이 안되네요.

19. ☹️ Not a few came to the stadium to see the first game of the season.

English  
Clin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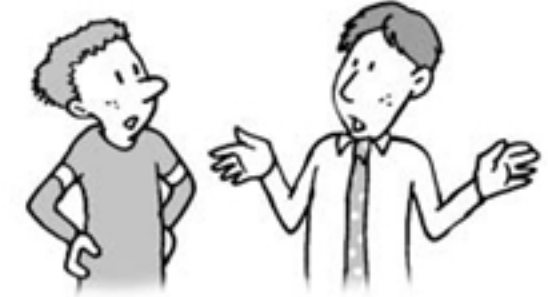
## 무슨 일인지 모르세요?

Don't you know what's going on? (×)

→ **Do you know** what's going on? (○)

A : Do you know what's going on? 무슨 일인지 모르세요?

B : Well, I have no idea. 글썄요, 잘 모르겠네요.



'~을 모르세요?'라는 표현이 때론 상대방의 반감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어떤 사실이나 상황을 알고 있는지 물을 때 '-을 모르세요?'라는 표현을 흔히 사용하지만, 이를 영어로 똑같이 표현할 수 있다는 생각은 넌센스입니다. 즉, '모르다=do not know'처럼 부정문의 형태로 상대방에게 질문을 하게 되면 큰 실례가 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Don't you know what's going on?'은 원어면 입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당신은 모르는 거야!'와 같은 뉘앙스로 들립니다. 다시 말해, 상대방이 무식하다고 비꼬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을 모르세요?'라고 물어볼 때에는 철저히 영어식으로 바꿔 **'Do you know~? ~을 아세요?'**와 같이 말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제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라고 상대방에게 물어볼 때에도 마찬가지로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이 영어로 한 설명에 자신이 없어 'Don't you understand me?'라고 하게 된다면, '내가 하는 말을 모르겠소?'라며 알보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Do you understand me?'라고 해도 다소 고압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업무상에서는 'Are you following me?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다 이해되세요?'라는 부드러운 표현을 쓰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도 잘 기억해 두세요.

또한, 'Can't you speak Korean?'과 같은 질문도 극히 위험합니다. can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상대방의 능력을 직접적으로 묻는 것과 다름이 없어, '당신은 한국어도 못해?'라며 비웃는 것처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에는 그냥 동사 do를 사용하여 'Do you speak Korean'이라고 표현해야 한다는 점에도 주의하기 바랍니다.



# 영어는 명사어구가 발달되어 있다



이 책을 먼저 공부한 베타테스터 한마디

가장 유용했던 단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영작에 가장 큰 도움을 주는 유닛이다. 저자의 말처럼 단어와 문법을 숙지하였다고 자연스러운 영작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유닛을 통하여 우리말식 콩글리시 영작을 줄이고 영어식 영작 표현에 익숙해지는 연습을 하게 되어 너무 유익하였다. 특히 서술적 표현보다 한정적 표현이 더 영어에 잘 어울린다는 내용이 좋았다.

**문장은 기본적으로 명사어구와 동사어구로 이루어집니다.** 동사어구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명사어구의 기초인 관사, 한정사, 관계사, 형용사 등을 배웠습니다. 이들 기초 소재들을 엮어서 명사어구를 만드는데 이제 그 엮는 방법과 어떻게 영작에 활용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1. 영어는 명사어구가 잘 발달되어 있다

우리말은 동사와 부사가 잘 발달되어 있는데 반해 영어는 명사어구가 문장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말식)** 여행 잘 다녀 오세요.

**영어식)** 좋은 여행 가져라.

→ Have a nice trip.

우리말 동사를 영어에서도 똑같이 동사로 처리하면 그 뜻을 쉽게 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여행을 했다’를 ‘I tripped’라고 하지 않고 ‘나는 여행을 가졌다 → I have a trip’이라고 명사를 활용해야 제대로 영작을 한 것입니다. 아래 우리말식 표현과 영어식 표현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우리말	우리말식 표현	영어
여행을 했다.	I tripped.	I had a trip.
여행을 잘 했다.	I tripped well.	I had a nice trip.
긴 여행을 했다.	I tripped long time.	I had a long trip.
기차 여행을 했다.	I tripped by train.	I had a train trip.

초보들의 기운을 꺾고 싶진 않지만 사실 단어 알고 문법 안다고 영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흔히들 영어식 사고방식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것을 잘 알아야 콩글리시를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영어식 사고방식을 이해 하지 못한 채 영어 표현법을 그냥 외웠습니다. 구어표현이라고 해서 달달 외웠는데, 별로 효과적이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보다는 네이티브의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비슷하게 흉내 내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입니다.

## 2. 명사어구 영어식으로 생각하기

**우리말식)** 이 영화는 크게 성공했다. This film succeeded greatly.

**영어식)** 이 영화는 큰 성공을 만들었다. This film made a great success.

우리말식으로 영작을 하면 ‘성공했다’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런데, 영어식은 ‘성공했다’라는 동사를 직접 쓰지 않고 ‘성공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말은 동사 중심의 표현이 많기 때문에 동사가 매우 잘 발달되어 종류도 많고 어려운 동사도 실생활에서 곧잘 씁니다. 그런데 영어는 하고자 하는 말의 중심을 명사에 놓고 그 명사를 데려오는 동사로 쉽고 기본적인 것을 고릅니다. 여기서도 make란 기본동사가 쓰였는데, 영어에서 기본동사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본동사는 unit 07부터 unit 10에 걸쳐 자세히 공부합니다.

아래 예문들은 보면 감이 좀 잡힐 겁니다.

우리말의 부사(볼드로 표시)가 영어에선 형용사로 쓰여 명사를 돕습니다.(별색부분 참고)

**하나도** 쉬질 못했어

**영어식)** 어떤 휴식도 갖지 못했어.

→ I couldn't take any rest.

물 더 줄까?

**영어식)** 더 많은 물을 원하니?

→ Would you like more water?

회원들이 얼마나 많이 왔냐?

**영어식)** 얼마나 많은 회원이 왔냐?

→ How many members came?

니가 쓴 책이 뭐야?

**영어식)** 무슨 책을 썼어?

→ What kind of book did you write?

영화관에 커플들이 많이 있었다.

**영어식)** 영화관에 많은 커플들이 있었다.

→ There were many couples in the theater.

너와의 관계를 좋게 하고 싶었어.

**영어식)** 너와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었어.

→ I wanted to make a good relationship with you.

번호를 잘못 알고 있네요.

**영어식)** 잘못된 번호를 가지고 있네요.

→ You have wrong number.

하루 잘 보내.

**영어식)** 좋은 하루 가져

→ Have a good day.

차를 새로 한대 장만 했어.

**영어식)** 새로운 차를 한대 샀어.

→ I bought a new car.

그들은 치밀하게 계획했다.

**영어식)** 그들은 치밀한 계획을 만들었다.

→ They made a careful plan.

이 장치는 비용을 줄여준다.

**영어식)** 이것은 비용을 줄여주는 장치이다.

→ It's a money-saving device.

어때요? 우리말식 사고와는 다르지만 그리 어렵진 않죠? 우리말에서는 부사로 표현되는 것을 영어에서는 형용사로 바꿔 명사를 수식했습니다. '영어는 명사어구가 잘 발달되어 있다'란 개념을 머리 속에 잘 넣어 두세요. 그리고 여러 번 읽어 보면 나도 모르게 영어식 사고방식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네이티브의 영어를 흉내 내야 합니다.

### 3. 사람을 영작할 때도 명사 중심으로!

방금 배운 명사 중심 표현은 사람을 영작할 때 유용합니다. '그는 공부를 잘 한다'를 'He studies well' 이라고 한다면 문법적으로는 맞지만 네이티브들은 어색하다고 생각합니다. 'He studies well' 이라고 말하는 네이티브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말처럼 동사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명사 중심으로 생각해 봅시다. 부사 well의 형용사는 good이므로 'He is a good student' 라고 해야 자연스러운 표현법입니다.

그는 노래를 매우 잘 부른다.

→ He is an excellent singer.

도로시는 그림을 잘 그린다.

→ Dorothy is a good painter.

:: good은 성품을 나타내는 '착하다'의 뜻이 아니라 '능숙한'의 뜻입니다. good at painting이란 소리이죠.

그는 야구를 잘한다.

→ He is a good baseball player.

그는 줄 담배를 핀다.

→ He is a chain smoker.



난 춤을 잘 못 춘다.

→ I'm a poor dancer.

:: 여기서 poor는 '가난한'이 아닌 '서툰'의 뜻입니다. poor at dancing

우리 선생님은 말을 빨리 한다.

→ Our teacher is a fast talker.

위 예문들을 보면 동사에 [-er]을 붙여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sing, paint, play, smoke, dance, talk

singer, painter, player, smoker, dancer, talker

위의 원리를 알면 '~하는 사람'을 부지기수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셈이죠.

small eater → 적게 먹는 사람

slow runner → 천천히 뛰는 사람

DVD lover → DVD를 좋아하는 사람

cartoon reader → 만화를 읽는 독자

weekday golfer → 주중에 골프 치는 사람



부사인 very와 really의 위치가 헷갈려요. 도와주세요.

very는 동사 앞에 놓으면 안됩니다. 그러나 really는 일반동사의 앞에 놓을 수 있습니다. 빈도부사처럼요.

I appreciate your concern.

→ I very appreciate your concern. (x)

→ I appreciate your concern very much. (o) (much와 함께 뒤에 놓입니다.)

→ I really appreciate your concern. (o)

## 4. 명사 중심의 표현은 곧 한정적인 표현이다

형용사를 공부할 때 [a-]로 시작되는 몇몇 형용사는 명사 앞에서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서술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형용사가 서술적으로 쓰인다고 하는데, 영어에서는 이렇게 서술식으로 쓰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네이티브는 서술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명사를 이용해 한정적인 표현을 많이 합니다. 서술적인 표현을 썼다고 해서 문법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지만 콩글리쉬 경향이 강합니다. 영어에는 서술적 표현보다는 한정적 표현이 더 잘 어울립니다. 아래의 서술적 표현과 한정적 표현의 예를 비교해보세요.

서술적인 표현 (동사와 형용사 활용)	한정적인 표현 (형용사와 명사 활용)
이 버스는 노란색이다. This bus is yellow.	이것은 노란색 버스이다. This is a yellow bus.
내방은 작다. My room is small.	나는 작은 방을 가졌다. I have a small room
이 차는 멋있다. This car is nice.	이것은 멋진 차다. This is a nice car.

한정적 표현이란 말은 곧 명사 중심의 표현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럼 서술적 표현에 익숙한 우리가 한정적인 표현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너 시간 충분하니?

→ Is your time enough? (대표적인 콩글리쉬 표현)

### ● 적용 방법

1. 명사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enough time, you)
2. enough time과 you 중에 무엇을 주어로, 무엇을 목적어로 할 것인지 고릅니다.
3. you를 주어로 하고 enough time을 목적어로 만드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이 둘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동사를 찾습니다. (기본동사를 사용에 능숙하면 금방 결정할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기본동사편에서 자세히 배워보겠습니다.)

적당한 영작) Do you have enough time?

## 참 고 하 세 요

R | 복잡한 우리말, 명사만으로도 영작할 수 있습니다. |

제 친구 중에 별명이 'X파일에 나오는 외계인에 감염된 지구인'인 사람이 있는데 흉측한 별명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는 자기 별명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제게 물어 본 적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저는 'An earthman infected by an X-file alien' 이라고 말해 줬는데 제 친구 earthman은 자기 별명이 이렇게 간결하면서도 똑 부러지게 설명되니 굉장히 만족해하는 눈치였습니다. 우리말에서는 명사와 명사 사이의 관계를 말로 풀어서 써줘야 뜻이 통하는데, 영어에서는 명사의 나열만으로도 의미 전달이 됩니다. 동사 수식에 약한 초보에게는 회소식인 셈이죠.

'미국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내 친구'를 영작해 봅시다. '학생을 가르치는'은 선생님이로 할 수 있겠죠? 'An American teacher friend of mine' 이렇게 명사를 나열하여 영작할 수 있습니다. (American teacher가 미국인 선생님인지 미국에 있는 선생님인지 헷갈릴 수도 있지만 문맥 속에서 파악이 된다면 무리 없이 쓰일 수 있습니다.)

슈퍼마켓에서 파는 빵은 맛이 없다.

슈퍼마켓 빵은 맛이 없다.

→ Supermarket bread doesn't taste good.

초보들은 'Bread which is sold at supermarkets doesn't taste good' 또는 'Bread which we buy at supermarkets doesn't taste good' 이라고 표현했을 텐데 문법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지만 유창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엔 짧고 명료하게 영작을 하면 영작 고수처럼 보이죠.



원고를 쓰면서 최근에 본 영화입니다.

우리말 제목은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입니다. 영어 원문은 Hitchhiker's Guide To The Galaxy입니다. 제목이 참 근사하지 않습니까?

Daum 카페 '유소영의 영작기술'  
Real Q & A?

Q 영어에서 하이픈은 언제 쓰나요?

A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형용사처럼 명사를 수식할 때 하이픈을 씁니다.

Does anyone else think this is a **well-made** play?

하지만 명사를 수식하지 않는데, 하이픈을 쓰면 안됩니다.

This book is **well made**. (o)

This book is **well-made**. (x)



## KEY POINT

- 1 명사 중심으로 써라.  
I had a long trip.
- 2 부사 수식 대신 형용사 수식을 써라  
This film succeeded greatly → A This film made a great success.
- 3 사람도 명사중심으로 표현해라.  
He is a good student.
- 4 한정적인 표현에 익숙해져라.  
This is a yellow bus.



## Unit 05 영작연습

1. 밥 더 좋까? 카페 회원 정답율 70%

2. 학생들이 얼마나 왔니? 카페 회원 정답율 50%

3. 해변에는 사람들이 많았다. (해변 : beach) 카페 회원 정답율 50%

4. 즐거웠습니다. 카페 회원 정답율 60%

5. 어제 파티가 조촐하게 열렸다. (조촐한 : small) 카페 회원 정답율 70%

6. 그는 식구가 단출하다. (단출하다 : small) 카페 회원 정답율 70%

7. 공부를 잘하고 싶다. 카페 회원 정답율 60%

8. 그 화가는 유명하다. 카페 회원 정답율 70%

9. 그는 팀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다. 카페 회원 정답율 60%

10. 그는 협상을 잘한다. (협상하다 : negotiate) 카페 회원 정답율 40%

괜찮은 답 ★

어색한 답 ?

1. Would you like more rice?

Do you want to have more rice.

Do you want to have more meal?

▶ meal은 한끼의 식사입니다.

2. How many students came?

3. There were many people in the beach.

4. We had a nice time.

I had a good time.

I was happy.

▶ I was happy는 '난 행복했다' 입니다.

5. We had a small party yesterday.

It was small party yesterday.

▶ '그것은 작은 파티였다' 란 뜻입니다. 원문과 다른 뜻이네요.

Small party was hold yesterday.

→ A small party was held yesterday.

6. He has a small family.

He has small families.

▶ family는 단수로 써서 식구란 뜻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의 가족만 가질 수 있습니다.

### 조심해야 할 단어 family

식구란 뜻일 때는 복수로 취급해서 복수동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혼란스럽게도 복수동사를 받으면서 정작 family 자신은 families라고 안하고 family로 단수를 씁니다.

His family are all early risers. 그의 집안식구들은 모두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family가 가족이란 뜻일 때는 일반명사로서 평범합니다.

His family is small.

그의 가족은 작다? 대가족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Two families live in this house. 이 집에는 두 가족이 살고 있다.

이러한 성격을 갖는 단어로는 audience, committee 등이 있는데, 말하는 이의 focus가 어디에 잡혀 있는가를 살펴보면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His family are all early risers' 여기에서는 각각의 가족 구성원인 식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동사 복수형을 썼습니다.

7. 😊 I want to be a good student.

😊 I wish study well.

▶ 콩글리쉬입니다.

8. 😊 He is a famous painter.

9. 😊 He is the best player in the team.

😊 He is the **most** player in the team.

▶ 가장이라는 의미로 most를 썼네요. best와 most를 헷갈리는 분이 많은데, best는 good-better-best 에서 나온 것입니다. most는 much-more-most에서 나온 것이구요. best와 most가 헷갈릴 땐 good과 much를 넣어 보세요. He is the good player, He is the much player 어떤 것이 뜻이 통하나요? 참고로 most는 3 음절 이상의 형용사를 수식합니다. (the most beautiful)

10. 😊 He is a good negotiator.

English  
Clin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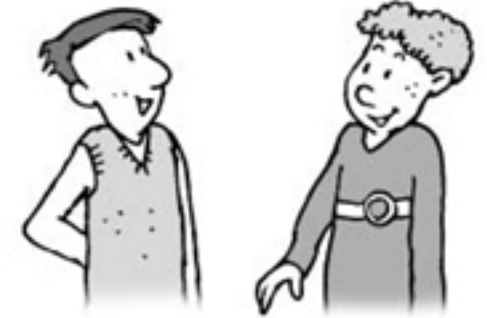
### 지금 가요.

I'm going. (×)

→ I'm coming. (○)

A : Mike, come on down for supper. 마이크, 저녁 먹으로 내려와.

B : Okay. I'm coming. 알았어요. 가요.



### '가다'와 '오다'도 뉘앙스를 잘 살려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동사에 속하는 go와 come의 정확한 사용 문제도 한국인에게 흔히 발견되는 최대의 약점 중 하나입니다. 아직도 단순히 '가다 = go, 오다 = come'이라는 도식에 매달려 있다면, 여전히 이 문제 때문에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큼니다.

'I'm going'은 '어딘지 모르는 다른 곳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뜻으로 들리게 됩니다. 즉, '이리로 오라고 했더니, 도대체 어디로 간다는 거야?'라며 이상하게 여기는 것은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화를 낼 여지도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I'm coming'에서 동사 come을 쓰는 이유는 '내가 상대방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문장의 주어와 상대방이 서로 접근하게 되는 경우에는 come, 서로 멀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동사 go를 씁니다. 이번 경우에는 주어 I가 상대방에게 다가가고 있으므로 동사 come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다른 예로, 한 친구와 일식집에 가는 길에 다른 친구와 우연히 만나게 되어 '우린 일식집에 가는 중이야.'라고 표현하는 경우, 'We are going to the Japanese restaurant'이라고 하면 됩니다. 반면, '같이 갈래?'라고 말할 경우, 'Why don't you come with us?'라고 합니다.

주어 you와 우리인 us가 서로 떨어져 멀어지는 게 아니라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동사 come으로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점을 잘못 이해해서 'Why don't you go?'라고 말해 버리면, '저쪽으로 가지 그러니?'라는 뉘앙스가 되어 버려 서로 오해하게 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초대받은 파티의 참석 여부를 묻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에게 '파티에 갑니까?'라고 묻더라도, 여러분이 직접 가는지의 여부에 따라 동사의 표현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도 함께 가는 경우에는 'Are you going to the party?'가 되는 반면, 직접 참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Are you going to the party?'가 되는 것입니다. 주어가 I나 you가 아닌 경우, 즉 제3자인 경우도 원칙적으로 동일합니다. 예를 들면, A라는 도시에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제3의 인물 B에 관해 언급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만약, 화제의 인물 B가 A로 올 때에는 'B is coming to A'라고 표현하고, 화제의 인물 B가 C라는 장소로 갈 때에는 'B is going to C'라고 표현해야 합니다.



# 네이티브는 대명사를 이렇게 활용한다



이 책을 먼저 공부한 베타테스터 한마디

영작을 할 때 막상 우리말에 주어가 없는 문장을 영작하려면 참 막막할 때가 많다. 그러나 이 유닛을 통하여 영어의 대명사가 포괄적으로 사용된다는 내용이 내 궁금증을 해소했다. 가장 유용했던 내용은 시간, 자연, 기후 등에 주어 we를 쓰는 것이 더 쉽다는 설명과 예문이었다. 그리고 공부해도 헛갈리는 another, the other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 1. 영어의 대명사(I, we, you, he, she, they 등)는 포괄적으로 사용될 때가 많다

전화상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목소리가 안 들리면 우리는 '네 목소리가 안 들려' 라고 하는데 영어는 '네가 안들려? I can't hear you' 라고 합니다. 'I can't hear your voice' 라고 하면 쉬울 텐데 your voice라고 친절하게 말해 주지 않고 you라고만 합니다. 영어는 우리말보다 대명사가 포괄적으로 쓰입니다. 특별하게 언급하지 않아도 전화상에서 you가 안 들린다고 하면 상대방은 그것이 당연히 your voice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러한 표현법은 문맥과 상황을 잘 파악한 후 영작에 적용해야 하는데, 예문을 보고 연습해 봅시다.

### 1-1 you

you는 기본적으로 '당신' 또는 '당신들' 인데, 포괄적으로 사용되면 당신과 관련된 일체의 것들의 주어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네 회사, 당신네 가게, 당신네 학교 등등. 다만, 앞 뒤 상황을 상대방이 충분히 알고 있을 경우에 써야 합니다.

이거 빨간색으로 있어요? (상점에서)

→ Is there red one of this? (콩글리쉬)

→ Do you have it in red color?

물건 사는 사람이 판매자에게 you라고 한다면, 여기에서의 you는 your shop입니다.

디스크 있어요? (담배가게에서 디스크를 찾을 때)

→ Is there a This? (콩글리쉬)

→ Do you have This? (you = your shop)

카드 결제되요?

→ Is credit card possible? (콩글리쉬)

→ Do you take credit card? (you = your shop)

### 1-2 they

they 역시 포괄적으로 쓰입니다.

저 가게는 친절해.

→ The shop is kind to customers. (콩글리쉬)

→ They are kind to customers.

they는 가게 사람들입니다.

저 가게 배달되나?

→ Is the shop possible to do delivery service? (콩글리쉬)

→ Do they have delivery service? (they = 가게 사람들)

베트남에서는 삼모작을 하고 있다.

→ They have three time croppings a year in Vietnam. (they = 베트남 사람들)

그 집은 커피 한 잔에 2,000원을 받는다.

→ They charge 2,000 won for a cup of coffee. (they = 가게 사람들)

### 1-3 we

we 또한 영어에서는 포괄적으로 쓰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한국어의 '우리' '저희' 를 we 로 무작정 쓰면 안되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한국어에서는 '우리' 와 '저희' 가 다르죠? '저희' 는 듣는 사람을 포함시키지 않고 '우리' 는 듣는 사람을 포함시킵니다. 하지만 영어는 '우리', '저희' 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를 영어로는 'we will take care of it' 이라고 하는데, 위 영어를 다시 우리말로 옮길 때 '우리가 알아서 할거야' 라고 하면 원래 뜻과 다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we를 해석 할 땐 문맥과 상황을 잘 판단해서 우리인지, 저희 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Thanks for joining **us**.

**us**는 저희가 준비한 어떠한 이벤트를 뜻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받지 않습니다.

→ **We** don't take credit card. (We = our shop)

우리는 좀 더 나은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 **We** have better solutions. (We = our company)

이 바지 빨간 색으로도 있어요.

→ **We** have red pants. (We = our shop)

그 물건은 재고가 너무 쌓여서 밀지고 파는 겁니다.

→ **We** are overstocked on that item, so **we** are selling it below cost. (We = our shop)

그 상품을 발송하겠습니다.

→ **We** will forward the merchandise to you. (We = our company)

지금까지는 상대방을 제외한 '저희'의 개념의 **we**를 살펴 봤습니다. 이제부터 나오는 **we**는 상대방도 포함하는 '우리' 개념의 **we**입니다.

시간이나, 자연, 기후 등은 무생물주어 **it**을 써야 한다고 학교에서 배웠죠? 그런데 **we**를 쓰면 훨씬 더 쉽게 영작 될 때가 많습니다. 네이티브가 어떻게 **we**를 썼는지 주의 깊게 보세요.

기온은 평년과 같다.

→ **We** have the average temperature.

봄내비 한 방울 오지 않았다.

→ **We** have been without rain the whole spring.

이번 눈보라는 10년내 가장 심한 것이다.

→ **This** is the biggest snowstorm we have had in the past 10 years.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 **We** reached Seoul.

시간이 넉넉하다.

→ **We** have enough time.

You, They, We의 용법이 우리와는 사뭇 다른 것을 봤습니다. 우리말에선 '카드 결제되요?' 처럼 사물이 문장의 주체인데, 영어는 사람이 주체가 되어 '당신은 카드 받나요?' 라고 합니다. 지금 배운 내용은 외우는 것 보단 감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작뿐만 아니라 회화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니 잘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 2. 거시기 **it**과 문장 속의 특정한 뜻을 받는 **it**

영화 황산벌에서 백제군이 쓰던 말 '거시기' 때문에 신라군이 어려움을 겪는 장면이 있습니다. 백제군 사이에선 서로 알고 있는 상황을 '거시기' 라고 하여 통칭했는데, 영어에서는 **it**이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이심전심으로 뜻이 통하는 거시기 **it**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상황** 부장님이 아침부터 부르시더니 이것 저것 지시하십니다.

**You got it?**

:: 여기서 **it**은 그 지시사항이 되겠죠.

뜻) 거시기 알아 듣겠냐? / 내 지시 알겠어?

**상황** 8월입니다. 동생이 바깥에서 돌아오더니 말하네요.

**It's hot today.**

:: today는 hot이라는데, **it**은 뭘까요? 기온이겠지요.

뜻) 거시기 덥네. / 오늘 더워.

**상황** 택시를 잡아 타고 광화문까지 가자고 했습니다. 같이 탄 외국인 친구가 물어보길

**How far is it?**

:: 여기서 **it**은 광화문까지의 거리입니다.

뜻) 거시기 얼마나 멀어? / 광화문까지 얼마나 멀어?



**상황** 인건비가 비싼 미국에는 DIY 관련 잡지가 많습니다. 목공, 페인트칠, 봉제, 수선 등등의 정보가 있는 잡지입니다.

#### DIY(do it yourself)

:: 당신 스스로 그것을 하십시오. 필요? 집안일과 관련해서 기사를 부르지 말고 스스로 문짝도 고치고, 식탁도 고치고, 아이들 방 페인트도 칠하고...

뜻) 혼자 하시오.

**상황** 친구가 방황을 하고 있어요. 취직도 안되고, 여자친구와도 소원해지고...

#### You can work it out.

:: it은 친구를 둘러싼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입니다. 그것을 work해서 out(그 상황에서 빠져 나오는)할 수 있습니다.

뜻) 난 거시기 잘 할 수 있어. / 난 네 일들을 잘 할 수 있어.

앞에서 배운 거시기 it은 인지상정으로 언급하지 않아도 서로간에 알고 있는 it입니다. 이에 반해 it이 어떤 것인지 문장 속에서 나타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나는 실험에 참여할 적합한 어린이 청중을 선택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I found it difficult to choose an appropriate audience of children to participate in my research.

이 글을 읽는 사람은 문맥 속에서 it이 가리키는 것이 to 이하의 밑줄 친 부분이라는 걸 알아차립니다. 글쓴이가 it을 쓴 이유는 정작 하고 싶었던 말인 to 이하 부분이 너무 길어서 헛갈릴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I found choosing an appropriate audience of children to participate in my research is difficult.

이러한 it의 용법을 '가주어/가목적어'라고 하는데 문법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영작에서는 가주어/가목적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문법용어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it을 활용하여 긴 주어나, 긴 목적어를 영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초보가 꼭 익혀야 할 영작기법의 하나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어나, 목적어가 길다 싶으면 it을 사용해서 대체 해주고 뒤에서 설명해 주면 됩니다. 저는 주어, 목적어가 길어 질 것 같다 싶으면 It is true that, It seems that, It is recommended that, It's natural that, It's clear that, I found it ~, I made it~ 등등 제가 가지고 있는 영작 표현(영작 밑천) 등을 일단 끄집어 냅니다. 그리고 논리에 맞게끔 that절이나

to부정사를 이용해서 연결해 준답니다.

이 사이트를 보기 위해선 최근 버전의 Netscape나 Internet Explorer를 사용하길 권장합니다.

→ To view this site it is recommended that you use a recent version of Netscape or Internet Explorer.

→ To view this site it is recommended to use a recent version of Netscape or Internet Explorer.

:: it is recommended는 to부정사와 that을 둘 다 사용합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살을 빼는지 다 안다.

→ It is true that most of us know how to lose weight.

:: it is true는 that을 사용하고 to부정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두들 Zoloft가 증가된 자살성향의 원인이라고 알고 있는 것 같다.

→ It seems that everyone knows Zoloft causes increased suicidal tendencies.

:: it seems everyone to know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Everyone seems to know that은 가능합니다.

내가 낼 거라고 분명히 해줬다.

→ I made it clear that I would pay it.

:: I made it clear 다음에는 to부정사가 오지 않습니다.



**Q** 가주어/가목적어의 it이 to부정사, that을 가려서 쓰는데 정말 헛갈려요. --;;

**A** I found it difficult to pass the test. (o) / I found it difficult that I would pass the test. (x)

'find it difficult' 은 to부정사와 잘 어울립니다. difficult의 성격이 to부정사와 잘 어울리기 때문인데 동사를 바꿔줘도 매 한가지입니다.

I know it difficult to pass the test. (o) / I know it difficult that I would pass the test. (x)

이러한 용법 때문에 영어가 어렵습니다. 딱히 이유를 설명해 주는 이론도 없고 네이티브에게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그냥 그렇게 쓴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영어를 많이 접해서 find it difficult 다음에 that이 나오면 '어라 이상하네' 라는 반응이 나와야 하는데, 이런걸 체득이라고 해야 하나요.

ps : 우리말에서 불고기는 불고기로 발음하는데, 왜 불고기는 물고기로 발음할까요? 외국인이 우리말을 배울 때도 이렇게 체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3. it과 one 비교하기

it과 one의 차이는 the과 a의 차이와 비슷합니다. the는 it과 비슷하고 a는 one과 닮았습니다. 이 책 처음에서 배운 것처럼 the는 '이미 한번 언급된 것', '상대방도 알고 있는 것', '꼭 집어 말할 수 있는 것'에 씁니다. it도 비슷하지요. the와 a의 개념을 가지고 아래 문제들을 한번 풀어 보세요.



1. 친구가 새 차를 한 대 샀습니다.

(a) Hey~ I want to take a look at it. (b) Hey~ I want to take a look at one.

2. 어머 손님 다시 오셨네요. 아까 보시던 걸로 하실래요?

(a) Yes, I will take it. (b) Yes, I will take one.

3. 형이 여러 색깔의 펜 사왔다. 무슨 색깔 펜 가질래?

(a) Please give me the black one. (b) Please give me the black it.

4. 시계 없나?

(a) I need to buy one. (b) I need to buy it.

(a) '1', (b) '2', (c) '3', (d) '4', (e) '5'

### 4. another과 the other

another과 the other 역시 a와 the의 개념에서 출발합니다. another는 [a + other]인데 other에 모음 [o]가 있어서 an으로 바뀐 것입니다. '다른 것 하나'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the other는 문자 그대로 [the + other]입니다. 다른 것(other)이긴 한데 the(그) 다른 것이랍니다. the는 수 차례 얘기한 대로 '이미 한번 언급된 것', '상대방도 알고 있는 것', '꼭 집어 말할 수 있는 것'이므로 the other는 아무 other가 아니라 특정한 other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잠깐 상황을 예로 들겠습니다.

점원이 이것 저것 옷을 골라 주는데 마음에 별로 안듭니다.

손님 : Please show me **another**. 다른 것으로 하나 더 보여 주세요.

점원 : I will show you two different styles. First, let's try the red one.

두 가지 다른 스타일 보여드릴게요. 우선 빨간색 먼저 보세요.

손님 : Well, I don't like red color much, please show me **the other**.

전 빨간색 별로예요. **다른 것** 보여주세요.

마지막 대화의 밑줄 친 the other은 점원이 가지고 온 옷 2벌 중 빨간색이 아닌 다른 것을 가리킵니다. 점원이 두벌 가지고 왔는데, 하나는 싫다고 했고, 다른 것을 보여달라면 점원도 알고 있는 옷입니다. 그래서 the를 씁니다. 상황을 계속 보면,

손님 : Sorry, this is also not my style. May I try **others**?

미안해요. 이것도 제 스타일이 아니네요. **다른 것들** 입어봐도 돼요?

점원 : No problem. 물론이죠.

처음엔 다른 것으로 하나 보여 달라더니 이제는 다른 것들을 보여 달랍니다. 여러 개이므로 other의 복수인 others로 하면 간단합니다. other에 우리가 배운 명사와 관사의 개념을 넣으면 쉽게 이해됩니다.

난 형제가 둘이 있어. 하나는 초등학교에 다니는데 다른 하나는 아직 아기야.

→ I have two brothers. **One** is an elementary school student and **the other** is still a baby.

우리는 이 도시에서 3개월 더 지낼 거야.

→ We will stay in this city for **another** 3 months.

:: 3 months는 복수형인데, 왜 [a+other]이죠? 여기서 3개월을 하나의 기간으로 본 것입니다.

3개월씩 나눠서 한 term(기간)으로 했네요.

건강 저축계좌는 의료비를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입니다.

→ Health savings accounts offer **another** way to cover medical costs.

:: 해결 방안이 하나 밖에 없다면 another이라고는 못씁니다. 해결 방안이 여럿 있지만 그 중 하나가 될 수 있으므로 [a+other way]입니다.

최신 보안, 수화물 처리 시스템은 예전 오래된 시스템과 별 다를 바 없는 단순한 다른 방안일 뿐이다.

→ The newest security and luggage handling system is just **another** way of doing the same old thing.



## 참 고 하 세 요

R | 문법시험에 많이 나오는 one, another, the other |

연필이 세 자루 있는데 그 중 아무거나 하나 가지랍니다. "take one" 그럼 두 개 남죠? 그 중 아무거나 또 하나 가지라고 하네요. "take another" 자 그럼 하나 남았습니다. 이때는 아무거나 아닙니다.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이 the other가 되는 것이지요.

의도와 상관 없이 맨 마지막에 남게 되어 특정한 연필이 되버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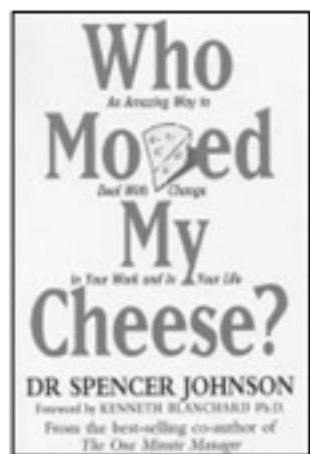
그럼, 연필이네 자루면? one, another, another, the other가 됩니다.

이러한 관계를 이해한다면, 문장 속에 another가 나오면 다른 것들도 있나 보다 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 5. 또다른 거시기 thing

문법책에선 별로 언급하지 않지만 thing은 정말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딱 부러지게 매치되지 않아서 해석 할 때는 얼버무리기 일쑤이죠. 문맥에 따라 그 뜻이 다양하게 쓰이기 때문에 thing은 거시기 it과 비슷합니다.

아래는 베스트셀러였던 'Who moved my cheese'에 나오는 글입니다.



After that, **things** quickly improved – at work and in my life.

→ 그 뒤로, 거시기들이 개선되기 시작했다. — 직장에서 그리고 내 인생에서.

:: thing은 직장내의 성과, 승진, 인생에의 목표, 삶의 질 등등이겠죠.

**Things** are changing here.

→ 이곳의 모든 거시기들이 변했다.

:: 갑자기 치즈가 없어지고 난 뒤에 주인공들의 반응입니다. 치즈가 없어진 후 많은 것들이 변했지요.

Maybe we need to change and do **things** differently.

→ 아마 우리는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거시기들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다.

:: 새로운 치즈를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지만 찾지 못하고 있을 때 한 주인공이 하는 말입니다. 거시기 치즈를 찾기 위한 노력들이겠네요.

He tried to take control, rather than simply letting **things** happen to him.

→ 그는 거시기들이 그에게 일어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 보다는 관리를 시도했다.

:: 계속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몇몇은 포기하기 시작했지만 한 주인공은 마음을 다잡고 control합니다. things는 나빠지는 일련의 일들입니다.



애니메이션 Bugs Life에서 개미들이 다른 곤충에게 작은 돌을 선물로 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선물로 돌을 받으니 황당해 하는 곤충에게 다른 곤충이 속삭이며 말합니다.

Maybe it's an ant **thing**.

→ 그건 아마 개미들만의 거시기일 거야.

:: thing은 개미들이 귀하게 생각하는 선물입니다.

이렇듯 thing은 글의 주제나 흐름에 의해 뜻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에세이 등 긴 글을 쓸 때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 6. no one, nothing 적용해서 영작하기

no one, nothing, nobody 등 부정의 뜻이 있는 대명사도 영작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이티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이 단어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 6-1 no one

모두들 알고 있듯이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 a) As everyone knows, this project is very important to us.

→ b) **No one** denies that this project is very important to us.

위 두 가지 표현은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초보들은 b)의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말이 b)패턴보다는 a)패턴에 가깝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a)패턴의 글이 틀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b)패턴을 잘 익혀서 적당히 섞어 쓰면 영작이 훨씬 다채로워 집니다.

모두들 늦지 않았어요.

→ **Everyone** came on time.

→ **No one** came late.

:: everyone이 on time이라면 no one이 late했겠네요. 주어의 성격이 변함에 따라 부사의 성격도 바뀐 점을 잘 보세요.

우리 가족만이 그 비밀을 알고 있다.

→ Only my family knew the secret.

→ No one knew the secret except my family.

내 꼬마 동생은 우리 아빠 외엔 아무도 못 말려요.

→ Only my father can stop my kid brother.

→ Nobody, but my father, can stop my kid brother.

:: no one을 대신해서 nobody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no one을 쓸 때는 관계대명사와 같이 쓰기 쉬운데, 간결하게 no one만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실히 아는 사람이 없다.

No one knows for sure.

→ There is no one who knows for sure.

### 6-2 nothing

그녀는 아들의 요구는 모두다 들어준다.

→ She accepts everything her son asks.

→ She denies nothing to her son.

그는 요새 술 마시는 것이 일이다.

→ All he does is drink these days.

→ He does nothing but drink these days.

이제는 어쩔 수 없다

→ It can't be helped now.

→ Nothing can be done now.

### 6-3 비교급, 최상급에 적용하기

no one, nothing은 비교급, 최상급에 쓰여 매우 감칠맛 나게 뜻을 전달 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네이티브가 아주 많이 쓰는 표현법이므로 잘 익혀서 흉내 내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쉽다.

This is the easiest thing.

→ Nothing could be easier

:: 비교급을 썼지만 의미상 최상급이네요.

시간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Time is the most precious thing.

→ Nothing is more precious than time.

짐은 반에서 가장 큰 학생이다.

Jim is the tallest student in the class.

→ No one in the class is taller than Jim.

에베레스트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Mt.Everest is the highest mountain in the world.

→ No (other) mountain in the world is higher than Mt.Everest.

:: no one에서 one은 일반명사인 데, one 대신 다른 명사들을 대입해서 다양한 상황에 적용 할 수 있습니다. 이 예문은 no mountain이라고 했네요.

요리에 관해서는 그녀가 최고다.

→ She is the best when it comes to cooking.

→ No one can do better than her when it comes to cooking.



#### KEY POINT

1 영어의 대명사(I, we, you, he, she, they 등)는 포괄적으로 사용될 때가 많다.

Do you take credit card?

Do they have delivery service?

We have better solutions.

2 거시기 it / 문장 속의 특정한 뜻을 받는 it

You can work it out.

It is true that most of us know how to lose weight.

3 another는 [a+other], the other는 [the+other]

4 또다른 거시기 thing

Things are changing here.

5 no one, nothing 적용해서 영작하기

No one came late.

Nothing can be done now.



## Unit 06 영작연습

1. 우리 현금만 받아요. (현금 : cash) 📊 카페 회원 정답율 90%

2. 영수증은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영수증 : receipt) 📊 카페 회원 정답율 70%

3. 올 봄은 예상치 않게 더웠다. 📊 카페 회원 정답율 50%

4. 돈이 충분하지 않다. (회사에서 예산 등과 관련된 표현을 할 때) 📊 카페 회원 정답율 70%

5. 한 시간 뒤 부산에 도착합니다. 📊 카페 회원 정답율 60%

6. 이거 파란색으로 있어요? 📊 카페 회원 정답율 70%

7. 맥주 있나요? 📊 카페 회원 정답율 90%

8. 그들은 쌀을 주식으로 한다. (주식으로 하다 / 주로 먹는다 : live on) 📊 카페 회원 정답율 40%

9. 저 가게에서 쌀을 판다. 📊 카페 회원 정답율 70%

10. 이 호텔은 서비스가 좋다. 📊 카페 회원 정답율 60%

11. 이 가게는 녹차 한잔에 4,000원이다. 📊 카페 회원 정답율 70%

12. 난 그 조직의 규범들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I found it difficult를 이용하세요 / 조직의 규범들 : organization's rules) 📊 카페 회원 정답율 60%

13. 그들의 패배가 많은 야구 팬들에게 비극이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패배 : loss / 비극 : tragic)

📊 카페 회원 정답율 60%

14. 그는 그 회사를 인수하지 않을 거라고 분명히 했다. (인수 : takeover) 📊 카페 회원 정답율 60%

15. 당신은 우리의 역사를 모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신은 진실에 대해 아는 게 없어요. (진실 : truth)

📊 카페 회원 정답율 60%

16. 매주 적어도 6~8온스의 생선을 먹는 것을 권장합니다. (온스 : ounce) 📊 카페 회원 정답율 40%

17. 맥주 하나 더 필요해요. 📊 카페 회원 정답율 90%

---

18. 차 한 대 더 가지는 것을 고려중이다. 📊 카페 회원 정답율 60%

---

19. 내 부서를 비롯하여 우리 회사의 모든 것들이 바뀌었다. (부서 : department) 📊 카페 회원 정답율 50%

---

20. 내겐 당신이 가장 소중한요. (비교급을 이용하세요) 📊 카페 회원 정답율 80%

---

21. 그는 반에서 가장 작다. (비교급을 이용하세요) 📊 카페 회원 정답율 90%

---

😊 괜찮은 답 ★ | 😬 어색한 답 ?



1. 😬 We take only cash.

😊 We take only **money**.

▶ 현금은 cash로 씁니다. we take only money는 '우리는 돈만 받습니다' 라는 뜻이네요.

2. 😬 We send receipt through mail.

😊 We will forward the receipt through mail.

😊 I'll send receipt **to post**.

▶ 일반적인 내용을 말할 땐 현재시제를 씁니다. to post는 by post로 해야 합니다.

3. 😬 We had unexpectedly hot weather this spring.

😊 We had **unexpected** hot weather.

▶ 형용사 hot을 수식해 주려면 부사형식으로 써야 합니다. unexpectedly로 해야 맞습니다.

4. 😬 We don't have enough money.

😊 We have **no enough budgets**.

▶ have no budgets 이라고는 하지만 have no enough budgets이란 말은 쓰지 않습니다.

5. 😬 We will be arriving in Busan in 1 hour later.

😊 We will arrive in Busan after an hour.

😊 We will arrive **at** Busan after an hour.

▶ arrive in Busan입니다. '한 시간 안에 도착한다' 등의 시간을 나타낼 때는 in을 씁니다.

6. 😬 Do you have this in blue color.

😊 Do you have this in **blue**.

▶ blue는 형용사로서 '파란색의' 라는 뜻입니다.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나 명사어구가 와야 하기 때문에 'in blue color' 라고 해야 맞습니다.

7. 😬 Do you have beer?

8. 😬 They live on rice.

😊 We **eat rice as main food**.

😊 We eat a rice everyday.

▶ 주식으로 하다는 live on의 표현을 씁니다.

9. 😬 They sell rice at that store.

😊 They have **rices**.

▶ rice는 단수 취급합니다.

10. 😬 They give good service in this hotel.

😊 They have a good service.

▶ 호텔을 지칭하는 표현이 빠졌습니다.

11. 😬 They charge 4,000won for a cup of green t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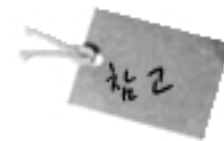
😊 They charge 4,000**wons** for a cup of green tea.

▶ 화폐단위 won은 무조건 단수 취급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동양권 화폐단위는 단수이며, (일본 10 yen, 중국 10 yuan) 서구권의 화폐단위는 복수형을 씁니다. (미국 10 dollars, 영국 10pounds, 스페인 10pesos, 러시아 10rubles, 유로 10 euros) 공식적으로는 복수형을 써야 하는데 아무도 복수형으로 쓰지 않네요. 심지어 신문에서 조차 유로는 단수로 씁니다.



12. I found it difficult to understand some of the organization's rules.
- I found it difficult **to understand** some of the organization's rules.
- ▶ difficulty는 동명사구문을 이끕니다. 따라서 'I found it difficulty in understanding~' 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 I found it difficult to understand some of the organization's **regulation**.
- ▶ regulation은 정부에서 만든 법률 등의 규정이며 rule은 regulation보다 덜 엄격하고 일반인들이 만든 규칙 등입니다.

13. It's true that their loss was tragic to many baseball fans.
- It is true that their loss **is** the tragic to **their's fan**.
- ▶ 시제 오류입니다. their fan입니다.
- It is true that their failure **shock** to their fans.
- ▶ that절에 동사가 없습니다. 맞는 문장은 'It is true that their failure was a shock to their fans' 입니다.



영어는 운동과 스포츠를 구분합니다. golf, skate, ski, swim 등 스포츠 보단 운동 쪽에 가까운 것은 play를 같이 쓰지 않습니다.

골프를 치다 : I played golf (x) Where does he golf? (o)

스케이트를 타다 : Did you enjoy playing skating? (x) Did you enjoy skating (o)

스키를 타다 : Can you play ski? (x) Can you ski? (o)

수영을 하다 : Do you know how to play swim? (x) Do you know how to swim? (o)

반면 규칙이 있는 스포츠를 하는 것은 play를 붙입니다. baseball, soccer, tennis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혼자 골프를 치는 것은 play를 안 붙이지만 경기로서 골프를 치는 것은 play를 붙입니다.

14. He made it clear that he will not takeover the company.
- It is **clear** that he **does not** take the company over.
- ▶ '그는 분명히 했다' 이므로 주어는 '그' 입니다.
- He made it **clean** that he will not takeover the company.
- ▶ '분명히 하다' 는 clear을 쓰며, clean은 '깨끗이 하다' 라는 뜻입니다.
15. It seems that you don't know our history; you know nothing of the **truth**.
- It seems that you do not know our history. You know nothing about true.
- ▶ 여기서 true는 역사와 관련한 특정한 true이기 때문에 the를 넣어야 합니다.
16. It is recommended to eat at least 6-8 ounces of fish each week.

- It is recommended that you eat **at most** 6-8 ounces fish **everyweeks**.
- ▶ at most는 '기껏해야' 입니다. / 매주는 every week 입니다.
- It is recommended that we eat the **fish with 6-8 ounce** every week.
- ▶ 수량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할 땐 명사 앞에 써줍니다.
- It is recommended to eat 6 to 8 ounces **each week of fish**.
- ▶ 수식해주는 말은 수식을 받는 말과 최대한 가깝게 위치시켜야 합니다. 6 to 8 ounces가 수식하는 단어는 fish이지 a week가 아닙니다. 따라서 어순은 6-8 ounces of fish each week이라고 해야 합니다.

17. I need another beer.
18. I've been considering having another car.
- I am thinking **to get** another car.
- ▶ 어떠한 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think of를 씁니다.
- I am thinking of getting another car.
19. Things have been changed in our company including my department.
- Everything **changed in our department and our company**.
- ▶ things를 이용하면 좋을 뻔 했네요. 변해 온 것이므로 완료형이 좋습니다.
- Everything, including our department, has changed in our company.
20. No one is more precious than you for me.
21. No one in the class is smaller than him.
- No one in the class is **small than** him.
- ▶ than은 비교급과 같이 쓴다는 것이 매우 기초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많이들 틀리네요. 이러한 사소한 실수가 영작시험에서 감점 요인입니다.

영어식 사고로 쉽게 쓰는  
유소영의 영작 1교시



## Part 2

# 문장 풀어내기

**Unit 07** 영작 고수는 기본동사를 잘 쓴다 1 - Get

**Unit 08** 영작 고수는 기본동사를 잘 쓴다 2 - Make

**Unit 09** 영작 고수는 기본동사를 잘 쓴다 3 - Have

**Unit 10** 영작 고수는 기본동사를 잘 쓴다 4 - Give, Take

**Unit 11** 기본동사와 명사어구 짝짓기

Part 2에서는 문장의 2대 구성요소인 술어부분을 다룹니다.

주어부분을 만들었다면 이를 풀어내는 술어를

제대로 맞추어 주어야 영작이 완성이 됩니다.

이 책에서는 영어식 사고에 기반을 둔 영작기법으로 기본

동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장 흔히 쓰이는 기본동사

get, make, gave, give, take 등을 내 것으로 만들면

어려운 단어를 쓰지 않아도 웬만한 상황은 쉽게 영작 할 수 있습니다.



# 영작 고수는 기본동사를 잘 쓴다 1 - GET



이 책을 먼저 공부한 베타테스터 한마디

get에 대한 두 가지 핵심개념이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상태변화를 나타내는 get에 대한 설명이 특히 유용했다. 문장이 길어지면 후자 쪽이 더 까다롭기 때문이다. 이 유닛에서는 예문이 좀 어려웠는데, 오히려 공부하는 데에 는 더욱 도움이 된 것 같다. 또한 [A/B]타입 get 영작하기를 통하여 자세한 영작법도 익히게 되어 좋았다.

우리는 초·중·고등 과정을 통해 수많은 영어단어를 외워왔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단어, 회화에 쓰이는 단어 등등 외우는 것 하나만큼은 다들 열심히 했을 겁니다. 단어를 많이 알면 확실히 영작 할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도 단어를 많이 외우라고 이야기 합니다.

초보는 어휘력(vocabulary)이 약하기 때문에 영작할 때 아무래도 고생을 많이 합니다. 밀천이 달리면 장사하기 힘들잖아요 ^^ 하지만 단어를 많이 알아야 영작을 잘 한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적은 밀천으로도 충분히 영작을 잘 할 수 있는데 그 방법들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영작은 표현을 많이 외우고 문법에 통달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학교 때 배운 영어실력을 밀천으로 영작의 특징만 공부하면 그리 어렵지 않게 일기도 쓰고 이메일도 보낼 수 있습니다.

Unit 07부터 Unit 10까지 기본동사를 배울 예정인데 초보가 적은 단어를 밀천으로 영작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웁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get, make, take, give, do 등 기본동사(영어의 완전 초보들도 알고 있는 정말 기본 밀천 단어)들의 개념을 익혀 보고 고급 단어를 몰라도 쉽게 영작 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합니다.



단어를 외울 때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주세요.



단어를 외울 땐 한 단어만 외우지 말고 keep from doing anything처럼 동째로 외우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동째를 네이티브들은 chunk라고 하는데 chunk의 개념은 말하기와 듣기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네이티브가 "we are afraid of change." 들었을 때는 이 문장에 속해 있는 단어를 전부 다 귀기울여 듣는 것이 아니라 we, afraid, change만 들습니다. 특히 afraid 다음엔 of나 that이 나올 것이 변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of나 that을 말할 때 귀를 한 템포 쉬고 다음에 나올 단어에 신경을 쓰지요.

## 1. get 동사의 기본 감각 기르기

정말 많이 쓰는 동사 중 하나가 바로 이 get인데, get을 한번 사전에서 찾아 보세요. 뜻이 굉장히 많죠? 아마 제일 많은 뜻을 가진 동사일 듯 싶습니다. 물론 이 모두를 외워야만 영어를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어 고수들의 공통된 특기는 핵심이 되는 개념 한 두 개를 제대로 알고 써먹는 것입니다. 초보들도 get 동사의 두 가지 핵심개념만 익힌다면 초보의 실움은 떨쳐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무엇이 get의 핵심개념이냐? 하나는 '손에 넣는 것' 이고 또 하나는 '상태변화' 입니다.

[A] I got it. 알았어.

[B] She ironed only one shirt for me, and then got tired.

그녀는 내 셔츠를 겨우 한 벌 다림질 하고선 지쳐버렸다.

A는 '손에 넣는 것' 에 대한 예문이고, B는 '상태변화' 에 대한 예문인데 우선 A부터 자세히 살펴보죠.

## 2. [A] GET: 손에 넣는 것

get은 어떠한 대상을 잡아서 소유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I got it' 은 우리말로 '알았어.', '파악했어' 란 소리인데, 모르던 것을 잡아서 내 것으로 만들었으니 '알았어' 란 뜻이 됩니다. 내가 모르고 있던 사실, 즉 저 멀리 미지의 영역에 있는 뭔가를 잡아다가 내 것으로 만드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접수, 파악, 소유 등의 한자어를 연상하면 쉽게 이해 될 겁니다.

"너 게임만 하지 말고 공부해라" "I got it - 알았단니까요" 엄마의 잔소리도 접수했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잔소리가 줄겠죠?

다음 페이지에 나올 예문은 코리아타임스에 실린 기사로 get 동사는 신문, 방송 등에서도 많이 쓰입니다. 생활영어에서만 쓰이는 구어표현이 아닙니다. reporter들이 get을 참 잘 써먹습니다.

감각을 기르기 위한 예문은 약간 난이도가 있는 것으로 골랐습니다. 독해 한다는 기분으로 예문을 대하세요. 나중에 나오는 실전 영작예문은 초보에 맞게 쉬운 것 위주로 편성했습니다.



With a call or click, credit cardholders easily **get** fresh loans from financial institutions.

전화 한 통 또는 클릭 한번으로, 신용카드 소지자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손쉽게 새로운 대출을 받는다.

Korail was trying to **get** additional loans.

한국철도공사는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 애썼다.

We occasionally **get** foreigners in our cross-cultural program.

우리의 문화교류프로그램에는 종종 외국인도 참여한다.

먼저 첫번째 문장과 두번째 문장의 '대출을 받는다'에서 '받는다'라는 표현으로 receive를 쓸 수 있지만 receive가 빨리 떠올리지 않을 경우엔 어떻게 할까요? 초보가 영작을 할 때 틈을 많이 들이는 것은 그 표현에 딱 맞는 단어를 생각해 내려고 애쓰기 때문인데, 가뜰이나 부족한 vocabulary를 가지고 딱 들어맞는 단어를 찾아 내려니 어렵고 시간도 걸립니다. 이럴 땐, 대출을 받는다 자체에 신경 쓰지 말고 이 문장의 기본 개념을 떠올려 보세요. 이 문장의 기본 개념은 없던 대출을 얻어 내는 것이지요? 중학교 때 배운 get의 의미만 제대로 알고 있다면 쉽게 영작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문장의 '문화교류프로그램에는 외국인도 참여한다'는 대부분 'Foreigners participate in our cross-cultural program' 이라고 할 텐데 Participate in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해봅시다. '문화교류프로그램이 외국인을 손에 넣는다'라고 변형한 후 기본동사 get을 써서 영작을 할 수 있습니다. 변형을 하는 것이 좀 생소하죠? 영어식 사고방식을 흉내 내서 변형을 해 보았는데, 이러한 변형 방법은 Unit 11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 우선 get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I need to **get** approval from my boss.

→ 보스의 승인이 필요해.

→ 승인을 얻어야 돼.

The ambassador said Korean businessmen in Costa Rica will **get** benefit.

→ 대사는 코스타리카에 주재하는 한국인 사업가들이 혜택을 볼 것 이라고 말했다.

:: 혜택을 본다는 것은 '혜택을 얻는다' 와 같습니다.

Small Businesses will **Get** More Financial Support.

→ 소기업이 더 많은 금융지원을 받을 것임.(금융지원을 얻는다)

Go to her and **get** her telephone number.

→ 가서 그녀의 전화번호를 받아내.(전화번호를 얻어내)

We are contacting the Korean embassy to **get** further information.

→ 우리는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한국 대사관을 접촉중이다.

Korea won and **got** the third place.

→ 한국이 이겨서 3등이 되었다.(3등을 얻었다)

:: third place도 경기에서 이기면 소유할 수 있습니다.

You've **got** mail.

→ 메일 왔음.(메일을 얻었다)

:: 영화 제목입니다. 멀리 있던 메일을 내 것으로 만들었다네요.

From this month, a migrant worker will be able to **get** up to 5 million won in support from the government when he or she needs to be hospitalized or **get** surgery.

→ 이번 달부터 외국인 노동자가 수술을 하거나 입원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정부로부터 지원금으로 오백 만원 까지 받을 수 있다.

:: '수술 받는다' 라고 하죠? get으로 충분히 표현 가능합니다.

### 3. [ B ] GET : 상태변화

[A]에서 배운 get = '손에 넣는 것' 이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데, 이제 나오는 '상태변화'를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간단한 예를 하나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I **got** tired of waiting. 기다리느라 지쳤다.

멀쩡하다가 점차 힘들어져서 지친 상태를 한번 연상해 보세요.

I was not tired of waiting. → I got tired of waiting. → I'm tired now.

과거에서 현재로 시간이 흐르면서 멀쩡하던 것이 변해서(got) 지친 상태로 되었습니다. 가만 보니 got 대신 became을 써도 뜻이 통하겠네요 become은 '상태가 변화된다'는 뜻을 가진 가장 기본적인 동사인데, get도 become 못지 않게 '변화'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생활에서는 get을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예문을 더 볼까요?



It's getting better. 나아지고 있어.

'It's becoming better' 라고 해도 됩니다. get은 움직여서 상태가 변화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 라고 했죠? 따라서 원래는 별로였는데 '차차 나아졌구나' 라고 속 뜻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My toddler refuses to get dressed in the morning. What should I do?

우리 아기가 아침에 옷 입는 것을 싫어해요. 어찌죠?

옷을 안 입은 naked 상태에서 옷을 입은 dressed 상태로 변하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변화의 뜻을 가진 get의 역할이 보이시나요? 옷을 입는 것은 getting dressed, 옷을 입고 있는 것은 be dressed. 순서상 getting dress의 결과가 be dressed 입니다. 차이를 알 수 있겠죠?

I got lost. 길을 잃었다.

lost는 '길을 잃은' 이란 형용사인데, get동사를 써서 상태변화를 보여줍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길을 잃은 상태가 되었다' 란 말입니다.

She has lived in Shanghai since 2003, when she got married to her Chinese-Canadian husband. 그녀는 2003년 중국계 캐나다인과 결혼 후 줄곧 상해에서 살고 있다.

:: 결혼으로의 상태 변화를 get이 보여 주고 있네요.

His team got involved in the questionable project.

그의 팀은 의문투성이의 프로젝트에 참가하였다.

:: involved 하게 되었죠?

Dorothy got pregnant. 도로시가 임신했다.

:: 임신한 상태로 변화된 것을 get이 보여주네요.

I got really curious about how she was able to make that big money.

난 그녀가 어떻게 그런 돈을 만들 수 있었는지 알고 싶어.

:: curious 한 상태가 되었답니다.

About 50 people got together to meet him. 약 50명이 그를 만나기 위해 자리를 같이 했다.

:: Together 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은 모였다는 말과 같습니다.

위 예문을 보니 get이 '상태변화' 로 쓰였을 때 그 뜻이 좀 애매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빼 버려도 무방한 것 같죠? 빼 버려도 무방하다고 해서 확대하면 안됩니다. 딱 떨어지게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그 뉘앙스는 꼭 챙겨야 합니다.

### Daum 카페 '유소영의 영작기술' Real Q & A?

**Q** 질문이 있는데요. got이 상태변화로 사용되었을 때 수동의 의미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I got impressed와 I got impressed는 약간의 의미 차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A** 원래 I got depressed는 뒤에 by something / someone가 나오는 수동형의 변형입니다. 그런데 depressed를 형용사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그리고 명사형을 사용하면 수식이 쉽습니다. I got a serious depression처럼 할 수 있습니다. I got seriously depressed라고 해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수식은 주로 명사형으로 하는 것이 영어답습니다. 그리고 depressed는 분사에서 파생된 형용사로 아무래도 분사에서 파생되다 보니 수동의 의미가 있죠.

## 4. [A] 손에 넣는 것, [B] 상태변화, 어떤 것을 사용해서 영작할까?

get을 배웠으니 영작으로 활용해 봅시다. 지금까지 get이 두 가지로 쓰이는 것을 봤습니다. 이제는 언제 [A]타입을 써먹고 언제 [B]타입을 써먹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문이 가장 빠른 설명이므로 예문부터 살펴보죠.

### ● [A]타입의 get

그녀의 전화번호를 알아와.

→ Go and get her telephone number.

우리는 명사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사랑도 가질 수 있고, 정보도 가질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역시 쉽게 소유할 수 있는 하나의 명사죠. 소유할 수 있는 대상은 get을 사용해 쉽게 내 것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I got a ticket. I got her love. I got an important information. 등등. 이렇듯 명사를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면 [A]타입의 get을 써서 쉽게 영작 할 수 있습니다.

### ● [B]타입의 get

그는 승진을 했다.

→ He got a promotion. / He got promoted.

승진도 가질 수 있습니다. 앞의 전화번호의 예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명사인 promotion을 get해서 소유했죠? [A]타입입니다. 이 문장은 [B]타입으로도 영작이 가능한데, [B]타입은 상태

변화잖아요. 어떠한 상태로 변화했으므로 get의 결과는 상태를 보여주는 형용사가 와야겠죠? 변해서(get) 승진된(promoted) 상태로 변했습니다. 형용사와 같이 쓰는 get은 소유가 아니라 상태변화라는 것을 눈치 채셨나요? 형용사를 활용한 영작은 [B]타입의 get이라는 것을 꼭 유념해야 합니다. 그리고 promotion이나 promoted는 promote에서 파생된 형제단어로, 이러한 형제단어들은 [A] 및 [B]타입 모두 쓸 수 있습니다.

겁이나.

→ I **got scary**. [A타입] / I **got scared**. [B타입]

감동 받았어.

→ I **got an impression**. [A타입] / I **got impressed**. [B타입]

마지막으로 수식을 좀 하고 싶다면 [A]타입이 유용합니다.

I **got an unforgettable impression**. 나는 잊을 수 없는 감명을 받았다.

He **got an unexpected promotion**. 그는 예상치 못한 승진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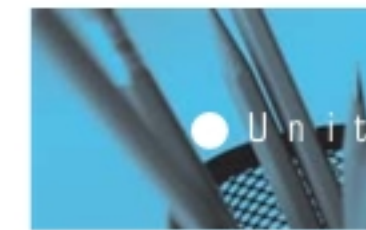
앞에서 명사중심의 한정형으로 수식하라고 배웠죠? I got impressed unforgettablely 보단 I got an unforgettable impression 이 더 영어답습니다.



#### KEY POINT

- ① 손에 넣는 get  
I got it.
- ② 상태변화의 get  
It's getting better.
- ③ 수식을 할 때는 명사형으로!  
I got an unforgettable impression.

자, 이제 get에 대한 감이 좀 더 잡히죠? 그럼 기세를 몰아서 get을 활용해 영작을 해봅시다. 영작에는 정답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리저리 궁리해 보세요. 설명해 드린 내용을 잘 이해 했으면 간단한 영작은 별 어려움 없을 겁니다.



## Unit 07 영작연습

1. 직장을 구했어! 📊 카페 회원 정답율 90%

2. 좋은 소식이 있어. 📊 카페 회원 정답율 80%

3. 톰이 전체 투표수 277 중 48%를 획득했어. (전체 투표수 277 : total 277 votes) 📊 카페 회원 정답율 50%

4. 뉴욕메츠의 서재응이 수요일 시즌 2승을 올렸다. (뉴욕메츠의 서재응 : Seo Jae-weong of the New York Mets) 📊 카페 회원 정답율 60%

5. 오늘 전화가 많이 왔다. 📊 카페 회원 정답율 70%

6. 신발 하나 장만했다. 📊 카페 회원 정답율 80%

7. 이 차는 이미 수리를 몇 차례 했어. 📊 카페 회원 정답율 60%





Seo Jae-weong of the New York Mets got the second **winning** on Wednesday.

▶ 승리는 win입니다.

5. I got many phone calls today.

I got a lot of **call**.

▶ a lot of와 매치시키려면 calls로 해야 합니다. 많은 전화를 받았으므로 당연히 복수로 해야 합니다.

I got many **telephone** today.

▶ telephone은 전화기입니다.

6. I got a new shoes.

I got **the** shoes.

▶ '신발 하나 장만했다' 에서 신발은 특정한 신발이 아니라 일반적인 신발입니다. 따라서 I got a shoes로 해야 합니다. (명사와 관사를 복습하세요.)

7. This car got repaired a couple of times already.

This car **has gotten repaired** a couple of times already.

8. Lee young pyo got the winning goal.

9. Steve got a master's degree last year.

10. Sharks got them.

11. I got disappointed.

12. Mom got angry.

Mon got **upset**.

Mon got **annoyed**.

▶ upset은 순간적으로 당황하거나 생각이 복잡해질 때 씁니다. angry는 그야말로 노발대발이죠. 화났다고 제대로 말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annoy는 짜증나게 하는 거죠. 시험공부나 누군가 나를 방해하고 귀찮게 할 때나 불쾌하게 되었을 때 쓸 수 있습니다.

13. I got stuck in traffic jam.

I got stuck traffic jam.

▶ 교통체증에 갇힌 것은 전치사 in을 써서 교통체증 안에(in)에 갇혔다라고 표현합니다.

14. I got confused.

15. They got divorced.

16. I heard that Cathy got sick.

I got that Kathy is sick.

▶문장 논리의 오류입니다.

I heard that Kathy got **ache**.

▶ache는 명사로 쓰일 경우 아픔이란 뜻입니다. 대부분 복합어로 쓰여 a headache (두통), a toothache (치통) a heartache (상심) 등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한 단어만 쓰일 경우에는 아픈 부위와 함께 쓰입니다. I got an ache in my back, (등이 아파요)

I heard that Kathy got **ached**.

▶ache는 형용사형이 없습니다.

17. I almost got caught.

I got **almost** caught.

▶부사 almost는 일반동사의 앞, be동사의 뒤에 위치합니다.

I got caught **hardly**.

▶단어 선택의 오류입니다. Hardly는 '거의 ~하지 않다' 의 뜻으로서 거의 부정의 뜻에 가깝습니다. 예) Such a plan can hardly succeed. (그런 계획은 성공 할 가능성이 없다. 한영사전에서 '거의' 를 찾으면 hardly도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영작했다 봅니다.)

**Almost** I got caught.

▶부사로 문장을 시작하는 것은 부자연스럽습니다. 초보들은 부사를 문장 첫 머리에 놓는 경향이 많은데 별로 좋지 않습니다.

18. Chris got back.

19. Panel got twisted by the wind.

The panel got twisted in the wind.

The panel got twisted in **wind**.

▶판넬을 비튼 특정한 wind라서 the를 붙여야 합니다.

20. The situation has got worse.



# 영작 고수는 기본동사를 잘 쓴다 2 - Make



이 책을 먼저 공부한 베타테스터 한마디

영어는 우리말과 달리 사물이 주어라 되는 경우와 수동태 문장의 쓰임이 많다. 이는 영작할 때 적잖이 까다로운 부분이다. 이때 make 동사가 많이 쓰이는데, 무턱대고 덤비다 보면 쉬운 영작도 애먹게 되기 일쑤였다. 이 유닛에서는 make의 쓰임을 많은 예문과 함께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기본단어로 영작에 더욱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해준다.

**make의 기본 개념은 '만들다' 입니다.** 유치원생들도 아는 make인데 새삼 또 다시 공부하냐고 할 지 모르겠지만, 사실 make 만큼 영작에서 막강한 동사도 없습니다. 제대로 키우면 열(10)개의 동사도 부럽지 않습니다. make는 항상 결과물과 같이 연상해야 합니다.

## 1. make동사의 기본 감각 기르기

make는 '만들다' 입니다. 만들면 결과물이 따라오죠? 삼성은 반도체를 만들고 현대는 차를 만들고 저는 영어 contents를 만듭니다. 어떤 이들은 사랑을 만들고 또 옆 사람을 행복하게도 만듭니다. 잘 보세요. 결과 없이 만드는 것은 없죠? 따라서 make는 항상 목적어를 데리고 다닙니다. 타동사란 말이지요. 목적어는 항상 명사이기 때문에 make의 결과물은 항상 명사형태여야 합니다.

'He makes happy' happy는 형용사이므로 틀린 영작이겠지요? 맞게 하려면 'He makes happiness' 라고 해야 맞습니다. 굳이 형용사를 써야했다면 'He makes it happy' 처럼 makes의 목적어로 대명사 it을 끼워 줘야 합니다.

그런데 make가 목적어 없이 자동사로 쓰인 것을 봤다구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목적어 없는 자동사 make는 타동사 make처럼 결과물을 수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아는 make와는 뜻이 다른 동사로 쓰이는 것이지요. 다음의 내용들을 보면서 어떠한 결과물들이 make와 같이 오는지 감을 잡아봅시다.

## 2. 뭐든지 만들어 내는 make

Dorothy **made** tea.

→ 도로시가 차를 준비했다.

단순한 결과물(보통명사 tea)을 가져오는 가장 기본이 되는 make입니다. '준비했다' 로 번역을 했지만 만들어 냈다는 것이 원래 개념입니다.

We were trying to **make** an appointment.

→ 약속을 잡으려고 노력 중이었다.

make는 눈에 보이는 결과물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추상명사 appointment도 결과물로 만들 수 있습니다.

The government should **make** a final decision.

→ 정부는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결정을 내리다' 를 영작한다고 해보세요. '내리다' 라는 부분이 낯설하죠? 딱 떨어지는 우리말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파악해 봅시다. 이 문장에서 정부와 최종결정의 관계가 뭘까요? 정부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최종결정이므로 make를 써서 영작이 가능합니다. 우리말로도 '정부는 최종결정을 만들어야 한다' 라고 하잖아요.

It doesn't **make** sense.

→ 말도 안돼.

sense를 만들지 못합니다. 엉뚱하거나 엉터리란 소리죠?

You got it. Now **make** another guess.

→ 맞았어, 이제 하나 더 생각해봐.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 '생각해봐' 이지만 생각이란 결과물을 만들어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The new drug is expected to **make** a great success in the market when it debuts.

→ 새로운 약이 출시되면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성공이라는 결과물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과물만 연상시킬 수 있다면 make는 오만 가지 것들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 3. 목적어의 상태를 만들어내는 make

앞서 make가 별걸 다 결과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를 응용하여 좀 더 다양한 표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예문을 2개 만들어 봤습니다.

I made it. 내가 그걸 만들었다.

I made it worse. 내가 그걸 나쁘게 만들었다.

make는 조작(造作)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말의 조작은 나쁜 목적인데(주가 조작 등), 영어에서 make는 나쁜 목적의 조작뿐 아니라 좋은 목적에서도 쓰입니다. 예문에서 make는 목적어 it을 worse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해 it이 worse한 결과가 되었다는데 별로 어렵지 않죠?

내가 널 기쁘게 해줄게.

기쁘게 해주다를 영작할 때 '해주다'는 뭐라고 할까요? 영어 초보일수록 해답을 우리말 속에서 찾으려 합니다. 우리말 '해주다'를 영어로 옮기려니 머리 속에서 적당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네요. '널 기쁜상태로 만들어 줄게'라고 하면 어때요? 널 make해서/조작해서 (조작이라고 하니 이상하지만) happy한 결과가 되도록 만든답니다.

I will make you happy.

Dorothy made tea. 도로시가 차를 준비했다.

→ Dorothy made tea hot. 도로시가 차를 뜨겁게 데웠다.

앞서 설명한 도로시 예문입니다. 문장 끝에 hot이라는 단어 하나를 추가 하니 뜻이 확 달라집니다. tea를 hot한 상태로 made했다는 것 보이시죠?

Please makes your room clean as soon as possible.

→ 네 방 빨리 좀 치워라.

네 방을 깨끗하게 만들립니다. 방을 clean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네요.

I will try to make it better in my upcoming games.

→ 다음 게임부터는 좀 더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야구선수 이승엽이 한 말입니다. it은 문맥 속에서 해석해야 하는데, 뭘까요? 야구성적이겠죠? 야구성적 it을 better 상태로 만들겠습니다.

Technological advances have made it possible to reduce the material design.

→ 기술발전이 재료디자인을 줄일 수 있게 했다.

to reduce the material design를 가능하게(possible) 만들었는데(made), to reduce the material design이 너무 길기 때문에 뒤로 빼고 대신 it을 그 자리에 넣었습니다. 문법책에서 흔히 말하는 가목적어용법인데, 용어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하고자 하는 대목이 길어서 it으로 대신한 부분이 초보가 유심히 봐야 할 영작기법입니다.

Excessive intake of steroids can make susceptible to cancer.

→ 스테로이드의 과다한 복용은 암에 취약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intake : 섭취, steroid : 약물의 일종, cancer : 암)

단어는 좀 어렵지만 make를 잘 보여주고 있어서 골라 봤습니다. 'make you weak'는 '당신을 약한 상태로 만든다'고 하네요.

We will make their personal information available to the public if they do not pay overdue taxes soon.

→ 우리는 그들이 연체된 세금을 내지 않으면 그들의 개인정보를 일반인들이 입수할 수 있게 하겠다.

(overdue taxes : 연체 세금)

국세청장의 말입니다. 세금 안내면 인터넷 같은데다가 개인 신상정보를 올려서 사람들이 그 정보를 available하게 한다는 것인데, 위험한 발상 같군요. 살펴볼 것은 'make their personal information available'인데, 개인정보를 available한 상태로 만든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 본 make는 목적어가 어떠한 상태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상태이기 때문에 형용사를 썼습니다. (make it worse, make you happy, make it better) 각각의 형용사가 목적어의 상태를 잘 보충 설명해줍니다. 이렇게 보충 설명해 주는 것을 보어라고 합니다. 목적어를 보충해줘서 목적격보어라고 하는데, 문법명칭은 외울 필요 없습니다. 형용사가 명사를 도와 주고 있구나 라는 점만 눈치채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형용사는 원래 동사와 같이 나와야 하잖아요. 'I am happy'이나 'I feel free'가 맞지 'I happy' 혹은 'I free'는 틀리겠습니까? 하지만 지금까지 배운 예문들을 보세요. (make it worse, make you happy, make it better) 각 형용사는 동사와 같이 나와야 하는데 형용사 앞에 동사부분이 없죠? 사실은 이렇습니다.



Dorothy made tea hot은 원래 Dorothy **make** tea to be hot입니다. 상태를 보여 주는 형용사는 동사와 같이 나와야 하는데 Dorothy made tea hot이라고만 해도 사람들은 그냥 알아 듣는 것입니다. be는 상태를 나타내주는 말이지요? 형용사 역시 상태를 나타내므로 빼도 큰 불만이 없는 것입니다. to be는 특하면 생략되는데, 상태를 묘사하는 명사 앞에서도 생략됩니다.

'Let's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원래 이 문장은 'Let's **make** the World to be a better place' 입니다. 초보는 우선 이런 용법이 있구나 라는 것만 살펴보면 됩니다.

**목적어를 어떠한 상태로 만들 땐 make!!** 이제 슬슬 귀가 따가워지죠? 하지만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make의 개념이 나옵니다.

#### 4. 목적어를 움직이게 만드는 make

앞에선 make가 목적어의 상태를 변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make는 목적어를 조종(操縱)도 할 수 있습니다. 리모콘을 가지고 장난감을 이리저리 움직이도록 조종하는 것을 떠올려 보세요. 리모콘이 장난감의 움직임을 좌지우지 하죠? 바로 이 리모콘이 make입니다. 좀 전에는 목적어의 상태를 변하도록 했기 때문에 형용사가 왔지만 지금은 움직이도록 만들기 때문에 동사가 옵니다.

The news **made** me believe it.

→ 뉴스가 나로 하여금 그것을 믿게 했다.

유명 연예인이 갑자기 자살했다고 친구가 말했을 때는 안 믿었는데 뉴스에 나온 것을 보고 믿었습니다. 이 예문과 상황이 딱 맞아 떨어집니다. 믿지 않던 나를 뉴스가 믿도록 만들었는데,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make입니다.

We have to **make** all members get higher score.

→ 구성원 모두가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member들이 higher score를 가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조종했죠.)

He tried to **make** me understand him.

→ 그는 내가 그를 이해하게 만들려 노력했다.

나로(목적어) 하여금 이해하도록(understand) 조종했습니다.

He has said he will **make** an effort to make Asian countries reopen their beef market.

→ 그는 아시아 국가들이 쇠고기 시장을 다시 열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우병 파동 뒤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에게 미국의 관리가 한 말입니다. 노력이라는 결과물을 만든다죠?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을 조종(make)합니다. 어떻게? 소고기 시장을 다시 열도록(reopen).

It was the fear that **made** me run.

→ 나를 달리게 한 것은 바로 그 두려움이였다.

우리말 원문은 '난 그 두려움 때문에 달렸다' 입니다. 대부분의 초보들은 because를 써서 영작을 할 텐데, 이렇게 기본동사로도 영작이 가능합니다. 쓰고 있는 글에 because, since, due to 등이 많이 나와서 식상하다면,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변형하여 영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래의 의도가 바뀌지 않는 범위에서 이런 저런 변형을 하여 영작하면 문장이 다이내믹해집니다.

조종의 역할을 하는 make를 문법책에서는 사역동사라고 합니다. 사역동사란 명칭이 한자어라서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었습니다. 대충 조종동사라고 하면 초등학교도 다 알아들을 수 있을 텐데요...

아무튼, 조종동사는 make 말고도 have, let 등이 있으며, 그 중 가장 강력하게 조종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make입니다. 그리고 이들 조종동사들이 실력 발휘해서 목적어(명사)를 움직이게 만들 땐 움직이는 동사는 원형으로 써줘야 합니다. 'make me **understand** him' 이렇게요. 'make me **to understand** him' 으로 하면 안됩니다.

요약하자면 뭔가를 만들어 내거나, 목적어가 어떠한 상태가 되게 하거나, 목적어를 조종하거나 모두 결과를 수반합니다. 따라서 영작해야 하는 우리말을 볼 때 결과에 대한 뉘앙스가 떠오른다면 make를 생각해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본단어를 하나 하나 내 것으로 만들다 보면 웬만한 상황도 영작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런 자신감 위에 단어실력을 쌓아간다면 곧 영작의 고수가 됩니다.

Daum 카페 '유소영의영작기술'  
Real Q & A?

Q 네이티브 친구가요 'I had much pizza yesterday'에서 much는 틀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A 평서문에서는 much가 단독으로 잘 안쓰입니다. 'I had too much pizza yesterday'는 맞지만, 'I had much pizza yesterday'라고는 잘 쓰지 않습니다. 반면 부정문이나 의문문에는 단독으로 쓰입니다.

I don't like pizza much. 피자 그다지 안 좋아해.

How much pizza is left? 피자 얼마나 남았어?

평서문에 much를 쓸 일이 있으면 a lot of를 이용하면 머리 아플 일이 없죠.

I had a lot of pizza yesterday.



KEY POINT

- 1 make는 뭐든지 만들어 냅니다.  
It doesn't make sense.
- 2 make는 목적어의 상태를 만듭니다.  
I made it worse.
- 3 make는 목적어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The news made me believe it.
- 4 뭔가를 만들어 내거나 목적어가 어떠한 상태가 되게 하거나, 목적어를 조정하거나 모두 결과를 수반합니다.  
우리말에서 결과에 대한 뉘앙스가 떠오른다면 make를 생각하세요.

Unit 08 영작연습

아래 우리말에서 결과의 뉘앙스를 떠올린 후 영작해 보세요.

1. 예약할 필요가 있어. (너는 예약을 할 필요가 있다) (예약 : reservation) 📊 카페 회원 정답율 90%

---

2. 문제를 일으키지 마라. (문제 : trouble) 📊 카페 회원 정답율 90%

---

3. 내 차에서 소음이 나. (내 차가 소음을 낸다) (소음 : noise) 📊 카페 회원 정답율 80%

---

4. 내가 실수를 했다. (실수 : mistake) 📊 카페 회원 정답율 90%

---

5. 그는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한다. (결정 : decision) 📊 카페 회원 정답율 90%

---

6. 의견 하나 내도 될까? (의견 : suggestion) 📊 카페 회원 정답율 90%

---

7. 난 그 보다 더 많이 번다. (돈을 벌다란 표현을 money를 이용해 보세요) 📊 카페 회원 정답율 40%

---



8. Smith는 항상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 카페 회원 정답율 80%

---

9. 제인이 이 일을 가능하게 했다. (이 일은 it으로 하세요) 📊 카페 회원 정답율 80%

---

10. 이 기계가 일을 좀 쉽게 해줄 거야. (일은 it으로 하세요) 📊 카페 회원 정답율 80%

---

11. 다음 월요일에 스미스 선생님께 진찰 예약을 하고 싶어요. 📊 카페 회원 정답율 70%

---

12. 이 소프트웨어로 우리는 시장조사를 할 수 있었다.

(주어를 We로 하세요 / 시장조사 : market research) 📊 카페 회원 정답율 80%

---

13. 과음은 사람을 취하게 한다. (과음 : too much alcohol / 취하게 : drunk) 📊 카페 회원 정답율 90%

---

14. 제조회사는 모델55를 한국시장에 맞도록 했다. (제회사 : manufacturer / 맞는 : suitable)

📊 카페 회원 정답율 80%

---

15. 이 영화 정말 졸립네. (졸린 : sleepy) 📊 카페 회원 정답율 90%

---

16. 그는 나를 미소짓게 했다. (미소짓다를 smile을 이용해 보세요) 📊 카페 회원 정답율 90%

---

17. 뉴스를 보니 슬프다. (그 뉴스가 날 슬프게 한다) 📊 카페 회원 정답율 90%

---

18. 가서 우리가 이겼다는 것을 알려줘라. 📊 카페 회원 정답율 40%

---

19. 경찰관이 내 차를 세웠다. (경찰관이 내게 차를 멈추게 했다) 📊 카페 회원 정답율 80%

---

20. 내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데는 몇 가지 특별한 이유가 있다. 📊 카페 회원 정답율 90%

---



괜찮은 답



어색한 답?



1. 😊 You need to make a reservation.

2. 😊 Don't make trouble.

😞 Don't make a trouble.

▶ trouble은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3. 😊 My car makes noise.

😞 My car makes a noise.

▶ 관사 오류

4. 😊 I made a mistake.

☞ I made a **fault**.

- ▶ '잘못하다, 실수하다'는 mistake와 잘 어울립니다. fault는 '잘못의 책임이 ~에게 있다'라는 뜻으로서 'It's my fault'처럼 써야 맞습니다.

5. ☞ He should make an important decision.

☞ He has to make **important decision**.

- ▶ 그냥 결정이 아닙니다. 관사 an이 필요합니다.

6. ☞ Can I make a suggestion?

☞ Can I make an **advice**?

- ▶ advice는 도움을 주는 조언, 충고의 뜻이며 제안이라고 할 때에는 suggest가 맞습니다.

7. ☞ I make more money than he does.

☞ I make money more than he does.

☞ I make more money than **him**.

- ▶ 비교는 성격이 같은 것끼리 합니다. '내가 돈을 버는 것 - I make money'와 '그가 돈을 버는 것 - he make money'를 비교해야 맞습니다. '내가 돈을 버는 것'과 '그 - him'를 비교하면 안됩니다. he make money는 I make money에서 중복되므로 he does로 대신합니다.

☞ I make **a lot of** money than he does.

- ▶ than은 비교급과 쓰여야 합니다.

8. ☞ Smith always makes us happy.

9. ☞ Jane made it possible.

10. ☞ This machine will make it easy.

☞ This **facility** will make it easy.

- ▶ facility는 설비, 시설의 뜻입니다. 기계(machine)들이 모여서 설비(facility)가 됩니다.

11. ☞ I'd like to make an appointment to see Dr. Smith next Monday.

☞ I'd like to make a **promise** to see Dr. Smith next Monday.

- ▶ promise는 개인적인 약속이고, appointment는 방문, 진료, 회의 등의 약속입니다.

☞ I'd like to make a **reservation** to see Dr. Smith next Monday.

- ▶ 의사와의 진료예약은 reservation을 쓰지 않고 appointment를 씁니다.

12. ☞ We could make market research with this software.

13. ☞ Too much alcohol makes people drunk.

☞ Too much **alcohol** makes people drunk.

- ▶ 술(alcohol) alcohol에서 h가 소리가 없는 묵음이라 철자를 틀리는 분이 많네요.

14. ☞ The manufacturer made model 55 suitable for the Korean market.

☞ The manufacturer made model 55 suitable **to** the Korean market.

- ▶ 전치사 오류

15. ☞ This movie makes me sleepy.

☞ This movie makes me **sleep**.

- ▶ sleep은 '잠자다'입니다. 졸린(sleepy)과는 뜻이 다른데 혼동하는 분이 많습니다. 주의하세요.



make와 가장 빈번히 쓰이는 명사

아래의 조합은 꼭 외워두신 후 make를 영작할 때 활용하세요.

make an attempt	make an appointment	make a comment
make a decision	make an effort	make someone happy/sad
make noise	make a mistake	make a plan
make a phone call	make sound	make suggestion

16. ☞ He made me smile.

17. ☞ The news made me sad.

18. ☞ Go and make known to them that we won.

19. ☞ The policeman made me stop the car.

☞ The policeman made me pull over my car.

- (옛날에 마차를 세울 땐 말 고삐를 잡아(pull) 올렸습니다(over). 그때 유래된 숙어네요.)

☞ The policeman **made my car stop**.

- ▶ make someone do something의 형태가 자연스럽습니다.

20. ☞ I have a couple of reasons why I made this decision.



영작 고수는 기본동사를  
잘 쓴다 3 - Have

이 책을 먼저 공부한 베타테스터 한마디

Unit 08에 이어 기본 동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어진다. have동사 역시 콩글리쉬 영작을 피하기 위해 확실히 익혀야 되는 부분이다. 네이티브들의 마인드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본단어의 쓰임새들을 잘 익혀두어야 할 것이다. 다른 교재에 비해 훨씬 더 자세하고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본동사에 관한 설명은 단연 최고이다. 쉬운 예문들로 차근차근 설명이 잘 되어있는 점이 좋았다.

**이번에 배울 기본동사는 have입니다.** 모든 기본동사와 마찬가지로 have 역시 엄청나게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뜻을 많이 가졌다고 말하기 보다는 다양하게 적용된다고 하는 편이 맞을 것 같습니다. 초보들은 이러한 기본동사를 볼 때 수 많은 뜻을 각각 외우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방대한 양에 쉽게 질리게 됩니다. 앞에서 배운 make는 결과물의 개념으로 접근하라고 했었죠? 기본동사를 접할 때 각각의 뜻 보다는 핵심이 되는 개념을 파악하고 이를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부터 have가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영작할 때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 1. have는 소유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저는 영어의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내는 동사로 have를 꼽습니다. have는 익히 알고 있듯이 '가지다'의 뜻인데 우리말의 '가지다' 이상의 폭넓은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뭔가를 가지면 그건 내 소유가 되지요? 그리고 그것은 나의 일부가 됩니다. 내가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그림도 그려 집니다. 이러한 소유의 개념은 영어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영어는 정말 별걸 다 소유하며 이를 have를 통해 표현합니다. 반면, 우리말은 소유보다는 존재의 개념이 잘 발달 되어 있습니다. 존재의 개념을 잘 표현하는 '있다', '없다'는 우리말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동사입니다. 실생활에서 '있다' '없다'가 얼마나 많이 쓰입니까? 영어식 사고에 약한 초보들은 '있다' '없다'를 영작할 때 우리말 존재의 개념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there is / there are를 남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해결책은 우리말 존재의 개념을 영어의 소유의 개념으로 바꾸는데 있습니다.

어떻게요? have를 이용해서요!

나는 가족이 있다.

→ There is my family. (콩글리쉬)

→ I have a family.

그는 차가 없다.

→ There is no his car. (콩글리쉬)

→ He doesn't have a car.

## 2. have와 친해지자

우리말 존재의 개념을 have로 쉽게 치환하려면 영어 내공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아래 다양한 예문을 보면서 have의 소유 개념과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열쇠 있니?

영어식 사고) 열쇠 가지고 있니?

→ Do you have the key?

토요일에 수업 있니?

영어식 사고) 토요일에 수업 가지고 있니?

→ Do you have class on Saturday?

그 애가 날 싫어할 이유가 없어.

영어식 사고) 그 애는 날 싫어할 이유를 가지고 있지 않아.

→ He doesn't have any reason to hate me.

그는 경제적으로 어렵다.

영어식 사고) 그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 He has difficulties financially.

마음에 드는 것이 있니? / 원하는 것이 있니?

영어식 사고) 네 마음속에 뭔가 있니?

→ Do you have something in your mind?

신고할 물건이 있습니까? (세관에서 많이 듣는 말입니다.)

**영어식 사고** 신고할 어떤 것을 가지고 있나요?

→ Do you **have** anything to declare?

당신은 투표할 권리가 있습니다.

**영어식 사고** 당신은 투표를 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You **have** the right to vote.

난 꿈이 있습니다.

**영어식 사고** 난 꿈을 가지고 있어요.

→ I **have** a dream

질문 있어요.

**영어식 사고** 난 질문을 가지고 있어요.

→ I **have** a question.

그녀가 날 좋아한다는 느낌이 있어.

**영어식 사고** 나는 그녀가 날 좋아한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

→ I **have** a feeling that she likes me.

이메일 있으면 알려주세요.

**영어식 사고** 이메일을 가지고 있으면 알려주세요.

→ If you **have** an e-mail, please let me know.

즐거운 시간을 보냈니?

**영어식 사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니?

→ Did you **have** a good time?

난 당뇨병이 있어.

**영어식 사고** 난 당뇨병을 가지고 있어.

→ I **have** diabetes.

우리는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할 일이 많다.

**영어식 사고** 우리는 서비스를 개선 하기 위해 일을 많이 가지고 있다.

→ We **have** a lot of things to improve our service.

### 3. 영어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도 소유를 한다

앞의 예문들이 그리 어렵진 않죠? 평소에 많이 쓰이는 표현이라서 익숙했을 겁니다. 앞의 예문들은 have의 주어가 전부 사람이지만 영어는 사람뿐 아니라 사물도 소유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사물이 소유를 하고 있는 예문들입니다.

이 차는 네비게이션이 있다.

→ There is a navigation system in this car. (콩글리쉬)

**영어식 사고** 이 차는 네비게이션을 가지고 있다.

→ This car **has** a navigation system.

이 의자는 다리가 2개다.

**영어식 사고** 이 의자는 다리를 2개 가지고 있다.

→ This chair **has** two legs.

이 약은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

**영어식 사고** 이 약은 부작용을 가질 수 있어요.

→ It may **have** side effects.

이 방은 에어컨이 있다.

**영어식 사고** 이 방은 에어컨을 가지고 있다.

→ This room **has** an air conditioner.

내 컴퓨터는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다.

**영어식 사고** 내 컴퓨터는 인터넷 접속을 가지고 있다.

→ My computer **has** an internet access.

내 카드는 30 포인트가 있어.

**영어식 사고** 내 카드는 30 포인트를 가지고 있어.

→ My card **has** 30 points.

7~8월엔 카라치지역에 평균 25밀리미터 이상의 비가 옵니다.

**영어식 사고** 7~8월은 평균 25밀리미터 이상의 비를 맞습니다 카라치 지역에서.

→ July and August **have** an average of more than 25 millimeters of rain in the Karachi area.

**영어식 사고** 카라치 지역은 7~8월에 평균 25 밀리리터 이상의 비를 맞습니다.



→ Karachi area **has** an average of more than 25 millimeters of rain in July and August.

사물이 소유를 한다는 것이 우리말에는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눈에 익도록 많이 읽고 써봐야 합니다.

#### Daum 카페 '유소영의영작기술' Real Q & A?

- Q** '난' 니가 준 시계를 아직도 가지고 **있는** 중이야' 처럼 현재형으로 소유를 표현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죠?
- A** 소유는 상태입니다. 동작이 아닙니다. 따라서 소유는 현재형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I am still having the watch that you gave me. (x)  
I still have the watch that you gave me. (o)
- 상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동사는 be동사입니다. be동사를 진행형으로 하지 않죠? I am being rich. 나는 부자 중이야? 진행형으로 쓸 수 있는지 헷갈리면 그 동사의 성격이 상태인지 동작인지를 잘 살펴보세요.
- Q** I'll be late today. I'm having dinner with my girlfriend. 이 문장에서는 have가 진행형인데요?
- A** 위 문장의 have는 소유의 뜻이 아닌 '먹는다'란 뜻으로서 동작을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 4. have에는 '시키다'의 뜻이 있다

앞에서 make를 공부할 때 make는 목적어를 조종한다고 했습니다. have도 make처럼 조종의 의미가 있습니다. 뉘앙스는 have가 make보다 부드러운 조종이라서 '시키다' 정도의 뜻으로 통합니다.

시키다 have는 우리말과 그 쓰임이 달라서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 컴퓨터 수리했어'라고 하지만 영어는 'I had my computer repaired. 오늘 컴퓨터를 수리되게 했어.'라고 합니다. 영어의 특징 중 하나로 영어는 내가 하는 일과 시켜서 하는 일을 구분을 합니다. 네이티브들은 자신이 직접 하는 일이 아니면 had동사를 써서 남에게 시킵니다. 예문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제 차를 고쳤다.

내가 기술자가 아닌 한 차를 직접고치는 것이 아니라 정비소에 맡깁니다. 남에게 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have를 써야 합니다.

→ 나는 어제 차를 고치도록 시켰다.

→ I **had** my car **repaired** yesterday.

:: 만약 내 손으로 차를 고쳤다면 I repaired my car yesterday.

오늘 머리 깎을 거야.

중이 제 머리 못 깎죠?

→ 나는 오늘 내 머리가 깎이게 할거야.

→ I **will have** my hair **cut** today.

:: 내 손으로 직접 깎는다면 I will cut my hair today.

어제 내 사진을 찍었다.

남이 내 사진의 찍게 한 것입니다.

→ 어제 내 사진을 찍게 했다.

→ I **had** my picture **taken** yesterday.

:: repaired, cut, taken 모두 수동형입니다. 내가 직접 한 것이 아니라 남을 시킨 것이라서 그렇네요.



#### KEY POINT

- 1 우리말은 존재의 개념이, 영어는 소유의 개념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열쇠 있니?  
영어) Do you have a key?
- 2 영어는 사물도 사람처럼 소유를 합니다.  
이 차는 네비게이션이 있다.  
→ 이 차는 네비게이션을 가지고 있다.  
→ This car has a navigation system.
- 3 영어는 내가 하는 일과 시켜서 하는 일을 구분합니다.  
나는 어제 차를 고쳤다.  
→ 나는 어제 차를 고치도록 시켰다.  
→ I had my car repaired yesterday.

## Unit 09 영작연습

1. 그는 자식이 없다. 📊 카페 회원 정답율 70%

---

2. 그 사람 전화번호 있니? 📊 카페 회원 정답율 80%

---

3. 잔돈 있니? (잔돈 : change) 📊 카페 회원 정답율 60%

---

4. 주중엔 손님이 별로 없어요. (주중 : week day) 📊 카페 회원 정답율 40%

---

5. 이번 일요일에 수업이 있어. 📊 카페 회원 정답율 70%

---

6. 그가 날 싫어한다는 느낌이 있다. 📊 카페 회원 정답율 70%

---

7. 선택의 여지가 없다. (영작할 때 '여지'에 신경쓰지 마세요) 📊 카페 회원 정답율 60%

---

8. 좋은 생각이 있다. 📊 카페 회원 정답율 90%

---

9. 돈이 별로 없네요. 📊 카페 회원 정답율 80%

---

10. 우리 이번 주말에 갈 곳이 없다. 📊 카페 회원 정답율 70%

---

11. 아무도 질문을 하지 않았다. ('질문이 없었다'로 영작하세요) 📊 카페 회원 정답율 70%

---

12. 우리 학교는 수영장이 있다. 📊 카페 회원 정답율 80%

---

13. 이 차는 ABS 시스템이 있다. 📊 카페 회원 정답율 80%

---

14. 이 노트북엔 마우스가 없다. 📊 카페 회원 정답율 90%

---

15. 2호선은 50개의 역이 있다. (2호선 : The Green-line) 📊 카페 회원 정답율 70%

---

16. 내 지갑엔 3,000원이 있다. 📊 카페 회원 정답율 90%

---

17. 난 머리를 염색했다. (남에게 시킨 겁니다) 📊 카페 회원 정답율 80%

---



18. 그는 자동차를 고쳤다. (남에게 시킨 겁니다) 카페 회원 정답율 80%

19. 난 어제 내 손목시계를 고쳤다. (남에게 시킨 겁니다. / 손목시계 : watch) 카페 회원 정답율 80%

괜찮은 답 ★

어색한 답 ?

1. He doesn't have a child.

He has no kids.

2. Do you have his phone number?

3. Do you have change?

Do you have any change?

▶ any가 붙으면 뜻이 더 강조 됩니다.(잔돈 조금이라도 있니?)

Do you have changes?

▶ 잔돈의 뜻 change는 셀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복수형을 쓰면 안됩니다.

4. We have not many customers on weekdays.

We have few customers in during weekday.

▶ 전치사 오류, 단어 오류

→ We have few customers during weekdays.

We have few customers while weekdays.

▶ '동안' 을 한영사전에서 찾으면 while도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썼나 봅니다. while은 접속사로서 주어와 동사를 수반하는 절을 이끕니다.

5. I have a class on Sunday.

6. I have a feeling that he hates me.

I have a feeling that he doesn't like me.

7. We don't have a choice.

8. I have a good idea.

9. I don't have much money.

I have little money.

▶ 문법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지만, 원가를 별로 가지고 있지 않을 때 네이티브들은 I don't have를 주로 씁니다.

10. We don't have a place to go this weekend.

11. Nobody has questions.

Nobody have question.

▶ no one, nobody, everybody, each 등은 3인칭 단수 취급합니다.

12. My school has a swimming pool.

Our school has swimming pool.

▶ 관사가 빠졌네요.

13. This car has an ABS system.

14. This notebook doesn't have a mouse.

▶ There is no mouse with this notebook, 만약 there is를 활용하면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15. The Green-line has 50 stops.

It has 50 stations in the Green-line.

▶ The Green-lined을 주어로 받으면 되는데, 의미 없이 it을 썼습니다.

16. My wallet has 3,000 won.

17. I had my hair colored.

▶ 내가 직접 머리를 염색했다면 I dyed my hair라고 하면 됩니다.

18. He had his car repaired.

19. I had my watch repaired.

▶ fix와 repair는 별 차이가 없이 쓰입니다만, 두 단어의 용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repair는 원래에서 망가졌을 때 원래 상태로 고치는 경우에 씁니다. 그리고 fix는 repair의 용법을 포함하고 더불어 원래 상태와 상관없이 더 나은 상태, 즉 더 편리한 상태로 고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fix the problem' 이란 표현은 괜찮은데, 'repair the problem' 이란 표현은 어색합니다. 화장을 고치는 것도 repair라고 하지 않고 fix를 씁니다.

# 영작 고수는 기본동사를 잘 쓴다 4 - Give, Take



이 책을 먼저 공부한 베타테스터 한마디

영자신문 등 보도기사에도 기본동사가 잘 쓰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예문이 좀 어려웠지만 실력만큼은 업그레이드 된 듯하다. '무엇'과 '받는이'의 순서에 대한 설명은 쉬운 예문 2개를 외움으로써 실수를 줄일 수 있게 되어 무척 좋았다. 특히 유용했던 부분은 get, have, take의 구분 사용법이다.

## 1. GIVE 동사의 기본 감각 기르기

give는 '주다'입니다. 그런데 달랑 '주다'만 생각하지 말고 전체의 프로세스를 생각해야 합니다. 주는 행동을 하려면 대상이 있어야 하죠? 무엇을 주는지, 누가 받는지를 꼭 챙겨야 합니다. 문법시간에선 4형식 문형이라고 해서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라고 배운 부분인데 문법명칭은 몰라도 됩니다. '준다'라는 give의 프로세스를 생각하면 당연히 '무엇을 주는지'와 '누가 받는지'를 연상할 수 있습니다.

### 1-1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준다

우리말 '주다'란 개념과 영어의 'give'의 개념은 서로 일맥상통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당연히 줄 수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전달할 수 있습니다.

It **gives** us the opportunity to regain our lives and the things that truly gave us happiness. 그것은 우리에게 삶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와 진실로 행복을 주는 것들을 제공해 주었다.

I asked for a vacation from the office and my boss **gave** me without any questions. Whoopee! 난 사무실에 휴가를 신청했어. 그리고 보스가 별 말 없이 휴가를 내줬지. 이야~

He **gave** me advice and support, explained the technologies I didn't understand. 그는 내게 조언과 지원을 해주었고,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기술들을 설명해 주었다.

He **gave** me authority to access the database. 그는 내게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These upgrades also **give** opportunities to improve on energy usage. 이 업그레이드들은 또한 에너지 사용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Get a trusted friend who can **give** you honest feedbacks. 네게 진솔한 의견을 말해 줄 수 있는 믿을만한 친구를 구해라.

위 예문들의 give는 우리말 '주다'를 적용해도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됩니다. 다만 초보들은 '무엇'과 '받는이'의 순서를 헷갈려 합니다. 그렇다면 예문 하나를 외워 놓기 바랍니다. 그리고 헷갈릴 때 마다 외운 예문을 떠올리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He gave me an advice.

만약 '무엇'이 먼저 나올 경우엔 '받는이'에게 아래처럼 전치사 to를 붙이세요. 기초문법이지만 많이들 틀립니다.

He gave an advice to me.

그리고 영작은 한 가지 답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되도록 배운 것들을 골고루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행복을 주었다'는 'It gave me happiness'입니다. 그런데 다른 기본동사를 사용해서 얼마든지 비슷한 뜻으로 영작할 수 있습니다. 'It made me happy' 이렇게 가능하죠. 영작할 때는 되도록 여러 표현법을 써보세요. 긴 영작을 하면서 동일한 기본동사만 쓰면 읽는 사람은 곧 식상해 집니다. 기본 뜻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다양하게 문장을 표현해야 글이 맛깔스러워 집니다.

### 1-2 다양한 상황을 전달의 개념으로 풀이한다

네이티브들은 다양한 상황을 전달이라는 개념으로 풀이합니다. 우리말에서는 '주다'라고 표현하지 않는 것들도 네이티브들은 give를 쓰는데, 초보에겐 참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전달의 개념을 잘 생각하면서 아래 예문을 보세요.

She **gave** her hand to me. 그는 내게 손을 내밀었다.

그녀에게 손을 내미는 것을 give her hand라고 했습니다. 전달의 프로세스를 떠올려 보세요. '무엇'은 hand이고 '받는이'는 to me입니다.



How to Give a Talk. 어떻게 발표를 할 것인가.

I gave my name to the receptionist and waited for my name to be called.

난 접수원에게 이름을 말한 뒤 내 이름이 불리길 기다렸다.

You gave me a real surprise when you showed up there.

네가 그곳에 나타났을 때는 난 정말 깜짝 놀랐다.

Please give my regards to your family and wish all of them A VERY HAPPY NEW YEAR. 네 가족에게 내 안부를 전해 주고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길 바란다.

On December 28, 1920, Frank Hawks gave her a ride home that changed her life. 1920년 12월 28일 Frank Hawks는 그녀를 집까지 태워줬고 그것이 그녀의 인생을 바꿨다.

Let's give it another try? 한번 더 해 보자.

Please give me detailed explanations. 자세한 설명 좀 해줘.

I gave 20,000 won for this hat. 이 모자를 2만원에 샀다.

In December 2001 we gave a statement regarding the International Day of Human Rights. 2001년 12월에 우리는 국제 인권의 날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 give의 받는 사람이 없지만 문맥상으로 누가 받는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The judge gave him ten years. 판사는 그에게 10년 형을 내렸다.

:: 'give = 형을 선고하다' 이렇게 단어의 모든 표현을 외우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전에 나오는 뜻을 모두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되도록 기본 뜻을 알고 문맥 속에서 추론해야 합니다. 이 문장은 judge가 주어이기 때문에 judge의 동사 give는 judge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서 추론하세요. judge가 전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판사의 판결이죠? ten year를 give 한 것은 ten year의 형을 판결한 것입니다. 이렇듯 영어를 공부할 때 문맥에 맞게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 2. TAKE 동사의 기본 감각 기르기

Take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지면 내 것이 되기 때문에 get, have처럼 소유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초보들은 get, have, take를 헷갈려서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세 동사를 어떻게 구분해서 써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2-1 Get, Have, Take 구분해서 쓰기

get, have, take는 모두 소유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뉘앙스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중 가장 뜻이 강한 것은 take이고, 그다음이 have, 그리고 get의 순서입니다.

소유하기는 하는데 강한 의지로 내 것으로 만들었다면 take, 어쩌다 보니 갖게 된 것은 get, 그리고 have는 그 중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I took a job in the USA. 난 미국에서 일자리를 잡았다.

I got a job in the USA. 미국에서 일자리를 얻게 되었다.

I had a job in the USA. 과거에 미국에서 일을 했었다. (주로 상황을 설명하는데 have를 씁니다)

He took my car. 그가 내 차를 빼앗아 갔다.

He got my car. 그가 내 차를 가져갔다. (어쩌다 보니 그가 내 차를 가져갔다)

He had my car. 그가 내 차를 가지고 있었다.

### 2-2 Take 감 잡기

의지를 가지고서 무엇인가를 가지는 상황에 take가 쓰이며, 구체적인 것, 추상적인 것 등 가리지 않고 take해서 소유할 수 있습니다.

We don't take credit card.

우린 카드 안 받아요.

I (took/got) a Christmas card from her.

그녀에게서 크리스마스 카드를 받았다.

:: 그녀에게서 카드를 받는 것은 내가 억지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카드를 받는 것은 그녀에게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I got a Christmas card from her' 라고 해야 합니다.

Country roads, take me home to the place I belong

시골길들아, 날 데리고 집으로 가렴, 내가 속해 있는 그 곳으로.

:: JOHN DENVER의 노랫말입니다. 나를 잡아서(take) home으로 가자고 합니다. Go의 의미가 없지만 문맥상 유추할 수 있습니다.

Approximately 1 mile past the tunnel, **take** the right lane.

터널을 1마일 정도 지나서 오른쪽 차선을 타.

**Take** action against unwanted e-mails that you receive.

당신이 받는 원치 않는 이메일에 대해 조치를 하세요.

Most books can be delivered within two weeks; a few books **take** a month to be delivered.

대부분의 책들은 2주 이내에 배달 될 수 있으나 몇몇 책들은 한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It won't **take** long.

그다지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 여기서 It은 거시기 입니다.

Once the files are downloaded, **take** the following steps to install the Business Plan Pro 2006 software.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았으면, Business Plan Pro 2006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기 위해 다음의 단계들을 실행하세요.

Here's what you can expect on the day you **take** the GMAT.

여기 당신이 GMAT 시험을 치르는 날 예상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 '시험을 치르다' 역시 take 동사를 쓰고 있군요.

I took a break from writing my law review paper to **take** some brainless quizzes.

법률 보고서 쓰는 것을 잠시 멈추고 쉬면서 단순한 퀴즈들을 풀었다.

Unfortunately, I have a feeling that very few people **took** my advice

불행히도 내 조언을 받아 들이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란 느낌이다.

지금까지 기본동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배운 것 외에도 여러 기본동사가 있지만 여기서 전부 다 다루기엔 다소 벅잡니다. get, make, have, give, take를 다룬 이유는 이들이 가장 사용 빈도수가 높은 동사이면서 초보들이 영작에 응용하기에 쉽기 때문입니다. 다음 강의는 기본동사를 활용하는 법을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초반에 배운 명사구가 기본동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볼 예정인데, 매우 중요한 개념이므로 명사구를 한번 복습해 볼 것을 당부합니다.

### Daum 카페 '유소영의 영작기술' Real Q & A?

**Q** 'PC bang has **mushroomed** recently.', 'He **elbowed** his way through the crowd.' 에서 mushroom, elbow는 명사인데 왜 동사처럼 쓰이죠? 또 뜻은 뭔가요?

**A** 영어소설이나 에세이 등을 읽다 보면 위와 같이 우리가 명사로 알고 있던 단어가 동사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전을 찾아 보면 매우 조금만 언급되어 있죠. 영어를 너무 문법에만 치우쳐 공부하지 말고 영어라는 언어를 즐겨 보세요, mushroom을 동사로 표현하니 신기하지 않나요? 명사인데 ed나 -s 등이 붙어 있다면 동사로 쓰였구나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명사의 뜻을 참고해 동작이나 상태를 유추하면 됩니다. 첫 번째 문장은 'PC방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두 번째 것은 '그는 군중들을 팔꿈치로 헤치며 나갔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 KEY POINT

- 1 give 동사는 무엇을 주는지와 누가 받는지 먼저 행겨야 합니다.  
He gave me authority to access the database.
- 2 get, have, take는 모두 소유의 개념을 갖지만, 가장 뜻이 강한 것은 take이고, 그 다음이 have, 그리고 get의 순서입니다.
- 3 take 동사는 의지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갖는 상황에 쓰입니다.  
We don't take credit card.



## Unit 10 영작연습

1. 그것은 나에게 행복을 주었다. 📊 카페 회원 정답율 90%

2. 상사가 나에게 하루 휴가를 주었다. (하루 휴가 : a day off) 📊 카페 회원 정답율 70%

3. 그가 내게 충고를 하나 했다. 📊 카페 회원 정답율 80%

4. 엄마가 내게 엄마의 신용카드를 쓸 수 있게 권한을 줬다. (권한 : authority / 허락permission)  
📊 카페 회원 정답율 60%

5. 멜버른 대학에서 나의 학업을 지원하고 기회를 준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멜버른 대학 : the University of Melbourne / 학업 : study) 📊 카페 회원 정답율 50%

6. 오늘밤 난 XML에 대해서 발표를 했다. 📊 카페 회원 정답율 60%

7. 경찰이 요구하면 이름을 말해야 한다. (꼭 give을 이용하세요) 📊 카페 회원 정답율 40%

8. 그녀에게 내 안부를 전해주세요. 📊 카페 회원 정답율 70%

9. 그는 나를 서울역까지 태워줬다. 📊 카페 회원 정답율 80%

10. 그녀는 내 손에서 가방을 채어갔다. 📊 카페 회원 정답율 70%

11. 우리 현금만 받습니다. 📊 카페 회원 정답율 90%

12. 적어도 15분은 걸릴겁니다. 📊 카페 회원 정답율 60%

13. 꼭 지하철을 타야 해요? 버스는 없어요? 📊 카페 회원 정답율 50%

14. 이제는 우리가 나설 때야. (행동을 할 때야) 📊 카페 회원 정답율 50%

15. 이곳이 네가 시험을 칠 교실이 될 거야. 📊 카페 회원 정답율 50%

16. 비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아래와 같은 단계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신청자 : applicants / 고려하다 : take ~ into consideration / 아래와 같은 단계들 → 아래의 단계들 : following ste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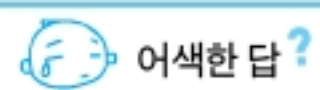
📊 카페 회원 정답율 50%

17. 내가 시합에 나갈 때 마다 그녀는 언제나 내게 조언을 해주었고 난 그녀의 조언을 받아 들었다. (~할 때 마다 : whenever / 시합 : competitions) 📊 카페 회원 정답율 40%

18. 군대의 조달은 언제나 시간이 걸린다. (조달 : procurement) 📊 카페 회원 정답율 60%



괜찮은 답



어색한 답?



1. 😊 It gave me happiness.

😊 It gave me pleasure.

▶ 네이티브들은 '행복을 준다'는 표현보다 '기쁨을 준다'라는 표현을 더 잘 씁니다.

😊 It gave me a happiness.

▶ 관사 오류

😊 It gave me happy.

▶ Happy는 형용사입니다. 주다 have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형용사가 오면 안됩니다. 명사가 와야 합니다. 우리말로 풀어 써도 이러한 구조는 쉽게 파악됩니다. '이것은 나에게 행복을 주었다' (O) '이것은 나에게 행복한을 주었다' (X)

😊 It took me happiness.

▶ took은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뜻이 정반대입니다.
2. 😊 My supervisor gave me a day off.

😊 My supervisor gave me one day off.

▶ 하루는 굳이 one day라고 하지 않고 a day 라고 합니다.
3. 😊 He gave me an advice.
4. 😊 My mother gave me authority to use her credit card.

😊 Mother gave me permission to use her credit card
5. 😊 Thanks to everybody at the University of Melbourne who gave me opportunity and support to study.

- 😊 Thank you very much for giving an opportunity and supporting my studies at the University of Melbourne.
- 😊 Thanks to everybody at the University of Melbourne who gave me support and opportunity in my studies.
- 😊 I want to give my appreciation to those who gave me support and opportunities to study in the University of Melbourne.
6. 😊 Tonight, I gave a speech about XML.

😊 Tonight, I gave a lecture (speech, seminar) about XML.

😊 I announced XML tonight.

▶ announce는 공고 등을 할 때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대중 앞에서 강연이나 발표 등을 할 땐 speech가 어울립니다.

→ I made a speech about XML tonight.
  7. 😊 If the police ask, you must give your name.

😊 Please give my worry to her.

▶ 안부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worry도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영작했나 봅니다. worry는 걱정의 뜻으로 인 사말로 전하는 안부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8. 😊 Please give my regards to her.

😊 Please, You give her my regards.

▶ 잘못된 심표 사용 / please는 명령문으로서 주어를 생략하고 동사원형을 씁니다.
  9. 😊 He gave me a ride to Seoul Station.

😊 He gave me a ride to Seoul station.

▶ 명사로 이루어진 고유명사는 각 단어의 첫 문자를 대문자로 합니다. Seoul Station이 맞습니다. 5번 예문의 University of Melbourne와 같은 이치입니다.

😊 He gave me a riding to Seoul Station.

▶ ride가 흔히 동사로 쓰이기 때문에 ride의 명사 뜻인 태움, 탐을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ride의 명사형은 ride이며 riding은 승마, 승차의 뜻입니다. 'give someone ride'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이므로 이 형태를 꼭 외워 두시기 바랍니다.
  10. 😊 She took the bag from my hand.

😊 She took a bag from my hand.

▶ 관사가 잘못 쓰였네요.
  11. 😊 We take only cash.



☹ We don't take credit.

- ▶ credit은 외상이란 뜻으로 credit 카드도 주인입장에서 보면 외상입니다. 돈을 나중에 카드회사에서 받기 때문이죠.

12. ☹ It'll take at least fifteen minutes.

☹ It'll take **at last** fifteen minutes.

- ▶ at last는 '마침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last)에(at) 있으니 마침내라는 뜻이 됩니다. at least(최소한, 적어도)와 헷갈리지 마세요.

13. ☹ Do we have to take the subway? Isn't there a bus we can take?

☹ Do we have to take the subway? Can we take the bus?

☹ Must we take the subway, or are there any buses around?

☹ Must we take subway? Does **it** have any bus?

- ▶ 대상이 불분명한 it입니다.

14. ☹ It's about time for us to take action.

- ▶ about은 근처, 부근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서야 할 때다'라고 말하는 것은 꼭 집어 한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about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There is nobody about : 근처에는 아무도 없었다.)

☹ It is time to **have** an action.

- ▶ '이제는 우리가 나설 때야'는 적극적으로 행동이 필요한 말입니다. 이때 어울리는 동사는 take입니다. have an action은 말하는 이의 의지가 매우 약하게 들립니다.

15. ☹ This will be the classroom where you will take the exam.

16. ☹ Visa applicants will have to take the following steps into consideration.

☹ Visa applicants should keep these steps in mind.

☹ All applicants for a visa have to take **following** steps into consideration.

- ▶ the following이라고 해야겠네요.

17. ☹ Whenever I go to competitions, she always advises me and I take her advice.

☹ Whenever I am in a competition, she always **gave** me advice and I **took** it

- ▶ 나의 일반적인 상황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현재의 규칙적인 습관이라고 문법책에서 말하는 부분인데, 이럴 때는 현재형을 써야 합니다. Whenever I am in a competition은 현재형인데 뒤따라 오는 동사 gave와 took은 과거네요.

18. ☹ The procurement in the military always takes time.

☹ Military procurement always takes time.

English  
Clin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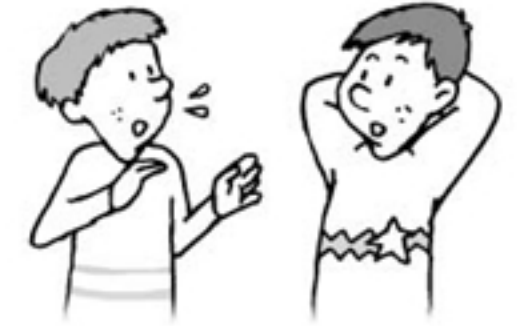
그는 매일 약을 먹어.

He eats medicine every day. (×)

→ He takes medicine every day. (○)

A : He takes medicine every day. 그는 매일 약을 먹어.

B : Where does it hurt? 어디가 아픈 거야?



'약'은 '먹지' 않고 '복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말식으로 '약을 먹다'라는 표현에 익숙하다 보니 영어로 표현 할 때에도 동사 eat을 쓰는 분들이 많지만, 이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동사 eat은 '음식을 먹다'라는 뜻을 갖지만, 약은 '음식의 대상'이 아니므로, '약을 먹다'라고 할 때에는 eat을 쓸 수 없습니다.

알약, 가루약, 또는 물약 같은 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동사 take를 사용하여 'take medicine'이라고 해야 올바른 표현이 됩니다. 동사 take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며, '약을 먹는(복용하는)'경우도 그 중 하나에 속합니다. 참고로, medicine은 폭넓게 약을 나타내지만, 알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take a pill'이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기본동사와 명사어구 짝짓기



이 책을 먼저 공부한 베타테스터 한마디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세한 예문들이 너무나 큰 도움이 되었던 유닛이다. 특히 '네이티브 흉내 내기'를 비롯한 전반적인 내용이 일반인들의 한국식 영작을 네이티브식으로 바꾸어주는 것이었는데,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좋았다. 상당한 것을 얻고 가는 느낌이다. 쉽다고 무턱대고 했던 영작들이 네이티브에게는 어색한 콩글리쉬 표현이라니... 명사어구 표현을 통해 차근차근 고치게 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다.

**영어식 사고의 가장 하이라이트**인 '명사어구와 기본동사'의 활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영어는 명사구가 잘 발달되어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명사구를 잘 쓰다 보니 서술적 표현보다 한정적 표현을 많이 쓴다고도 말했습니다.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잠깐 앞에 서 배운 내용을 다시 끄집어 내어 보겠습니다.

## 1. 영어는 명사구가 잘 발달되어 있다

**우리말식)** 이 영화는 **크게** 성공했다. This film succeeded **greatly**.

**영어식)** 이 영화는 큰 성공을 만들었다. This film made a great success.

우리말식으로 영작을 하면 '성공했다'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런데 영어식은 '성공했다'라는 동사를 직접 쓰지 않고 '성공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말은 동사중심의 표현이 많기 때문에 동사가 매우 잘 발달되어 종류도 많고 어려운 동사도 실생활에서 곧잘 씁니다. 반면 영어에서는 하고자 하는 말의 중심을 명사에 놓고 그 명사를 데려오는 동사는 쉽고 기본적인 것을 씁니다.

서술적인 표현	한정적인 표현
이 버스는 <b>노란색</b> 이다. This bus is yellow.	이것은 노란색 버스이다. This is a yellow bus.
내방은 <b>작다</b> . My room is small.	나는 작은 방을 가졌다. I have a small room
이 차는 <b>멋있다</b> . This car is nice.	이것은 멋진 차다. This is a nice car.

## 2. 서술적 표현보다는 한정적 표현이 잘 어울리는 영어

서술어가 잘 발달되어 있는 우리말을 '명사중심'의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영작의 포인트입니다. 아래 예문을 보면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 예문 1 그녀는 피부가 아름답다.

1단계) 명사형으로 바꾼다.

여기서 술어 부분은 '아름답다'이고, '아름답다'의 대상은 '피부'입니다. 이를 명사형식으로 바꾸면 '아름다운 피부'가 됩니다. 피부를 꾸며주는 술어 '아름답다'를 형용사로 간단히 바꾼 것입니다.

피부가 아름답다 → 아름다운 피부(beautiful skin.)

2단계) 적당한 기본동사를 고른다.

앞에서 만든 beautiful skin과 주어 she와의 관계를 살펴봅니다. 그녀 / 아름다운 피부의 관계는 소유입니다. 따라서 have동사로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 그녀는 아름다운 피부를 가지고 있다.

→ She has beautiful skin.

위 예문에서는 have가 쉽게 떠오르지만 적당한 기본동사를 찾는 것은 초보에게 어려운 작업입니다. 영어에 대한 감이 많아야 적당한 기본동사가 떠오르는데 영어를 많이 접하는 것 외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독해 할 때도 get/make/have/give/take/bring/come 등의 기본동사가 나올 때마다 눈에 많이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 예문 2 그녀는 눈이 파랗다.

1단계) 이 예문에서 사용될 단어는 she, eyes, blue입니다.

'눈이 파랗다'를 'eyes are blue'라고 하면 영락없는 콩글리쉬이므로 명사를 활용한 한정형으로 생각해 봅시다.

눈이 파랗다 → 파란 눈 (blue eyes)



2단계) She와 blue eyes의 관계는 역시 소유관계입니다. 따라서 have를 쓰면 적당합니다.

→ 그는 파란 눈을 가지고 있다.

→ She has blue eyes.

### 3. 명사어구와 기본동사의 다양한 활용의 예

그가 나에게 슬픈 이야기를 했다.

He / me / sad / story의 관계는 어떤 기본동사를 활용하면 좋을 지 생각해 보세요. Give가 어울리지 않나요?

→ 그는 나에게 슬픈 이야기를 줬다.

→ He gave me a sad story yesterday.

우리는 짧게 휴식했다.

→ 우리는 짧은 휴식을 가졌다.

→ We had short break.

:: Have 동사뿐 아니라 take동사를 쓸 수도 있겠네요. take는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챙겼다' 라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 우린 짧은 휴식을 취했다.

→ We took a short break.

:: break 앞에 왜 a가 붙는지 생소하신 분은 관사 부분을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참을 수 없을 만큼 슬펐다.

I was sad unbearably.라고 해도 됩니다만 되도록 명사중심어구를 활용하는 것이 좋으므로 unbearable sadness를 활용합시다. I got unbearable sadness. 라고 하면 좋겠네요. 한 단계 더 나아가 무엇이 날 슬프게 했나 보여줘 봅시다.

→ 그것은 나에게 참을 수 없는 슬픔을 주었다.

→ It gave me an unbearable sadness.

머리가 심하게 아프다.

'My head is sick' 이라고 하면 콩글리쉬입니다. 머리가 아픈 것은 두통(headache)인데 두통이 심하다는 형용사 severe로 수식합니다. 우리말의 아프다(동사)와 어울리는 것은 심하게(부사)이지만 영어로 바꾸면서 아픔(명사형)으로 바꿨기 때문에 심한(형용사)으로 변했습니다.

→ 난 심한 두통을 가지고 있다.

→ I have a severe headache.

이 방은 전망이 좋다.

초보들은 이런 문장을 보면 주어가 두 개(이 방은, 전망이)라서 무엇을 주어로 할지 헤매기도 합니다. '좋다'가 수식하는 것은 '이 방'이 아니라 '전망'입니다. 따라서 '좋은 전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 방'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이 방'이 주어가 되어서 '좋은 전망'을 have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 이 방은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다.

→ This room has a good view.

애기가 콧물이 흘러요.

→ 애기가 흐르는 코를 가지고 있어요.

→ The baby has a runny nose.

그는 손이 크다.

→ 그는 큰 손을 가지고 있다.

→ He has a big hand.

나 좀 태워줘.

→ 나에게 태워줄을 줘.

→ Please give me a ride.

### 4. [명사어구 + 기본동사] 영작의 장점

영작에서 어려운 부분 중 하나가 수식어구 처리인데, [명사어구+기본동사]를 연습해서 응용하면 수식어구 영작이 쉬워집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우리말은 부사표현이 많지만 영어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말의 부사를 영어로 옮기는 것 보단 네이티브처럼 명사표현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수식이 많이 붙는 표현일수록 명사표현이 좋습니다. 아래 예문을 그대로 우리말식으로 영작해 보면,

[한국어식 표현]

이번 공연은 성공했다.

→ This performance succeeded.

이번 공연은 크게 성공했다.

→ This performance succeeded greatly.

이번 공연은 성공을 했는데 이는 예측 불가능했었다.

→ This performance succeeded and it was unexpected.

이번 공연은 크게 성공을 했는데 이는 예측 불가능했었다.

→ This performance succeeded greatly and it was unexpected.

앞의 문장들을 네이티브는어떻게 표현할까요?

[영어식 표현]

이번 공연은 성공했다.

→ This performance made success.

이번 공연은 크게 성공했다.

→ This performance made a great success.

이번 공연은 성공을 했는데 이는 예측 불가능했었다.

→ This performance made an unexpected success.

이번 공연은 크게 성공을 했는데 이는 예측 불가능했었다.

→ This performance made an unexpected great success.

어때요? 명사형을 쓰되 형용사를 이용해 수식해 줬죠? 접속사 and를 이용하여 길게 늘어 써야 될 부분도 간단한 형용사로 해결했습니다. 우리말의 부사부분이 어떻게 형용사형으로 표현되는지 잘 살펴보세요.

우리는 짧고 달콤하게 휴식했다.

[영어식 표현] 우리는 짧고 달콤한 휴식을 취했다.

→ We take a short and sweet break.

뜨겁게 샤워하고 싶어.

[영어식 표현] 난 뜨거운 샤워를 가지는 것을 원해.

→ I want to take a hot shower.

이 뉴스는 날 매우 놀라게 했다.

[영어식 표현] 이 뉴스는 내게 큰 놀라움을 줬다.

→ This news gave me a big surprise.

그 가게에서 우리에게 특별히 할인해줬다.

[영어식 표현] 그 가게에서 우리에게 특별 할인을 줬다.

→ They gave us a special discount.

난 보스하고 매출실적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했다.

[영어식 표현] 난 보스하고 매출실적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가졌다.

→ I had a serious talk with my boss about the sales record.



Q 명사어구 표현이 계속 강조되는데, 명사어구 표현의 가장 큰 장점이 뭐예요?

A 표현을 풍부하게 해 줄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동사수식은 부사로 하고 명사수식은 형용사로 하는데, 수식과 묘사가 가장 잘 발달 되어 있는 것이 형용사입니다. 형용사와 명사의 콤비는 표현을 풍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 5. 네이티브 흉내 내기

[기본동사+명사어구]를 배웠는데 이제 한정형 표현에 좀 익숙해 지셨나요? 네이티브들은 이 패턴을 아주 좋아합니다. 동사 하나로 표현될 것도 그 동사를 명사로 바꾼 후 기본동사를 이용해서 표현합니다. 한국인에겐 정말 어려운 부분이지요. 하지만 영어를 조금 관심 있게 공부한 사람들은 이러한 패턴이 얼마나 많이 쓰이는지 아실 겁니다. '앉으세요'를 우리는 대부분 'Sit down, please'라고 영작하는데, 네이티브는 'Have a seat'이라고 합니다. Sit에 해당되는 명사 seat를 이용해서 기본동사 have로 연결해 줬습니다. 참 영어스럽죠 ^^

이것 봐봐.

[우리말식 표현] Look at it.

[영어식 표현] Have a look at it.

좀 쉬렴.

[우리말식 표현] Why don't you rest?

[영어식 표현] Take a rest.

난 그 책을 슬쩍 한번 쳐다 봤다.

[우리말식 표현] I glanced the book quickly.



영어식 표현) I **took a quick glance** at that book.

그녀는 그를 의심스럽게 봤다.

우리말식 표현) She looked at him suspiciously.

영어식 표현) She **gave him a suspicious look**.

오늘밤 9시로 예약하고 싶어요.

우리말식 표현) I'd like to reserve it for 9:00 tonight.

영어식 표현) I'd like to **make reservations** for 9:00 tonight.

난 지금 아무도 알아 채거나 생각하지 않는 사소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우리말식 표현) I'm speaking of small things, which no one would notice or think of.

영어식 표현) I am speaking of small things, which no one would notice or **give a thought to**.

:: think와 어울리는 전치사는 of인데 give a thought와 어울리는 전치사는 to입니다. give to를 연상하세요.

화가는 그걸 알아 차리고는 갑자기 웃었다. 그리고 내게 손을 흔들었다.

우리말식 표현) The painter, noticing this, laughed and waved his hand to me.

영어식 표현) The painter, noticing this, **burst into a laugh**, and waved his hand to me.

:: burst into는 갑자기 터진다는 뜻입니다. 물론 have a laugh(웃다), give a laugh (웃음 소리를 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기본동사를 달리하면 느낌이 다른 영작을 할 수 있습니다.

리눅스를 깔고 써보려 한다.

우리말식 표현) I would like to try to install and use linux.

영어식 표현) I would like to **give a try** in installing and using linux.

:: 'installing and using linux' 에 try를 give한답니다. try가 동사로 쓰인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전치사는 in을 씁니다 'give a try in installing~' 이렇게 말합니다. 'installing and using linux' 안으로 명사 try를 쥐버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참고로 try가 동사로 쓰이면 try 다음에 to부정사가 옵니다.

넬슨과 모튼은 한동안 서로를 쳐다봤다. 그리고 넬슨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미안해요 모튼씨, 그녀는 여기 없어요."

우리말식 표현) Nelson and Morton looked each other and then nelson sighed deeply. "I'm truly sorry, Mr. Morton, but she is not here."

영어식 표현) Nelson and Morton **exchanged a long look** and then Nelson gave a deep sigh. "I'm truly sorry, Mr. Morton, but she is not here."

파일럿은 마하 0.98로 날고 있었는데 오른쪽으로 한번 돌고 왼쪽으로 한번 돌아왔다.

우리말식 표현) The pilot was flying at Mach 0.98 and turned to the right and then to the left.

영어식 표현) The pilot was flying at Mach 0.98 and **made a turn** to the right and then to the left.

이러한 표현들은 그간 숙어표현이라고 해서 무작정 외우기만 해왔었는데, 기본동사의 개념을 알면 보다 쉽게 기억됩니다. 무작정 외우는 것이 반드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Q 제 미국인 친구가 I will move to new house in Sep.에서 'Sep'가 틀렸다고 하는데, 8월은 'Sep'이 맞잖아요.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A 월을 나타내는 단어를 축약해서 쓸 때는 꼭 날짜와 같이 써야 합니다. I will move to new house **on Sep. 15**,처럼 날짜와 같이 쓰일 때만 축약형으로 할 수 있어요. 그 외에는 'September' 라고 제대로 써줘야 합니다.



#### KEY POINT

##### 1 명사와 기본동사의 활용

우리는 짧게 휴식했다.  
→ 우리는 짧은 휴식을 가졌다.  
→ We had short break.

##### 2 '명사어구 + 기본동사' 영작의 장점

이번 공연은 크게 성공을 했는데 이는 예측 불가능 했었다.  
→ This performance succeeded greatly and it was unexpected.

##### 3 네이티브 흉내 내기

look at it,  
→ Have a look at it.

## Unit 11 영작연습

1. 그녀가 내게 미소를 지었다. 📊 카페 회원 정답율 80%

---

2. 나의 방은 크다. 📊 카페 회원 정답율 80%

---

3. 그의 목소리는 젊잖다. (젊잖은 : gentle) 📊 카페 회원 정답율 70%

---

4. 한국은 여름에 비가 많이 온다. 📊 카페 회원 정답율 60%

---

5. 나는 게임에 많은 흥미가 있다. 📊 카페 회원 정답율 70%

---

6. 교수님과 대화를 오래했다. 📊 카페 회원 정답율 50%

---

7. 시간이 별로 없다. 📊 카페 회원 정답율 60%

---

8. 이 일에 백만원이 들었다. 📊 카페 회원 정답율 70%

---

9. 우리가게는 신용카드는 안됩니다. (take를 써 보세요 / 신용카드 : credit card) 📊 카페 회원 정답율 80%

---

10. 그 계획은 멋지게 성공했다. 📊 카페 회원 정답율 60%

---

11. 편지 하나가 배달되지 않았다. 📊 카페 회원 정답율 50%

---

12. 요즘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한다. 📊 카페 회원 정답율 50%

---

13. 핸드폰을 하나 새로 했다. 📊 카페 회원 정답율 60%

---

14. 그가 내게 명쾌하게 답을 했다. 📊 카페 회원 정답율 40%

---

15. 그가 적절한 조건을 제시했다. (적절한 : reasonable / 조건 : condition) 📊 카페 회원 정답율 50%

---

16. 그는 어머니의 손등에 키스를 한 후 창문쪽을 바라봤다. 📊 카페 회원 정답율 30%

---

17. 그녀는 간단한 농담에도 크게 웃는다. 📊 카페 회원 정답율 4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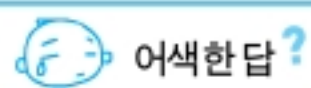
18. 그에게 한번 시도해보라고 말해 줬다. 📊 카페 회원 정답율 50%

19. 가장 작은 소년이 한숨을 깊게 쉬더니 말했습니다. “좋아요, 개를 그에게 주세요.” 📊 카페 회원 정답율 50%

20. 내 차는 오른쪽으로 돌 때 마다 소음을 낸다. (소음 : noise) 📊 카페 회원 정답율 40%



괜찮은 답



어색한 답 ?

1. 😊 She gave me a smile.

😊 She gave me a **laugh**.

▶ laugh는 소리 내어 웃는 것입니다. 미소와는 거리가 있지요, 미소는 smile을 씁니다.  
미소 짓는 것과 비슷하게 씩~ 웃는 것은 grin이라고 하는데, She gave me a grin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2. 😊 I have a big room.

3. 😊 He has a gentle voice.

😊 A gentle voice has had by him.

▶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는 수동태로 쓰지 않습니다.

4. 😊 Korea has lots of rain during summer.

😊 Korea has lots of rain in summer.

😊 Korea has lots of rain **for** summer.

▶ during은 구체적인 사건(event)에 쓰이는데 반해 for는 숫자로 표기되는 기간을 나타냅니다. I stayed there for three weeks처럼 써야 맞습니다.

😊 Korea **have** lots of rain in summer.

▶ 한국은 단수 취급합니다.

5. 😊 I have a great interest in games.

😊 I have a lot of interest in **game**.

▶ 명사를 총괄해서 쓸 때는 복수형으로 쓰라고 Unit 02에서 배웠습니다. I like movies.

😊 I have a great **interesting** in games.

▶ interesting은 형용사입니다. have의 목적어로 명사 interest를 써야 맞습니다.

6. 😊 I had a long talk with my professor.

😊 I had a long discussion with my professor.

😊 I had a long talk **to** my professor.

▶ with는 '곁에 있는'ニュ앙스입니다. 같이 얼마간의 시간을 보내는 경우에 쓰이는데, talk with him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고 talk to him은 누군가에게 말 몇 마디를 건네는 것입니다. 교수님과 오래 이야기를 했다면 to보다는 with가 어울리겠네요. 마찬가지로 meet with him과 meet him은 똑같이 만나는 것이지만 meet him은 짧게 스치듯이 만나거나 하는 것입니다.

I met him on my way home, 집에 가는 길에 그와 마주쳤다. (의도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I met with him yesterday, 어제 그를 만났어. (약속을 하고 만나는 경우에 meet with를 씁니다.)

😊 I **take** a long talk with my professor.

▶ 교수님과 대화를 한 것은 내가 강하게 밀어 부쳐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take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7. 😊 We don't have much time.

😊 We have very little time.

😊 It has a little time.

▶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라서 it을 썼나 봅니다. 그런데 It is five o'clock처럼은 쓰여도 it이 have 동사와 쓰여 시간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a little'은 '많다'입니다. a를 빼고 little로 해야 합니다. 기초적인 단어이지만 실전에서 끝잘 헛갈립니다.

→ We have little time.

8. 😊 It took 1 million won for this job.

9. 😊 We don't take credit card.

10. 😊 The plan made a great success.

▶ 계획(plan)과 약속(promise)을 헛갈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미 잡혀진 계획(선약) 등이 있는 경우 I have a promise라고 하는 초보가 많은데요, I have plans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promise는 계획이란 뜻이 아닌 약속을 말합니다.

11. 😊 We had an undelivered letter.

12. 😊 I can't have enough sleep these days.

😊 I can't have enough sleep **in** these days.

▶ these days는 전치사 없이 씁니다.

😊 I can't have enough sleep **these** day.

▶ 요즘은 these days입니다.

13. 😊 I got new cell phone.  
 😊 I have a new cell phone.  
 😊 I got new **hand phone**.  
 ▶ 휴대전화는 cell phone입니다. hand phone은 콩글리쉬입니다. 휴대전화는 지역을 cell처럼 나누고 각 cell마다 기지국을 세웁니다. 그래서 cell phone이라고 합니다.
14. 😊 He gave me a clear answer.
15. 😊 He gave us a reasonable condition.
16. 😊 He kissed his mother's hand and gave a look towards the windows.  
 😊 He gave his mother a kiss and **took** a look to the window.  
 ▶ gave a look to the windows와 took a look to the window는 뉘앙스 차이가 납니다. take동사를 쓰면 훨씬 더 적극적인 의사표현이기 때문에 '창문을 자세히 봤다'란 뜻이 됩니다. 눈길을 한번 주는 뜻인 give a look과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17. 😊 She bursts into a laugh at simple jokes.  
 😊 He gives a big laugh at simple jokes.  
 😊 He gives a big laugh **from** simple jokes.  
 ▶ 전치사 오류입니다.
18. 😊 I told him to give it a try.  
 😊 I suggested that he give it a try.
19. 😊 The smallest boy gave a deep sigh and said, "All right, give him the dog."  
 😊 The smallest boy gave a deep sigh and said, 'Ok, **Give** him the dog.'  
 ▶ 문장의 첫 단어는 대문자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Ok, Give him the dog' 처럼 콤마(,)로 연결된 부분은 문장이 새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20. 😊 Every time my car makes a turn to the right, it makes noise.  
 😊 My car makes noise every time it makes a turn to the right.  
 😊 My car **got** a noise whenever **turn** right.  
 ▶ 현재의 사실을 말하므로 현재시제를 써야 합니다. 차에서 소리가 나는 것은 '차가 소리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보다 '차가 소리를 만든다'라고 하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 My car makes noise whenever it turns right.  
 😊 My car makes noise whenever **go** right.  
 ▶ 차의 핸들을 꺾는다는 우리말 표현이 있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은 turn right라고 합니다.

English  
Clinic

## 마이크와 저녁에 약속이 있어요.

I have a promise with Mike in the evening. (×)

→ I've **got an appointment with** Mike in the evening. (○)

A : Are you free this evening? 오늘 저녁 때 시간 있니?

B : I've got an appointment with Mike in the evening.

마이크와 저녁에 약속이 있어요.

이미 '만날 약속은 **appointment**'로 씁니다.

'약속'에는 두 가지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을 하겠다는 행위에 대한 보장'이고, 다른 하나는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에서 누구를 만나기로 정하는 행위'입니다. 영어에서는 이 두 가지를 서로 다른 단어로 표현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I have a promise with Mike in the evening'이라고 표현하게 되면, 원어민의 입장에서는 문맥을 파악하기가 매우 곤란해 집니다. 즉, promise는 '무엇을 하겠다는 행위에 대한 보장'을 뜻하므로, 원어민의 입장에서는 이 문장의 의미가 제대로 귀에 들어올 리가 없겠죠.

반면, '누구와 만나는 약속'은 'appointment'로 표현해야 합니다. 물론, 'appointment'를 사용하지 않고, 'I have to meet Mike in the evening. 마이크를 저녁에 만나야 해요'라고 표현해도 같은 의미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와 만날 시일과 장소를 정하다'는 '**make an appointment with~**'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다'는 '**keep one's appointment with~**'로, '그 약속을 어기다'는 '**break one's appointment**'로 표현합니다.



영어식 사고로 쉽게 쓰는  
유소영의 영작 1교시



## Part 3

# 문장 매끄럽게 하기

Part 1, 2가 영작의 기본편이라면 Part 3은 기본기에 살을 붙여

문장을 매끄럽게 영작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문장의 뼈대가 되는 주어+술어를 다듬고 살을 붙이는 작업은 독해를

위주로 영어공부를 해온 분들에게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번 Part에서는 우리말과 영어의 문장 전개 차이점을 파악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나열하는 법과 우리말에는 없는 쓰임인 가정법, 전치사 등에

대해 공부합니다. 이 단계까지 해결되면 영작은 거의 완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Unit 12 논리력이 없이 영작 절대 못한다

Unit 13 우리말 동사 그대로 영작하지 마라

Unit 14 시제 이야기

Unit 15 가정법에서 해매는 초보에게

Unit 16 전치사 개념 바로 알기

Unit 17 전치사, 영작에 활용하기

Unit 18 사물 주어를 잘 써야 영작이 잘 된다

# Unit 12 논리력 없이 영작 절대 못한다



이 책을 먼저 공부한 베타테스터 한마디

문장의 5형식, 문법책에 기본적으로 등장하는 이 '5형식'이라는 표현은 정작 네이티브들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들은 기억이 있다. 나 역시 굉장히 싫어하는 표현이기도 하다. 이처럼 외우기도 까다롭고 헛갈리는 문장구조를 딱 두 가지 법칙을 통해 한꺼번에 숙지할 수 있게 되어서 큰 도움이 되었다. 이 유닛을 마스터한다면 영어 독해시 속독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명사부분과 동사부분의** 기초를 공부했기 때문에 다음 순서는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고 문법적인 요소와 어법적인 요소를 적용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영작카페 내에서도 문장의 주요 요소와 수식어를 헛갈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즉 무엇이 메인이고, 무엇이 수식으로 붙는 것인지를 파악하지 못해 엉뚱한 영작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유닛에서는 영어식 논리력과 단어 배열을 연습하려고 합니다.

영어의 논리와 단어 순서는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항상 헛갈립니다. 문법책에서는 영어문장을 5개의 패턴으로 분류하여 5형식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영작에도 잘 적용됩니다. 5형식은 정말 술하게 배웠죠? 그런데 4형식이 뭐더라, 5형식은 뭐지? 항상 배워도 금방 금방 까먹기만 합니다. S+V+O+O.C 이런 식으로 외우다 보면 잊어버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더구나 이러한 기호들은 알고 있어도 실전으로 영작할 때 머리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5형식 기호들은 잊어버리세요. 이제부터 나오는 개념을 이해하면 더 이상 문장구조 때문에 머리 아플 일은 없을 겁니다.

## 1. 문장 구조 법칙 1 전체 주어와 전체 서술어 찾기

우리는 모든 사람이 참석할 수 있는 날짜를 **택했다**.

문장구조 법칙 1은 '전체 주어와 전체 서술어 찾기'입니다. 위의 예문을 보세요. 주어와 매칭되는 서술어의 짝을 색깔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택했다**'가 전체 주어, 전체 서술어인데 논리적으로 조금만 살펴보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볼드 부분 '**모든 사람이 참석**'은 문장에 있어서 부수적인 역할을 하는 보조 주어와 보조 서술어입니다.

몇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별색 부분이 전체 주어, 전체 서술어입니다)

나는 세계 커피의 대부분이 생산되는 브라질에 **가 보았다**.

그는 그 문제는 자기가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일찍 일어나서 제 시간에 기차를 **탈 수 있었다**.

그가 대학입시에서 **고배를 마신 것은 이미 예상된 결과이다**.

:: 전체 주어는 '그'가 아닙니다. 밑줄 친 부분 전부가 전체 주어입니다. 전체 주어가 너무 길면 it으로 대체 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정원수에 **물을 주어야 한다**.

:: 이 문장에선 전체 주어가 보이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따져보니 we가 될 수도 있고, you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땅을 팔려고 했던 **그 사람은** 재산에 대한 **자랑을 늘어 놓았다**.

우리말 논리만 조금 있으면 쉽게 전체 주어와 전체 서술어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을 수식어로 만들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식에 관련된 것이 관계사, 형용사, 접속사, 부사 등입니다.

## 2. 문장구조 법칙 2 영어답게 배열하기

논리력을 총 출동하여 전체 주어와 전체 서술어를 찾아 났으면 아래의 순서대로 배열합니다.

1. 전체 주어
2. 전체 서술어
3. 목적어
4. 수식 및 설명 (상대적으로 긴 수식 및 서술)

예문을 볼까요?

한 팀을 만들려면 2명이 더 필요해.

"필요하다네. 뭐가? 두 명이. 근데 누가 필요하지? 우리가 필요하구나. 왜? 한 팀을 만들기 위해서. 음~ 이 문장의 대체적인 논리는 파악했군. 이제 영작으로 옮겨야 하는데, 영어는 전체 주어



부터 써줘야 하니까 전체 주어부터 찾아보자. 간단히 we로 하면 되겠다. 그럼 다음 순서인 서술은 뭐로 하자? 우리가 필요하니까 we need라고 쓰고, 목적어는 2명이네. 자, 이렇게 기본 골격 만들었다면 이제 수식할 만 한 것이 있나 찾아보자. 한 팀을 만들기 위해서가 수식이 되겠구나...”

이상은 영작 고수가 2초 안에 머리 속에서 생각해낸 영작 접근법입니다. 영작 고수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죠? 문장의 논리 파악입니다. 논리 파악이 끝난 후엔 뭐가 이 문장의 주체(주어)이고 서술인지 파악한 다음에 순서대로 나열을 했습니다. 나열을 좀 더 살펴보면,

배열 순서: 전체 주어 - 전체 서술어 - 목적어 - 수식 및 서술

1단계 : 우리는 필요하다.

2단계 : 우리는 필요하다 만들기 위해 (X)

3단계 : 우리는 필요하다 2명이

4단계 : 우리는 필요하다 2명이 만들기 위해 한 팀을.

→ We need two more boys to make a team.

영작 고수가 2단계에서 영작을 하다가 경고가 울렸습니다. 필요하다 해놓고 무엇이 필요한지 말을 않고 넘어갔네요. ‘필요하다’는 목적어와 자연스럽게 어울려야 하는 타동사인 데 목적어를 생략하고 다음 단계인 수식 ‘만들기 위해’가 오면 안되지요. 목적어가 와야 자연스러워지는 문장은 꼭 목적어를 넣어 줘야 합니다. 예문을 좀 더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참석할 수 있는 날짜를 택했다.

배열 순서: 전체 주어 - 전체 서술어 - 목적어 - 수식 및 서술

1단계 : 우리는 택했다. (논리 파악 후 전체 주어, 전체 서술어 선택)

2단계 : 우리는 택했다 날짜를 (목적어 추가)

3단계 : 우리는 택했다 날짜를 모든 사람이 참석할 수 있는 (수식 추가)

→ We choose a date on which everyone can attend.

이러한 변화는 운전자들의 돈을 아껴 줄 뿐 아니라 교통체증과 공기오염을 줄여 준다.

1. 이러한 변화는 줄여준다. (전체 주어, 전체 서술어)

2. 이러한 변화는 줄여준다 교통체증과 공기오염을 (목적어 추가)

3. 이러한 변화는 줄여준다 교통체증과 공기오염을 한편으로는 운전자들의 돈을 아껴준다. (수식 추가)

→ This movement is reducing traffic jams and air pollution while saving drivers' money.

21세기가 시작되면서 우리에게 많은 변화가 생겼다.

이 문장은 전체 주어를 2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전체 주어로 할 경우)

1. 우리는 가졌습니다. (전체 주어, 전체 서술어)

2. 우리는 가졌습니다 많은 변화를 (목적어 추가)

3. 우리는 가졌습니다 많은 변화를 21세기가 시작되면서. (수식 추가)

→ We have had lots of changes as the 21st century started.

(변화를 주어로 할 경우)

1.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전체 주어, 전체 서술어)

2.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우리에게. (목적어 추가)

3.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우리에게 21세기가 시작되면서. (수식 추가)

→ Lots of change has come to us as 21st century started.

다음의 문장은 좀 어렵습니다만 영작 논리력을 키우기 위해 선택했습니다.

대중교통이용과 대체운송수단이 공기오염을 줄여 줄거라 믿는 ‘대체통근사회’, ‘깨끗한 대기를 위한 운전자들 모임’ 같은 시민단체들은 이번 연구에 많은 돈을 제공했다.

위 문장을 논리적으로 해부해 보세요. 시민단체가 돈을 제공했다가 문장의 핵심이죠? 시민단체를 전체 주어로 놓으면 됩니다. ‘시민단체 (어찌구 저찌구 수식들) 제공했다 돈을’ 이러한 식으로 진행될 텐데, 전체 주어가 될 시민단체를 수식하는 말이 굉장히 길습니다. 이렇듯 수식을 길게 받는 단어는 주어로 쓰기에는 부담스럽습니다. 가능하면 짧게 떨어지는 단어를 전체 주어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돈이 제공되었다 라고 전체 주어와 서술어를 만들어 살을 붙여 보겠습니다.

수식이 짧게 떨어지는 단어를 주어로 놓는 것이 영어식 사고 방식입니다.

1. 많은 돈이 이 연구를 위해 제공되었다. (전체 주어, 전체 서술어)
  2. 많은 돈이 이 연구를 위해 제공되었다. 시민단체들로부터 (수식 추가)
  3. 많은 돈이 이 연구를 위해 제공되었다. 시민단체들로부터 ~~ (시민단체에 대한 부가 설명) (수식 추가)
- Much of the funding for this research has been provided by citizens' groups, such as the Alternative Commuting Society and Drivers for Clean Air, who feel that promoting public transportation and alternative vehicles reduce air pollution.

관계사나 접속사 등이 들어가는 복잡한 영작을 하다가 어려워지면 초보들은 자신이 관계사 접속사에 약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계사 which, who, 접속사 since 등을 문법책에서 찾아봅니다. 문법책의 예문들을 볼 때는 이해가 가지만 영작을 하려 할 때는 또 막막 할 때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원문의 구조파악을 논리적으로 잘하지 못해서 생깁니다. 논리력이 강해야 우리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 할 수 있습니다.

#### Daum 카페 '유소영의영작기술' Real Q & A?

- Q** CF(광고), MT(해학 엠티), PD(방송국 프로듀서), PT(프리젠테이션) 등의 약어에 대해 알려주세요.
- A** 이상하게도 우리가 흔히 쓰는 약어(abbreviation)는 그 유래가 불분명한 국적불명의 것이 많습니다. CF, MT는 네이티브가 이해하지 못하는 약어입니다. CF는 commercials, MT는 orientation trip이라고 해야 합니다. PD는 네이티브가 police department라고 이해하므로 producer라고 해야 하며, PT는 physical training(신체단련)이라고 이해하므로 presentation이라고 제대로 표기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문장구조 법칙 2가지를 배웠는데, 많은 연습을 해서 어떠한 문장도 자신이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유닛에서는 정확한 영작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제가 설명한 문장구조 개념만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 KEY POINT

- 1 전체 주어와 전체 서술어를 잘 찾아야 한다.
- 2 '전체 주어 - 전체 서술어 - 목적어 - 수식 및 설명' 으로 배열한다.
- 3 수식이 짧은 단어를 주어로 놓는다.

## Unit 12 영작연습

이번 unit의 영작 연습은 실제 영작을 하지 말고 우리말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전체 주어와 전체 술어를 찾고 순서를 재배열 하는 것 까지만 하세요. 참고로 이번 영작 연습에는 네이티브 선생님의 첨삭이 없습니다.

1. 전기자동차가 생산된다고 해서 자동차 유지비가 싸지는 것은 아니다.

2. 21세기가 시작되면서 우리에게 많은 변화가 생겼다.

3. 두바이는 내가 생각해 왔던 그런 도시가 아니었다.

4. 매주 월요일 아침 한 주를 시작하는 회의가 열린다.

5. 네가 좋아할 줄 알고 이 맥주를 사왔어.

6. 너무나 엄격한 부모였기에 자식들이 무서워했다.

7. 네가 시험에 합격하기만 하면 뭐든지 해줄게.



8. 그런 일이 생길 줄은 정말 상상하지 못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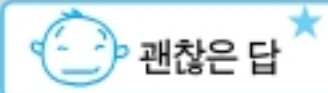
---

9. 아이들이 약에 손대지 말도록 신경쓰세요.

---

10. 제인은 여기에 택시를 타고 왔다.

---



괜찮은 답



1. 전기 자동차가 생산된다고 해서 자동차 유지비가 싸지는 것은 아니다.

영어식 변형) 자동차 유지비가 싸지는 것은 아니다 전기 자동차가 생산된다고 해서.

The maintenance cost for a car will not be reduced even if an electric car is produced.

2. 21세기가 시작되면서 우리에게 많은 변화가 생겼다.

영어식 변형) 많은 변화가 생겼다 우리에게 21세기가 시작되면서.

A lot of change has come to us since the beginning of 21st century.

3. 두바이는 내가 생각해 왔던 그런 도시가 아니었다.

영어식 변형) 두바이는 아니었다 그런 도시가 내가 생각해 왔던.

Dubai is not the city that I've thought of.

4. 매주 월요일 아침 한 주를 시작하는 회의가 열린다.

영어식 변형) 우리는 한(연다) 회의를 월요일 아침 한 주를 시작하는.

We have a meeting every Monday morning, the first day of week.

5. 네가 좋아할 줄 알고 이 맥주를 사왔어.

영어식 변형) 나는 사왔어 이 맥주를 네가 좋아할 줄 알고.

I bought beer to make you happy.

6. 너무나 엄격한 부모였기에 자식들이 무서워했다.

영어식 변형) 자식들은 무서워했다 (그들의)부모를 너무나 엄격했기에.

The children were afraid of their parents because they were very strict.

7. 네가 시험에 합격하기만 하면 뭐든지 해줄게.

영어식 변형) 내가 해줄게 뭐든지 네가 시험에 합격하기만 하면.

I'll do everything for you once you pass the examination.

8. 그런 일이 생길 줄은 정말 상상하지 못했었다.

영어식 변형) 나는 정말 상상하지 못했었다 그런 일이 생길 줄은.

I've never imagined that could happen.

9. 아이들이 약에 손대지 말도록 신경쓰세요.

영어식 변형) 당신은 신경쓰세요 아이들이 약에 손대지 말도록.

You should be careful to prevent the children from reaching the medicine.

10. 제인은 여기에 택시를 타고 왔다.

영어식 변형) 제인은 왔다 여기에 택시를 타고.

Jane came here by a taxi.

# 우리말 동사 그대로 영작하지 마라



이 책을 먼저 공부한 베타테스터 한마디

to부정사와 동명사의 기본 성격을 알면 헷갈리지 않고 이 둘을 구분할 수 있게 됨을 배웠다. 개인적으로는 to부정사의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의미에 관한 설명이 아주 유용했다. 초보들은 일반적으로 to의 해석을 '~하는 것', '~하기 위해'로 거의 단정짓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문장이 어색해져도 억지로 끼워 맞춰 해석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시간의 경과를 나타낸다는 설명이 쉬운 예문들로 이루어져 보기 쉽게 익힐 수 있어 좋았다. 또 쉼표(.)를 이용한 영작도 좋은 설명이었다.

**동작은 동사로 표현합니다.** 문법의 가장 기본 원칙은 '하나의 문장 안에는 동사가 하나만 있어야 한다'인데, 동작이 여러 개 있는 문장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하나의 문장에 하나의 동사만 존재하는 것이 철칙이기 때문에 동작이 두 개 이상 일 때는 하나는 주동사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보조동사로 처리합니다. Unit 12에서 언급한 영어식 논리력 갖기에서는 주동사와 보조동사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구분하는지를 연습했는데,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 1. 주동사와 보조동사를 찾아라. 그리고 보조동사를 변형해보라!

그들은 미로 속에서 특별한 치즈를 찾느라 시간을 보냈다.

위 문장에서는 '찾느라'와 '보냈다' 동작이 두 개가 나옵니다. 이중 '보냈다'가 주동사인 데 '찾느라'와 '보냈다'의 주종관계를 살펴보면 쉽게 주동사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찾느라라고 시간을 보낸 것이지 시간을 보내느라 치즈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보냈다'가 주동사이기 때문에 시제에 맞게 과거형 spent로 영작하면 됩니다. 그럼 '찾느라'는 어떻게 보조동사로 처리해야 할까요?

보조동사는 크게 to부정사와 동명사 ~ing로 만들 수 있습니다. ~ing형은 현재진행형과 모양이 같은데서 알 수 있듯이 진행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to부정사는 미래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치즈를 찾느라 시간을 보냈다'에서 '찾느라'는 어떠한 개념일까요? 자, 변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래와 같이 변형해 보면 어떨까요?

a) 치즈를 찾기 위해 시간을 보냈다 : to find

b) 치즈를 찾으면서 시간을 보냈다 : finding

a)는 의미가 원문과 다릅니다. b)는 의미가 원문과 비슷하죠?

변형) 그들은 미로 속에서 특별한 치즈를 찾으면서 시간을 보냈다.

→ They **spent** time in the maze looking for special cheese.

이와 같은 과정을 머리 속에 잘 넣어 두세요. 초보들에게 매우 유용한 방법입니다.

## 2. to부정사와 동명사 중 어떤 것을 선택할까?

보조동사를 만들 때 to부정사로 할지 동명사로 할지 헷갈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초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동사마다 그 동사가 to부정사와 쓰이는지 동명사와 쓰이는지를 외우곤 합니다만 그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닙니다.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법책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 ● 목적어로 to부정사를 좋아하는 동사들

want, decide, demand, plan, hope, agree, ask, forget, mean, offer, pretend, promise, refuse, seem, appear, expect, would like

### ● 목적어로 동명사를 좋아하는 동사들

avoid, admit, enjoy, deny, quit, give up, keep, mind, consider, finish, postpone, talk about, think about

사실 이러한 분류는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to부정사의 성격과 동명사의 성격을 파악하기만 하면 될 뿐입니다. 옛날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영어 선생님께서 to부정사는 미래의 느낌이 있고, 동명사는 과거의 느낌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생각납니다. 어린 마음에 의심부터 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참 훌륭한 가르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want라는 동사를 한번 볼까요? 우리말로 '~을/를 원하다'로 해석하는데 '원한다'는 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to부정사가 목적어로 오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게임개발에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환영입니다!

→ People who **want** to participate in the game development are welcome!

그리고 동사 admit의 경우, ‘~을 인정하다’ 라는 뜻은 자연스럽게 이미 발생한 일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동명사형을 쓰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 돈을 받은 것을 인정했다.

→ She **admitted** taking the money.

### 3. to부정사로 보조동사 만들기

문법책에서 to부정사는 명사적용법, 형용사적용법, 부사적용법으로 쓰인다고 배웠습니다.

저는 이러한 분류가 부인하지 못할 훌륭한 문법정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는 독해할 때는 잘 적용되지만 영작할 때는 딱 떠오르지 않아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to부정사 영작을 술술 풀어내기 위해서는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이라는 용어를 아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래의 뉘앙스가 있는 것은 to부정사로 한다는 것만 이해하면 됩니다.

#### 3-1 [~것]

그녀를 설득하는게 어렵다.

변형) 그녀를 설득하는 것이 어렵다.

→ To persuade her is difficult.

그녀를 설득해야 하는데 어렵습니다. 잘 보세요. 아직 설득하기 전의 상황입니다. 그녀를 설득하려니 막막하다라는 숨은 뜻이 있습니다.

:: 주어가 길기 때문에 it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It was difficult to persuade her.

신용카드가 왜 세계에서 제일 좋은 지불 방법인지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다.

변형) 신용카드가 왜 세계에서 제일 좋은 지불 방법인지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 It is not difficult to understand why credit card is the world's best way to pay.

글을 읽는 이가 아직 위의 사실을 이해하기 전입니다. 이해하는 것이 어렵지 않으니 신용카드를 한번 써보라는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넌 아기 출생부터 2살까지 **알아 두는게** 필요해.

변형) 아기의 출생부터 2살까지에 대해 **아는 것이** 필요하다.

→ You need to know about your baby from birth to age two.

교수가 **되고** 싶어요.

변형) 나는 교수가 **되는 것**을 원하다.

→ I want to be a professor.

런던 폭파 용의자는 말했다. 목표는 **겁주기였지** 죽이기는 아니라고.

변형) 런던 폭파 용의자는 말했다. 목표는 **겁을 주는 것**이지 죽이는 것이 아니라고.

→ London bomb suspect says the aim was to scare, not kill.

was to scare의 시제가 과거라서 to부정사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폭파범이 범행한 시점에서 보면 앞으로 겁을 주려고 폭파했던 것입니다. 폭파한 시점보다 사람들이 겁을 먹을 시점은 미래입니다.

#### 3-2 [~하는/~할]

말할게 없었다.

변형) 할 말이 없었다.

→ I didn't have anything to say.

할 말, 미래죠?

마실 것 좀 줘.

→ Please give me something to drink.

마신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실 것을 달라고 합니다.

차 **살** 돈 충분하냐?

→ Do you have enough money to buy a car?

페인트샵 프로 9를 구입하면 디카 사은품에 당첨 **될** 수 있습니다.

→ Purchase Paint Shop Pro 9 and you could be eligible to win a Digital Camera.

이건 깊은 생각이 필요치 않아서 기차 안에서 **읽기에** 좋은 잡지다.

변형) 이건 기차 안에서 **읽을** 좋은 잡지다. 왜냐하면 깊이 생각하는 것을 필요치 않아서.

→ This is a great magazine to read on a train, because it doesn't require a lot of heavy thinking.

아직 잡지를 읽은 것은 아니지요? 나중에 기차 안에서 읽기에 좋다고 선전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웹을 쉽게 검색할 수 있게 해준다.

→ This program enables users to search the web easily.

### 3-3 [~하기 위해]

우리말 ‘~하기 위해’ 로 해석되는 것은 모조리 미래의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는 벽에 뭔가를 다시 **쓰려고** 멈춰 섰다.

변형) 그는 벽에 뭔가를 다시 **쓰기 위해** 멈춰 섰다.

→ He stopped again **to write** something on the wall.

그는 **쉬려고** 멈췄다.

변형) 그는 **쉬기 위해** 멈췄다.

→ He stopped **to take** a rest.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려면** 그 회사 웹사이트를 방문해봐.

변형)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기 위해** 그 회사 웹사이트를 방문해봐.

→ Visit website of the company **to find** address and phone information.

난 그들에게 바뀐 스케줄을 **알리려고** 이메일을 보냈다.

변형) 난 그들에게 바뀐 스케줄을 **알리기 위해** 이메일을 보냈다.

→ I sent emails **to inform** them of the change in schedule.

최신 업데이트를 다운로드 해서 당신의 Adobe Reader의 보안을 **개선하세요**.

변형) 당신의 Adobe Reader의 보안을 **개선하기 위해** 최신 업데이트를 다운로드하세요.

→ Download the latest update **to improve** security on your Adobe Reader.

### 3-4 기타 용법1 [~했고 / 시간의 경과]

사실 앞의 3가지 “~하는 것”, “~하는”, “~하기 위해”는 평소에 아주 많이 접하기 때문에 영작하기에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오는 ‘시간의 경과’를 to부정사로 영작하는 것은 대부분의 초보에게는 생소해서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매우 유용한 표현법이므로 꼭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그는 **일어났더니** 자기가 유명한 것을 발견했다.

변형) 그는 **일어났고** 자기가 유명한 것을 발견했다.

→ He awoke **to find** himself famous.

동작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일어났다’와 ‘발견했다’입니다. 초보들은 이러한 상황을 흔히 ‘He awoke and found himself famous’라고 and를 써서 영작하곤 합니다. 영작 고수는 이러한 상황을 to부정사로 연결합니다. to부정사로 만들려면 어떤 것이 주동사이고 보조동사는 무엇인지부터 결정합니다. 주동사와 보조동사와의 관계가 종속적이 아니어서 금방 눈에 띄지 않습니다. 이럴 땐 시간의 순서대로 주동사와 보조동사를 결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일어난 다음에 발견한 것이므로 동명사가 아닌 to부정사로 영작합니다.

그는 한국으로 **가서는** 돌아 오지 않았다.

변형) 그는 한국으로 **갔고** 돌아 오지 않았다.

→ He went to Korea **never to return**.

:: never to return은 need to보다 미래입니다.

그는 **커서** 훌륭한 교수가 되었다.

변형) 그는 **커고** 의사가 되었다.

→ He grew up **to be** a great doctor.

그는 열심히 **일했지만** 실패했다.

변형) 그는 열심히 **일했고** 실패했다.

→ He worked hard **only to fail**.

그녀의 블로그를 **방문했는데** 발견한 것이라곤 2004년 이후로 업데이트가 안되었던 것이다.

변형) 난 그녀의 블로그를 **방문했고** 2004년 이후 업데이트가 안되었다란 걸 발견했다.

→ I visited her blog **only to find** that it hasn't been updated since 2004.

:: only가 to부정사 앞에 붙어서 그 뜻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 3-5 기타 용법2 [형용사를 꾸며 줄 때]

흔히 초보는 to부정사를 떠올릴 때 [want + to부정사], [need + to부정사] 등 동사와 연결된 형태를 생각하는데, 형용사와 to부정사가 결합하는 것도 굉장히 자주 쓰입니다. ‘형용사수식’하면 떠오르는 것이 부사이죠? to부정사도 부사처럼 형용사를 수식합니다. 부사는 형용사의 뜻



을 강조해 주는데 반해 to부정사는 형용사를 동작으로 꾸며 줍니다.

이 프로그램은 **쉽다**. This program is **easy**.

이 프로그램은 **매우 쉽다**. This program is very **easy**.  
부사

이 프로그램은 **쓰기가 쉽다**. This program is **easy** to use.  
동작

‘매우’가 ‘쉽다’를 꾸며 주듯이 ‘쓰기가’가 ‘쉽다’를 꾸며 줍니다. very의 경우는 한 단어라서 easy 앞에 놓였지만, to use는 두 단어 이상이기 때문에 easy 뒤에서 수식합니다. to use 또한 형용사인 easy를 꾸며 준다는 점에서 부사입니다.

우리는 **기쁘다**.

→ We are **pleased**.

우리는 새로운 버전의 출시를 알리게 되어 **기쁘다**.

→ We are **pleased** to announce the release of a new version.

그녀는 **바보스럽다**.

→ She is **foolish**.

그런 것을 믿으니 **바보스럽다**.

→ She is **foolish** to believe such a thing.

정말 **기쁘**.

→ I'm so **glad**.

네가 온다는 것을 들으니 정말 **기쁘**.

→ I'm so **glad** to hear that you're coming.

넌 아마 **놀랄거다**.

→ You might be **surprised**.

네 의견이 타임지에 인쇄된 것을 발견하면 넌 아마 **놀랄 거다**.

→ You might be **surprised** to find your comment in print on Times.

:: 놀랄거다'는 우리말로 동사이지만 영어에선 형용사인 surprised로 쓰입니다. 아래 나오는 예문들도 영어 형용사가 우리말 동사와 매치되는 것들입니다. 각별히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난 **조심한다**.

→ I am **careful**.

난 훌륭함과 완벽을 헷갈리지 않으려고 **조심한다**.

→ I am **careful** not to confuse excellence with perfection.

### 3-6 [be동사+ to부정사]

문법시간에 예정, 의무, 운명의 뜻이 있다고 배운 [be동사+ to부정사]도 사실 to부정사의 미래 지향성만 알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꿈은 그를 다시 만나는 것이다.

→ My dream **is to** meet him again.

비행기는 오늘 저녁에 도착할 것이다.

→ The plane **is to** arrive this evening.

넌 이 규칙을 지켜야 해.

→ You **are to** keep this rule.

:: 규칙을 언제부터 지켜야지요? 앞으로죠?

### 3-7 주동사와 보조동사의 주어가 다를 때

보조동사의 주어가 따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보조동사인 to부정사 앞에 'for+목적격'을 쓰면 됩니다. 보조주어가 목적격이 된 것은 전치사의 영향을 받아서 변형된 것이지만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들어오도록** 난 옆으로 비켜섰다.

→ I stood aside **for him to** enter.

나는 **그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 I am waiting **for her to** come.

**운전자는** 운전 면허증을 **휴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 It is necessary **for drivers to** carry a driver's license.

그런데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단어는 of를 써야 합니다.

It's kind of you to help me like this.

→ 이건 당신의 친절함이네요. 나를 이렇게 도와주니.

만약 이를 for를 이용해서 영작을 하면,

It's kind for you to help me like this.

→ 이건 당신을 위한 친절이에요. 나를 이렇게 도와주니.

:: 영 말이 안되죠? 성격을 나타내는 kind는 you의 것이기 때문에 of(~의)가 어울립니다.

## 4. 동명사로 보조동사 만들기

주동사, 보조동사를 구분해서 보조동사의 형태를 변형하는 것은 to부정사용법이나 동명사용법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염두 해 둘 점은 동명사를 썼을 때 명사의 분위기가 난다는 것인데, 이름 그대로 명사의 성격이 있는 동사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명사의 ~ing형이 현재진행형과 모양이 같지요? 동명사가 진행의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의 뉘앙스도 있습니다.

### 4-1 동명사 용법

일기쓰기는 네 작문실력을 향상시키는데 정말 도움을 준다.

→ **Keeping** a diary really helps to improve your writing skills.

누군가에게 조언을 합니다. 조언하는 것을 보니 과거에 'keeping a diary'를 해 본 경험이 있군요.

머리를 써서 장식을 하면 작은 방에 큰 차이를 줍니다.

**변형** 머리를 쓴 장식하기가 작은 방에 큰 차이를 줍니다.

→ **Smart decorating** makes a big difference for small rooms.

smart decorating을 해 봤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겠죠.

정말이지 난 온통 콘크리트 벽돌뿐인 그런 길에서 운전하는 것을 싫어한다.

**변형** 난 온통 콘크리트 벽돌뿐인 그런 길에서 운전하기를 즐기지 않는다.

→ I don't really enjoy **driving** on those roads with all the concrete blocks.

운전해봤더니 별로더라.

내 직업의 가장 핵심은 우리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료와 고객 정보를 지키는 것이다.

→ The core of my job is **keeping** our company's most valuable data and customer information.

아가들 얼굴 사진찍기가 숙제다.

→ The homework is **taking** pictures of babies' faces.

어렸을 때부터 고양이를 사랑한 리딕은 고양이를 돕고, 고양이 물건 수집하기를 취미로 만들었다.

→ A cat-lover since childhood, Liddic has made a hobby out of **helping** cats and **collecting** cat items.

인터넷 사기꾼들이 나이지리아에서 계속 일하고 있다.

**변형** 인터넷 사기꾼들이 나이지리아에서 일을 계속한다.

→ Internet scammers keep **working** in Nigeria.

keep은 '여전히 계속 한다' '유지한다'란 인데 뭔가 과거부터 해오고 있는 것이 있어야 '유지한다'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 4-2 주동사와 보조동사의 주어가 다를 때

to부정사의 경우에는 보조주어를 [for+목적격]으로 했지만, 동명사는 원칙적으로 소유격으로 나타냅니다.

난 제인이 우리팀에 합류하는 것을 반대했다.

→ I objected to **Jane's joining** our team.

내일 크리스가 집에 오면 사정이 달라질 것이다.

→ **Chris's coming** home tomorrow will make all the difference.

그런데 요즘에는 추세가 소유격이 아닌 목적격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메일, 편지 등의 구어체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두드러집니다.



몇 가지 질문해도 될까요?

변형) 당신은 꺼리시나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면

→ Would you mind **me asking** some questions?

난 제인이 우리팀에 합류하는 것을 반대했다.

→ I objected to **Jane joining** our team.

Jane이 objected to의 목적어라서 목적격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니가 화를 내니 내가 좀 염려스럽네.

→ I'm so afraid **of you being angry**.

## 5. 보조동사로 영작에 자신 없을 때 보조동사 대신 명사로 영작하는 법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 2개 이상이면 보조동사를 써야 한다고 앞에서 배웠습니다. 이럴 땐 다시 to부정사나 동명사를 써야 합니다. 보조동사에 대해 자신이 없는 초보는 명사를 이용해서 영작을 해보세요.

제품을 구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변형) 당신의 제품 구입을 감사드립니다.

→ Thanks for your **order**.

동작이 두 개죠? 보조동사를 명사로 만들어 봅니다. '구입해 주셔서'가 보조동사 부분입니다. 명사화 해볼까요? 제품구입이 되겠네요. 이제 영작하기 쉬운 형태로 간단해 졌습니다. 여기에 뜻을 보완하기 위해 '당신의'를 넣으면 됩니다.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형) 나는 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I will tell you my **plan**.

원문대로라면 I will tell you what I'm planning으로 해야겠지만 what절로 이끌어 내는 것이 자신 없는 초보들은 문장이 좀 단조로워지는 단점이 있지만 my plan이라고 짧게 치는 것이 유용한 방법입니다.

그들은 비를 내려달라고 빌었다.

변형) 그들은 비를 기원했다.

→ They prayed for **rain**.

우리말 '내려달라'의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이 잘 안 오죠? 그냥 비라고 해봅시다.

쉽표(.)를 이용해도 됩니다. 우리말에서는 쉽표가 별로 안 쓰여서 큰 기능을 하지 않지만 영어에서는 무궁무진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아래 예문을 어떻게 영작 하는지 잘 살펴보세요.

영국을 상징하는 빅벤은 국회의사당에 달려 있습니다.

변형) 영국의 상징 빅벤은 국회의사당에 달려 있습니다.

→ The Big Ben, **the symbol of England**, is hanging on the House of Parliament.

:: 수식을 하는 부분 '영국의 상징'이 빅벤 뒤에 위치 한 것 주의하세요.

## 6. to부정사와 동명사를 가리지 않는 동사

이번 유닛은 초보들에게 매우 중요한 강의였습니다. to부정사와 동명사를 문법문제로만 다뤄온 분들에게 영작의 관점으로 이 두 보조동사를 보는 것은 사뭇 다르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to부정사로만 쓸 수 있는 동사, 동명사로만 쓸 수 있는 명사를 구분하면서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를 같이 쓰는 동사를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래 나오는 동사들은 to부정사, 동명사를 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뜻은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remember]

Please **remember** to get the letter registered.

→ 그 편지 등기로 부치는 것 잊지마.

I **remember** meeting him in Seoul in 2005.

→ 난 2005년에 그를 서울에서 만난 것을 기억한다.

[forget]

I often **forget** to turn the light off.

→ 난 종종 불을 끄는 것을 깜박한다.

I will never **forget** seeing you in New York ten years ago.

→ 난 10년 전 너를 뉴욕에서 만난 것을 잊지 못할 거야.

[start]

remember와 forget은 to부정사 일 때와 동명사 일 때의 느낌 차이가 확연하지만 start는 별반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문장의 내면을 잘 살펴보면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I **started** to do my homework.

→ 숙제 하려고 시작했다.

:: 정말 숙제를 했는지 어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I **started** doing my homework.

→ 숙제를 이미 시작했다.

:: 숙제를 분명히 하고 있었습니다.



**Q** 너 PC 게임 안하니? Don't you do PC game? / 아니, 해. Yes, I do. 이 대답이 맞아요. 아니라고 하는데 왜 Yes를 쓰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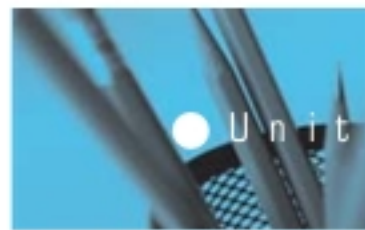
**A** 우리말과 영어의 논리가 다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우리말의 '예, 아니오'는 물어보는 말을 기준으로 답을 하는 것인데 반해 영어는 답하는 말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I do는 긍정이기 때문에 yes를 앞에 붙이고, 부정의 경우 I don't를 말할 땐 No를 같이 씁니다. 답하는 말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알면 실수 할 일이 없습니다.



#### KEY POINT

- 1 to부정사는 미래를 지향하는 뜻이 있습니다.  
게임개발에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환영입니다!  
→ People who want to participate to the game development are welcome!
- 2 [~것]  
그녀를 설득하는게 어렵다.  
변형) 그녀를 설득하는 것이 어렵다.  
→ To persuade her is difficult.
- 3 [~하는/~할]  
말할게 없었다.  
변형) 할 말이 없었다.  
→ I didn't have anything to say.
- 4 [~하기 위해]  
그는 벽에 원가를 다시 쓰려고 멈춰 섰다.  
변형) 그는 벽에 원가를 다시 쓰기 위해 멈춰 섰다.  
→ He stopped again to write something on the wall.
- 5 시간의 경과  
그는 한국으로 가서는 돌아 오지 않았다.  
변형) 그는 한국으로 갔고 돌아 오지 않았다.  
→ He went to Korea never to return.
- 5 형용사를 동작으로 꾸며줍니다.  
이 프로그램은 쓰기가 쉽다.  
→ This program is easy to use.
- 5 동명사는 과거 및 현재의 뜻이 있습니다.  
그녀는 그 돈을 받은 것을 인정했다.  
→ She admitted taking the money.
- 5 보조동사가 자신 없으면 명사로 바뀌어서 영작합니다.  
제품을 구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변형) 당신의 제품 구입을 감사드립니다.  
→ Thanks for your order.





## Unit 13 영작연습

1. 그의 마음을 바꾸는 게 쉽지 않았다. 📊 카페 회원 정답율 80%

---

2. 나는 네트워크 보안에 대해 알고 싶다. (네트워크 : network / 보안 : security) 📊 카페 회원 정답율 60%

---

3. 집 살 돈을 모아라. 📊 카페 회원 정답율 70%

---

4. 어딜 가야 먹을 것을 좀 얻을 수 있죠? (어디서 먹을걸 얻을 수 있죠?) 📊 카페 회원 정답율 8%

---

5. 그들을 설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채찍 보다 당근을 사용하는 것이다. (채찍 : stick / 당근 : carrot)

📊 카페 회원 정답율 50%

---

6. 저희에 대해 좀더 알고 싶으시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저희를 좀더 알기 위해' 로 영작하세요)

📊 카페 회원 정답율 60%

---

7. 그는 커서 선생님이 되었다. 📊 카페 회원 정답율 60%

---

8. 널 보게 되어 기뻐. (I를 주어로 하세요) 📊 카페 회원 정답율 70%

---

9. 그녀를 버스에서 만나게 되어서 놀랐다. (I를 주어로 하세요) 📊 카페 회원 정답율 70%

---

10. 집에 가고 싶어 죽겠다. (anxious를 이용하세요) 📊 카페 회원 정답율 80%

---

11. 난 그 사람 말을 믿을 만큼 어리숙했었다. (어리숙하다 : stupid) 📊 카페 회원 정답율 50%

---

12. 그림에 손대지 않도록 조심해. 📊 카페 회원 정답율 40%

---

13. 그 법으로 우리들은 연금을 받을 수가 있다. (그 법은 우리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 / 해준다 : enable / 연금 : annuity) 📊 카페 회원 정답율 40%

---

14. 이곳은 누구라도 길을 잃기 쉬운 곳이다. 📊 카페 회원 정답율 50%

---

15. 년 의사를 만나 보는 것이 좋겠다. (It's necessary를 이용하세요) 📊 카페 회원 정답율 60%

---

16. 왜 이 보안 업데이트가 설치되는 것이 계속 실패할까? (보안 업데이트 : security updates / 설치 : install / 계속 ~ 하다 : keep) 카페 회원 정답율 40%

17. 나는 그가 그 일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염려스럽다. (염려스럽다 : afraid of)

카페 회원 정답율 50%

18. 제 의견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사형으로 영작해보세요 / 의견 : opinion) 카페 회원 정답율 60%

19. 이렇게 늦게 배달되는 것은 참을 수 없다. (명사형으로 영작해보세요 / 배달 : delivery)

20. 신속하게 서비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사형으로 영작해보세요) 카페 회원 정답율 60%

21. 집 앞에 있는 쓰레기 좀 치워줘. (명사형으로 영작해보세요 / 쓰레기 : garbage / 치우다 : clean 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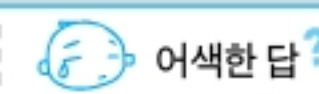
카페 회원 정답율 50%

22. 믿을 수 없는 사고들이 계속 일어난다. (명사형으로 영작해보세요) 카페 회원 정답율 50%

23. 소비자들이 우리 제품에 대해 불신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명사형으로 영작해보세요 / 불신 : distrust) 카페 회원 정답율 30%



괜찮은 답



어색한 답?

1. It was not easy to change his mind.

It was difficult to change his mind.

Having him change his mind is not easy.

2. I want to know about network security.

I want to learn network security.

I want to know **security of network**.

▶ 소유격으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명사를 나열하여 설명해 주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 I want to know network security.

3. Save money to buy a house.

**Saving** money to **get** a house.

▶ 명령형은 동사원형으로 시작합니다. 기본동사 get은 어째다 보니 하나 갖게 되었다란 느낌이 있습니다. 돈 주고 사는 것이므로 buy가 낫습니다.

Save money for **buy** a house.

▶ '-을 위해' 라는 표현을 쓰려고 전치사 for를 이용했는데, for 다음에는 명사형이 나와야 합니다. 'Save money for buying a house' 가 맞는 표현입니다.

4. Where can I get something to eat?

5. The best way to persuade them is to use carrots rather than sticks.

A carrot is **best way than** a stick to persuade them.

▶ than은 비교급과 씁니다. best way than이 아니라 better way than입니다.

→ A carrot is a better way to persuade them than a stick.

→ A carrot is a better incentive than a stick.

6. To find out more about us, click here.

To **find** more about us, click here.

▶ find는 discover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찾다'란 뜻이지요. 반면 find out은 조사 등을 통해서 '알아냈다(learn new information)'란 의미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일에 많이 쓰입니다.

7. He grew up to be a teacher.

8. I'm so glad to see you.



- ☺ It's a pleasure to see you.
9. ☺ I was surprised to see her on the bus.
10. ☺ I'm anxious to go home.  
☺ I can't wait to go home.  
☺ I am anxious **for** going back home.  
▶ anxious to 동사의 형태로 써야 합니다.
11. ☺ I was stupid to believe what he said.  
☺ It was stupid of me to believe what he said.  
☺ I was stupid to believe **his saying**.  
▶ his saying은 그의 말하기입니다. 그가 말한 것은 what he said입니다.
12. ☺ Be careful not to touch the paint.  
☺ Take care not to touch the paint.
13. ☺ The law enables us to receive an annuity.
14. ☺ It's an easy place for anyone to get lost.  
☺ **To lost way is easy** in there.  
▶ to lost way을 주어로 놓으니 어색합니다.  
→ It is easy to lose one's way in there.  
☺ It is easy for everyone to **lost a way** at this place.  
▶ '길을 잃다' 는 lost one's way입니다. 전치사 in이 어울립니다.  
→ It is easy for everyone to lose his way in this place.
15. ☺ It is necessary for you to visit a doctor.  
☺ It is necessary for you to see a doctor.  
☺ It is necessary **you** to go a doctor.  
▶ you앞에 for가 빠졌네요.  
☺ It's necessary of you to **meet** a doctor.  
▶ 진료를 목적으로 의사를 찾는 것은 see a doctor입니다.
16. ☺ Why does this security update keep failing to install?  
☺ Why is it keeping **fail to** install my security update?  
▶ keep은 동명사와 같이 쓰입니다.

- Why does it keeps failing to install my security update?
17. ☺ I'm afraid of him doing nothing about it.
18. ☺ Thank you for listening to my opinion.  
☺ Thank you for **listening** my opinion.  
▶ 전치사 to를 써서 듣는 대상을 나타내 줘야 합니다.  
☺ Thank you for **hearing** my opinion.  
▶ hear와 listen을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listen은 '귀 기울여 듣는 것'이며, hear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들리는' 것입니다. 사이렌 소리가 들린다면 listen이 아니라 hear를 써야겠지요. (I heard a siren somewhere. 어디선가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19. ☺ I can't stand such a late delivery.  
☺ Late delivery annoys me.  
▶ '늦은 배달이 나를 화나게 한다' 라고 영작 할 수도 있습니다.  
☺ **Lately** delivery annoys me.  
▶ late는 '늦은' 이란 뜻이고 lately는 '최근' 이라는 의미입니다.
20. ☺ Thank you for the quick service.  
☺ Thank you so much for **prompt** service.  
▶ the prompt service라고 해야 합니다. 그냥 서비스가 아니죠?
21. ☺ Clean up the garbage in front of the house.  
☺ Please clean up the garbage **at** the front of the house.  
▶ ~의 앞을 나타내는 표현은 in the front of입니다.  
☺ Please clean up the garbage **before** the front of the house.  
▶ in front of나 before 모두 우리말로 '앞에' 입니다. 하지만 before는 사건이나 시간상의 '앞' 이란 뜻이고 in front of는 위치상의 '앞' 이라는 뜻입니다. before를 먼저라고 외우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22. ☺ Unbelievable accidents keep happening.  
☺ Unbelievable accidents keep occurring.
23. ☺ The biggest problem is the distrust of customers to our products.  
☺ Our problem is that customers distrust on our product.

# 14 시제 이야기



이 책을 먼저 공부한 베타테스터 한마디

영작에서 특히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 시제 일치 부분이 아닌가 싶다. 특히 미래시제는 어떤 시제가 같이 나오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쉽게 정리되어 있다. 시제에 대한 가벼운 정리에 안심할 수 있는 유닛이다. 마지막 장의 '절에서 구로 바뀔 때 시제가 상대적으로 바뀌는 문장'의 4개 예문 또한 잘 익혀놓아야 할 부분이다.

시제는 법칙도 많고 예외도 많아서 헷갈립니다.

Next season starts February 1. 다음 시즌은 2월 1일에 시작될 것입니다.

위 예문처럼 현재형을 썼는데 미래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문법문제라면 이상하다 싶은 것을 찍으면 되지만 영작은 찍을 수도 없으므로 되도록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유닛에서는 영작 시 주의해야 할 시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1. 현재형과 현재진행형의 차이

현재형은 '항상, 늘'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반면 현재진행형은 꼭 집어 '지금'이라는 뜻입니다. 습관이나 일반적인 일은 '늘'이란 단어와 어울리죠? 그래서 그가 매일 늦는다면 현재형을 써야 합니다. 만약 진행형을 쓴다면 글을 읽는 네이티브는 원래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가 늦게 오는 상황이거나 하고 의미를 작게 둡니다.

'그는 로또를 자주 사는 사람이야.' 라고 하려면 He buys a Lotto. (일반적인 상황)

'지금 너 뭐해?' '응, 로또 사.' I'm buying a Lotto. (지금 특정한 상황)

'너도 로또 하나?' Do you do a Lotto? or Do you buy a Lotto? (일반적인 상황)

'엄마가 로또 사지 말랬는데 지금 너 로또 사고 있는 거냐?' Are you buying a Lotto? (지금 특정한 상황)

I'm buying a Lotto나 I buy a Lotto는 뜻이 다르긴 해도 문법적으로는 둘 다 맞기 때문에 문법문제에서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소 문법문제를 위주로 영어 공부한 사람들은 이 두 문장의 차이를 간과하기 쉽습니다.

태양은 동쪽에서 뜬다.

일반적인 사실을 말하고 있으므로 The sun rises in the east.

저것 봐! 태양이 지금 동쪽에서 뜨고 있어. (정동진에 놀러간 사람들이 하는 말)

일반적인 사실로서의 '태양이 뜬다'라기 보다 '저기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말하고 있습니다. 위의 표현을 영작한다면 The sun is rising in the east.

## 2. 현재형으로 미래를 말할 수 있다 1

조건의 부사절은 그 뜻이 미래라도 현재시제를 써서 영작을 합니다.

한국팀이 월드컵에 진출하면 독일로 가서 월드컵을 볼 것이다.

→ I will go to Germany to watch the World Cup if the Korean team succeeds in attending it.

한국팀이 월드컵에 진출한다면(조건절-현재형), 독일로 갈 것(주절-미래형)이라는데, 주절이나 조건절이나 모두 미래의 사건이지만 조건절은 현재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드컵에 진출할거라면'이라고 안하고 '월드컵에 진출하면'이라고 합니다.

날 또 한번 때리면 경찰을 부를 거다.

→ I will call a cop if you hit me again.

이 문장에서도 때리는 것, 경찰을 부르는 것, 모두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조건을 나타내는 부분은 현재형을 썼습니다.

봄이 오면 새 사업을 시작할 것이다.

→ When spring comes, I will start new business.



흔히들 조건의 부사절 외에 시간의 부사절도 현재형으로 쓰라고 합니다. 시간인지, 조건인지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의 부사절도 대부분 조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when으로 시작된다고 해서 시간의 부사절이라도 생각하지 마시고 조건절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조건이라는 것은 대부분 부사절이기 때문에 ‘조건의 부사절’ 이라고 외우지 말고 조건이 나오면 현재로 하는 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편합니다. 그리고 조건이 아니라면 당연히 미래형으로 써줘야 합니다.

그가 언제 집에 올지 물어볼래.

→ I'll ask him **when he will come home**.

:: 조건이 아닙니다.

그가 올지 안 올지 너한테 말해줄게.

→ I will let you know **if he will come**.

:: 조건이 아닙니다. 여기서 if는 ~인지 아닌지의 뜻입니다.

### 3. 현재형으로 미래를 말할 수 있다 2

학교 문법시간에 왕래(가고 오고) 발착(출발, 도착)의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는 현재형으로 미래를 나타낸다고 배웠죠? 이를 문법 공식인양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말로도 현재형을 써서 미래를 나타내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세요.

버스가 6시에 도착해. (버스가 6시에 도착할 거야.)

→ The bus **arrives** at six.

10 분 안에 경기가 시작된다.

→ The game **starts** in ten minutes.

도서관은 내일 아침 10시 반에 연다.

→ The library **opens** at half past ten tomorrow morning.

### 4. 진행형이 미래를 말하는 경우(확실한 사실)

현재형이 미래를 표현하기도 한다고 했는데, 진행형도 마찬가지입니다. be going to가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영화관에 가면 예고편 끝 부분에 coming soon이라고 하죠? 앞으로 개봉이 되는 영화이기 때문에 진행형으로 미래를 말합니다. 확실하지 않은 사실은 진행형으로 미래를 말할 수 없습니다. 의사를 만날지 말지 고민 중이면 I am seeing the doctor.라고 하면 안됩니다. 영작할 때 진행형으로 미래를 나타내고 싶으면, 읽는 사람이 헛갈릴 수도 있으니 미래시점과 잘 어울리는 부사와 같이 쓰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를 보세요. 미래부사 soon이 있기 때문에 뜻이 분명해 집니다.

I am leaving **soon**.

→ 나는 곧 떠날 겁니다. (미래)

I'm leaving **now**.

→ 나는 지금 떠납니다. (현재)

### 5. 시제는 상대적이다

문장 속에서 동사를 두 번 이상 쓸 때 시제에서 많이들 실수합니다. 특히 to부정사, 동명사로 이어진 글에서 실수가 많은데, 한번만 개념을 잡아놓으면 머리 속에 오래 남습니다.

#### ● [현재와 과거]

It **seems** that she **needs** a boy friend. / 그렇게 **보인다** 그녀는 남자친구가 **필요한** 것처럼  
현재 현재

It **seems** that she **needed** a boy friend. / 그렇게 **보인다** 그녀는 남자친구가 **필요했던** 것처럼  
현재 과거

위 문장의 주가 되는 동사는 seem이고 보조가 되는 동사는 need입니다. that으로 연결된 절이기 때문에 보조동사 need가 혼자서 제대로 된 모양으로 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문법책에서는 절대시제라고 합니다. that으로 연결되는 문장은 시제가 헛갈릴 일이 없습니다. 우리말을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문장이 to부정사로 연결 될 때입니다.

She **seems to need** a boy friend. / 그녀는 남자친구가 **필요한** 것처럼 **보인다**.  
 현재 현재

She seems **to have needed** a boy friend. / 그녀는 남자친구가 **필요했던** 것처럼 **보인다**.  
 과거 현재

밑줄 친 부분을 보세요. that으로 연결될 때는 절이었지만 이제 to부정사로 연결되어 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구가 되어 버리면 need의 시제는 seem의 상대적인 것이 됩니다. seem의 시제와 need의 시제가 같으면 need는 원형을 씁니다. need의 시제가 seem보다 하나 앞서면 완료형으로 have needed를 씁니다.

#### ● [과거와 과거]

It **seemed** that she **needed** a boy friend. / 그렇게 **보였다** 그녀는 남자친구가 **필요했던** 것처럼  
 과거 과거

이런 경우는 어떻게 to부정사로 할까요? seemed, needed나 모두 과거이죠? 둘의 시제가 같기 때문에 needed는 원형으로 써줘야 합니다.

She **seemed to need** a boy friend. / 그녀는 남자친구가 **필요했던** 것처럼 **보였다**  
 과거 과거

#### ● [과거와 대과거]

It **seemed** that she **had needed** a boy friend.

/ 그렇게 **보였다** 그녀는 남자친구가 **필요했었던** 것처럼  
 과거 대과거

대과거는 과거보다 하나 앞선 시제인데 [had+p.p]형을 씁니다. 우리말 ‘했었었다’로 표현되는 것이 바로 대과거입니다. 이 문장을 to부정사로 해서 한 문장으로 엮어 봅시다. 이제 had need의 시제는 seemed에 의해 결정됩니다. 하나 앞선 시제는 완료형으로 쓴다고 했죠? had needed를 have needed로 바꿔줘야 합니다.

She **seemed to have needed** a boy friend. / 그녀는 남자친구가 **필요했었던** 것처럼 **보였다**.  
 대과거 과거

결국, to부정사의 시제는 주동사의 시제에 의해 상대적으로 결정됩니다. 축구경기에서 상대팀에 따라서 선수를 달리 기용하는 것처럼 동사도 상황에 따라 상대적으로 시제가 변합니다.

그리고 절의 형태에서 구의 형태로 바뀌면 시제가 상대적으로 바뀐다는 것은 동명사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I **am ashamed** that I **'m addicted** to gaming. / 나는 창피하다 내가 게임에 중독된 것이

→ I **am ashamed of being** addicted to gaming. / 나는 게임에 중독된 것이 창피하다.

I **regret** that I **did not take** the job. / 나는 후회한다 내가 그 직업을 잡지 않은 것이

→ I **regret not having taken** the job. / 나는 그 직업을 잡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

I **was proud** that I **made** it by myself. / 나는 자랑스러웠다 내가 내 힘으로 그것을 만들어서.

→ I **was proud of making** it by myself. / 나는 내 힘으로 그것을 만들어서 자랑스러웠다.

I **regretted** that I **had not taken** the job. / 나는 후회했다 그 직업을 잡지 않았어서.

I **regretted not having taken** the job. / 나는 그 직업을 잡지 않았던 것을 후회했다.



#### KEY POINT

- 1 현재형은 '항상, 늘'이란 의미이며, 현재진행형은 꼭 집어 '지금'입니다.  
 The sun rise in the east.  
 The sun is rising in the east.
- 2 현재형으로 미래를 말할 수 있습니다.  
 When spring comes, I will start new business.
- 3 확실한 사실의 경우 진행형이 미래를 말합니다.  
 I am leaving soon.
- 4 절의 형태에서 구의 형태로 바뀌면 시제가 상대적으로 바뀝니다.  
 It seems that she needs a boy friend.  
 → She seems to need a boy friend.  
 I was proud that I made it by myself.  
 → I was proud of making it by myself.



## Unit 14 영작연습

이번 유닛의 영작 연습은 단문 연습이 아닌 에세이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응용해서 '로또에 당첨되면 하고 싶은 일'을 간단하게 영작해 보세요.

이번 에세이 영작이 그 중간평가라고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아래 글은 유소영의 영작카페 회원 글을 네이티브 선생님께서 교정해주신 것입니다.

별색 부분이 교정되었으니 자세히 살펴보세요.

### Essay 1

If I win a lottery, I am happy at the bare thought about it.

→ If I **would win in** a lottery, I **would be** happy at the bare thought about it.

If it is, I will quit a job at first.

→ **If it happens**, I **would quit my job**.

Now I am really busy, and so tired. Because I have two jobs.

→ Now I am really busy, and so tired, **because** I have two jobs.

I work full time during weekdays as office girl, and work part time at video rental shop.

→ I work full time during weekdays as **an** office girl, and work part time at video rental shop.

I really really need to rest. So I will stop any work and then will take asleep for long time.

→ I really, really need to rest. So, I **would** stop work and then **would** take **sleep** for **a** long time.

After I will take a rest, I will start to study a lot of thing like playing musical instruments.

→ After I **took** a rest, I **would** start to study a lot of things like playing musical instruments.

You know. I am greedy person. I want to learn everything - Music, Economic, Law, English and so on.

→ You know, I am **a** greedy person. I want to learn everything - Music, Economic, Law, English and **others**.

I studied mass communications at University. I have been interested in movie since that the time.

→ I studied mass communications at university. I have been interested in **movies** since that time.

I had a dream to be a reviewer at the time. I have still had same dream.

→ I had a dream to be a **movie reviewer** at the time. I have still same dream.

To be reviewer is so difficult. They are required many kind of knowledge and ability. I hope I will be one day.

→ To be **a** reviewer is so difficult. They are required **to have** many **kinds** of knowledge and **abilities**. I hope I will be one **someday**.

And I will visit friends who live in New Zealand, Australia, Japan.

→ And I will visit friends who live in New Zealand, Australia **and** Japan.

I miss so much them. The long distance makes me sad.

→ I miss **them so much**. The long distance makes me sad.

You know, Money, Time is very very important thing to meet my friends.

→ You know, **money and time** is a very important thing to meet my friends.

When I want to do, If I have no money and no time. I have to keep yearning toward them. I do not like that.

→ **It is hard to do things**, if I have no money and no time. I have to keep yearning toward them. I do not like that.

Once I have a deep yearning, I dreamed flying like a bird and meet them, hugging each other.

→ Once I have a deep yearning, I **dreamt** of flying like a bird to meet them **and to hug** each other.

But I have gotten a happy news. One friend live in New Zealand is coming in Korea on this week.

→ But, I have gotten a happy news. One of **friends of mine** who live in New Zealand is coming in Korea this week.

I am counting dates while I am looking forward to coming her.

→ I am counting dates while I am looking forward **to her visit**.

Anyway if I win a lottery. It might make me happy.

→ Anyway, if I **won** a lottery, it might make me happy.

## Essay 2

Many people buy a Lotto. Maybe they have various reasons each one to buy it, but one is the common reason they do.

→ Many people **bet** in Lotto. **Each one of them may** have various reasons **for betting in** it, but there is **one** common reason **that** they do.

That is a very good luck to get much money without any effort. I also tried to it a few years ago, but I didn't get the minimum money unfortunately.

→ That is **really** a very good luck to get much money without any effort. I also tried it a few years ago, but I **unfortunately** didn't get the minimum.

If I was in a rank that time, would I keep buying it? If I win a Lotto, I will do several things.

→ If I was in a **position** that time, would I keep buying it? If I win **the** Lotto, I will do several things.

First of all, I will give my family half of it how much it is. Then, I will soon plan to go abroad in two different ways.

→ First of all, I will give my family half of **what I won**. Then, I will plan to go abroad **for** two different **reasons**.

One is to study English for about 1 year and the other is to go to trip some countries.

→ One is to study English for about 1 year and the other is to go on trip **to** some countries.

The best place I want to go is Greece and Turkey I just have seen in pictures, what a wonderful place.

→ **The places I want to go the most** is Greece and Turkey. I just have seen in pictures what a wonderful place **they are**.

I think I am not an enough good person to donate it to a charity, but I will use it for my neighbors and friends.

→ I think I am not **a good enough** person to donate it to charity, but I will use it **to help** my neighbors and friends.

Whenever I have a difficult problem, they always help me get through of it. I will present them a small thing with my love heart.

→ Whenever I have a difficult problem, they always help me get **through it**. I will **give** them a small thing with **all my love**.

I know it is almost impossible for me to win a Lotto, although some people came true their dreams. However, to draw my pictures to catch it makes me feel happy.

→ I know it is almost impossible for me to win **the** Lotto, although some people **become lucky**. However, to **picture myself winning it** makes me feel happy.

Who knows if I really win a lottery, I will run to a plastic surgery immediately?

→ Who knows, if I will really win a lottery, **will** I run to a plastic **surgeon** immediately?



# Unit 15 가정법에서 헤매는 초보에게



이 책을 먼저 공부한 베타테스터 한마디

가정법에 대한 설명이 다른 유닛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있다. 조건문과 가정법의 차이부터 시작하여 매우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는데, 예문도 적당히 쉬운 편이라 영작을 위한 가정법은 이 유닛으로 충분히 끝낼 수 있을 것이다.

**시제와 관련하여 초보가** 많이 헤매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가정법'입니다. 가정법의 가장 큰 특징은 시제가 바뀐다는 것인데 이 부분이 우리말과 다르기 때문에 초보들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If+주어+had+p.p] , [주어+조동사 과거형+have +p.p] 이런 식으로 공식을 만들어 외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외워서 익힌 지식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달달 외우고 있다 해도 막상 써먹을 땐 좀처럼 떠오르지 않는 것은 이미 많이들 경험 하지 않았나요?

## 1. 가정문과 조건문은 다르다

초보들은 가정법을 쓰지 않아야 할 부분에도 가정법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어에서 가정은 사실과 다른 경우 일 때를 말합니다. '인천 앞바다가 사이다라면~' '바다가 육지라면~' 등은 사실과 다른 것이지요? 현재 사실에 명백히 틀린 점을 가정법으로 써야 합니다.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2002 월드컵에서 한국이 우승했다면',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없었더라면' 등도 가정법입니다.

그런데 사실과 틀린 점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조건을 말한다면 조건문을 써야 합니다. '내일 시간이 있으면', '내일 날씨가 좋으면', '그가 내일 온다면' 등 얼마든지 일어 날 수 있는 이러한 조건은 가정법으로 쓰면 안됩니다. 가정법의 가장 큰 핵심은 시제를 하나씩 앞으로 당기는 것인데, 이런 조건문은 시제에 신경 쓸 일이 전혀 없습니다. 아래의 예문을 보고 더 자세히 배워보겠습니다.

a) 네가 원한다면 가려무나.

→ If you **want**, you can go.

b) 만약 내일 시간이 있으면 그 야구 시합을 볼 거다.

→ If I **have** time tomorrow, I will watch the baseball game.

c) 만약 내가 너라면, 그 차를 살 거야.

→ If I **were** you, I would buy the car.

a), b)는 조건문이고, c)는 가정문입니다. a), b)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조건이지 가정이 아닙니다. '인천 앞바다가 사이다라면' 수준으로 현실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만 가정을 씁니다. c)에서는 내가 너가 된다는 것이 현실가능성이 없으므로 가정법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라면~' 의 현재의 뜻에 과거형 'were' 을 써서 가정문을 만들었습니다.

조건문 b)에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건을 나타내는 절은 현재형을 써서 미래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If I have time tomorrow' 는 조건이기 때문에 현재형 have를 씁니다. 즉, '내일 시간이 있다면' 과 '내일 시간이 있을 거라면' 은 같은 뜻입니다. 다음의 조건절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I will let him know it **if he comes back**.

→ 그가 오면 그에게 알려 줄게.

**If you help us**, we will finish sooner.

→ 우리를 도와주면, 좀 더 일찍 끝날거야.

**If you ask her**, she will help you.

→ 그녀에게 부탁해봐. 널 도와 줄 거야.

**If you are tired**, let's stop it.

→ 피곤하면 그만 하자.

**If it rains tomorrow**, the game will be canceled.

→ 내일 비가 오면, 그 경기는 취소될 것이다.

**If you see her**, please tell her to call me.

→ 그녀를 보면, 나에게 전화 좀 하라고 해라.

## 2. 가정법은 시제를 하나씩 앞당겨 쓴다

위밍업을 장황하게 하고 if 가정법을 설명하니 뭔가 대단한 내용이 나오나 싶죠?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이 말 한 마디면 끝입니다. **가정문을 만들 땐 시제를 하나씩 앞당겨 쓰자.** 가정법은 사실의 반대라고 했습니다. 사실의 반대이므로 시제도 사실과는 다르게 써야겠죠? 가정의 표현이기 때문에 현실과 멀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 뭔가 조치를 해야 하는데, 시제를 하나씩 앞당겨 줌으로 써 비 현실감을 줄 수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예문으로 갑시다.

### 2-1 현재를 가정할 때

내가 지금 만약 너라면, 그녀를 만나러 갈 거야.

내가 너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정문으로 쓰는 것인데, 문장의 의미상으로는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가정문을 만들 땐 시제를 하나씩 앞당겨 쓴다고 했으므로 과거형으로 고쳐야 합니다. 앞에서 미래에 일어나는 조건은 현재형으로 하라고 했었죠? 현재에 일어나는 가정은 과거로 합니다.

If I **were** you, I **would** meet her.

'If I was you' 라고 안하고 were라고 합니다. 가정문 표현에서 if문장의 be 동사는 모두 were 입니다. 'If I **were** you' 가 가정법절이고, 'I **would** meet her' 가 주절입니다. 가정법절에서는 동사의 시제를 하나 앞당겨 am → were가 되었고, 주절에서는 meet 앞에 would가 붙어서 과거를 나타내 줍니다. 아래의 예문들을 보겠습니다.

내가 바쁘지 않으면, 널 파티에 데려갈 텐데.

→ If you **were** not busy, I **would** bring you to the party.

내 차에 공간이 충분했으면, 박스를 좀더 실을 텐데.

→ If my car **had** enough room, I **could load** more boxes.

내가 지금 서울에 있으면 그녀를 볼 수 있을 텐데.

→ If I **were** in Seoul now, I **could see** her.

### 2-2 과거를 가정할 때

한 시간 먼저 출발했었다면 늦지 않았을 텐데.  
A B

예문에서 말하는 사람이 후회를 하고 있지요? 후회해도 이미 었질러진 물처럼 어쩔 수 없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돌릴 수 없기 때문에 이 예문은 조건이 아니라 가정을 써야 합니다.

A와 B는 모두 과거의 일이죠? 가정법으로 만들기 위해 시제를 하나씩 앞당겨 줍시다.

자세히 보니 A가 B보다 조금 앞선 시제죠? A를 대과거로 쓰고 B를 과거완료로 합시다. If 부분의 문장은 대과거로 써주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 If we **had started** one hour before, we **would have not been** late.

돈이 많이 있었다면 나는 그 집을 샀을 것이다.

→ If I **had had** much money, I **would have bought** the house.

그 때 그 걸 알았더라면, 널 만나지 않았을 거야.

→ If I **had known** it, I **would have not met** you.

길만 막히지 않았더라면, 제시간에 도착할 수 있었을 거야.

→ If I **had not stuck** in traffic, I **could have arrived** on time.

### 2-3 혼합시제

너와 결혼했다면 지금 행복할 텐데...  
A B

→ If I **had married** you, I **would be** happy now.

위 예문처럼 시제가 혼합될 수도 있습니다. 문장의 의미를 보면 A는 과거고 B는 현재죠? 그럼 가정문으로 바꾸면 A는 대과거, B는 과거가 됩니다.

네가 한 말을 따랐더라면, 지금 난 부자일거야.

→ If I **had done** what you said, I **would be** a rich man now.



그때 늦잠만 안잤으면, 지금 난 그 회사에 다니고 있을 텐데.

→ If I **had not overslept** then, I **would work** for the company.

### 2-4 가정법의 숨은 뜻

내가 부자라면 차를 살 수 있을 텐데.

→ If I **were rich**, I **could buy** a car.

가정법은 실제 상황과 다른 경우에 쓰므로 말하는 이는 부자가 아니겠네요. 가정법을 볼 땐 숨은 뜻이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어야 합니다.

### 2-5 미래를 가정할 땐 조건문으로 하는 것이 쉽다

오늘 밤에 시간이 있으면, 전화할게.

→ If I **have time tonight**, I **will call** you.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가정법은 기본적으로 '불가능' 또는 '현실과 다름'이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나 과거의 사실에 반대가 되는 내용은 가정법과 잘 어울리죠. 그런데 미래의 일은 결과가 어떨지 아무도 모릅니다. 점쟁이가 예언을 해도 틀릴 경우가 많잖아요. 위의 예문에서 오늘밤에 시간이 있을지 없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밤에 시간이 없을 거라고 예상되더라도 누가 압니까? 갑자기 일정이 취소될지. 따라서 미래에 관련된 내용은 가정보다 조건이 어울립니다. 따라서 위의 예문도 조건문으로 영작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 3. 가정법 응용하기

가정법을 영작할 때 무조건 if부터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법책에서 가정법을 배울 때 주로 다룬 것이 if이다 보니 어찌면 당연합니다. 영작을 할 땐 머리 속에 가지고 있는 문법지식, 단어, 표현 등을 밀천으로 하는데, 이러한 밀천이 많은 사람들도 흔하고 쉬운 표현들만으로 영작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머리 속 밀천을 응용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최대한 다양한 방법을 영작을 시도해서 전체의 글이 단조롭지 않게 하는 것이 좋은 에세이의 기본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if 외의 다양한 가정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표현하는 방법만 다를 뿐 가정법의 기본이 되는 원칙은 똑 같습니다. '현실과 반대되어 실현 불가능 한 것', '시제를 하나씩 앞당기는 것' 이 두 가지 원칙을 염두해 가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 3-1 if절 없는 가정법

If I **had not gotten stuck** in traffic, I **could have arrived** on time.

차가 안 막혔더라면 (if절) 제시간에 도착 할 수 있었을 텐데 (주절).

if 부분이 가정입니다. if절을 빼고도 가정문을 만들 수 있는데, 영어회화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상대방이 내가 늦은 이유를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교통체증과 관련된 이야기는 하지 않아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죠. 여기서 If절을 빼버리면,

I **could have arrived** on time.

→ 제 시간에도착할 수 있었을 거야.

이렇게 조동사와 [have+p.p]의 형태만 남습니다. 초보 중에는 'I could have arrived on time' 이 문장이 가정법인지 눈치 못 채는 사람도 많습니다. 조동사의 특수용법처럼 생겼기 때문에 일부 문법책은 if 생략 가정법을 조동사와 같이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쉽게 가정법을 구분하는 방법은 시제를 따져보는 방법입니다.

I **have arrived** on time.

→ 제 시간에도착했다.

이 문장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현재완료시제입니다.

I **could have arrived** on time.

→ 제 시간에도착할 수 있었을 거야.

멀쩡했던 현재완료시제에 can의 과거 could가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해석이 되나요? '나는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인가요? 아닙니다. '나는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었다' 는 'I could arrive on time' 입니다. 'I could have arrived on time' 은 문법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은 아닐 겁니다. 'I have arrived on time' 에 억지로 could를 넣어서 시제를 하나 더 앞당겨 놓았으니 가정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문장은 과거 사실과 반대되는 것을 말하는 가정법입니다. 제 시간에 도착 못했기 때문에 이런 아쉬운 소리를 하는 거겠죠.

이러한 if절 없는 가정법은 과거의 사실과 반대되는 것을 표현할 때 많이 쓰이는데, would, could, should가 [have+p.p]를 만나 가정법을 많이 만듭니다.

**I would have not missed the bus.**

→ 버스를 놓치지 않았을 텐데.

사실은 버스를 놓쳤다.

**I would have bought the car.**

→ 그 차를 샀을 텐데.

사실은 그 차를 사지 않았다.

**He could have won the election.**

→ 그가 선거에서 이길 수 있었을 텐데.

사실은 선거에서 이기지 못했다.

**I could have become a teacher then.**

→ 그때 선생님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사실은 그때 선생님이 되지 못했다.

**I should have bought it.**

→ 그것을 사야 했는데.

사실은 그것을 사지 않았다. (뭔가를 should 했어야 했답니다. 무지 후회하는 경우에 쓰이는 표현입니다.)

**We should have taken plan B.**

→ 우리는 계획 B를 택했어야 했다.

사실은 계획 B를 택하지 않았다.

이들 문장의 뉘앙스는 같이 쓰이는 조동사에 의해 제 각각 다릅니다. would는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할 때 쓰고, could는 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던 상황에 씁니다. 그리고 should는 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경우에 잘 어울립니다. 하지만 사실과 반대되는 것을 가정한다는 원칙은 공통적입니다.

### 3-2 As if

As if는 '마치 ~ 처럼'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문에서 as if에 연결된 부분을 잘 살펴보세요. 시제가 하나씩 앞당겨 있습니다. 방금 앞에서 본 'if 없는 가정문'은 주절만으로 표현되었는데 지금 배우는 as if는 반대로 주절이 없습니다.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He tells as if he were a pilot.** (현재의 가정을 과거형으로 씁니다.)

→ 그는 자기가 파일럿인 것처럼 말해.

**He tells as if he had been a pilot.** (과거의 가정을 과거완료형으로 씁니다.)

→ 그는 자기가 파일럿이었던 것처럼 말해.

그녀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말한다. (과거의 가정을 과거완료형으로 씁니다.)

→ **She talks as if she had seen the ghost.**

:: As if는 구어체에서 가정법으로 쓰이지 않고 일반문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 3-3 I wish~

현실과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I wish입니다. I wish 역시 as if처럼 주절이 없이 쓰였습니다.

**I wish I had much experience.** (현재의 가정을 과거형으로 씁니다.)

→ 경험이 많다면 좋을 텐데.

**I wish I were a woman.** (현재의 가정을 과거형으로 씁니다.)

→ 내가 여자라면 좋을 텐데.

**I wish I were a student again.** (현재의 가정을 과거형으로 씁니다.)

→ 내가 다시 학생이라면 좋을 텐데.

**I wish I had bought it.** (과거의 가정을 과거완료형으로 씁니다.)

→ 사 두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I wish we had won the game.** (과거의 가정을 과거완료형으로 씁니다.)

→ 그 경기에서 이겼더라면 좋았을 텐데.



지금까지 가정법을 배웠습니다. If 없는 가정법은 연습을 많이 해두기 바랍니다. 영어회화에 많이 쓰인다고 했지만 영어회화처럼 이야기식의 구성을 가진 영어 이메일, 영어일기 등에 쓰면 문장이 훨씬 맛깔스러워집니다. 예전에 제가 연수 중에 가정법을 쓸 때 마다 if를 꼬박 꼬박 쓰니까 친구들이 저의 영어가 너무 formal(격식을 차린다는 뜻)하다고 하더군요.



#### KEY POINT

- 1 조건문과 가정문은 다르다.  
조건문) 네가 원한다면 가려무나.  
→ If you want, you can go.  
가정문) 만약 내가 너라면, 그 차를 살 거야.  
→ If I were you, I would buy the car.
- 2 가정문은 시제를 하나씩 당기는 것에 주의하자.
- 3 If 없는 가정문  
제시간에 도착할 수 있었을 거야.  
→ I could have arrived on time.  
그는 자기가 파일럿인 것처럼 말해.  
→ He tells as if he were a pilot.  
사두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 I wish I had bought it.

## Unit 15 영작연습

1. 우리 이혼했을지도 모른다. (이혼 : divorce) 카페 회원 정답율 60%

2. 이곳에 오기 전에 수술을 받았어야 했어. (수술 : operation) 카페 회원 정답율 50%

3. 난 그에게 사실을 말했어야 했다. 카페 회원 정답율 60%

4. 그 집을 샀을지도 몰라. 카페 회원 정답율 60%

5. 난 그 소식을 나한테 말해 줄 수도 있었어. 카페 회원 정답율 50%

6. 그 게임을 이길 수도 있었는데. 카페 회원 정답율 60%

7. 난 거시경제학을 등록했어야 했어. (거시경제학 : macro-economy / 등록하다 : enroll)

카페 회원 정답율 20%

8. 그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아니었다. 📊 카페 회원 정답율 40%

---

9. 난 그때 신중했어야 했다. 📊 카페 회원 정답율 30%

---

10. 그는 자기가 그 사고를 겪은 것처럼 말한다. (겪다는 경험하다로 하세요 / 사고 : accident)

📊 카페 회원 정답율 60%

---

11. 그는 마치 나이든 사람처럼 말한다. 📊 카페 회원 정답율 50%

---

12. 그는 마치 자기가 나의 형인 것처럼 행동한다. 📊 카페 회원 정답율 60%

---

13. 그 시험에 합격했으면 좋았을 텐데. 📊 카페 회원 정답율 60%

---

14. 영어를 잘하면 좋을 텐데. 📊 카페 회원 정답율 40%

---

15. 지금 내가 어른이라면 좋겠다. (어른 : adult) 📊 카페 회원 정답율 70%

---

16. 프린터가 또 망가지면 제게 연락주세요. 📊 카페 회원 정답율 50%

---

17. 더 빠른 배달을 원하시면 특급서비스로 신청하세요. (배달 : delivery / 특급서비스 : express service)

📊 카페 회원 정답율 40%

---

18. 한밤중에 열이 나면 어디로 연락 하면 되죠? (열 : fever / 한밤중 : midnight) 📊 카페 회원 정답율 60%

---

19. 예정보다 일찍 결과를 알고 싶으면 총무과에 연락하세요. (총무과 : general affairs department)

📊 카페 회원 정답율 60%

---

20. 만약 그가 후보로 나온다면 난 그를 선택할 거야. ('후보로 나온다면' 을 '후보가 된다면' 으로 영작하세요 / 후보 : candidate) 📊 카페 회원 정답율 50%

---

21. 지금 방학이라면 너한테 갈 수 있을텐데. 📊 카페 회원 정답율 60%

---

22. 내가 운전을 할 줄 안다면 아버지 차는 곧 내 차인데. 📊 카페 회원 정답율 60%

---

23. 그 때 우리가 많이 흥분하지만 앓았더라면 이기고도 남을 경기였는데. 📊 카페 회원 정답율 20%

---

24. 이순신 장군이 없었더라면 일본은 중국도 침략했을 거야. (이순신 장군 : General Lee Sun Shin / 침략 : invade) 📊 카페 회원 정답율 20%

---



25. 그 때 거기에 집을 사 났더라면 지금 부자일 텐데. 📊 카페 회원 정답율 40%

26. 저번 방학 때 공부를 해놓았더라면 이번 학기는 편할 텐데. 📊 카페 회원 정답율 40%

27. 그때 네가 날 잡았더라면 난 지금 그 사람의 여자친구가 아닐 텐데. (‘잡다’를 ‘떠나지 않게 했다’로 해 보세요) 📊 카페 회원 정답율 30%

28. 그때 병원만 제대로 갔어도 지금 수술 받는 일은 없을 텐데. (‘병원만 제대로 갔어도’를 ‘병원가는 것에 소홀하지 않았어도’로 하세요 / 수술 받다 : have an operation) 📊 카페 회원 정답율 30%

29. 작년에 보험에 들었더라면 지금 보상을 받았을 텐데. (보험에 들다 : bought an insurance policy)

📊 카페 회원 정답율 30%

😊 괜찮은 답 ★

😬 어색한 답 ?

1. 😬 We would have divorced.

2. 😬 I should have taken the operation before I came here.

😊 I should have operated before coming here.

▶ operation을 take로 받으면 수술이라는 뜻이 명확하지만 have operated는 ‘조종해왔다’란 뜻입니다.  
→ I should have undergone the surgery before coming here, 이렇게 고치는 것이 좋겠네요.

3. 😬 I should have told him that truth.

😊 I should have told him the fact.

▶ fact는 객관적인 사실의 진상이라는 의미입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truth가 더 적합합니다.

4. 😬 I would have bought the house.

😊 I would have bought the home.

▶ home은 가정입니다. 나의 행복한 가정 (my sweet home), house는 물리적 공간인 집입니다.

5. 😬 You could have told me the news.

6. 😬 We could have won the game.

7. 😬 You should have enrolled in the macro-economy class.

😊 You should have enrolled macro-economy class.

▶ ~에 등록하다 enroll은 전치사 in과 같이 씁니다.  
예) I'm enrolled in a graduate program in public administration. (대학원 일반 행정학 프로그램에 등록했어요.)

8. 😬 I should not have followed his opinion.

😊 I should not have agreed to him.

▶ 다른 이와 생각하는 바가 같아서 같은 편이 된다면(동의 한다면) agree with someone, 어떠한 의견 등에 동의한다면 agree to something이 됩니다. with와 to의 차이점을 떠올려 보세요. I went shopping with her처럼 with는 사람과 어울리죠?

9. 😬 I should have been careful then.

10. 😬 He told me as if he had experienced the accident.

11. 😬 He talks as if he were an old man.

😊 He tells as if he were an elder.

▶ elder는 old의 비교급입니다. younger의 반대이죠. 나이가 더 많다는 뜻이지 나이가 많은 사람이란 뜻은 아닙니다.

12. 😬 He acts as if he were my elder brother.

😊 He acts as if he were my brother.

▶ 우리말은 형과 동생을 나타내는 단어가 따로 따로 있지만 영어의 brother는 형제란 뜻으로 형, 아우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brother 하나만 달랑 쓰이면 형인지 아우인지 알 길이 없지요. 나 보다 나이 많은 형은 elder를 붙이고, 어린 동생은 younger를 붙입니다.

13. 😬 I wish I had passed the exam.

14. 😬 I wish I were fluent in English.

😊 I wish I were good at English.

😊 I wish I could have English well.

▶ 영어를 잘한다는 fluent in English나 good at English를 씁니다.



15. 😊 I wish I were an adult now.

16. 😊 If your printer breaks down again, please call me.

😊 If the printer **is something wrong** again, **give me a contact**.

▶ print is wrong은 틀린 표현입니다. answer=wrong과 같은 관계는 성립되어도 print=wrong은 안되지요. 아래처럼 해주면 됩니다.

→ If there is something wrong with the printer again, give me a call (or: contact me)

▶ 고장 난 것은 break down으로 하고, give me a contact 는 contact me 또는 call me로 하세요. 동사 break는 '깨지다'의 표현이지만 break down은 기계 등이 stop operating (동작이 멈추는 것)입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out of order가 있는데, out of order는 여럿이 같이 사용하는 공공시설 등에만 적용됩니다. (자판기, 공중전화기, 엘리베이터 등등)

17. 😊 If you need faster delivery, apply express service.

😊 If you want **more fast** delivery, apply **for** express service.

▶ fast의 비교급은 faster입니다. more는 3음절 이상의 단어에만 붙습니다. 그리고 for를 생략하세요.

18. 😊 If I have a fever in the midnight, who should I contact?

19. 😊 If you want to know the result earlier than scheduled, please contact the general affairs department.

😊 If you want **earlier result**, contact **with** the general affairs department.

▶ earlier result에 관사가 빠졌네요. contact with가 아니라 contact입니다. 제대로 고치면 아래 문장처럼 됩니다.

→ If you want an earlier result, contact the general affairs department. (or: get in touch with the general affairs department.)

20. 😊 If he becomes a candidate, I will vote for him.

😊 If he becomes a candidate, I will choose him.

😊 If he becomes a candidate, I will **select him**.

▶ 선거 등에서 누군가를 선택하는 것은 vote for (투표를 통해 지지하다)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select는 동일한 물건들 중에 뭔가를 고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슈퍼마켓 등에서 좋은 사과를 고르는 것처럼요. (She selected out the biggest pearl. 그녀는 가장 큰 진주를 골라냈다.) 사람에게는 잘 안 씁니다. vote for 외에는 choose가 적당합니다.

21. 😊 If it were vacation season, I would come to you.

😊 If I were on vacation, I would **go to you**.

▶ come과 go는 우리말과 개념이 달라서 헷갈립니다. '너한테 간다'라고 할 때 우리말은 말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하여 '내가 너한테 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어는 듣는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을 합니다. 듣는 사람에게는 내가 come 하는 것이죠. 그래서 'I would come to you'라고 합니다. 헷갈린다면 다음처럼 쓰세요.

😊 If I were on vacation, I would visit you.

22. 😊 If I could drive a car, my father's car would be mine.

23. 😊 If we had not been excited much, we would have won the game.

24. 😊 If we had not had General Lee Sun Shin, Japanese would have invaded China too.

25. 😊 If we had bought the house in that area, we would be rich now.

😊 If I had bought **a house there that time**, I would be a rich person.

▶ 관사가 잘못 되었죠? 특정한 집이니까 the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므로 문장 끝에 now를 써줘야 뜻이 자연스럽습니다.

→ If I had bought the house there that time, I would be a rich person now.

26. 😊 If I had studied last vacation, this semester would be easier.

😊 If I had studied last vacation, **I would be easy at this semester**.

▶ I=easy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I would be easy는 틀린 표현입니다. 제대로 된 표현은 아래와 같습니다.

→ If I had studied last vacation, I would have had an easier time this semester.

27. 😊 If you had not let me leave you, I would not be his girlfriend now.

28. 😊 If I had not neglected to go to the hospital, I would not have needed to have an operation now.

😊 If I had not **ignored** to go to the hospital, I would not have needed to have an operation now.

▶ neglect나 ignore은 사전에서 모두 '무시하다'로 나오기 때문에 뜻이 같은 줄 아는 초보가 많습니다. neglect는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neglect one's studies 공부를 소홀히 하다) ignore은 사람을 홀대하는 것입니다(Don't ignore your inferiors, 너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하지 마라) 그리고 비슷한 뜻으로 disregard가 있는데, 이는 고의성이 있는 것입니다. (He disregarded the wishes of other members, 다른 회원들의 희망을 무시했다. / Please disregard my previous email 내가 보낸 이전 메일을 없던 걸로 해.)

😊 If I had **paid attention to going hospital**, I **didn't** have an operation.

▶ 병원 가는 것에 신경을 쓰다라고 해서 pay attention이라고 영작을 했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pay attention to my medical condition이라고 하는 편이 좋습니다.

→ If I had paid attention to my medical condition, I would not have had an operation.

29. 😊 If I had bought an insurance policy last year, I would receive compensation now.



# 전치사 개념 바로 알기



이 책을 먼저 공부한 베타테스터 한마디

주요 전치사의 쓰임새를 많은 예문들로 자세히 설명해 놓아서 좋았다. 앞서 공부한 주요 동사의 쓰임과 마찬가지로 자주 쓰이는 전치사를 쓰임에 따라 확실히 정리할 수 있어서 유용했다. 이 유닛을 잘 살펴봐야 다음 Unit 17과 연결하여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충분한 주의가 필요한 유닛이다.

**전치사의 종류는 동사에** 비해 훨씬 적지만 문맥에 따라 워낙 다양하게 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겐 몹시 어려운 부분입니다. 앞에서 기본동사를 공부할 때 동사의 모든 뜻을 외우려 하지 말고 그 동사의 기본개념을 파악한 후 응용하라고 했었죠? 전치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을 앞세워 전부 통달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먼저 전치사 각각의 기본 뜻을 먼저 이해합시다. 그리고 평소에 전치사를 대할 때 눈 여겨 보도록 합시다. 그러다 보면 전치사의 전반적인 뉘앙스를 알게 됩니다. 여기서 모든 전치사를 다루지 않고 유용하게 쓰이는 전치사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1. for

for는 목적의 의미가 있습니다.

I paid \$10,000 **for** this car.

→ 이 차를 위해 \$10,000을 지불했다.

**For** further information, please visit our website.

→ 더 많은 정보를 위해 우리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We bought a new car **for** my son.

→ 우리 아들을 위해 새 차를 샀어.

We need a table **for** five.

→ 다섯 명을 위한 자리가 필요해요.

That's what friends are **for**.

→ 그것이 친구의 목적이야. (친구는 그것 때문에 있는 거야, 우정이란 그런 거야)

목적이 있으면 움직임의 방향도 정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움직임의 방향이 같다면 같은 편이 되기도 합니다.

This train is bound **for** Seoul.

→ 이 열차는 서울을 목적으로 합니다. (서울행입니다)

I'm all **for** his plane.

→ 나는 그의 계획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의 계획에 찬성합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나도 뭔가를 희생해야 하는데 이를 교환의 개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I paid ₩500 **for** this pen.

→ 이 펜과 500원을 교환했어.

We will stay here **for** 3 weeks

→ 여기에 머무르는 것과 3주를 교환했습니다. (3주 동안 머물렀습니다)

She cried **for** joy.

→ 기쁨과 울음을 교환합니다. (그녀는 기뻐서 울었다)

## 2. at

at은 손가락으로 콧 '가리키는' 뜻이 있습니다. 두리뭉실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지점 또는 한 시점을 말할 때 at을 씁니다.

I was about to meet her **at** 7 P.M.

→ 난 그녀와 7시에 만나기로 되어 있었어.

I was about to call her **in** the evening.

→ 난 그녀에게 저녁 때 전화하기로 되어 있었다.

I studied English **during** last summer vacation.

→ 여름방학 때 영어공부를 할 것이다.

during은 ~동안이기 때문에 콧 집어 말할 수 있지 않습니다. 기간을 나타내는 vacation에 콧 집어 한 시점을 말하는 at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in은 during 보다는 짧은 시간에 쓰이지만

이 역시 콕 집어 한 시점은 아닙니다. at은 시간을 콕 집어 말할 때, 그리고 낮과 밤을 나눌 때 쓰입니다. (at noon, at night)

#### 참 고 하 세 요

**R** at 7 p.m, in the evening, during vacation과 같은 표현은 외워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어떤 전치사를 써야 되는지 헷갈릴 때 이러한 기본표현을 알고 있으면 쉽게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He's looking **at** the sign.

→ 그는 표지판을 쳐다보고 있다.

A man is waiting for you **at** main gate.

→ 어떤 남자가 메인게이트에서 널 기다리고 있어.

I live **in** Daegu.

→ 난 대구에서 살아.

:: 한 지점을 콕 집어 가리킬 때 쓰는 at입니다. in은 지점이라는 개념보단 공간이라는 개념이 더 맞습니다. 대구라는 넓은 공간을 가리킬 때는 in을 써야 합니다.

### 3. by

by를 번역할 땐 정말 다양한 우리말이 사용됩니다. 주로 단위, 수단, 정도, 방법 등으로 해석하는데, 우리말에 맞추려다 보니 다양한 해석이 나옵니다. 여러 뜻이 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옆'의 개념입니다. 'stand by me'란 노래가 있죠? '내 옆에 있어 달라'는 말입니다.

Come and sit **by** me.

→ 내 옆에 앉아.

He went **by** the airport.

→ 그는 공항을 지나서 왔다. (공항 옆으로 왔습니다)

I walked **by** the river.

→ 강을 끼고 걸었다. (강 옆으로 걸었다)

This plane is flying to London **by** way of Paris.

→ 이 비행기는 파리 경유해 런던으로 간다. (파리 옆으로 간다)

That was removed **by** him.

→ 그것은 그에 의해 치워졌다.

:: 수동태에서 행위자는 by를 씁니다. 이 때 행위(remove)와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행위자(him)이기 때문에 to도 아니고, in도 아니고 by를 씁니다. '가까이 있다'라는 개념을 살린 것입니다.

Mostly I go Seoul **by** train.

→ 서울에 갈 때 주로 기차로 간다.

:: 수동태의 개념이 by로 설명되는 것을 이해한다면 내가 기차에 의해 서울로 가는 것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The world's largest oil firm BP's revenue rose **by** 23 percent to \$285.

→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회사인 BP의 수익이 23% 올라서 \$285가 되었습니다.

:: 자로 뭔가를 재려면 옆에 놓고 재지요? 자는 기준이 되는데, 수치 등을 나타낼 때도 by를 씁니다.

The People's Bank of China immediately revalued the yuan **by** 2.1 percent to 8.11 against the dollar

→ 중국은행이 급작스럽게 위엔화의 가치를 2.1% 올려서 달러당 환율이 8.11이 되었다.

I should report paper **by** tomorrow.

→ 내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

:: 시간의 기준도 잣대를 놓고 재기 때문에 by를 씁니다. 종이에 시간의 연장선을 그리고 잣대로 내일까지 재어서 그 점에 줄을 그은 뒤 'dead'라고 표시해 보세요. 그게 바로 데드라인입니다.

### 4. on

on은 접촉의 개념입니다. 학교에서 on과 관련해서 배운 예문으로 'a book on the desk', 'a picture on the wall' 등이 있는데 흔히들 on은 위나 옆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on이 접촉의 뜻을 가지기 때문에 천장에 파리가 거꾸로 붙어 있어도 on을 씁니다. ('a fly on the ceiling) 천장에 붙어 있는 파리' 접촉의 뉘앙스를 가지고서 다음 예문들을 한번 보세요.



The dog is **on** the chain.

→ 개는 사슬에 매여 있다.

Check the ring **on** her finger.

→ 그녀 손의 반지 확인 해봐.

You'd better put **on** a coat.

→ 코트 입는 게 좋을 걸.

:: 우리말로 옷을 걸친다고 하죠? 옷과 내가 접촉되어 있는 것입니다.

the countries **on** the Pacific.

→ 태평양 연안의 여러 나라. (태평양 연안에 붙어 있는 나라들)

**on** the south of Seoul.

→ 서울의 남쪽에. (~에 인접한 이라는 뜻입니다.)

I'm **on** my way home.

→ 집에 가는 길이야.

:: home(집으로)의 way(길)에 얹혀 있습니다. 길 위에 접촉되어 있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They are **on** strike.

→ 그들은 파업중이야.

:: 'on my way home' 밑줄 친 my way home에 on 한 것처럼 strike에 on 하면 어떤 뜻일까요? 파업에 접촉하고 있다. 파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뜻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On** sale.

→ 세일 중

VOD (Video **on** Demand)

:: 요청에 의해 방송되는 것은 Video on Demand 라고 합니다. 요청과 접촉해 결부되어야 video가 나옵니다. 참고로 AOD는 Audio on Demand의 약자로서 요청이 있어야 audio를 들을 수 있습니다. 주로 인터넷 방송국에 많이 나오는 용어입니다.

**Online**

:: Line과 접촉이 되어 있네요. 전기가 통할 수도 있고, 인터넷이 통할 수도 있고, 전화가 통할 수도 있습니다.

Please turn the TV **on**.

→ TV 켜 다오.

:: turn(돌려서) 전기에 접촉(on)하면 TV가 나오지요.

## 5. of

of는 '~의' 의 뜻입니다. '~의' 뜻이 막연하기 때문에 이 역시 핵심적인 개념을 이해해야 오래 기억됩니다. of는 살짝 떨어져 있거나 살짝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on은 딱 접촉되어 있는 느낌인데 of는 살짝 떨어진 상태이므로 결속력이 on보다는 작습니다. 빠른 이해를 위해 예문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She took a picture of me.

→ 그녀가 나의 사진을 찍었다.

먼저 판화를 상상해 보세요. 나무 판에 그림을 새긴 후 물감을 묻히고 종이를 덮고 난 후 떼깁니다. 그럼 나무 판의 그림이 종이로 떨어져 나옵니다.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모습(me)을 살짝 떼어(of하여) 이미지(picture)로 만든 것입니다.

:: 참고로 she took a picture of mine,은 '그녀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사진 중 하나를 가져갔다.' 입니다. mine은 '나의 것' 이란 소유대명사인데, a picture of mine은 나의 소유물에서 사진 한 장이고, 이것을 took(가져갔다)했네요.

The insufficient nutrition robbed him **of** his sight.

→ 영양 실조 때문에 그는 실명(失明)했다.

:: rob는 '빼앗다' 의 뜻입니다. 그(him)에게서 그의 시력(his sight)를 빼앗았으니 분리(of)가 되겠네요.

It's free **of** charge.

→ 무료입니다.

:: charge(대가)에서 of(떨어져) free됩니다.

She comes **of** a good family.

→ 그녀는 좋은 가문의 출신이다.

:: 좋은 가문에서 나왔네요(of).

I'm sick and tired **of** this game.

→ 이 게임에 신물이 난다.

:: 싫증나서 이 게임에서 멀어진다.

I have a favor to ask **of** you.

→ 당신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 favor는 혜택인데, 이 문장은 직역하면 '나는 당신께 부탁 할 혜택이 하나 있습니다' 입니다. favor는 어디서 나오죠? you에게서 나옵니다(of).

It was kind **of** you to do so.

→ 그렇게 해주시다니 고맙습니다.

:: kind는 친절함이죠? you에게서 나온 친절함이라서 of를 씁니다.

the gates **of** heaven

→ 천국의 문

:: 완전히 분리되지 않고 살짝 분리되거나 살짝 붙어 있는 것. 따라서 of는 일부의 뜻이 있습니다. 이 예문에서 gates는 heaven의 일부입니다.

I always think **of** you.

→ 난 늘 네 생각이야.

:: you를 살짝 떼어낸 후(of) 이것을 항상 머리 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난 너를 생각하고 있어'를 대부분의 초보들은 I think about you라고 하는데, 전치사 about을 알면 think of you와 차이점을 알 수 있습니다. about은 주변이란 뜻으로 'It's about five o'clock. ? : 지금은 약 5시야. / 5시 근처야'로 표현할 수 있고 about you는 you의 주변의 것들, 예를 들면 너의 목소리, 너의 외모, 너의 분위기 등등 너에 관한 것들을 뜻합니다.

## 6. in

'Intel inside'란 카피가 있습니다. 컴퓨터 내부에 Intel 칩이 있다고 설명한 것인데, inside의 in은 다들 아시다시피 '~ 안'이란 개념입니다. 여기서의 in은 컴퓨터라는 실질 공간의 내부를 말하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내부도 in을 씁니다. '계약에 하자를 발견했다. → I found a mistake **in** the contract.'처럼 계약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



니지만 in을 써서 계약 내용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한자로 内容, 즉 안 내자를 씁니다) 내용과 같은 추상적인 내부에 in을 쓰므로 시간의 내부도 in을 쓸 수 있습니다.

5 January 2004 was the coldest day **in** history.

→ 2004년 1월 5일은 역사상 가장 추운 날이었다.

:: 종이에 옆으로 줄을 길게 긋고 이를 타임라인이라고 해봅시다. 태고적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를 타임라인으로 나타내면 history가 됩니다. 이 타임라인 안에 있는 한 점이 바로 2004년 1월 5일입니다.

I haven't seen him **in** years.

→ 몇 년 동안 그 사람을 보질 못했다.

:: 이번에는 타임라인의 시간을 몇 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려 봅시다. 그 타임라인 안에서 그 사람을 본 적이 없으므로 in을 써서 표현을 합니다. (I haven't seen him for years라고 해도 됩니다)

China's currency revaluation propelled the won to its biggest advance **in** five months yesterday.

→ 어제 중국이 통화가치를 조정함에 따라 원화(w) 상승폭도 5달 내 최고로 컸다.

복장과 관련하여서도 in을 씁니다. 네이티브는 옷을 입고 있는 것을 옷 안에 사람이 있다고생각을 합니다.

네오는 빨간드레스를 입은 매력적인 아가씨가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본다. (영화 Matrix의 대본 중)

→ Neo watches an attractive lady **in** a red dress walk by.

:: watch의 목적어인 lady의 동작은 동사원형으로 씁니다.

그 여자가 하이힐을 신고 있으면,

→ Neo watches an attractive lady **in** highheels walk by.

흰 모자를 쓰고 있으면,

→ Neo watches an attractive lady **in** a white hat walk by.

오늘은 전치사와 관련된 내용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문법문제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달달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전치사의 개념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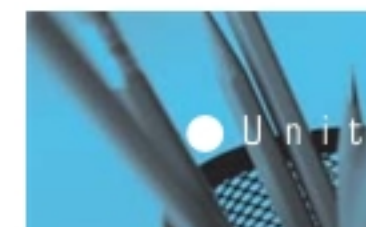
Q 'I went to home'이 왜 틀리죠? 장소를 나타낼 때는 to를 쓰지 않습니까?

A to는 전치사죠? 전치사는 명사 앞에 놓입니다. 여기서 home은 명사처럼 보여도 명사가 아닙니다. 부사로서 '집으로'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치사 to와 같이 쓰면 안됩니다.



#### KEY POINT

- 1 전치사는 모든 뜻을 외우기 보다는 각각의 기본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 2 for는 목적의 의미가 있습니다.  
I paid \$ 10,000 for this car.
- 3 at은 손가락으로 꼭 가리키는 한 지점 또는 한 시점을 말할 때 씁니다.  
I was about to meet her at 7 p.m.
- 4 by는 여러 뜻이 있지만 '옆'의 개념이 가장 중요합니다.  
come and sit by me.
- 5 on은 접촉의 개념입니다.  
The dog is on the chain.
- 6 of는 '~의' 뜻으로 살짝 떨어져 있거나 살짝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She took a picture of me.
- 7 in은 '~안'의 뜻으로 추상적인 내부와 시간의 내부에도 씁니다.  
Intel inside  
5 January 2004 was the coldest day in history.



## Unit 16 영작연습

전치사의 기본개념을 배웠습니다. 전치사로 연습문제를 만들면 자칫 문법문제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서 짧은 에세이를 써 보기로 합니다. 아래 topic을 읽고 짧게 써보세요.

### Topic

What if you learn that the world is about to end in 24 hours, write an essay listing how you would spend the remaining 24hours before the world ends.

### 카페 회원이 쓴 에세이

#### Essay 1

Someone said "I plant an apple tree even if the world vanishes tomorrow." What do I can?

First of all, I seek a method which my family can survive and then I climb the highest mountain with my family like "The Impact" movie of course taking lots of foods.

In the case that the action is useless, I do something that I haven't ever taken experiences. Eating excellent dishes and shopping expensive things and receiving great services etc...

However everybody wants to act like me' so everybody do same things.

After all, everything is of no value. When the day comes, I do a prayer with family and confess myself to God. Last I tell my wife and sons sincerely that I love you ever.

원어민 선생님의 첨삭내용입니다.

Someone said "I plant an apple tree even if the world vanishes tomorrow." What can I do?

First of all, I **would** seek a method **in** which my family can survive and then I **would** climb the highest mountain with my family like **in the movie**, "The Impact." Of course I **would take** lots of foods.

In the case that the action is useless, I **would** do something that I **have never experienced such as**: eating excellent dishes and shopping expensive things and receiving great services **and so on**. However, everybody wants to act like me, so everybody will do the same things **After all**, everything is of no value. When the day comes, I **would** pray with family and confess **my sins to God**. **Lastly**, I tell my wife and sons sincerely that I love **them**.

## Essay 2

concurrently, because there might be a huge confuse.

→ It's hard to imagine everything and everyone all around the world **to** the end concurrently, because there might be a huge **confusion**.

Someone will try to find the way they can survive, and some struggle to avoid finishing their lives. So, I think about having one day left to me.

→ **Some** will try to find **ways to survive**, and some **will** struggle to avoid **the end of** their lives. So, I **will** think about **when I have** one day left to me.

If tomorrow is the last day of mine in the world, what will I do? I think I will do nothing special, because usual day just itself is precious to me.

→ If tomorrow is the last day **of my life** in the world, what will I do? I think I will do nothing special, because **the** usual day itself is precious to me.

At first, I want to get up earlier than I do, so I will prepare breakfast for my family, especially my parents I haven't ever been doing it.

→ **First**, I want to get up earlier than I **usually** do **to prepare** breakfast for my family, especially **for** my parents I haven't **done it ever**.

I will do work hard as usual pretending that I don't have any special secret, and

get lunch with all my colleagues with a big smile.

→ I will do work **as hard as** usual pretending that I don't have any special secret and **have** lunch with all my colleagues with a big smile.

After work, I will leave my office as soon as I can in order to meet the best friend.

→ After work, I will leave my office as soon as I can in order to meet **my** best friend.

The last thing I want to do is just for myself, time of alone. I will take a walk in the park near my home for about one hour thinking thanks that I have many things and on the other hand I feel very sorry my short time admitted.

→ The last thing I want to do is just for myself. **I want to have some time alone**. I will take a walk in the park near my home for about one hour thinking **how I appreciate having** many things and, on the other hand, **feeling** very sorry **for the short time I have**.

As soon as come back, I will take a shower and write a diary. Lying on the bed comfortably and peacefully, I want to call someone of whom I want to hear voice, but I have not contacted so long time. It's done.

→ As soon as I come back, I will take a shower and write a diary. Lying on the bed comfortably and peacefully, I **will** call someone **whose voice** I want to hear, but I have not contacted **for a long time**. It's done.

Just thinking the last of my life makes me calm and serious. Apparently it's not happy and I never want the day coming.

→ Just thinking **of** the last day of my life makes me calm and serious. Apparently it's not happy and I never want the day **to come**.



# 전치사, 영작에 활용하기



이 책을 먼저 공부한 베타테스터 한마디

전치사를 활용한 문장이 큰 도움이 되었던 유닛이다. 앞 유닛에서 공부한 주요 전치사에 개념을 실전 영작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 흔히 영작을 할 때 한글을 그대로 옮기면 문장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 매끄럽지 못한 문장을 전치사를 이용함으로써 더욱 쉽고 간결하면서도 네이티브처럼 자연스러운 문장을 만들게 해준다. 영작 초보들이 특히 꼼꼼히 공부해야 할 유닛이다.

**전치사의 활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책 초반부에 언급했듯이 우리말은 서술형이 많지만 영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말을 그대로 영어로 옮기면 동사나 형용사를 남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전치사를 활용하면 네이티브처럼 매끈한 영작이 가능합니다.

## 1. 우리말 서술 표현을 짧은 전치사 하나로!

그는 내가 대학교에 다닐 때 룸메이트였다.

A) He was my roommate **when I studied in college.**

B) He was my roommate **in college.**

밑줄 친 '다닐 때'를 그대로 영작 하자니 동사표현으로 적당한 것이 없어서 A)에서는 study를 활용해서 영작을 했습니다. 원문을 보면 '다니다'와 '있다' 이렇게 서술이 2개나 나오는데 서술형이 잘 발달된 우리말의 전형입니다. 초보일수록 우리말을 1대1로 영어로 옮기는 경향이 있어서 접속사나 관계대명사를 이용해 길게 늘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B)를 보세요. 원문의 '다닐 때'란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냥 '대학교의 (in college)'라고 해도 '학교 다닐 때'의 의미를 포함하여 말해줍니다. 참 간결하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뉴욕에 있는 가장 눈에 띄는 랜드마크이다.

A) The Empire State Building is the most recognizable **landmark which is located in New York City.**

B) The Empire State Building is the most recognizable **landmark in New York City.**

'뉴욕에 있는 랜드마크'를 영작할 때 '~에 있는'에 신경을 쓰다 보면 be located at을 쓰기 쉽습니다. 예문을 그대로 영작을 하면 A)처럼 되는데, 관계사절을 써야 되므로 복잡합니다. located in을 쓰지 말고 그냥 in을 쓰면 어떨까요? 전치사 in에는 이미 장소를 나타내는 뜻이 있으므로 located를 생략해도 뜻이 통합니다.

난 신문에 난 그 뉴스를 보고 놀랐다.

A) I was surprised **when I saw** the news in the paper.

B) I was surprised at the news **in the paper.**

A)와 B)를 비교해 보세요. A)는 우리말을 1대1로 대응하여 영작한 것입니다. B)의 경우 원문의 '보고'를 빼버리고 'in the paper'만으로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보니 영어가 우리말보다 좀 더 함축적인 것 같네요. 이렇듯 영작을 할 때는 생략이 가능한 서술표현은 빼고 전치사를 활용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각각의 전치사 특성을 잘 고려해서 문맥에 잘 어울리는 전치사를 골라내는 능력입니다. 전치사의 기본개념을 평상시 열심히 공부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좀 더 예문을 보면서 감을 잡아 봅시다.

그녀는 양복을 입고 있는 남자에게 키스했다.

**영어식 변형)** 그녀는 양복 **속의** 남자에게 키스했다.

:: 상태를 나타내는 '입고 있는'이 생략되었습니다.

→ She kissed the man **in a suit.**

:: 옷을 입고 있는 것은 사람이 옷 안에 있다고 생각하여 전치사 in을 씁니다.

그 드레스를 입고 있으니 너 여왕 같다.

**영어식 변형)** 그 드레스 **안에** 너 여왕 같다.

:: 상태를 나타내는 '입고 있는'이 생략되었습니다.

→ You look like a queen **in the dress.**

이렇게 비가 오니 경기를 그만해야겠다.

**영어식 변형)** 이런 비 **속에선** 경기를 그만해야겠다.

:: 동작을 나타내는 '오니'가 생략되었습니다.

→ We'd better stop the game **in** this rain.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떨어뜨렸다.

**영어식 변형)** 그녀는 손 **안의** 컵을 떨어뜨렸다.

:: 동작을 나타내는 '들고'가 생략되었습니다.

→ She dropped the cup **in** her hand.

그녀의 **두 팔에 안겨 있는** 아기를 봐.

**영어식 변형)** 그녀의 두 팔 **안의** 아기를 봐.

:: 상태를 나타내는 '들고'가 생략되었습니다.

→ Look at the baby **in** her arms.

그 비행기는 폭풍우를 **맞으며** 날고 있다.

**영어식 변형)** 그 비행기는 폭풍우 **속에서** 날고 있다.

:: 동작을 나타내는 '맞으며'가 생략되었습니다.

→ The plane is flying **in** the storm.

사장님은 지금 다른 전화를 **받고** 계십니다.

**영어식 변형)** 사장님은 지금 다른 전화와 **접속하고** 계십니다.

:: 동작을 나타내는 '받고'가 생략되었습니다.

→ President is **on** other line.

난 지금 너와 **함께 있어서** 행복해.

**영어식 변형)** 난 지금 너와 **함께해** 행복해.

:: 상태를 나타내는 '있어서'가 생략되었습니다.

→ I'm happy now **with** you.

난 아빠의 허락을 **받고** 그 파티에 갔다.

**영어식 변형)** 난 아빠의 허락과 **함께** 그 파티에 갔다.

:: 동작을 나타내는 '받고'가 생략되었습니다.

→ I went to the party **with** my father's permission.

노란 리본이 **달려 있는** 저 모자 좀 보여 주세요.

**영어식 변형)** 노란 리본이 **함께한** 저 모자 좀 보여 주세요.

:: 상태를 나타내는 '달려 있는'이 생략되었습니다.

→ Please show me the hat **with** yellow ribbon.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잔다.

**영어식 변형)** 방 **안의** 사람들이 모두 잔다.

:: 상태를 나타내는 '있는'이 생략되었습니다.

→ All the people **in** the room are sleeping.

중간고사가 **끝나면** 롯데월드에서 가자.

**영어식 변형)** 중간고사 **뒤에** 롯데월드에서 가자.

:: 상태를 나타내는 '끝나면'이 생략되었습니다.

→ Let's go to Lotte World **after** mid-term examination.

난 학교로 **가는** 버스를 기다린다.

**영어식 변형)** 난 학교**행** 버스를 기다린다.

:: 동작을 나타내는 '가는'이 생략되었습니다.

→ I'm waiting for a bus **to** the school.

난 신문에서 그 경기 결과를 **보고** 매우 실망했다.

**영어식 변형)** 난 **신문의** 그 경기 결과에 매우 실망했다.

:: 동작을 나타내는 '보고'가 생략되었습니다.

→ I'm very disappointed **at** the result of the game in the papers.

차 **마시러** 잠깐 그의 집에 들렀다.

**영어식 변형)** 차를 **목적으로** 잠깐 그의 집에 들렀다.

:: 동작을 나타내는 '마시러'가 생략되었습니다.

→ I dropped by his house **for** tea.

3명이 **있을** 소파가 필요해.

**영어식 변형)** 우리는 3인**용** 소파가 필요해.

:: 동작을 나타내는 '있을'이 생략되었습니다.

→ We need sofa **for** three.

신문을 **가져오려고** 문을 열었다.

**영어식 변형)** 난 신문을 **위해** 문을 열었다.

:: 동작을 나타내는 '가져오려고'가 생략되었습니다.

→ I opened the door **for** a newspaper.



바람 좀 **쐬러** 나갔다 **올**게요.

**영어식 변형)** 바람을 **위해** 나갑니다.

:: 동작을 나타내는 '쐬러'와 '올게요'가 생략되었습니다.

→ I'm going out **for** some air.

이 방은 아기가 **있을** 만한 곳이 아니야.

**영어식 변형)** 이 방은 아기를 **위해** 좋지 않아.

:: 상태를 나타내는 '있다'가 생략되었습니다.

→ This room is not good **for** a baby.

기름을 **넣으려고** 차를 멈췄다.

**영어식 변형)** 기름을 **위해** 차를 멈췄다.

:: 동작을 나타내는 '넣으려고'가 생략되었습니다.

→ We stopped the car **for** gas.

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그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다.

**영어식 변형)** 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위해** 그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다.

:: 동작을 나타내는 '알아보기 위해'가 생략되었습니다.

→ I visited the homepage of the company **for** the detailed information.

휴가를 **보내러** 제주도에 왔다.

**영어식 변형)** 휴가를 **위해** 제주도에 왔다.

:: 동작을 나타내는 '보내러'가 생략되었습니다.

→ I came to Jeju **for** a vacation.

불편을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영어식 변형)** 불편 때문에 죄송합니다.

:: 동작을 나타내는 '끼쳐'가 생략되었습니다.

→ Sorry **for** the inconvenience.

호수 밑에는 수천 개의 돌들이 **있어** 오페라 하우스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영어식 변형)** 호수 **밑의** 수천 개의 돌들이 오페라 하우스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 상태를 나타내는 '있어'가 생략되었습니다.

→ Thousand of stones **under** the lake support the Opera house.

## 2. 전치사 with는 특별한 무엇이 있다

### 2-1 with로 접속사로 대체하기

초보가 영작을 하다 보면 자신의 글이 짧은 문장으로만 구성되는 것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머리 속에서 떠오르는 것을 죽 나열하다 보면 구성이 단조로워지고 비슷한 형태의 문장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글을 고급스럽게 만들려면 다양한 형태의 문장으로 글에 리듬감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접속사로 연결되는 긴 문장은 with를 이용하면 짧게 영작할 수 있는데, 접속사를 남발하는 초보에게 유용한 영작기법입니다.

불이 모두 켜 있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

**It was impossible to sleep / because all the lights were on.**

메인 절

부수절

우선 접속사를 뺍시다. 그리고 전치사 with를 넣어 주는데 with는 '~인 채'라는 상황을 설명해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It was impossible to sleep with all lights on. 이렇게 영작 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 옮기니 '불이 모두 켜진 채, 잠을 잘 수가 없었다'라고 해석되는데 원문의 because의 뜻이 없어졌습니다. 메인 절 'It was impossible to sleep'에 초점을 맞춰서 'with all lights on'를 생각해 보세요. with가 '~인 채'이지만 이유의 뜻을 가지고 있음이 문맥 속에서 파악됩니다. 이러한 문맥 속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with 전치사구가 어떻게 유도 되었는지 살펴봅시다. 원문 'because all the lights were on'에서 절의 형태를 짧게 구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because를 빼고 전치사 with를 넣어 '~인 채'의 뜻이 되게 합니다. with와 어울리는 것은 동사가 아니라 명사이므로 all the lights는 살리고 동사인 were은 없앱니다.

보스가 허락을 해줘서 집에 일찍 올 수 있었다.

→ **Because the boss permitted me to go, I could come home earlier.**

부수절에서 Because를 빼고 with를 넣습니다.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구문이 옳으므로 permit의 명사형 permission을 넣었습니다.

→ **With boss's permission, I could come home earlier.**



## 2-2 with와 부대상황

with는 영작에 폭넓게 응용됩니다. with를 활용하면 동사를 남발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문법책에서 부대상황이란 단어 들어 보셨죠? 부대(附帶)란 말이 한자어로는 어렵지만 영어로는 accessory입니다. 신문을 보면서 밥을 먹을 때, 아기를 업고 쇼핑을 갈 때 등등 주된 행동과 더불어 부수적인 행동이나 상태가 따라올 때를 부대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대상황은 with와 참 잘 어울립니다.

엄마는 아기를 뒤에 업고 쇼핑하러 갔다.

→ 엄마는 아기를 뒤에 업은 채 쇼핑하러 갔다.

→ Mom went shopping with her baby on her back.

‘업고’라는 동사를 안 써도 영작이 됩니다. 만약 동사를 쓴다면, Mom put her baby on her back and went shopping. 이렇게 되었겠죠 and로 나열된 문장은 한 두번이야 괜찮지만 여러 번 쓰면 매우 단조로운 글이 됩니다.

그녀는 얼굴에 활짝 미소를 지으며 내게 그 사진을 갖고 싶다고 말했다.

→ She told me with a bright smile on her face that she wanted the pictures.

‘미소짓다’란 동사를 사용하지 않고서 with를 가지고 영작을 했습니다. 만약 이를 동사로 연결한다면 she smiled brightly and told me that she wanted the pictures. 이렇게 동사가 여러 번 나오겠지요.

복잡한 심경을 가지고 그녀의 이메일을 읽었다.

→ I read her e-mail with mixed feelings.

그들은 의심스럽게 그 계약을 살펴보았다.

→ They studied carefully the contract with suspicion.

그는 잘생긴 변호사인데 영어도 잘한다. / 그는 영어를 잘하는 잘생긴 변호사이다.

→ He is a handsome lawyer with fluent English.

참고로 동명사 역시 부대상황으로 쓰입니다. 초보에게 익숙한 것은 with보다는 동명사인데, 동명사가 부대상황으로 쓰이면 ‘~하면서’의 뜻입니다. 동명사는 동사의 진행형에서 유래되었기 때문에 동작의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들은 미로에서 특별한 치즈를 찾으며 시간을 보냈다.

→ They spent time in the maze looking for a special cheese.

그들은 매번 같은 길을 따르면서 계속해서 미로 속으로 달려나갔다.

→ They continued to race through the maze following the same route.

부대상황을 영작할 땐 with로 할 것인지 동명사로 할 것인지 정해야 하는데, 상태에 관련된 것은 with (~인 채)를 쓰고 동작과 관련된 것은 동명사(~하면서)를 쓰면 됩니다.

## 3. 전치사가 동사를 대체하는 경우

지금까지 전치사를 이용해서 우리말 동사의 표현을 영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음은 이보다 좀 더 난이도가 있는 예문들을 소개하므로 전치사의 감을 잡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talked him into our team.

→ 난 그를 설득해서 우리 팀으로 오게 했다.

in은 ~안에의 뜻인데 방향성이 있는 to가 붙어 있으니 의미가 in보다는 강합니다. 쪽 들어갔다란 느낌이 있지요. ~로 쪽 들어 갔다는데 그게 어디죠? our team입니다.

I talked him out of the new investment.

→ 난 그를 설득해서 새로운 투자를 하지 말라고 했다.

:: out of는 바깥(out)으로 나가서 분리(of)되는 그림입니다. new investment에는 근처에도 가지 말라는 뜻이겠죠.

어떠셨나요? 이렇게 전치사를 이용한 영작기법이 조금 생소하시죠? 하지만 여러 번 읽고 연습하면 전치사를 실전영작에서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우리말에서 생략해도 되는 서술표현을 찾아낸 다음에 이를 대체할 전치사를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연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 KEY POINT

- 동작을 전치사로 영작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내가 대학교에 다닐 때 룸메이트였다.  
→ He was my roommate in college.
- 상태를 전치사로 영작 할 수 있습니다.  
난 지금 너와 함께 있어서 행복해.  
→ I'm happy now with you.
- with로 접속사를 대신 할 수 있습니다.  
불이 모두 켜있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  
→ It was impossible to sleep with all lights on.
- 부대상황을 나타내는 with  
엄마는 아기를 뒤에 업은 채 쇼핑하러 갔다.  
→ Mom went shopping with her baby on her back.
- 전치사가 동사를 대체하는 경우  
난 그를 설득해서 우리 팀으로 오게 했다.  
→ I talked him into our team.

## English Clinic

## 우리말의 '상식', 'common sense'와 'common knowledge' 구별하기

5월에서 8월까지 굴을 먹을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It is common sense not to eat oysters from May to August.

→ It is common knowledge that we must not eat oysters from May to August.

그런 말은 상식이다.

Such a word is common sense.

→ Everybody knows such a word.

우리말 표현 중 '상식'이라는 말에는 영어 common sense와 common knowledge의 두 가지 경우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한다'거나, '여자의 나이를 함부로 묻지 않는다', '차 안에서 두 다리를 벌리고 앉지 않는다' 등은 common sense이며,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햄릿은 셰익스피어가 썼다', '3+2=5', '윤년은 4년마다 돌아온다' 등은 common knowledge에 속합니다. 즉, common sense는 관습이나 생활양식, 윤리의식에서 '누구나 알고 있는 일'이며, common knowledge는 일상 생활 혹은 교육 등을 통해 '누구나 알고 있는 일'입니다. 참고로 '일요일엔 남의 집 방문을 삼가한다'는 것은 서양에서 common sense에 속하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권에서는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 Unit 17 영작연습

1. 어제밤 TV에 나온 뉴스를 보고 놀랐다. 📊 카페 회원 정답율 60%

2. 양복을 입으니 보기 좋구나. (주어를 you로 하세요 / 양복 : suit) 📊 카페 회원 정답율 60%

3. 웨딩드레스를 입으니 행복하다. 📊 카페 회원 정답율 50%

4. 눈이 와서 차가 막혔다. 📊 카페 회원 정답율 30%

5. 손에 들고 있던 접시를 놓쳤다. 📊 카페 회원 정답율 60%

6. 그 배는 폭풍우를 맞으며 항해를 했다. (폭풍우 : storm) 📊 카페 회원 정답율 70%

7. 아빠는 지금 다른 사람의 전화를 받고 있어요. 📊 카페 회원 정답율 60%

8. 너와 함께 있어서 기뻐. 📊 카페 회원 정답율 70%

9. 100만불 이상의 기획은 CEO의 승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기획 : plan / 승인 : approval)

카페 회원 정답율 50%

10. 교실 안에 있는 모든 학생이 찬성했다. 카페 회원 정답율 60%

11. 일 끝나면 바로 집으로 와. 카페 회원 정답율 70%

12. 시청가는 버스 어디서 타요? (시청 : city hall) 카페 회원 정답율 60%

13. 이 집은 여자가 있을 만한 곳이 아니다. 카페 회원 정답율 60%

14. 이번 휴가를 보내러 어디 가세요? 카페 회원 정답율 50%

15. 지연되어서 죄송합니다. 카페 회원 정답율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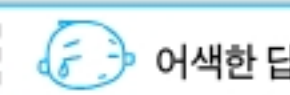
16. 그가 격려를 해줘서 난 자신감을 얻었다. (격려 : encouragement / 자신감 : confidence)

카페 회원 정답율 40%

17. 도로시가 한 손에 커피를 들고 나에게 왔다. 카페 회원 정답율 50%



관찰은 답



어색한 답?



1. I was surprised at the news on TV yesterday.

I was surprised at the news in TV yesterday.

▶ 방송되는 이라는 표현은 on이 더 잘 어울립니다. 방송국 콘텐츠가 전파를 타고(on) 퍼져나가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참고로 방송중이란 단어는 on air입니다.

I surprised the news I heard last night.

▶ 이 문장은 '내가 뉴스를 놀라게 했다' 라고 해석됩니다.

2. You look great in a suit.

You look good with a suit.

▶ 옷을 입고 있는 것은 in을 써야 맞습니다. with는 나란히 옆에 있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따라서 'You look good with a suit' 는 '옷 옆에 있는 네가 멋있다' 란 뜻으로 오역됩니다.

3. I'm happy in a wedding dress.

4. I had traffic jam in the snow.

The car is held up by the now.

The car is stopped by the snow.

▶ 차가 막히는 것은 traffic jam인데, 눈 안에(in) 갇혔다고 표현합니다.

The car was stuck with the snow.

▶ 전치사 with의 오류입니다. 이 문장은 '차와 눈이 나란히 막혔다' 라고 해석됩니다. by를 써야 맞습니다.

5. I dropped the dish in hand.

I missed the dish in my hands.

▶ 한영사전에서 '놓쳤다' 를 검색하면 miss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신 것 같네요. 검색을 할 때는 되도록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 검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시를 놓쳤다는 접시를 떨어 뜨린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단어는 drop입니다. miss는 버스나 기차 등을 놓쳤을 때, 보고 싶던 방송을 못보고 놓쳤을 때 씁니다.

I dropped a dish in my hands.

▶ 손에 있던 접시는 아무 접시가 아니라 특정한 접시입니다. the를 써야 합니다.



6. 😊 The ship sailed in the storm.

7. 😊 My father is on the other line.

😊 Father is **in** the other line.

▶ 전선을 타고 통화를 한다고 연상해 보세요. 전치사 in이 아니라 on이 더 어울립니다.

8. 😊 I was pleased with you.

9. 😊 A Plan more than \$ 1 million needs approval of the CEO.

😊 A plan above 1 million needs the approval of the CEO.

😊 A plan over \$ 1 million needs approval of the CEO.

😊 Any plan over \$ 1 million needs approval of the CEO.

😊 The plan over \$ 1 million needs approval of the CEO.

▶ The plan은 그 계획이라는 뜻으로 꼭 집어 지칭할 경우에 씁니다. 일반적인 계획은 a plan입니다. any plan(어떠한 계획이라도)와 같은 뜻입니다. a를 붙일지 the를 붙일지 헷갈리면 any(어떠한 것)를 붙여보세요. any는 a를 강조한 것입니다. any가 가능하다면 a를 붙이고 불가능 하면 the를 쓰세요.

10. 😊 All students in the classroom agreed.

😊 All students in the **class** agreed for.

▶ class는 수업이고, class room이 교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전치사 for가 목적어 없이 잘못 쓰였네요.

11. 😊 Come home right after work.

😊 Come back home **soon** after work.

▶ soon은 이내, 머지 않아, 잠시 뒤를 뜻합니다. 원문의 바로는 직후를 나타내는 말로서 right가 어울립니다.

12. 😊 Where can I get on the bus to the city hall?

😊 Where can I get a bus **for** the city hall?

▶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는 to입니다. '~행(行)'의 표현으로 bound for가 있는데, 이 표현과 헷갈린 것 같습니다.



우리말에서는 탈 것에 대한 용어가 타다, 내리다로 단순하지만 영어는 운송수단별로 구분을 합니다. bus, train, plane, bike 등은 get on (타다), get off (내리다)로 쓰고, car, taxi 등은 get in (타다), get out of (내리다)로 씁니다. 구분이 잘 안되죠? 이렇게 구분하면 쉽습니다. car, taxi 등은 타기 위에 허리를 구부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get in, get out of 이고, bus, train, plane, bike 등은 허리를 펴고 올라 타므로 get on, get off입니다.

13. 😊 This house is not for a woman.

14. 😊 Where are you going for this vacation?

😊 Where are you going **to** vacation?

▶ 방향을 나타내는 to 다음엔 장소가 나와야 어울립니다. vacation은 장소가 아니지요? vacation을 목적으로 어디로 가냐고 물어 보기 때문에 for를 써야 맞습니다.

😊 Where are you going for **in the** vacation?

▶ 이번 방학이라는 뜻으로는 this vacation을 써야 맞습니다.



그날의 일과를 표현해 줄 때는 in the 대신에 this를 써야 맞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유를 사려고 가게에 갔습니다.

In the morning, I went to the grocery to buy fresh milk. (x)

This morning, I went to the grocery to buy fresh milk. (o)

오늘은 저녁을 일찍 먹었습니다.

We ate earlier than usual in the evening. (x)

We ate earlier than usual this evening. (o)

15. 😊 Sorry for the delay.

😊 My apologies for the delay.

😊 Sorry for delay.

▶ 내가 미안한 것은 늦게 된 상황입니다. 상대방도 알고 나도 알면 the를 써야 맞습니다.

16. 😊 With his encouragement, I got confidence.

😊 With his **commendation**, I got confidence.

▶ commendation은 칭찬이라는 뜻입니다. 격려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17. 😊 Dorothy came to me with a cup of coffee in one hand.

# Unit 18 사물 주어를 잘 써야 영작이 잘 된다



이 책을 먼저 공부한 베타테스터 한마디

앞의 유닛들을 공부할 때 영어는 사물이 주어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느낀 바 있다. 이번 유닛은 자세한 예문을 통해 사물 중심의 영어식 문장에 익숙해지는 훈련을 도와준다. 다른 영어 교재에서는 자세히 다뤄지지 않은 신선한 내용이기도 하다. 영작 초보들에게는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영작 능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유닛이라고 생각한다.

**영어는 사람이 아닌 사물에게도** 격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물을 의인화 해서 사람이 하는 동작이나 행동을 똑같이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말에서도 사물이 주어가 됩니다. 하지만 영어에서는 훨씬 더 다양하게 의인화 됩니다.

영어	우리말식
The candle went out by itself.	촛불이 저절로 꺼졌다.
A decayed tooth has come out.	충치 하나가 저절로 빠졌다.
Unbelievable things happened in Italy.	이태리에서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

영어에서 The candle, A decayed tooth, Unbelievable things가 주어인데 이는 우리말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 촛불, 충치 하나, 믿을 수 없는 일들이 각각 문장 속에서 주어로 쓰입니다. 문장 속의 동사들을 잘 보세요. 모두 자동사이죠? 목적어를 가지지 않는 자동사는 우리말이나 영어나 별다른 무리 없이 사물이 주어가 됩니다. 그런데 목적어가 오는 경우는 사정이 다릅니다.

영어	우리말식
(a) There is an airconditioner in my car.	(a') 내 차에는 에어컨이 있다.
(b) My car has an airconditioner	(b') 내 차는 에어컨을 가지고 있다.(?)

영어는 (a), (b) 모두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말에서 (b')처럼 말하는 사람은 없죠? 영어에서는 의인화의 정도가 훨씬 다양해서 사물이 목적어를 취할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말에서는 사물이 목적어를 갖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b)와 같은 쓰임은 우리말에 별로 없기 때문에 초보가 영작할 때 생각해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대한 다양한 예문으로 감을 잡는 것이 좋겠습니다.

## 1. 사물이 목적어를 갖는다

그는 결국엔 술 때문에 죽었다.

(a) He died because of the drink eventually.

(b) Eventually the drinking took his life.

초보들은 대부분 (a)와 같이 영작을 하고 (b)처럼은 잘 생각해 내지 못합니다. (a)의 주어는 사람인 he인데 반해 (b)는 술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술 마시는 것이 타동사를 데리고서 목적어를 취합니다.

귀사의 끝내주는 평판에 내 마음이 갔어요.

(a) I was attracted to the excellent reputation of your company.

(b) The excellent reputation of your company attracted me.

(a), (b) 모두 같은 말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문장의 느낌인데 네이티브는 (b)문장이 훨씬 더 의미가 강하게 전달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문장이 조금 간단해지기 때문에 전달되는 감은 간결하고 강합니다.

기적이 없는 한 그것은 가능하지 않아.

(a) It cannot be possible unless we have a miracle.

(b) Only a miracle can make it possible.

## 2. 이러한 영작은 어떻게 할까? (사물을 주어로!)

최대한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말 원문을 분석해 보세요. I, You, He, She, They, 기타 대명사를 주어로 놓지 말고 이들을 목적어가 되게 해보세요. 그리고 무엇이 그 목적어를 취하는지 생각해 내서 이를 주어로 만듭니다.



난 그 소설에 감명 받았다.

**우리말식)** I was impressed by the novel.

주어를 변형해 문장의 구조를 바꿔 봅시다. '난' 을 '나를' 로 바꾸고 무엇이 목적어 '나를' 을 받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 소설이죠? 그리고 소설과 나의 관계에 어울리는 동사를 고르면 됩니다.

**영어식)** 그 소설은 나에게 감명을 주었다.

→ **The novel** gave me an impression. / **The novel** impressed me.

그것 때문에 미치겠다.

**영어식)** 그것이 나를 미치게 한다.

→ **It** drives me crazy.

소음 때문에 난 밤에 잠을 못 잔다.

**영어식)** 소음이 날 밤새 깨어 있도록 했다.

→ **The noise** keeps me up at night.

:: up은 깨어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는 이렇게 오래 농장에 있냐?

**영어식)** 무엇이 그를 농장에 오래 붙들어 매 놓는 거야?

→ **What's** keeping him so long in the farm?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귀사는 최신 기술의 정상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영어식)** 이 시스템이 귀사를 최신 기술의 정상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줄겁니다.

→ **This new system** will help your company stay on the top of latest technology.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에 난 혼란스러웠다.

**영어식)**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가 날 혼란스럽게 했다.

→ **The shouts of people** confused me

조종사 파업으로 난 한동안 외국에 나갈 수 없었다.

**영어식)** 조종사 파업이 한동안 나를 외국에 나가지 못하게 했다.

→ **The pilot's strike** has kept me from going abroad for long time.

날씨 때문에 전통의식을 치를 수 없어서 유감스러웠다.

**영어식)** 날씨가 우리들이 전통의식을 치르는 것을 방해해서 유감스럽다.

→ It is unfortunate that **the weather** prohibited us from holding the traditional ceremony.

네 조언이 입학과정에서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믿지 못할 정도야.

**영어식)** 난 입학과정에서 네 조언이 얼마나 많이 날 도와줬는지 믿지 못해.

→ I can't believe how much **your advice** helped me with the admissions process.

:: help me with A는 '내가 A한테 도와주다' 입니다. (나 이거 하는 것 좀 도와주라. → Would you please help me with it?)

그래픽을 보고 난 가장 많이 놀랐다.

**영어식)** 날 가장 놀라게 한 것은 그래픽이다.

→ **What** surprised me the most were the graphics.

네 얼굴을 보니 넌 이게 뭘 뜻하는지 감이 없구나.

**영어식)** 네 얼굴이 넌 이게 뭘뜻하는지 감이 없다고 말해준다.

→ **Your face** tells me you don't have a clue what it means.

:: clue : 실마리, 단서, 감

사람에겐 오존이 괜찮지만 식물들은 피해를 입는다.

**영어식)** 오존은 사람들에겐 해를 끼치지 않지만 식물에겐 해를 끼친다.

→ **Ozone** is fairly harmless to people, but it hurts plants.

이 상황을 보니 그는 이번 일에 책임이 없다.

**영어식)** 이 상황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그는 이번 일에 책임이 없다.

→ **As this situation** shows, he doesn't have a responsibility in this matter.

난 그녀가 여기에 왜 왔는지 모르겠다.

**영어식)** 난 무엇이 그녀를 여기로 데려왔는지 모르겠다.

→ I don't know **what** brought her here.

내 방에서 먹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들을 치웠다.

**영어식)** 나에게 먹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들을 치웠다.

→ I removed things from my room **that** reminded me of eating.

나는 컴퓨터를 체크해야 한다.

**영어식)** 내 컴퓨터는 체크가 필요해.

→ **My computer** needs a check-up.

:: 영작한 것을 보니 원문의 '나는' 에 해당되는 단어가 없습니다. 영작할 때 원문의 모든 구성단어를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문에서 핵심 단어인 '나' 를 생략해도 충분히 영작이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글의 논리 파악이 중요한 것이지 단어와 단어를 매칭하는 영작은 제대로 된 영작이 아님



니다. 번역 프로그램의 영작은 대부분 단어를 매칭하는 방법을 쓰는데, 당연히 영작에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집엔 테니스 코트와 아름다운 수영장, 그리고 바비큐 시설이 있다.

**영어식)** 그의 집은 테니스 코트와 아름다운 수영장, 그리고 바비큐 시설을 가지고 있다.

→ **His house** has a tennis court, beautiful swimming pool and BBQ facilities.

신문에 오늘 저녁에 큰 눈이 올 거래.

**영어식)** 신문이 오늘 우리는 큰 눈을 가질거라고 말했다.

→ **The newspaper** said that we are likely to have big snow in the evening.

:: are likely to는 are to에 likely가 수식된 것 인데, be동사 다음에 to부정사는 주로 미래의 일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신문 등에 나오는 기사는 according to newspaper라고 주로 하지만, 이렇게 newspaper를 주어로 해서 said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보에겐 생소할 지라도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컬럼비아호 사고로 인해 우리는 그간 우주선 승무원들을 데리고 러시아롤렛을 하고 있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어식)** 컬럼비아호 사고는 우리에게 깨닫게 했습니다. 그간 우리는 우주선 승무원들을 데리고 러시아롤렛을 하고 있었다고.

→ **The Columbia accident** made us realize that we had been playing Russian roulette with the shuttle crews.

비디오게임 업체들은 발의된 법안대로라면 가격을 올리지 않을 수 없다고 불평한다.

**영어식)** 비디오게임 업체들은 발의된 법안이 그들에게 가격을 올리게 한다고 불평한다.

→ **Video-game companies** complain that **the proposed legislation** would force them to raise prices.

그 책이 촉매가 되어 난 내 자신을 바꿀 용기가 생겼다.

**영어식)** 그 책은 진실로 촉매였는데, 촉매는 내게 나 자신을 바꾸게 할 용기를 주었다.

→ **The book truly** was the catalyst **that** gave me the courage to change myself.

이렇듯 상황이나 사물 등이 주어가 되는 경우를 문법책에서는 ‘물주구문’ 이라고 합니다. 물(物)이 주어가 되는 구문이란 뜻이죠. 문법책에서는 물주구문을 특별용법으로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지만 영작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실전에 써먹을 수 있도록 최대한 유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한 가지 팁이 있다면, 초보가 물주구문을 쓸 때는 되도록 동사는 간단한 것을 쓰기 바랍니다. 기본동사의 활용을 추천하며, 그래야 읽는 사람이 쉽게 글의 구조를 파악합니다.

### 3. 사물의 의인화

#### 3-1 소유

우리말에서는 존재의 개념이 강한데 반해 영어는 소유의 개념이 강합니다. 정말 별게 다 소유를 하고 별걸 다 소유합니다. (기본동사 have편을 참고하세요)

우리 학교는 평판이 좋다.

**영어식)** 우리 학교는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다.

→ **Our school** has a great reputation.

네 컴퓨터에 MS워드 깔렸나?

**영어식)** 네 컴퓨터 MS워드 가지고 있나?

→ **Dose your computer** has MS-words?

:: 깔렸다'란 표현인 installed가 생각이 안날 땐 have를 사용하면 쉽게 해결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특집 프로그램은 정말 끝내주는 분들이 많은 나옵니다.

**영어식)** 이번 크리스마스 특집 프로그램은 많은 끝내주는 게스트를 가집니다.

→ **This Christmas special program** has handful of guest who are really great people.

:: 소유는 곧 포함이기 때문에 소속되어 있거나 구성 등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은 400페이지가 넘는다.

**영어식)** 이 책은 400페이지를 넘게 가지고 있다.

→ **This book** has more than 400 pages.

모든 신용카드 뒷면의 사인 옆에는 3자리 숫자가 있다.

**영어식)** 모든 신용카드는 3자리 숫자를 가지고 있다 뒷면 사인 옆에.

→ **Every credit card** has a three digit code on the back next to the signature.

:: three digit code를 하나의 개념으로 보고 단수로 취급합니다.

#### 3-2 사물도 다양한 동사를 쓴다

사물이 기본동사만 자기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처럼 웬만한 동사를 활용합니다. 이러한 영작법은 초보에게 생소할 수도 있지만 정말 많이 쓰입니다. 별로 안 쓰일 것 같다고 넘어가지 말고 아래에 나오는 예문만이라도 잘 익혀서 영작 고수 흉내를 내보세요.



영화가 따분했다.

영어식) 영화가 날 따분하게 했다.

→ The movie bored me.

거의 모든 사람들이 허리케인 카트리나에 놀랐다.

영어식)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거의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다.

→ Hurricane Katrina surprised nearly everyone.

보고서의 지난달 실업률은 18%이고 1980년대 3% 조금 넘었던 것과 비교된다.

영어식) 보고서는 지난달 실업률은 18%이고 1980년대 3% 조금 넘었던 것과 비교된다고 말했다.

→ The report said that last month unemployment was more than 18 percent, compared with just over 3 percent in the 1980s.

그걸 보니 알게 되었다. 모든 것은 전체의 한 부분이라고.

영어식) 그것은 나를 일깨워 줬다. 모든 것은 전체의 한 부분이라고

→ It reminds me that everything is one part of a whole.

이걸보니 난 DSL을 쓰지 못한다.

영어식) 이것은 난 DSL을 쓰지 못한다고 보여준다.

→ It showed that DSL was not available to me.

이번 연구로 디지털프린팅에 대해 논란이 되는 문제들이 해결되었다.

영어식) 이번 연구가 디지털프린팅에 대해 논란이 되는 문제에 대한 답을 줬다.

→ This research answered many controversial questions about digital printing.



#### KEY POINT

##### 1 사물의 의인화

Eventually the drinking took his life.

##### 2 사물도 다양한 동사를 쓴다.

The movie bored me.

## Unit 18 영작연습

1. 내 방엔 오디오 시스템이 있다. 카페 회원 정답율 60%

2. 8주 후에 그는 암으로 죽었다. (암 : cancer) 카페 회원 정답율 40%

3. 난 웹 방문자들이 배너광고에 반응 하는지 궁금하다. (배너광고 : banner advertisements)

카페 회원 정답율 30%

4. 당신의 관심으로 이러한 운동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 : such a movement)

카페 회원 정답율 40%

5. 그 기사 때문에 돌겠어. (기사 : article) 카페 회원 정답율 50%

6. GasBuddy.com에서 당신의 도시 내 가장 기름값이 싼 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 (GasBuddy.com을 주어로 하세요) 카페 회원 정답율 50%

7. 캐나다 세관 규제 때문에 멜라토닌과 DHEA를 신지 못했어요. (캐나다 세관 규제를 주어로 하세요 / 캐나다 세관 규제 : Canadian customs regulations / 멜라토닌 : Melatonin) 카페 회원 정답율 40%

8. 어제 먹은 약은 도움이 없었다. 📊 카페 회원 정답율 50%

---

9. 이 게임 정말 놀랍다. (이 게임을 주어로 하세요) 📊 카페 회원 정답율 50%

---

10. 등록 처리 페이지에서 내 이메일 주소가 잘못 되었다고 한다. (등록 처리 페이지를 주어로 하세요 / 등록 처리페이지 : The registration process page / 잘못된, 유효하지 않은 : invalid) 📊 카페 회원 정답율 30%

---

11. 약물 오남용은 큰 해가 됩니다. (약물 오남용을 주어로 하세요 / 약물 오남용 : Drug abuse)

📊 카페 회원 정답율 40%

---

12. 이번 경험으로 난 타인을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이번 경험을 주어로 하세요)

📊 카페 회원 정답율 40%

---

13. 이 책은 표지가 두꺼운 양장본이네요. (양장본 : hard cover) 📊 카페 회원 정답율 50%

---

14. 당신의 사랑으로 난 살아 있어요. (당신의 사랑을 주어로 하세요) 📊 카페 회원 정답율 30%

---

15. 빨간 도마뱀 때문에 놀랐다. (빨간 도마뱀을 주어로 하세요 / 도마뱀 : lizard) 📊 카페 회원 정답율 40%

---

16. 이걸 보니 영어공부를 해야겠다. (주어로 it을 쓰세요) 📊 카페 회원 정답율 40%

---

17. 이걸 보니 개네들이 친해지고 있나 보다. (주어로 it을 쓰세요) 📊 카페 회원 정답율 30%

---



1. 😊 My room has an audio system.

😊 My room has **audio** system.

▶ 관사가 빠졌네요. 오디오 시스템은 셀 수 있으므로 an을 붙여줘야 합니다.

2. 😊 8 weeks later the cancer took his life.

😊 8 weeks **past** the cancer took his life.

▶ 시간이 지난 것을 pass동사를 사용했는데 어색합니다. 부사 later를 이용하면 훨씬 명쾌해 집니다.

3. 😊 I wonder whether banner advertisements attract a response from web visitors.

😊 I am concerned **about that** banner advertisements take web visitor's attention or not.

▶ 꼭 '~일까 아닐까'에 해당되는 것만 whether or not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애매하고 확실하지 않은 것을 표현해 주고 싶을 때 whether or not이 유용하게 쓰입니다. 원문에서 '~하는 지 궁금하다'라고 한 부분을 whether or not으로 처리해 봤는데, 바로 이것이 영작능력입니다.

→ I am concerned whether banner advertisements take web visitor's attention or not.

4. 😊 Your interest can help such a movement get started.

😊 **Attention of you** makes such a movement.

▶ Your attention can make such a mov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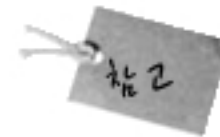
5. 😊 That article makes me crazy.

6. 😊 GasBuddy.com can help you find cheap gas prices in your city.



GasBuddy.com supply to information **about** the cheapest **place of** oil station in the city.

→ GasBuddy.com supply information on the cheapest oil station in the city.



supply 용법

- a) supply 물건 to 사람 : The city supplies books to the children,
- b) supply 사람 with 물건 : The city supplies the children with books,

7. Canadian customs regulations prohibit us from shipping Melatonin and DHEA.

Canadian customs regulations **prevent** us from shipping Melatonin and DHEA.

▶ prevent는 '방해하다'의 뜻입니다. 법률적으로 금하는 것은 'prohibit'입니다.

8. The medicine which I had last night didn't help me.

The medicine **what we eat** did not work out.

→ The medicine that we took did not work.

▶ 약을 먹는 것은 eat를 쓰지 않고 have나 take로 표현합니다.

9. This game surprised me.

10. The registration process page tells me that I have an invalid email address.

The registration process page **responses** that my e-mail address is wrong.

▶ response는 명사형입니다. 동사형은 respond입니다. 3인칭 단수이므로 responds로 해야겠네요.

11. Drug abuse hurts people.

12. This experience reminded me of how important it is to respect others.

This experience **notice** to respect others.

▶ notice는 주의하다, 인지하다, 알아채리다 등의 뜻으로 사람이 주어로 옵니다.

→ This experience tells me to respect others.

This experience reminded me of how important it is to **admire** everyone.

▶ admire는 '동경하다, 감탄하다'입니다. '존중하다'는 respect입니다.

13. This book has hard covers

14. Your love keeps me alive.

15. The red lizard surprised me.

16. It reminds me that I have to study English.

It makes me recognize the need of English studying.

17. It showed that they are getting closer.

It shows that they are **making friends each other**.

▶ making friends to each other로 해야 합니다.

It shows that they are closed each other.

▶ making friends to each other로 해야 합니다.

▶ 전치사 to를 넣어야 합니다.

→ It shows that they are closed to each other.

영어식 사고로 바로 쓰는  
유소영의 영작 1교시



## Part 4

# 실전 영작의 노하우

Unit 19 영작은 문법보다 어법이 중요하다

Unit 20 우리말을 잘 따져보면 영작의 실마리가 보인다

문법과 단어에 대한 지식이 있어도 막상 영작이 어려운 것은  
우리말의 틀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언어적 습관 때문입니다.  
마지막 파트에서는 10여 년간 영작을 연구해 온 저자의 영작 테크닉을 공개합니다.  
쉽게 쉽게 영작 하는 실전 영작의 노하우는  
그동안 Daum 카페 강의 등에서 그 효용성을 인정 받아왔습니다.  
여기 유소영이 공개하는 영작 테크닉을 꼭 챙겨두세요.



# 영작은 문법보다 어법이 중요하다



이 책을 먼저 공부한 베타테스터 한마디

이 유닛은 지금까지의 내용 중 중요도가 높고, 알면서도 쉽게 실수하는 부분을 정리하고 있다. 나 역시 18유닛까지 꼼꼼히 공부해왔지만 실수하는 부분이 군데군데 발견된다. 대부분의 책은 후반부로 갈수록 긴장도 풀어지고 하기 싫어지기도 하는데, 이 유닛은 분량도 많지 않을뿐더러 유용한 부분이 잘 압축 정리되어 있어서 좋았다.

**이런 것이 뭐 노하우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번 내용은 '유소영의 영작기술' 카페에서 많은 회원분들께 호응을 받았던 부분입니다. '맞다, 그런 면이 있었구나' 라는 반응들과 초보의 헛점을 잘 살펴 봤다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공부를 하셨으면 어느 정도 영작에 자신이 생기셨으리라 봅니다. 망심하기 쉬운 부분을 한번 확인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1. 주어를 잘 챙기는 것이 영작의 시작이다

우선 아래 예문을 한번 영작해 보세요.

차가 밀려서 늦었다.

오늘은 바빠서 그녀에게 전화를 못했다.

밤 9시까지 꼭 집에 와라.

최근 그녀에게서 전화를 한 통도 못받았다.

설명을 읽기 전에 꼭 영작을 해보셔야 합니다. 설명만 읽어서는 도움이 안됩니다. 위의 문장을 가지고 고민을 해봐야 다음의 제 설명에 동조를 할 수 있습니다.

예문들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주어가 안보이죠? 우리말에서는 주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어 없는 우리말을 그대로 영작을 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우리말은 주어 없이도 얼마든지 문장을 만들어 낼 수 있지만 영어는 주어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말 문장에서 안 보이는 주어를 찾아서 보여주는 것이 영작의 첫걸음입니다.

위의 예문들도 주어가 뭘지부터 생각해 보세요. 주어를 무엇으로 시작할지 생각하고 풀어 나가면 쉽게 영작이 됩니다.

차가 밀려서 늦었다.

전체 술어 '늦었다'에 대응이 되는 것을 찾아보세요. 문장의 주어는 나입니다. '차가'가 주어 같지만 헛갈리면 안됩니다.

**영어식 변형)** 나는 늦었다 차가 밀려서.

→ I'm late due to the traffic jam.

오늘은 바빠서 그녀에게 전화를 못했다.

**영어식 변형)** 난 오늘 바빠서 그녀에게 전화를 못했다.

→ I was so busy today so that I couldn't make a call to her.

밤 9시까지 꼭 집에 와라.

상대방이 있어야 명령을 합니다. 대부분의 명령문은 you가 생략된 형태입니다.

**영어식 변형)** 난 9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 You should come home by 9 PM.

최근 그녀에게서 전화를 한 통도 못받았다.

**영어식 변형)** 난 최근에 그녀에게서 전화를 한 통도 못받았다.

→ I have not received a call at all from her recently.

## 2. 목적어도 잘 숨는다

아래 예문을 영작해 보세요.

나는 이 결과에 만족했다.

그 드라마의 결말이 궁금해.

밀줄 친 문장에 주의하세요.

1부는 읽어 봤는데 2부는 못 읽어 봤다.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문장의 알짜배기인 목적어, 목적어 쓰는 것이 뭐가 어렵나? 하실 수도 있지만 목적어 때문에 의외로 영작이 막힙니다. 우리말에서 그냥 ‘~을/를’에 해당하는 부분만 찾아서 써주면 될 것 같지만, 목적어가 안 보이는 경우가 의외로 많기 때문입니다. 영작하려는 우리말을 놓고 어느 부분이 목적어가 되는지 한번 곰곰이 따져 보세요. 억지로라도 목적어를 만들어 내면 영작이 아주 편해집니다.

나는 이 **결과**에 만족했다.

목적어가 없지요? 우리말로는 이런 문장이 가능하지만 영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의미를 가만 살펴보니 ‘결과’가 목적어입니다. 그럼 우리말 조사를 무시하고 억지로 목적어를 만들어 봅시다. 우리말로는 어색하지만 영어로는 맞는 표현법입니다.

**영어식 변형)** 나는 이 **결과**를 만족한다.

→ I am satisfied with this result.

그 드라마의 **결말**이 궁금해.

‘결말이 궁금해’ 이므로 ‘결말이’ 이 부분이 주어라고 생각하는 분 안 계시겠죠? 우리말 ‘~이/~가’ 부분이 영어에서도 주어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뜻을 잘 살펴봐야죠. 내가 궁금해 한 것은? 결말입니다. 따라서 ‘결말을’ 이 숨어 있는 목적어입니다.

**영어식 변형)** 난 그 드라마의 **결말**을 궁금해.

→ I am wondering about the ending story of the soap opera.

밑줄 친 **문장**에 주의하세요.

동사의 목적어나 대상이 되는 부분은 자연스럽게 ‘목적어’로 생각합시다. ‘문장에 주의하세요’ 보다는 ‘문장을 주의하세요’가 목적어 답죠?

**영어식 변형)** 밑줄 친 **문장**을 주의하세요.

→ Pay attention to the underlined sentence.

**1부**는 읽어 봤는데 **2부**는 읽어 못 읽어 봤다.

조사부분을 잘 보세요. ‘은/는’이라고 해서 주어로 처리하면 안되겠죠? 의미를 보니 1부를 봤고 2부를 못봤단 말입니다.

**영어식 변형)** 나는 **1부**를 읽어 봤는데, **2부**를 못 읽어 봤다.

→ I read the part 1, but didn't read part 2 yet.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목적어는 ‘을/를’이라고 알고 있는 우리에게 목적어의 구분이 단순히 조사에 의해서가 아닌란 것을 알게 해주는 예문입니다. 어떠한 형태로 쓰여 있던 간에 의미상으로 대상이 된다면 목적어입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은 ‘한 마리를 잡지 못했다’는 말인데 의미를 살리기 위해 ‘ 심지어’라고 한탄하는 표현을 같이 써줘 봅시다.

**영어식 변형)** 심지어 물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다.

→ I couldn't catch even one fish.

### 3. 앞뒤 사정을 명확히 밝히자

아래 예문을 영작해 보세요.

반 정도는 저금 해두어 나중에 필요할 때 쓰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어려워지면 저를 도와주세요.

만국 박람회를 기념으로 세운 탑입니다.

돈을 내고 사용해야 합니다.

지금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문장 논리에 관한 것입니다. 왜 문장 논리냐고요? 뭐, 거창한 것은 아닙니다. 이해하기 쉽게 풀어 쓰자라는 말인데, 우리말 자체를 풀어 내어서 영작하기 쉬운 문장으로 만들어야 영작이 쉽습니다. 어떤 경우에 풀어서 써야 하나구요? 그건 문맥에 따라 결정됩니다. 계속 강조했듯이 이번에도 예문을 직접 한번 영작해 보세요. 영작하실 때 문장의 전후 관계 즉 앞뒤 사정을 살펴보고 쉽게 풀어보세요.

반 정도는 **저금 해두어** 나중에 필요할 때 쓰겠습니다.

‘저금 해두어 나중에 쓰겠다’ 이거 영작하려니 참 어렵네요 무슨 말이고 잘 뜯어 봅시다.

앞뒤 문장들의 관계를 살펴보니 의미상 ‘반 정도는 저금하겠다’ + ‘나중에 필요할 때 쓰겠다’로 나뉘지요? 두 문장의 관계는 and로 연결하면 되겠네요.

**영어식 변형)** 나는 반을 **저금하고**, 나중에 필요할 때 쓰겠습니다.

→ I will save half of the money and use it when I need it.



나중에 제가 **어려워지면** 저를 도와주세요.

문장 자체가 복잡한 건 아닌데, 어떤 식으로 구성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입니다. ‘~하면’ 이 나왔으니까 가정법인가요? 아닙니다. 이 글은 비현실의 내용이 아니라서 가정문을 쓰면 안됩니다. 가정법에서 배웠죠? 인천 앞바다가 사이다라면~ 이런 것들이 가정법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내용은 조건문입니다. 조건문이 나오면 미래의 조건은 현재형으로 쓴다는 것에 주의합시다. 그럼 문장을 다시 한번 봅시다. 이걸 어떻게요? ‘제가 어려울 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니 앞 뒤 문장의 관계가 명확해 지지 않나요?

**영어식 변형)** 제가 어려울 때, 저를 도와 주세요.

→ Please help me when I'm in trouble.

이것은 만국 박람회를 기념으로 세운 탑입니다.

이 예문은 문장의 뜻을 확실하게 만들면 영작이 쉽게 됩니다. ‘기념으로’ 의 확실한 표현은 뭐지요? ‘기념하기 위해’ 이지요?

**영어식 변형)** 이 탑은 만국 박람회를 기념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 This tower is built in memory of an international fair.

‘이것은 만국 박람회를 기념으로 세운 탑입니다’ 를 영작할 때 ‘This is a tower (which is) built in memory of international fair’ 같이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문장이 좀 더 간결해 보입니다.

**돈을 내고 사용해야 합니다.**

짧은 예문이지만 그대로 영작을 하려니 막히네요. ‘돈을 내다 + 사용하다’ 의 구조인데, 이 두 문장의 논리관계가 어떻게 되죠? 따지고 보니, ‘그것을 사용하려면 돈을 내야 한다’ 란 소리입니다.

**영어식 변형)**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돈을 내야 합니다.

→ You have to pay to use it.

지금 배운 내용은 정말 유용합니다. 뜻이 함축되어 있는 말은 간결하다 할지라도 무턱대고 영작하려면 끔찍대기 일쑤입니다. 문장의 논리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 전후 사항을 풀어 주는 것을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 KEY POINT

- 1 주어를 잘 챙기는 것이 영작의 첫걸음입니다.
- 2 숨어있는 목적어를 찾아 만들어 주면 영작이 한층 편해집니다.
- 3 문장의 앞뒤 사정을 살피고, 우리말 전체를 풀어내어 쉬운 문장으로 만들어야 영작이 쉽습니다.



#### 그 계획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How do you think about the plan? (×)

→ What do you think of the plan? (○)

A : What do you think of the plan?

그 계획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B : I think there are some proble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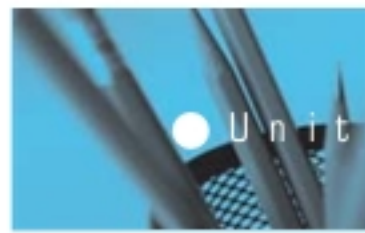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는 우리말식 표현이고 영어식으로 ‘그 계획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무엇이나’ 로 변형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생각이나 견해를 물어보는 것은 기본적인 의사소통 방법으로 그 사용 빈도가 높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는 표현을 영어로 옮길 때, 우리말식으로 ‘어떻게’ 를 ‘how’ 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영어에서는 ‘~에 대해 무엇을 생각하느냐’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어떻게 = how’, ‘무엇 = what’ 과 같이 기계적인 등식 관계에 얽매이지 말고, 그냥 ‘What do you think of B? B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구문 전체를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What are your thoughts on B? B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떠세요?’ 와 같은 표현도 자주 쓰이기 때문에 함께 기억해 두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동사 think 대신 feel을 사용하여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물어보는 경우에는, what 대신 how를 씁니다. 즉, ‘How do you feel about this painting?’ 이라고 하면, ‘이 그림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뜻이 된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Unit 19 영작연습

Unit 19와 20은 영작연습이 없습니다. 아래 원어민 선생님의 첨삭지도를 보고 나와 비슷한 실력의 영작 초보들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참고하세요. 첨삭내용을 많이 간접 경험 해 보는 것도 유용한 영작 학습법입니다.

### Topic

We all like to travel. Sometimes, we leave our home country to travel to another place for a long period, either for business or pleasure. Pretend that you know someone who is going to travel to another country for a month. Give him tips on how to best prepare for the trip. Tell him what he needs to do and to pack.

카페 회원이 쓴 글입니다.

I tell him you have a purpose of traveling first and study what to see, where to visit and how to ride. You can also seek the information on Internet sites. I know no the tour is as happier as much money so I see a moneyless traveler occasionally. You prepare some clothes for the cold and the rain, and a first-aid medicine especially. You need to obtain a map and a conversation book about this country. For recording your journey, you get ready for a camera and many films. Be careful about the thing stolen in keeping tour. First of all,

you have to keep the passport and your wallet at all times. You make a call to family and friends to report where you visit to. You choice a accommodation which is clean and cheap. You are trying to call at public market to want viewing a vivid origin living originally.

To understand deeply this state, you watch a museum and take eating a traditional food. Don't travels alone; if possible wander together because of being robbed.

네이티브 선생님의 첨삭지도입니다.

I would ask him his purpose for traveling first and study what to see, where to visit, and how to ride. He can also seek the information on Internet sites. I know no the tour is as happier as much money, so I see a moneyless traveler occasionally. One should prepare some clothes for the cold and the rain, and most importantly a first-aid medicine. One needs to obtain a map and a conversation book about this country. To record his journey, he must ready a camera and many films. He must be careful not to have his things stolen during the tour. First of all, he has to keep passport and wallet with him at all times. He must make a call to family and friends to report where he visiting to.

**MEMO** Since you already started with the third person voice in your essay, use this all throughout the composition. Be constant in your use of voice.

He must choose e|an|accommodation which is clean and cheap. Try to call at public market to view the vivid daily lives of the people. To understand deeply this state, one must watch a museum and eat traditional food. Don't travel alone; if possible wander together to avoid being robbed.

**MEMO** Use 'an' instead of 'a' because the word preceded by the article begins with a vowel



# 우리말을 잘 따져보면 영작의 실마리가 보인다



이 책을 먼저 공부한 베타테스터 한마디

이 유닛은 마지막으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전달해준다. 바로 우리말 그대로 영어로 옮기지 말라는 것인데, 영작할 때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내용이다. 원문을 영작하기 편하게 매끄럽게 바꾸어놓는 연습을 차근차근 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이 되어있다. 이렇게 총 20 유닛까지 마치게 되었다. 영어를 잘하려면 영어식 사고(마인드)를 길러야 한다고 말한다. 말이 쉽지, 어떻게 공부해야 한단 말인가? 이 교재는 그러한 네이티브식 사고를 갖게 해주는데 아주 큰 도움을 주었다. 학생들, 그리고 영어 초보들에게 서슴없이 추천할 수 있는 책이다.

## 1. 절대로 우리말 그대로 영어로 옮기지 마라!

영작 초보들이 단어를 많이 외워도 영작을 못하는 이유는 **우리말을 그대로 영어로 옮기려 하기 때문**입니다. 영작 초보들은 우리말로 원고를 먼저 써놓고 그대로 영어로 옮기려 하는데 이는 번역이지 영작이 아닙니다. 이러한 번역은 웬만한 번역사 아니면 쉽지 않습니다.

영작을 쉽게 하려면 우리말 원문 자체를 쉽게 변형하는 것이 좋습니다. 머리 속 생각이 바로 영어로 표현하지 못한다면, 일단 우리말로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꼼꼼히 따져보는 겁니다. 내가 쓴 우리말 문장이 '영작'을 위한 쉬운 표현인지 말입니다. 예문을 보면서 설명을 해보죠.

원문: "홍보를 진행해야 매출을 늘릴 수 있습니다."

위의 원문을 영작한다고 해봅시다. '홍보를 진행해야' 이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해야'는 사전을 찾아 봐도 어떻게 영작 해야 할지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듯 우리말을 그대로 영어로 옮기려 하면 영작이 어렵습니다. 뜻이 크게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영작하기 쉽도록 원문을 변형해 봅시다. ~해야~할 수 있다고 하니까 무슨 조건문 같죠?

변형 1) "홍보를 진행하면 매출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건문 식으로 바꿔 보면 어떨까요?

If를 쓰면 되므로 If we have a promotion, we could increase sale.

어때요? 조건문의 기본문법만 알면 쉽게 영작이 되죠? 변형하는 방법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내기 나름입니다. 다음처럼 변형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변형2) 매출을 늘리기 위해선 홍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보고 In order to를 적용해 보세요.

In order to increase sale, we need to have a promotion.

영작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나요? 초보 영작의 핵심은 '영작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말 그대로를 영어로 옮기려 하면 안된다' 입니다. 원문을 영작하기 쉽게 살짝 바꾸는 연습을 많이 하세요. 그럼 초보딱지는 금방 뗄 수 있습니다.

## 2. 원문을 쉽게 풀어 놓고 영작하라

아래 글은 어떤 학생이 영작을 부탁한 글인데, 초보의 눈높이로 영작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떠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영작을 하는지 잘 살펴보세요. 영작 내내 유념할 것은 큰 틀을 깨지 않는 범위에서 '원문을 최대한 영작하기 편하게 만들어 놓고 영작한다' 라는 점입니다.

이번 수능 역시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수능부정행위 그건 정말 범죄행위이다.

그러나 몇몇 학생들은 수능을 잘 보기 위해 부정행위를 한다.

수능을 잘 보지 못하면 학생들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평소에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한 순간의 실수로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이번 수능 역시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우리말도 마찬가지로 이지만 영작은 첫 문장을 쓰는 것이 가장 어려운데, 첫 문장은 되도록 짧게 해주는 것이 첫 문장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 문장의 경우 길이가 짧지만, 만약 원문이 길면 짧게 두 문장으로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자, 원문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영어 구문 표현을 떠올려 봅시다. '부정행위가 적발 되었다.'란 표현을 알고 있으면 그대로 영작을 하고, 만약 적발이란 단어가 생각나지 않으면 하고자 하는 말을 적당히 바꿔서 내가 알고 있는 표현을 이용해 보도록 합니다. '부정행위가 적발됐다'를 '부정행위 문제가 있었다'로 해주는 것이 좀 쉽겠네요. 영어는 사물이 주어라 될 수 있으니까 '수능(CSAT)이 부정행위를 가졌다' 라고 합시다.



→ This CSAT also had cheating problems.

‘이번 수능’을 This CSAT라고 하니까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This year’s CSAT, 올해 수능’이라고 하면 좀더 명확해 집니다.

→ This year’s CSAT also had cheating problems. (올해 수능 역시 부정행위 문제가 있었다)

부정행위 그건 정말 나쁜 범죄이다.

영어로 옮기는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Cheating is a very bad crime’이라고 하면 되는데 써 놓고 보니 좀 유치한 감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동의 하는 사실 등을 이야기 할 때는 대명사 no one을 이용해 풀어주면 좀 더 유창해 보입니다.

→ No one denies cheating is a crime.

그러나 몇몇 학생들은 수능을 잘 보기 위해 부정행위를 한다.

‘수능을 잘 보다’를 see the CSAT well이라고 하면 정말 콩글리쉬죠. 우리말 표현을 그대로 쓰지 말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의미가 여러 개 떠오르면 그 중 영어로 옮기기에 가장 쉬운 것을 고릅니다. ‘저는 수능을 잘 보다’의 원래 의미를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다’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get high CSAT score라고 했습니다.

→ But some students cheat on exam to get high CSAT.

수능을 잘 보지 못하면 학생들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문장은 가정법일까요? 아닙니다. 조건문입니다. ‘인천 앞 바다가 사이다라면’이 가정법이고, 수능을 잘 보지 못한다는 것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서 조건문입니다. 따라서

→ If they don't get a good CSAT score, they can't get in the university where they want.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조건의 부사절은 현재형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밑줄 친 don't은 현재형으로 했습니다.

이 문장으로 한 가지 더 공부해 볼까요? 앞에서 with를 활용해 간단히 변형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기서 한번 활용해 봅시다. If they don't get a good CSAT score를 without good CSAT score로 바꿔 보세요.

→ Without good CSAT score, they can't get in the university where they want.

간결하지만 세련된 문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별색의 without 부분은 문장 끝에 두어도 됩니다.

→ They can't get in the university where they want without good CSAT score.

이 예문에서는 if를 활용해서 문장을 다 만들어 놓고서 with로 바꿨는데 처음부터 with로 썼다면 좀더 시간이 단축 되었을 겁니다. ‘수능을 잘 보지 못하면 학생들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없다’를 처음 대했을 때 ‘좋은 수능 점수 없이는 학생들은 원하는 대학에 못간다’라고 영어식으로 구조가 2초 안에 머리 속에서 휘리릭 나와야 합니다. 이 단계가 되면 영작 고수가 되는 거죠.

평소에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한 순간의 실수로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우리말에서는 쉬운 표현이지만 영작하기에는 어려운 문장입니다. ‘평소에 공부 잘하는 학생’, ‘한 순간의 실수’,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다’ 이러한 표현들은 한영사전을 찾아 봐도 안나옵니다. 요즘에는 우리말의 다양한 표현들을 모아 놓은 책이 나오는데, 거기를 뒤져도 안나오는 표현들입니다. 이럴 땐 영작 때문에 좌절하기 쉽죠.

저는 정확한 영작이란 없다고 봅니다. 우리말을 그대로 옮기는 것은 정말이지 번역사나 하는 작업입니다. 따라서 위의 표현들도 그대로 영작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알고 있는 영어 표현 중에 비슷한 것으로 바꿔서 영작해 보죠. 큰 틀을 깨지 않는 범위에서 원문을 최대한 영작하기 편하게 만들어 놓고 영작하라고 했던 것 잊지 맙시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영작하기 편하게 변형하는 것이냐~

평소에 공부 잘하는 학생 →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 → students with high grades (전치사 with 용법을 눈 여겨 보세요)

한 순간의 실수 → 작은 실수 → a small mistake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다 → 목표를 달성 못한다 → fail to achieve their goal.

어떤가요? 영 엉뚱하지 않고 우리말 원문에서 전하려던 뜻이 보전되어 있지 않나요?

이젠 문장구조를 볼 차례입니다. 영작하기 편하게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표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조에도 해당됩니다. ‘평소에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한 순간의 실수로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여기서 전체 주어는 뭐로 할 수 있을까요? 학생으로 도 할 수도 있고, 실수로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들을 가지고 기본 문장구조를 만들어 봅시다. 문장구조



를 세울 땐 전체 주어와 전체 동사를 먼저 정하고 수식은 따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A] 학생을 전체 주어로 할 경우 : 학생들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

[B] 실수를 전체 주어로 할 경우 : 실수는 학생들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한다.

[A]

‘학생들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가 기본 구조인데 여기에 수식을 붙여보겠습니다.

좋은 성적의 학생들도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 시험 볼 때 작은 실수로  
(a)

Even students with high grades also fail to achieve their goals with just a small mistake on the test.

:: ‘시험 볼 때’에서 ‘볼 때’란 동사 표현을 전치사 on으로 해결했습니다. (Unit 18 참고)

[B]

‘실수는 학생들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한다’의 기본구조에 수식을 붙이면 시험 볼 때의 작은 실수는 좋은 성적의 학생들이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한다.

→ Just a small mistake on the test makes the students with high grade fail to achieve their goals.



#### KEY POINT

- ① 우리말을 그대로 영어로 옮기려 하지 마세요.
- ② 우리말 원문을 최대한 영작하기 편하게 만든 후 영작하세요.

## Unit 20 영작연습

아래 원어민 선생님의 침묵지도를 보고 나와 비슷한 실력의 영작초보들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참고하세요. 침묵내용을 많이 간접 경험 해 보는 것도 유용한 영작 학습법입니다.

### Topic

Pretend that a friend from abroad asked for your suggestion in planning his trip to Korea. He told you that he only has five days to tour the country. write an essay on ‘how to see all the beautiful sites of Korea in five days.’ write in detail how he will go to this sites including what kind of transportation he needs to ride.

### 카페회원의 글입니다.

Hi! Justin. Welcome to Korea.

I would like to explain your schedule in Korea. Your flight will be arrived here at 5 P.M. After formalities for entry, go out the entrance lobby and board the No. 3 bus to Hotel Sheraton at line A. It takes may be two hours to get the hotel. The bus fare is 13,000 KRW. Find a restaurant for dinner as soon as you unpacked your suitcases. There may be many Korean restaurants in the vicinity, even Bulgogi restaurant you are so longing. Try and enjoy Korean food! And then fresh up and rest yourself at a night view of Seoul.

Next morning, I hope you feel Seoul in lively motion going in for jogging near the hotel. There are six royal places in Seoul which we can feel Korean long tradition. These were built in the 1400s and are the places which the king and queen in Chosun dynasty resided. To get Kyung-bokung, you first get on subway at Kwanaru station of the subway no 5 and get out at Kyung-bokung station. It takes about 10 minute from station to the place. You'd better see three places first, Kyung-bokung, kyung-heegung and Dok-sugung, because they adjoin. And then visit other three



places, Chang-dukung, Chang-kyungung and Un-hyungung. It is difficult to see all places in a day, but I think it may be possible if you hurry up. In the evening, I would like to recommend you see sights of night view in Seoul taking a sightseeing bus. I think that you can reserve the sightseeing bus in the hotel front.

The third day morning, I planed you to depart for Kyung-ju by train at 8 A.M. Kyung-ju is the old capital of Silla which had unified nation divided by three parts. Here are many cultural properties and national treasures such as Bul-Kuk temple, great stone Buda status and grand old tombs. There are also many an archaeological site near the station, so you can see it walking around that area. As soon as you arrive in Kyung-ju station, walk to Chumsung-dae. That is the place which ancient people observed an asterism. You may be feeling there a scientific sense of Korean handed down from generation. There are many grand old tombs around there. Especially Chunma-chong, the tomb which was made of wood in the fifth century, is very important archaeological property. In those days when the archaeologists excavated the tomb in 1973, Exposed by excavation in 1973 are the massive remains of table wares, a gold crown and saddle flap. Especially the saddle flap drawn a horse flying in the sky was first thing in Silla's tomb. It is priceless treasures to know how they are a good painter.

In the next day morning I hope you visit Bul-kuk temple and Great Stone Buda Status.

These were built in 774 by person named Kim-Deasung. They counts as a masterpiece in the time of Silla and are our national heritage well matched as a whole with architecture, geometrics, mathematics, religious and arts. They are registered to cultural heritage in UNESCO.

If you want to spend the time effectively at Kyung-ju, I recommend a tourist bus which move from downtown to major tourist destination in a circle. In case you can get a translation service.

There are scattered many old properties in Kyung-ju, and Kyung-ju is really the great museum itself. So it is impossible to see all sights of Kyung-ju. If you have the extra

time, I would like to recommend staying more days there. The train to return to Seoul is KTX at 6:30 P.M. It arrive in Seoul at 10:30 P.M.

The next morning, if you have enough time, I offer you go to Chung-gae Cun which flows through a downtown. I have not been to go there yet, that will be a famous place in Seoul.

Your flight to home is the Korean Air line at 5 P.M, so I hope you take a bus to airport until 1 P.M.

I will reserve the room in the Hotel Sheraton at the first and the forth day. I hope you take a hotel reservation at Kyung-ju and book a KTX ticket according your plan.

원어민 선생님의 침묵지도입니다.

Hi! Justin. Welcome to Korea.

I would like to explain your schedule in Korea. Your flight will be arriving here at 5 in the afternoon. After formalities for entry, go out the entrance lobby and board the No. 3 bus to Hotel Sheraton at line A. It takes may be two hours to get the hotel. The bus fare is 13,000 KRW. Find a restaurant for dinner as soon as you unpack your suitcases. There may be many Korean restaurants in the vicinity, even a Bulgogi restaurant you are so longing. Try and enjoy Korean food! And then freshen up and rest while enjoying the the night view of Seoul.

Next morning, I hope you feel Seoul in lively motion while going in for a jog near the hotel. There are six royal places in Seoul where you can feel Korea's long tradition. These were built in the 1400s and are the places where the king and queen in Chosun dynasty resided.

**MEMO** Use 'you' because you are already speaking in second person voice(talking to the person directly) be constant in your use of voices all throughout the essay.

To get Kyung-bokung, you first get on subway at Kwanaru station of the subway number 5 and get out at Kyung-bokung station. It takes about 10 minutes from the station to the place. You better see three places first, Kyung-bokung, kyung-heegung



and Dok-sugung, because they are near each other. Then visit other three places, Chang-dukung, Chang-kyungung and Un-hyungung. It is difficult to see all places in a day, but I think it may be possible if you hurry up. In the evening, I would like to recommend you see the evening sights in Seoul taking a sightseeing bus. I think that you can reserve the sightseeing bus in the hotel front desk.

The third day morning, depart for Kyung-ju by train at 8 in the morning. Kyung-ju is the old capital of Silla which was once a unified nation divided into three parts. Here are many cultural properties and national treasures such as Bul-Kuk temple, great stone Buda status and grand old tombs. There are also many an archaeological site near the station, so you can see it while walking around that area. As soon as you arrive in Kyung-ju station, walk to Chumsung-dae. That is the place which ancient people observed an asteroid. You may experience the scientific sense of Korean handed down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s.

There are many grand old tombs around there. Especially Chunma-chong, the tomb which was made of wood in the fifth century, a very important archaeological property. Archaeologists excavated the tomb in 1973.

Exposed by excavation in 1973 are the massive remains of tablewares, a gold crown and saddle flap. The saddle flap drawn a horse flying in the sky was first thing in Silla's tomb. They are priceless treasures. They show how they are good painters.

The next day morning I hope you visit Bul-kuk temple and Great Stone Buddha Status. These were built in 774 by person named Kim-Deasung. They count as a masterpiece in the time of the Silla dynasty and are our national heritage well matched as a whole with architecture, geometrics, mathematics, religious and arts. They are registered cultural heritage in UNESCO.

If you want to spend the time effectively at Kyung-ju, I recommend a tourist bus which move from downtown to major tourist destination in a circle. That way you can get a translation service.

There are many scattered old properties in Kyung-ju, and Kyung-ju is really the great

museum itself. So it is impossible to see all sights of Kyung-ju. If you have the extra time, I would like to recommend that you stay more days there. The train returning to Seoul is KTX at 6:30 in the evening. It arrives in Seoul at 10:30 in the evening.

The next morning, if you have enough time, I suggest that you go to Chung-gae Cun which flows through a downtown.

I have not been there yet, but that is a famous place in Seoul.

Your flight to home is the Korean Air line at 5 in the afternoon, so I hope you take a bus to the airport by 1 in the afternoon.

I will reserve the room in the Hotel Sheraton for the four days of your stay. I hope you take a hotel reservation at Kyung-ju and book a KTX ticket according the plan.

**MEMO** Use 'is' instead of 'will be' as that information is already a fact, meaning everybody agrees that it is a famous place and it is not just your opinion

영어식 사고로 쉽게 쓰는  
유소영의 영작 1교시



부록

# 영작 1교시 비밀과외

영어에서의 writing의 중요성은 백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한 편의 좋은 essay가 영미권 학교 입학의 중요한 관문이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영작의 중요성은 크며, 영어의 여러 가지 문맥과 스타일에

익숙해 질 수 있는 긍정적 요소들을 갖고 있습니다.

부록에서는 고급 영작에 대한 테크닉과 최대의 검색엔진 구글([google.com](http://google.com))을 활용하는 법,

그리고 '유소영의 영작기술' 카페에서 네이티브 선생님이 첨삭지도 한

잘못 쓰이는 영작 오류 표현들을 소개합니다.

부록 1 문장에 생동감을 주는 고급영작

부록 2 구글([Google.com](http://Google.com))로 나만의 첨삭 지도 선생님 만들기

부록 3 네이티브가 콕 찝어 준 영작 오류 25



# 고급영작

## 1 • 분사구문 활용

접속사로 연결되는 문장은 분사를 이용해 짧게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since, because, if, when, and 등으로 연결되는 문장은 분사구문을 활용하여 생동감 있는 문장을 만들 수 있는데, 예문을 가지고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상황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 엔지니어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다.

우선 접속사를 이용해 영작을 해 봅시다.

→ Since **he** didn't know the situation, **the engineer** was continuing his job.

접속사로 연결된 문장(복문)을 간단한 문장(단문)으로 짧게 만들 땐 우선 무엇이 메인인지는 분명히 하고, 무엇이 부수적인 부분인지 살펴보세요. 이 문장에서 메인으로 하고 싶은 말은 '그 엔지니어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고, 그 이유를 부수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위 문장은 메인부분도 절(주어+동사)이고, 부수적인 부분도 절입니다. 한 문장에 절이 2개 있기 때문에 이를 복문이라고 합니다.

부수적인 절 : Since **he** didn't know the situation.

메인 절 : **the engineer** was continuing his job.

이제 부수적인 절을 단축하면서 두 절을 하나로 합쳐보겠습니다. 우선 중복이 되는 부분을 없애버립니다. 메인절은 continue란 동작, 부수절은 know라는 동작이 각각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동작은 각각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면 안됩니다. 주어는 한번 볼까요? 별색으로 표기된 he와 the engineer는 같은 사람이므로 둘 중 하나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인 절을 단축한다고 했으므로 he를 없앱니다. 주어가 없어진다면 접속사 since도 쓸 수 없는데, (접속사는 절을 이끄는 데, 주어가 없어진다면 그 문장은 더 이상 절이 아니므로 접속사의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since도 생략합니다. 이제 두 놈을 합치면, didn't know the situation, the engineer was continuing his job의 형태가 되었습니다. 주어는 the engineer이고 동작은

know와 continuing인데, 주어 하나에 동사가 둘일 수 없으므로 두 개의 동사 중 하나는 형태를 양보해야 합니다. 물론 부수적인 절에 속해 있는 know를 건드려야 하겠죠. 분사로 만들어서 knowing으로 변신시키고, know의 성격을 나타냈던 didn't를 적용시키면 **Not knowing the situation**이 됩니다.

→ Not knowing the situation, the engineer was continuing his job.

상황을 잘 몰라서 그 엔지니어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다.

## Daum 카페 '유소영의 영작기술' Real Q & A?

**Q** didn't know에서 didn't는 과거인데 왜 not knowing이라고 하나요? 부정을 뜻하는 not은 반영하면서 과거를 나타내는 did는 왜 반영하지 않나요?

**A** 부사로 연결된 부분의 시제는 자동으로 주절과 맞춰집니다. Not knowing the situation, the engineer was continuing his job. 여길 보면 메인 절에 was가 있죠? Not knowing만 보면 현재형처럼 보이지만 not knowing의 시제는 현재가 아니라 기본형입니다. 기본형 시제는 주절의 시제와 같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메인 절이 과거이기 때문에 not knowing 역시 과거입니다. 기본형의 시제는 현재가 아닌 '당시'라는 시제를 가집니다. 기본형 시제의 모습은 현재형과 같아서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동사를 외울 때 가장 기본으로 외우는 것이 기본형 시제입니다.

## 2 • p.p형 분사구문도 별 것 아니다

일본어로 쓰여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몰랐다.

→ I couldn't understand the manual, because it was written in Japanese.

메인절과 부수절을 나눠 봅시다.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메인이고, 그에 대한 이유나 조건 등을 설명하는 것이 부수절입니다.

I couldn't understand the manual / because it was written in Japanese.

메인절

부수절

공통이 되는 부분은 the manual과 it이죠? 부수절에 있는 it을 생략을 하고 주어 없이 존재 하지 못하는 because도 없앱니다.

I couldn't understand the manual, **was** written in Japanese.

부수절을 짧게 만들 땐 기본형 시제로 바꿔야 하므로



I couldn't understand the manual, **be** written in Japanese.

이제 순서를 바꿔 줄까요? 분사구문에서는 분사로 연결되는 부분이 맨 먼저 옵니다.

**Be written** in Japanese, I couldn't understand the manual.

한 문장에 동사가 두개이므로(be, understand) 둘 중의 하나는 변형합니다. 물론 부수절의 동사를 변형해야죠. 분사로 바꿉니다.

**Being** written in Japanese, I couldn't understand the manual.

부수절은 주어와 동사가 없으므로 더 이상 절이 아니고 구입니다. 그리고 문장 머리에 나오는 being 은 흔히 생략됩니다.

**Written in Japanese, I couldn't understand the manual.**

→ 설명서가 일본어로 쓰여있어 난 무슨 말인지 몰랐다.

흔히들 분사구문은 ~ing형과 p.p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p.p형은 엄밀히 말하면 Being p.p에서 Being이 생략된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영작을 직관적으로 하는 고수의 경우는 생략이니 뭐니 신경 쓰지 않고 '수동의 의미'가 있으면 p.p를 씁니다. 참고로 수동의 의미가 있는지는 주어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 3 • 분사구문을 형용사로 이해하자

앞에서 분사구문이 어떻게 유도되는지 설명을 했는데 너무 문법적인 것 같습니다. 네이티가 분사구문을 쓸 때 위의 상황을 머리 속으로 계산하며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분사구문을 척척 이용할 수 있으려면 분사구문을 형용사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글을 짧게 만들려면 ~ing을 이용하고, 수동의 의미가 있는 경우엔 p.p형을 씁니다. 아래 예문을 몇 개 보시면 감을 좀 잡을 수 있습니다.

시장은 가만 놔두고 있을 때 고객들이 지불하고자 하는 최적의 가격을 결정할 것입니다.

The market will decide the optimal price that customers want to pay when it is left alone.

→ **Left** alone, the market will decide the optimal price that customers want to pay.

가만 놔두면 시장은 고객들이 지불하고자 하는 최적의 가격을 결정할 것입니다.

조건들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그 계약에 동의했다.

We gladly agreed to the contract, because we were satisfied with the conditions.

→ **Satisfied** with the conditions, we gladly agreed to the contract.

조건들이 마음에 들어서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그 계약에 동의했다.

만약 당신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 학교를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까?

If you are given the chance, what new program would you develop to improve our school?

→ **Given** the chance, what new program would you develop to improve our school?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 학교를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까?

만약 네가 현재의 시장점유율을 고려한다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If you consider current market share, it's almost impossible to achieve goal.

→ **Considering** current market share, it's almost impossible to achieve goal.

현재의 시장점유율을 고려한다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만약 네가 다른 은행들의 평균 대출이자 약 6.5%인걸 고려하면, 시티은행은 불법으로 120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

If you consider that the average loan rate offered by other banks is at around 6.5%, it is estimated that Citibank gained 12 billion won in illegal gains.

→ **Considering** that the average loan rate offered by other banks is at around 6.5%, it is estimated that Citibank gained 12 billion won in illegal gains.

다른 은행들의 평균 대출이자 약 6.5%인걸 고려하면, 시티은행은 불법으로 120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들은 공립학교를 망치려는데 만족하지 않는다. 지금 그들은 대학을 망치길 원한다.

They are not satisfied with ruining public schools. And now they want to ruin your colleges.

→ **Not satisfied** with ruining public schools, now they want your colleges.

공립학교를 망치려는데 만족하지 않고 지금 그들은 대학을 망치길 원한다.

예문 중에 나오는 considering, given the chance 등은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생소할 지라도 그냥 넘기시지 말고 챙겨 뒀다가 영작 할 때 꼭 챙겨주세요.





영작을 공부할 때 가장 답답한 것은 과연 내가 쓰는 영작이 맞는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제 경우는 네이티브 친구들에게 이메일 등으로 은근 슬쩍 물어보곤 했었는데, 친구들의 지적이 영작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문법, 표현, 단어 선택 등에서 그간 의례 맞다고 여겨온 것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낮이 뜨거울 정도였습니다.

영작을 물어 볼 만한 네이티브 선생님이 없으면 구글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검색사이트 구글의 주소는 google.com입니다. 헛갈린다 싶으면 google.com에서 검색해 보세요. google.com은 방대한 양의 문서를 검색하기 때문에 내가 쓰고자 하는 표현이 다른 사람들도 쓰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구글의 초기 화면인 홈페이지입니다.



아래 두 표현 중 어느 것이 맞는 지 헛갈린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It was easy for finding.

It was easy to find.

접마음표 안에 확실한 구문을 넣고 google search를 합니다.



'It was easy for finding' 를 검색한 결과 달랑 하나의 구문만 검색됩니다. 이렇게 쓰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아 It was easy for finding는 잘못된 표현 같습니다.



'It was easy to find' 는 어때요? 무려 14만여 건이나 검색이 됩니다. 많은 네이티브들이 쓰고 있는 표현이란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글을 통한 표현 검증은 매우 유용합니다. 그런데 간혹 틀린 표현들도 검색되기도 하는데 검색결과가 얼마나 많은지 확인해 보세요. 몇 백건 미만인 경우는 틀린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더욱더 정확한 표현 검증은 google.com의 News 찾기를 이용해 보세요. news는 대부분 기자들이 쓴 것이어서 어법이나 문법이 정확합니다.

아래에 보니 it was easy to find가 포함된 기사가 존재하네요.



부록 3 >>

## 네이티브가 꼭 짚어준 영작 오류 25

Katherine Oh & Andrew John Ross

다음의 영작 오류는 네이티브 선생님들이 한국인들의 영작질문을 침삭지도해주면서 그 빈도수가 가장 많은 오류들을 간추린 내용입니다. 예문은 '유소영의 영작기술' 카페 회원 중 약 800여명의 글에서 침삭지도 한 글임을 밝혀둡니다.

### 1. 한국어 대신 영어로 글 쓰는 것은 처음입니다.

It's a first time that I write English instead of Korean. (X)

→ It's a first time to write in English instead of Korean. (O)

:: '영어로 글 쓰는 것' 은 전치사 in을 씁니다. write by English라고 잘못 쓰신 분들도 많습니다.

### 2. 가끔 영어공부가 어렵습니다.

I had sometime felt to difficult that I study English. (X)

→ I sometimes feel difficulty in studying English. (O)

:: sometime은 언젠가라는 뜻이며 가끔, 종종을 뜻할 때는 sometimes를 씁니다. 그리고 difficult가 명사형으로 difficulty로 쓰일 땐 전치사 in과 같이 써야 합니다.

### 3. 나는 종종 내가 아는 사람들과 소주를 마시기를 좋아합니다.

I often enjoy to drink the Soju with my friend and person I know. (X)

→ I often enjoy drinking Soju with my friends and acquaintances. (O)

:: 한 단어로 해결할 수 있는 표현은 한 단어로 해결합니다. person I know처럼 길게 풀어 줄 필요가 없습니다.

### 4. 언어능력 외에도 높은 토플성적이 필요합니다.

I need to be high Toefl score adding Linguistic skill. (X)

→ I need to have a high Toefl score in addition to Linguistic skills. (O)

:: adding은 '덧붙여' 라는 뜻입니다. ~외에는 in addition to가 어울립니다.

### 5. 유소영의 영작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I entered into You So Young's writing class. (X)

→ I joined You So Young's writing class. (O)

:: 수업, 강의 등을 수강하는 것은 join을 써서 표현 합니다.



## 6. 컴퓨터 엔지니어링을 전공했습니다.

My major was computer engineering. (X)

→ I majored in computer engineering. (O)

:: 'My major was computer engineering' 는 '예전에 전공이 컴퓨터엔지니어링 이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듣는 사람은 '지금 전공은 다른 것인가 보군' 이라고 생각합니다.

## 7. 이것 참 재미있네요.

It's very interesting things to me. (X)

→ I find it very interesting. (O)

:: 흥미로운 것을 표현할 때 네이티브들은 I find it의 형태를 잘 씁니다.

## 8. 등산하는 사람들이 종종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People climbing mountain frequently doesn't matter about it. (X)

→ People climbing mountain frequently doesn't care about it. (O)

:: care는 '주의하다' 의 뜻이고 matter는 '중요하다' 란 뜻입니다.

## 9. 이 책은 최신정보를 담고 있지 않아.

This book doesn't have lately information. (X)

→ This book doesn't have the latest information. (O)

:: lately는 부사입니다. 명사 information과 같이 쓸 수 없습니다.

## 10. 오늘은 토요일인데도 우리 회사는 쉬지 않아.

Today is Saturday, but our company has not off. (X)

→ Today is Saturday, but our company did not have a day off. (O)

:: 하루 쉬는 것은 하루(a day)를 off 한다고 표현합니다.

## 11. 일본어로 쓰여진

written Japanese word. (X)

→ written Japanese words. (O)

:: 단어 하나로 글이 쓰여있지는 않기 때문에 words 라고 해야 맞습니다.

## 12. 음식을 좀 가지고 오렴.

You'd better take some foods. (X)

→ You'd better bring some foods. (O)

:: take는 '가지고 가다' 이고 bring은 '가지고 오다' 입니다.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가고(take), 오고(bring)을 따져야 합니다.

## 13. 어떤 역에서 갈아 타야 하는지 기억해줘.

Remember what station you should change the line. (X)

→ Remember at what station you should transfer lines. (O)

:: change는 '바꾸다, 교환하다' 의 뜻이며 '갈아타다' 는 transfer를 씁니다.

## 14. 창문 너머로 한강이 보인다.

I can see the Han river throughout windows. (X)

→ I can see the Han River through windows. (O)

:: Throughout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의 뜻입니다.

## 15. 그녀는 지금 통화를 하고 있다.

She is calling a phone now. (X)

→ She is talking on her phone now. (O)

:: calling은 전화를 걸고 있는 것 (호출하는 것)이며 통화를 하는 것은 '전화기 상에서 대화하다' 라고 표현합니다. '전화를 걸고 있다' 와 '통화를 하고 있다' 는 구분 해야 합니다.

## 16. 다음 역이 제가 내려야 할 역입니다.

The next station is my arrival. (X)

→ The next station is my destination. (O)

:: arrival은 동사 도착하다(arrive)의 명사형으로 '도착' 입니다. '도착지' 처럼 장소를 뜻하는 단어는 destination입니다.

## 17. 내가 참석 할 수 있는지 시간을 좀 알아 볼게.

I'll check their time if I could join it. (X)

→ I'll check their schedule if I could join it. (O)

:: '시간을 좀 알아보다' 라는 표현은 영어에는 없습니다. '시간표, 스케줄을 알아 본다' 라고 해야 합니다.

## 18. 내 보고서에 문제가 있다.

I am in trouble in my report. (X)

→ I have trouble with my report. (O)

:: '문제가 있다' 는 '문제를 가진다' 라고 표현해 주며 전치사 with를 씁니다.

## 19. 네, 저는 기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Yes, I believe miracles. (X)

→ Yes, I believe in miracles. (O)

:: 신의 존재를 믿거나 가치를 인정하는 것, 신뢰하는 것 등은 believe in을 씁니다. 반면 believe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 It is also believed that eyesight will be able to be enhanced by this advancement. - 또한 이번 성과에 의해 시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믿어진다.)

20. 네 계산기 좀 빌려 줄래?

May I lend your calculator? (X)  
→ May I borrow your calculator? (O)  
:: 빌려주는 것은 lend이고 빌리는 것은 borrow입니다. 물건의 전달 방향을 떠올리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borrow  
는 물건이 나에게 오고 lend는 나에게서 멀어 집니다.

21. 그는 이전의 결정을 뒤집을 것을 요구했다.

He claimed a reversal of a previous decision. (X)  
→ He demanded a reversal of a previous decision. (O)  
:: claim은 법적으로 정당한 요구를 할 때 씁니다. 일반적인 요구사항은 demand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22. 이건 돈이 배로 든다

It would price twice as much as that. (X)  
→ It would cost twice as much as that. (O)  
:: price는 명사로 쓰이며 동사로 쓰지 않습니다. '비용이 얼마 든다' 는 cost로 해야 합니다.

23. 난 그 수업에서 전혀 관심을 가질 수 없었다.

I was completely disinterested in that class. (X)  
→ I was completely uninterested in that class. (O)  
:: disinterested는 개인적인 사심(interest)이 없다는 뜻입니다. 사심이 없으니 공정하겠죠? 'I was completely  
disinterested in that class' 는 '난 그 수업에서 공정했다' 라고 해석됩니다.

24. 그 남자는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He is forbidding people to enter. (X)  
→ He is preventing people from entering. (O)  
:: forbid는 금지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막다, 방해하다' 는 prevent가 맞습니다.

25. 광고는 제작비가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수백만 달러를 들이지 않고도 몇몇 주요 시장을 집중  
적으로 공략할 수 있습니다.

For production costs for radio ads are low, you can afford to saturate a few major markets  
without spending millions of dollars. (X)  
→ Because production costs for radio ads are low, you can afford to saturate a few major  
markets without spending millions of dollars. (O)  
:: '이유' for는 앞에서 한번 언급한 내용의 이유를 말할 때 씁니다. 문장 처음에는 쓰지 않습니다.



영 어 식 사 고 로 쉽 게 쓰 는 유 소 영 의 영 작 1 교 시

초보가  
꼭

알아야 할 영작 명심보감



영어식 사고방식을 갖으려 노력하자.  
우리말을 그대로 영어로 옮기려 하지 말라.  
기본단어 활용에 강해지자.  
논리력이 강해야 우리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 한다.  
문법적 용어에 집착하지 말라.  
자신이 영작한 것은 가급적  
고수의 피드백을  
받아라.

값 : 12,000원

